

전라북도 먹거리 종합계획 추진전략 연구

A Study of Execution Strategies for a Comprehensive Food Plan in Jeollabuk-do

황영모 정호중 이병훈



Jeonbuk Institute

정책연구

2022-28

전라북도 먹거리 종합계획 추진전략 연구

A Study of Execution Strategies for a Comprehensive Food Plan in Jeollabuk-do

황영모 정호중 이병훈

연구진 및 연구 세부 분담

연구책임	황영모	연구위원	연구총괄, 제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부록
공동연구	정호중	전문연구원	제3장(1절~9절), 4장(1절~7절), 6장(8절), 부록
	이병훈	전문연구원	제3장(1절~3절), 4장(8절~14절)

자문위원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
	김영재	(전)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사무국장
	송원규	농민농업정책연구소 부소장
	정천섭	지역파트너플러스 대표
	조성근	전북먹거리연대 집행위원장
	유정희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센터장

연구관리 코드 : 22JU18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으로서
전북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1. 연구 목적 및 방법

■ 연구목적

- ‘먹거리 종합계획’은 ‘지역 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영역에서의 ‘먹거리 종합전략’으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 먹거리 계획’의 수립과 시행이 확산되고 있음
- 이 연구는 ‘전라북도 먹거리 기본조례’에 의거한 ‘먹거리 종합계획’에 다루어야 할 ‘기본방향, 추진전략, 운영체계, 부문별 실행계획’ 등 주요내용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 연구방법

- 지역 먹거리 체계와 먹거리 종합전략의 기본개념, 주요내용, 정책방향 등을 정립하기 위해 선행연구, 정책연구 보고서, 정책자료 등 검토하였고, 지역의 실행여건 분석을 위해 먹거리 관련 통계자료와 시·군 먹거리 계획자료 등을 검토·분석하였음
- 전라북도 먹거리 종합전략의 추진방향, 전략체계, 중점과제 등을 마련하기 위해 로컬푸드·학교급식·식생활 교육 등의 전문가·활동가가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진행하였음

2. 결론 및 정책제언

■ 전략체계

- 계획비전 : “도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는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
- 추진목적 : ①먹거리 ‘공공성’ 강화, ②먹거리 ‘접근성’ 확대, ③정책의 ‘실행력’ 확립
- 전략체계 : 목적 달성을 위해 (7대)추진전략+(21대)실행과제+(69개)세부사업으로 구성

■ 핵심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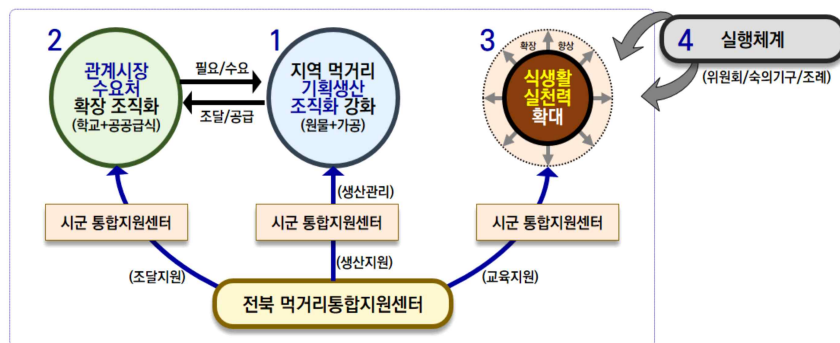
- 정책실행 여건(현장+행정)을 고려, 목적 달성에 중요한 내용을 ‘(4대)핵심과제’로 정함

- ①지역 먹거리(원물+가공) '생산력'(조직화+생산량+품목) 강화, ②'공공형 관계시장'(학교·공공·복지·직거래) '공공성' 확대, ③도민 '먹거리 이해력' 강화, ④추진체계 '정책 실행력' 확립

〈전라북도 먹거리 종합계획의 전략체계와 실행과제〉

비전	도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는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	
목적	✓먹거리 '공공성' 강화	→ 공공 먹거리의 생산~공급~소비구조 안정화 → 공공급식과 먹거리 돌봄의 확대와 강화
	✓먹거리 '접근성' 확대	→ 지역 먹거리의 접근·이용·소비 여건의 강화 → 식생활 교육과 도농상생 사회적 관계망 확립
	✓정책의 '실행력' 확립	→ 지역 먹거리 정책 거버넌스 확립과 내실화 → 먹거리 정책조정·협력과 도민참여 구조 마련
추진 전략·실행 과제	추진전략 (7대)	실행과제 (21대) (69개 세부사업)
	① (기획생산) 기획생산·지역가공 강화	(1) 지역 먹거리 기획생산·조직화의 강화 (2) 지역 먹거리 가공식품 확대와 활성화 (3) 지역 먹거리 안전성관리시스템 구축
	② (공공급식) 학교급식·공공급식 확대	(4) 학교급식의 지역 먹거리 강화 (5) 공공급식의 지역 먹거리 확대 (6) 공공먹거리통합정보시스템 구축
	③ (식생교육) 식생활·식생태교육 강화	(7) 학교교육 식생활·식생태 교육 강화 (8) 사회교육 식생활·식생태 교육 확대 (9) 식생활교육전문기관·전문인력 육성
	④ (복지돌봄) 먹거리 돌봄·나눔 확산	(10) 미래세대 먹거리 돌봄 강화 (11) 취약계층 먹거리 돌봄 확대 (12) 먹거리 나눔의 촉진과 확대
	⑤ (상생교류) 도농상생·도시농업 확대	(13) 대도시·도농상생 공공급식 확대 (14) 지역 내 먹거리 교류·체험 확대 (15) 도시농업 촉진과 폐기·순환 추진
	⑥ (소비거점) 로컬푸드 관계거점 강화	(16) 로컬푸드 직매장 기능 활성화 (17) 마을부엌 확대와 운영 활성화 (18) 지역식당에 지역 먹거리 공급
	⑦ (거버넌스) 도민참여 실행체계 구축	(19) 먹거리 거버넌스 체계 확립과 운영 (20)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21) 먹거리 정책 홍보·관리와 개선체계

〈전라북도 먹거리 종합계획의 4대 핵심과제〉



차 례

CONTENTS

요약	i
----------	---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6

제2장 먹거리 전략 논의와 정책동향

1. 먹거리 전략 내용 검토	11
2. 지역 먹거리 전략 방향	18
3. 먹거리 전략 정부 정책	28

제3장 전북 먹거리 관련 자원 검토

1. 지역생산	41
2. 지역가공	46
3. 지역유통	49
4. 지역소비	52
5. 학교·공공급식	56
6. 음식물 폐기	60
7. 사회복지	62
8. 영양관리	65
9. 식생활 교육	66
10. 추진체계	69

제4장 시·군 먹거리 계획 주요현황

1. 전주시	75
2. 군산시	78
3. 익산시	80
4. 정읍시	82
5. 남원시	84
6. 김제시	86
7. 완주군	88
8. 진안군	91
9. 무주군	92
10. 장수군	94
11. 임실군	95
12. 순창군	97
13. 고창군	98
14. 부안군	101
15. 종합검토	103

제5장 전북 먹거리 종합계획 기본방향

1. 계획수립의 근거	111
2. 기본개념과 성격	113
3. 기본방향	116
4. 비전과 목적	118

차 례

CONTENTS

5. 전략체계	120
6. 추진전략	121
7. 핵심과제	126
8. 성과목표 검토	133

제6장 전북 먹거리 종합계획 추진전략과 중점과제

1. 기획생산·지역가공 강화	137
2. 학교급식·공공급식 확대	141
3. 식생활·식생태 교육 강화	144
4. 먹거리 돌봄·나눔 확산	147
5. 도농상생·도시농업 확대	150
6. 로컬푸드 관계거점 강화	153
7. 도민참여 실행체계 구축	156
8. 관리방안과 실행체계	160

참고문헌	162
------------	-----

영문요약 (Summary)	167
----------------------	-----

부록	169
----------	-----

중점과제별 세부사업	171
------------------	-----

표 차례

LIST OF TABLES

[표 1-1] 전라북도 14개 시·군 먹거리 계획 등 주요 현황	4
[표 1-2] 연구의 주요내용	6
[표 3-1] 전라북도 농가 및 농가인구 추이	42
[표 3-2] 전라북도 경지면적 추이	42
[표 3-3] 전라북도 농림어업 생산액 추이	42
[표 3-4] 경지규모별 농가 추이	43
[표 3-5] 농축산물 판매규모별 농가 비중 (2019년 기준)	43
[표 3-6] 품목 부류별 재배면적 추이	44
[표 3-7]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출하량+농가수 추이	45
[표 3-8] 축종별(5대) 농장수 및 마리수	45
[표 3-9] 농산물+축산물+수산물 생산수준(전국 대비)(2019년 기준)	46
[표 3-10] 농축산물 가공법인 추이	47
[표 3-11] 식품가공 및 제조업체 추이	47
[표 3-12] 식품가공 및 제조업 세부내역별 종사자+출하액+부가가치(2020년 기준)	47
[표 3-13] 향토산업육성사업 선정 현황(2020년 기준)	48
[표 3-14]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선정 현황(2020년 기준)	48
[표 3-15]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 현황(2020년 기준)	48
[표 3-16]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현황(2021년 1월 기준)	49
[표 3-17]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현황과 출하처+출하량(2021년 기준)	50
[표 3-18] 지방도매시장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추이	51
[표 3-19] 지방도매시장 내 친환경농산물 거래실적 추이	52
[표 3-20] 도민의 가계지출 구조와 소비생활 만족도(2020년 기준)	53
[표 3-21] 전라북도 로컬푸드 직매장 현황	54
[표 3-22] 전라북도 시·군별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현황(2020년 기준)	54
[표 3-23] 전라북도 생생장터 운영실적 추이	56
[표 3-24] 학교급식 지원 농산물의 공급량과 공급액	57
[표 3-25] 시·군별 학교급식 농산물 공급현황(2020년 기준)	58
[표 3-26] 전라북도 학교급식(공공급식 등) 공급조직 및 농가조직화 현황	58
[표 3-27] 전라북도 공공급식 대상기관 주요현황	59
[표 3-28] 전라북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주요현황(2021년 기준)	60

표 차례

LIST OF TABLES

[표 3-29]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61
[표 3-30]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현황	61
[표 3-31]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지역별 현황	62
[표 3-32] 사회적 취약계층 현황	63
[표 3-33] 복지급식 예산과 사업, 푸드뱅크+푸드마켓 현황	64
[표 3-34] 아침결식 예방인구 비율과 영양표시 활용율	65
[표 3-35] 청소년 아침식사 결식률과 패스트푸드 섭취율	66
[표 3-36]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현황	67
[표 3-37]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현황(2022년 기준)	67
[표 3-38] 지역별 먹거리 종합계획 추진에 관한 주요현황	70
[표 3-39] 지역별 먹거리 관련 주요 조례 현황	70
[표 3-40] 전북 먹거리 관련 자원진단 종합	72
[표 4-1] 전주시 로컬푸드 직매장 현황	76
[표 4-2] 군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현황	78
[표 4-3] 익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현황	81
[표 4-4] 정읍시 로컬푸드 직매장 현황	83
[표 4-5] 남원시 로컬푸드 직매장 현황	85
[표 4-6] 김제시 로컬푸드 직매장 현황	87
[표 4-7] 완주군 로컬푸드 직매장 현황	89
[표 4-8] 진안군 로컬푸드 직매장 현황	91
[표 4-9] 완주군 로컬푸드 직매장 현황	94
[표 4-10] 순창군 로컬푸드 직매장 현황	97
[표 4-11] 고창군 로컬푸드 직매장 현황	99
[표 4-12] 부안군 로컬푸드 직매장 현황	101
[표 4-13] 시·군 먹거리 계획 관련 주요현황 종합	108
[표 5-1] 전라북도 먹거리 종합계획의 기능과 역할	115
[표 5-2] 전라북도 먹거리 종합계획 비전·목적·전략체계	120
[표 5-3] 기획생산이 필요한 주요 식재료 품목(안)	127
[표 5-4] 마을부역의 주요기능과 세부활동(안)	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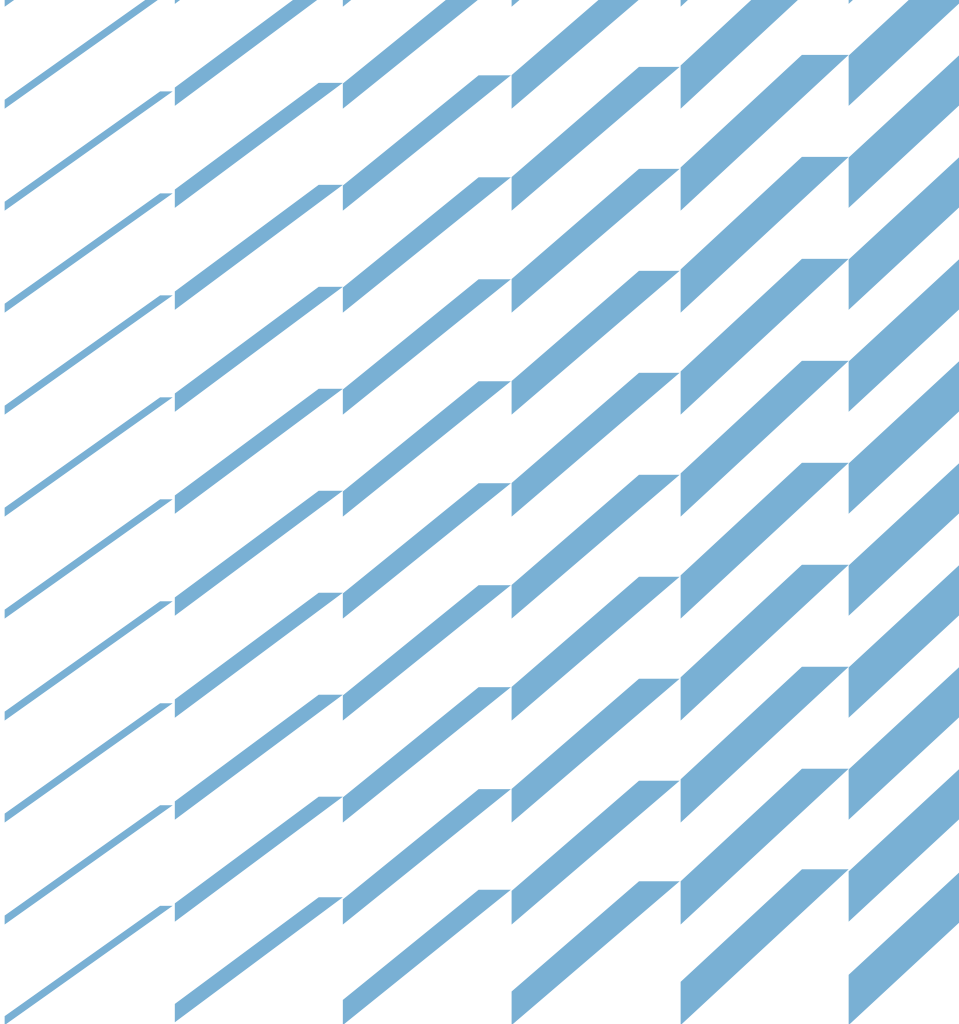
[표 5-5] 전라북도 먹거리 종합계획의 성과목표	133
[표 6-1] ‘기획생산·지역가공 강화’ 추진전략, 중점과제와 세부사업	137
[표 6-2] ‘학교급식·공공급식 확대’ 추진전략, 중점과제와 세부사업	141
[표 6-3] ‘식생활·식생태교육 강화’ 추진전략, 중점과제와 세부사업	144
[표 6-4] ‘먹거리 돌봄·나눔 확산’ 추진전략, 중점과제와 세부사업	147
[표 6-5] ‘도농상생·도시농업 확대’ 추진전략, 중점과제와 세부사업	151
[표 6-6] ‘로컬푸드 관계거점 강화’ 추진전략, 중점과제와 세부사업	154
[표 6-7] ‘도민참여 실행체계 구축’ 추진전략, 중점과제와 세부사업	157
[표 7-1] 추진전략 및 중점과제별 세부사업 (1/3)	171
[표 7-2] 추진전략 및 중점과제별 세부사업 (2/3)	172
[표 7-3] 추진전략 및 중점과제별 세부사업 (3/3)	173

그림 차례

LIST OF FIGURES

[그림 2-1] 먹거리 체계의 순환적 구조와 먹거리 전략의 구성요소	14
[그림 2-2] 먹거리 정책을 둘러싼 주체와 정책결정의 구조	17
[그림 2-3] 지역 먹거리 전략의 정책구조 및 체계 모형	19
[그림 2-4] 지역 먹거리 체계와 전략에서의 세부과제	21
[그림 2-5] 로컬푸드 생산~소비체계의 구조	28
[그림 2-6] 농림축산식품부 '로컬푸드 확산 3개년 계획' 주요내용	29
[그림 2-7] 지역 푸드플랜을 통한 생산~소비체계 구조	30
[그림 2-8] 농림축산식품부 '지역 푸드플랜 정책' 주요내용	30
[그림 2-9] 지역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 등의 주요내용	31
[그림 2-10] 지역 푸드플랜에 기반한 지역 먹거리 생산·소비 순환체계	33
[그림 2-11] 생애주기 먹거리 돌봄 강화	34
[그림 2-12] 생애주기별 식생활 교육의 주요골자	34
[그림 2-13] 음식 폐기물의 처리 단계 및 활용구조	35
[그림 2-14] 국가 식량계획의 주요내용	36
[그림 3-1] 지역 먹거리 체계에 따른 먹거리 자원진단의 틀	41
[그림 3-2] 품목 부류별 생산량 추이	44
[그림 3-3]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군별 현황	49
[그림 3-4] 기간별 가구당 식료품비의 연평균 증가율	53
[그림 3-5] 전라북도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별 분포	54
[그림 3-6] 전라북도 학교급식의 일반적인 운영체계	57
[그림 3-7] 취약계층의 연도별 추이와 필요 노인요양서비스 수요	63
[그림 3-8] 지역별 식생활 교육 전문교육 기관 현황(2022년)	68
[그림 3-9] 식생활 교육 전문교육 기관의 교육운영 실적	68
[그림 3-10] 먹거리 계획의 시·군별 수립 현황	69
[그림 4-1] 전주시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현황	77
[그림 4-2] 군산시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현황	79
[그림 4-3] 익산시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현황	81
[그림 4-4] 정읍시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현황	84
[그림 4-5] 남원시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현황	85

[그림 4-6] 김제시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현황	88
[그림 4-7] 완주군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현황	90
[그림 4-8] 진안군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현황	92
[그림 4-9] 무주군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현황	93
[그림 4-10] 장수군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현황	95
[그림 4-11] 임실군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현황	96
[그림 4-12] 순창군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현황	98
[그림 4-13] 고창군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현황	100
[그림 4-14] 부안군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현황	102
[그림 5-1] 지역 먹거리 전략의 구조와 지역생산-지역소비 순환구조	113
[그림 5-2] 먹거리 종합계획 전략의 범위	114
[그림 5-3] 전라북도 먹거리 종합계획의 추진방향	116
[그림 5-4] 추진전략의 논리단계와 기본구조	121
[그림 5-5] 추진전략과 목적의 관계	125
[그림 5-6] 핵심과제의 주요내용과 구조	126
[그림 5-7] 지역 먹거리 '생산력' 강화를 위한 단계와 영역	127
[그림 5-8] 전라북도 먹거리 통합관리 플랫폼 모식도	128
[그림 5-9] 공공급식의 단계별 지역 먹거리 공급 확대	129
[그림 5-10] 먹거리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한 부족·잉여 품목 지역간 연계	129
[그림 5-11] 지역 먹거리 생산-소비 통합물류 체계 구축 모식	130
[그림 5-12] 먹거리 이해력의 실천 영역	131
[그림 5-13] 전라북도 먹거리 종합계획 추진체계	132
[그림 5-14] 전라북도 먹거리 종합계획의 성과목표(예시)	133
[그림 6-1] 전라북도 먹거리 종합계획의 실행 및 관리체계	161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 먹거리 종합계획은 ‘먹거리로 인한 사회적 문제 등을 지역 단위에서 먹거리 체계를 새롭게 재구축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으로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영역에서의 계획적 대응 전략이자 실행계획’임 (황영모 외, 2020)
- ‘먹거리 종합계획’은 지난 정부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왔는데, ‘지역 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영역에서의 ‘먹거리 종합전략’으로, 정부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지역 먹거리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음
 - 먹거리 종합계획은 전주시 ‘전주푸드플랜’(2015년)으로 시작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푸드플랜 수립’을 지원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총 141개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먹거리 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시행하고 있음
 - 전라북도에서는 전체 14개 시·군 중 13개 시·군(진안군 수립 중)이 ‘먹거리 종합계획(푸드플랜)’ 수립 연구 용역을 완료하고,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
- 광역 단위에서 ‘먹거리 종합계획’은 이러한 먹거리 체계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먹거리 종합전략’으로서 위치를 짓고, 기초지자체의 먹거리 계획 등을 연계-종합-조정하는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 첫째, 지역 농산물의 원활한 학교급식·공공급식 공급체계와 지역별 먹거리 거버넌스 구축 등 실행역량 구축을 위해서는 먹거리 종합전략으로서의 ‘전라북도 먹거리 종합계획’을 실행계획 수준으로 수립해야 함
- 둘째, 각 기관(부서)별로 먹거리 관련 정책(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먹거리 종합전략으로 연계·통합되지 못하고 지역 먹거리 체계의 관점에서 정책사업의 기능이 분리되고 있어 정책수단의 연계·통합·조정을 위한 종합전략 마련이 필요함

[표1-1] 전라북도 14개 시·군 먹거리 계획 등 주요 현황

구 분	먹거리 계획 마련	로컬푸드직매장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담당부서
전주시	수립 완료('15년)	6	재단-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먹거리정책과
군산시	수립 완료('18년)	2	재단-군산먹거리통합센터	먹거리정책과
익산시	수립 완료('19년)	3	재단설립, 익산원협	농산유통과
정읍시	수립 완료('21년)	3	정읍시친환경연합	농수산유통과
남원시	수립 완료('21년)	2	남원원협, 남농(주)	원예산업과
김제시	수립 완료('19년)	3	지평선친환경급식(협)	먹거리활력과
완주군	수립 완료('18년)	12	재단-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먹거리정책과
진안군	준비 중	2	진안로컬푸드(영)	농축산유통과
무주군	수립 완료('20년)	-	무주농협	농촌활력과
장수군	수립 완료('20년)	-	장수친환경영농조합	농축산유통과
임실군	수립 완료('21년)	-	-	농촌활력과
순창군	수립 완료('21년)	1	순창농협	농축산과
고창군	수립 완료('20년)	1	고창친환경연합	농촌활력과
부안군	수립 완료('20년)	2	하서미래영농조합	농업정책과

자료 : 전라북도 내부자료

- 셋째, 먹거리 종합계획은 먹거리와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인해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한 적절한 균형점에서의 정책추진이 불가피한데, 이로 인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먹거리 거버넌스’를 전제로 하고 있어 이를 위한 운영방안 마련도 요구됨
- 한편 전라북도(도의회)는 2021년 ‘전라북도 먹거리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먹거리 종합 계획’ 수립과 시행의 근거를 자치법규에 반영 마련하였는데, 이에 따른 전라북도 먹거리 종합계획을 실행계획 수준의 행정계획으로 마련해야 할 시점임
 - ‘전라북도 먹거리 기본조례’(전라북도조례 제5058호)
 - 제8조(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시행) ①도지사는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전라북도 먹거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먹거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
 2. 분야 및 단계별 추진목표, 실행계획 및 핵심과제
 3. 전라북도 먹거리 위원회 등 민관협력 체계 구축과 운영
 4.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이 연구는 ‘전라북도 먹거리 기본조례’에 의거하여 ‘먹거리 종

합계획’을 ‘기본방향, 추진전략, 운영체계, 부문별 실행계획’ 등에 관하여 주요내용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 연구목적과 기대효과

- 이 연구는 ‘전라북도 먹거리 기본조례’에 의거하여 수립해야 할 ‘먹거리 종합계획’의 근거를 마련하는 정책연구임
- 구체적으로 ‘전라북도 먹거리 기본조례’에 의거한 먹거리 종합계획으로서 먹거리 종합계획의 ‘기본방향, 추진전략, 운영체계, 부문별 실행계획’ 등의 주요내용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 전라북도를 공간적 범위로 하는 ‘지역 먹거리 체계’ 구축이라는 지향점을 가지면서, 먹거리 기본조례에 따라 먹거리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할 공공영역(행정)에서의 실행계획의 세부내용을 마련하는 연구임
- 이 연구결과의 기대효과로는 첫째,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광역 지자체가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광역단위 먹거리 종합계획’을 실행계획(행정계획) 수준에서 마련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임
- 둘째, 전라북도 먹거리 기본조례 제정 이후 조례에 의거 수립·실행해 나갈 ‘전라북도 먹거리 종합계획’ 주요내용을 마련하여 전라북도 먹거리 위원회 운영의 논의자료로 활용될 것임
- 셋째, 각 기관(부서)별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먹거리 종합전략의 관점에서 연계되지 못하는 정책여건에서 정책간 연계와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실행과제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넷째, 먹거리 가치사슬의 여러 현장적 실천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의 다양한 먹거리 관련 활동주체가 공동으로 지역 먹거리 체계 구축에 필요한 시기적·지역적 실천과제의 기본 골격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함

2.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가. 연구내용

- 이 연구에서 다루는 연구내용은 5가지 영역으로,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지역 먹거리 전략에 관한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과 과제를 논의하고, 지역 먹거리 계획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동향을 검토하여 계획 구상의 주요 배경으로 삼음
- 둘째, 먹거리와 관련한 전라북도의 주요 자원 현황을 검토하고, 시·군별 먹거리 계획의 현황을 살펴 먹거리 종합계획의 구상과 추진전략 마련의 근거로 삼고자 함
- 셋째, 여러 층위에서 검토해온 먹거리 종합전략의 논의를 토대로 전라북도 먹거리 종합계획의 기본방향을 정립하여 전라북도 먹거리 종합계획의 범위와 역할을 제시하고자 함
- 넷째, 전라북도 먹거리 종합계획의 기본방향을 토대로 행정계획으로 추진할 전략체계를 ‘비전, 목표, 추진전략, 핵심과제, 추진체계’ 등으로 구분하여 마련하고자 함
- 다섯째, 먹거리 종합계획의 전략체계에 따라 부문별 중점과제 마련, 중점과제별 세부 사업을 실행계획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자원 등을 검토하여 제시하고자 함

[표1-2] 연구의 주요내용

연구영역	연구 주요내용	연구방법
① 동향논의	○ 먹거리 전략(체계)에 관한 주요 내용과 과제를 논의하고 지역 먹거리 계획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동향을 검토	자료분석 전문가 자문
② 현황분석	○ 먹거리 가치사슬 체계와 정책목표를 고려하여, 전라북도 수준에서의 먹거리 관련 주요 (자원)현황을 분석	자료분석 전문가 자문
③ 방향정립	○ 먹거리 전략·계획의 주요논의와 관련계획 등을 검토하여 전라북도 계획의 기본방향, 성격, 범위 등을 정립	자료분석 전문가 자문
④ 전략체계	○ 먹거리 기본조례에 따른 먹거리 종합전략의 전략체계를 비전, 목표, 전략, 과제 등으로 마련	자료분석 전문가 자문
⑤ 분야계획	○ 전략체계에 따른 핵심 추진전략별로 핵심과제, 중점과제를 정책사업 수준에서 작성하여 제시	자료분석 전문가 자문
⑥ 추진체계	○ 전략체계+분야계획을 고려하여 먹거리 기본조례에 명시한 추진체계에 따른 실행방안을 제안	전문가자문

- 여섯째, 전라북도 먹거리 기본조례에 제시하고 있는 먹거리 종합계획의 추진체계를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실행체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내용을 마련하고자 함

나. 연구방법

- 이상의 주요 연구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이 연구는 ‘①선행연구·자료검토, ②전문가 자문회의, ③관계자 세미나’ 등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음

① 선행연구와 자료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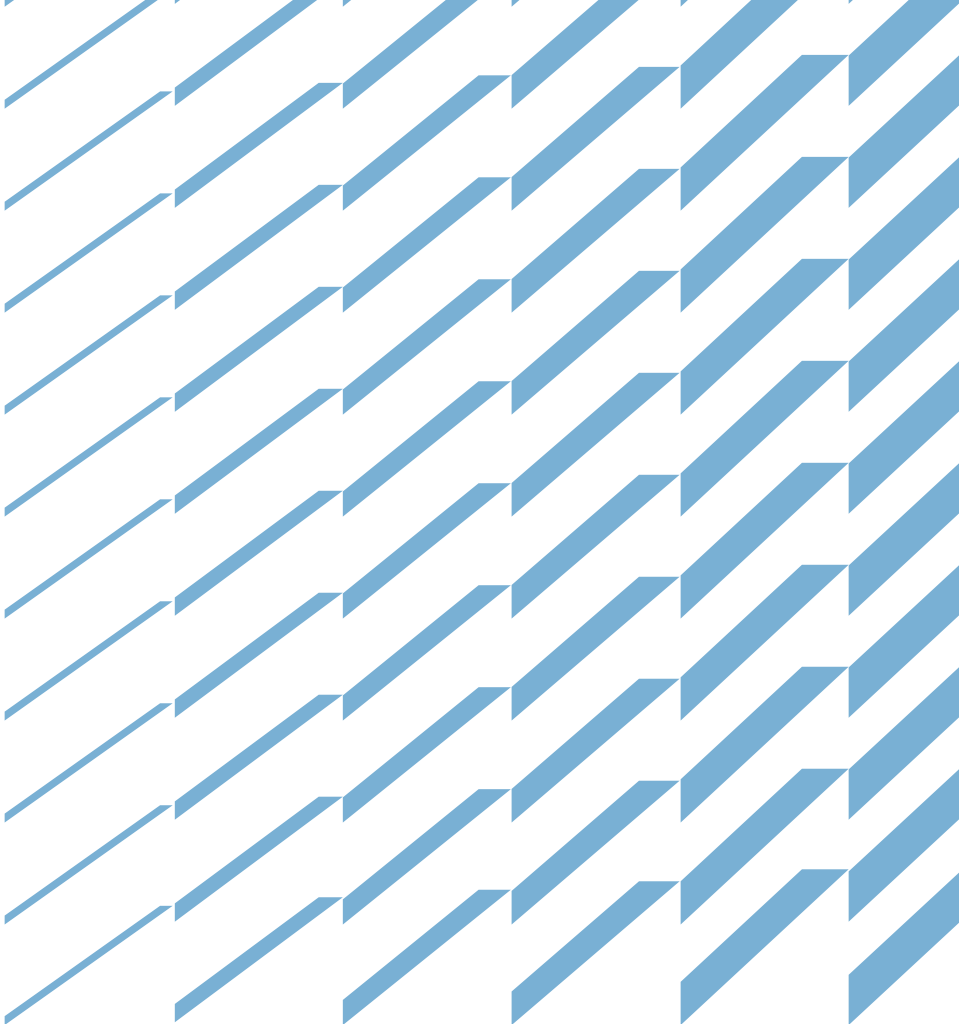
- 지역 먹거리 체계, 푸드플랜, 먹거리 종합전략 등에 관련한 주요 선행연구 및 정책연구 보고서 등 검토
- 전라북도와 교육청 등 먹거리와 관련한 기관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정책 및 세부사업에 관한 자료 등을 검토

② 전문가 자문회의

- 푸드플랜, 먹거리 전략, 로컬푸드, 학교급식, 식생활 교육 등 영역의 전문가, 활동가, 도의원 등이 참여하는 자문회의 개최
- 전국의 푸드플랜 추진 여건과 전라북도 시·군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전라북도 먹거리 종합계획이 답아야 할 영역, 추진전략, 핵심과제 등에 대한 의견과 제안 반영

③ 관계자 세미나

- 전라북도 먹거리 종합전략에서 다루어야 할 중점영역·전략체계와 관계된 핵심 이해관계자(공무원, 사업주체, 연구자, 활동가, 관계자 등)가 참여하는 전문가 세미나 개최
- 지역적·시기적 수준에서 전라북도 먹거리 종합계획을 실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추진전략·핵심과제 세부내용 등에 대한 의견 교류에 중점



제2장

먹거리 전략 논의와 정책동향

1. 먹거리 전략내용 검토
2. 지역 먹거리 전략 방향
3. 먹거리 전략 정부 정책



제2장 먹거리 전략 논의와 정책동향

- 이 장에서는 ‘먹거리 종합계획’과 관련한 이론적 논의와 정책동향을 사전적으로 검토하여 전라북도 먹거리 종합계획에서 다루는 내용과 전략체계 구상의 근거로 삼고자 함
- 첫째, 먹거리 종합계획은 지역 먹거리 체계 구축을 지향하므로, 먹거리 종합계획의 전제가 되는 ‘먹거리 체계의 개념, 먹거리 전략의 주요내용’을 개괄하여 살펴보고자 함
- 둘째, 이를 토대로 정책계획(행정계획)으로 실행해 나가는데 있어 필요한 먹거리 종합계획의 ‘추진방향, 정책구조, 정책영역, 정책수단’ 등을 구조적으로 검토하고자 함
- 셋째,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그동안 정부(농림축산식품부 중심)가 추진해온 먹거리 정책과 관련한 ‘로컬푸드, 푸드플랜(농림축산식품부 정책용어)’에 관한 정책을 살펴보고, 주요 정책성과를 대별하여 정리하고자 함

1. 먹거리 전략, 주요내용 검토1)

가. 먹거리 체계의 개념

- 일반적으로 ‘먹거리 체계(food system)’은 ‘농장·생산자(farm & producer)로부터 식탁·소비자(table & consumer)에 이르는 먹거리(food) 이동’을 다루는 개념으로 파악되어 왔음
 - 먹거리 체계에는 먹거리를 생산하고 가공하는 ‘사람(who)’, 공공에게 먹거리를 공급하는 ‘현장(venue)’, 먹거리를 받고 소비하는 ‘방법(way)’이 전반적으로 포함되어 있음 (황영모, 2015)
- 먹거리 체계는 먹거리와 관련된 생산(producing), 가공(processing), 유통(distribution), 접근(access), 소비(consumption), 조리(cooking),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waste management) 등을 둘러싼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음 (황영모 외, 2019)

1) 이 내용은 황영모(2015), 황영모(2016), 황영모 외(2019)에서 정리하였음

- 지금까지의 먹거리 체계는 산업적 규모로 농생명 기술에 의존하여 양산되어 공급되는 먹거리가 대량으로 생산되고 가공되어 유통되는 체계로 파악되어 왔는데, 이것이 이른바 ‘관행적 먹거리 체계’(conventional food system)임 (황영모, 2015)
 - 관행적 먹거리 체계는 산업적 자본과 농생명 기술에 의존하여 먹거리를 공급하기 때문에 식재료 등의 ‘이동거리’는 장거리가 기본이 되어, 환경은 물론 지역경제와 소비자의 건강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먹거리 황무지’(food desert)로 평가·일컬어져 왔음
- 관행적 먹거리 체계가 야기하는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안티테제(antithese)로서 ‘지역 먹거리 체계’(community food system) 구축이 강조되고 있는 것임
- 이러한 지역 먹거리 체계(communitiy food system)는 다음과 같은 지역사회와 공동체적인 지향과 가치를 담지하고 있음
 - 일정한 지역(local & region)에서 먹거리에 관련한 주체(생산자, 가공업자, 유통업자, 소비자)가 먹거리를 매개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
 - 지역 먹거리 체계는 먹거리의 안전성(food security)과 접근성(food access)을 높이고, 중소 가족농(family farmers)과 지역주민(inner-city residents)에게 가치가 전달되는 것을 중시하는 등 사회적 정의(social justice)를 실현하는 것을 지향함 (황영모, 2015)
- 모든 사람이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먹거리 체계의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 먹거리 체계는 지역경제와 지역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체계로서 성격을 가짐 (황영모, 2015)

나. 먹거리 전략의 성격2)

- 현대사회에서는 먹거리 체계를 새롭게 재구조화하는 지역 먹거리 체계의 성격을 가지는데, 이를 위한 공공영역에서 계획적 대응 전략이 바로 먹거리 전략(food plan)임
- 이렇게 본다면 먹거리 전략(푸드플랜)은 단순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체계(supply chain)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먹거리에 관련된 경제적이며 사회적인 문제를 시정하고자 하는

2) 이 내용은 황영모(2015)에서 정리하였음

‘계획적인 사업과 활동’을 의미함 (황영모, 2015)

- 즉, 먹거리 전략은 일정한 지역에서 먹거리를 공급하고 소비하는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균형을 갖는 관점에서 먹거리를 공급하고 이용하는 체계를 계획을 통해서 보완하고 균형을 찾겠다는 의도와 의지의 표현임 (황영모, 2015)
- 먹거리 전략(푸드플랜)은 이러한 배경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4가지 지향과 가치를 가지고 있음
- 첫째, ‘건강한 먹거리를 사회적으로 공급’하고 이용하는 것임. 안전한 생산 체계(방식)을 갖춰 먹거리를 생산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가공하며, 소비를 위해 유통하는 지역순환 체계를 지향함
- 둘째, ‘지역생산(grow local)과 지역소비(local consumption)’를 촉진하는 것임. 먹거리를 매개로 하여 다양한 활동과 사업에 관계하여 관계망을 맺고 적절한 공급과 이용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는 결국 지역순환경제를 강화하는 지향을 가짐
- 셋째, 먹거리에 있어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인 ‘먹거리 존엄성’(food dignity)을 갖추는 것임. 사회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인 사람을 배려하는 사회적으로 연대하는 지역 공동체의 먹거리 체계 실천을 강조하고 있음
- 넷째, 환경을 고려·배려하여 부담을 줄이는데 중점을 둬. 먹거리의 생산~가공~유통 과정에서 환경의 부하를 줄이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하는 등 사용 이후의 자원화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고 있음

다. 먹거리 전략의 요소

- 지역 먹거리 체계의 지향과 가치를 고려하면, 먹거리 전략은 ‘생산 → 소비’의 일방향 모델이 아니며, ‘생산 → 가공 → 유통 → 소비 → 재활용’되는 순환적인 모형 구조를 취하고 있어 이들이 주요한 요소임
- 먹거리 전략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근거하여, 먹거리 체계가 가지는 ‘가치와 지

향'을 비즈니스로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먹거리 접근성, 사회적 인식, 영양관리, 실행주체' 등을 구성요소로 추가해야 함 (황영모, 2015)



자료 : 황영모 외(2015)

[그림 2-1] 먹거리 체계의 순환적 구조와 먹거리 전략의 구성요소

- 이렇게 본다면, 지역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먹거리 전략은 다음과 같이 9개로 구성요소를 정할 수 있음
- 첫째, '지역생산'. 지역농업(regional agriculture) 차원에서 다양한 품목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구조가 중요하며, 도시민이 생활농업(urban agriculture) 활동으로 자급하는 생산기반 등을 늘려 나가야 함
- 둘째, '식품가공'. 가공식품은 현대 먹거리의 가장 큰 문제 영역임. 지역의 식품가공사업자(주체)와 연계하여 식품가공이 중요해지고 있음. 소비자가 원하는 밥상의 수요에 대응하여 농산물을 원료로 한 1차 가공(부가가공)을 더욱 늘려야 함
- 셋째, '지역유통'. 외부 의존적인 거래관계를 넘어 일정한 지역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거래관계를 만들어야 함. 지역생산과 지역소비를 잇는 방식으로 먹거리의 지역유통 체계는 먹거리의 거래방식과 판매의 장으로 구체화됨
- 넷째, '지역소비'. 먹거리를 소비하는 영역으로 지역생산을 촉진하는 원동력이기도 함. 지역소비를 늘리는 것은 시장거래의 위험에 처한 지역농업을 관리하는 방식임. 먹거리 소비에 관련된 개인-가정-공공-복지-외식 등의 모든 영역에서 소비 조직화가 중요함

- 다섯째, ‘순환이용’. 먹거리를 생산~유통~소비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를 줄여나가야 함. 그리로 폐기물을 자원화하여 순환적으로 이용하는 환경을 배려하는 활동을 프로그램으로 실천해야 있음
- 여섯째, ‘먹거리 접근성’. 먹거리 소비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먹거리의 이용과 소비에 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함. 지역생산(생산자)과 지역소비(소비자)를 연결하여 관계를 맺는 사회적인 ‘망’과 물리적인 ‘거점’이 강조됨
- 일곱째, ‘사회적 인식’. 먹거리에 대한 관행적 이해와 인식을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로 재구조화하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함. 지역 먹거리와 체계에 관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주체간의 연대가 중요한데, 이는 결국 지역의 사회규범을 만드는 과정임
- 여덟째, ‘영양·관리’. 관행적 먹거리 체계는 섭취의 불균형으로 건강문제로 이어짐. 소비자의 식단, 영양관리, 안전관리 등이 중요함. 양과 질적으로 결핍 또는 과잉이 일상화된 사회적 문제를 시정하려는 노력이 이어져야 함
- 아홉째, ‘실행체계’. 먹거리 전략은 먹거리에 관한 경제적·사회적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임. 먹거리의 전반적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소비자·생산자·사업체·시민사회·교육주체·지원조직·행정 등 다양한 주체가 전략의 실행과정에 사업과 활동으로 참여하므로 실행체계가 중요함

라. 먹거리 전략의 특징

- 먹거리와 관련된 체계를 재구조화해 나가는 계획적 대응이 ‘먹거리 전략’이기 때문으로 배경으로 인해 먹거리 전략은 중요한 특징이 있음
- 첫째, 먹거리 전략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관한 것임. 농장의 생산에서부터 소비자의 식탁에 이르는 기존의 ‘넓은 먹거리 체계’를 ‘새로운 먹거리 체계’로 전환하는 ‘먹거리 체계의 전환’임
- 그동안 먹거리 전략은 주로 생산 분야인 농업, 소비 분야인 영양, 무역 분야인 유통의 관점에서 파악해 왔는데, 현대사회의 먹거리는 농업위기, 식품안전, 건강악화, 사회적 불평등, 도시문제, 환경부담 등과

같이 일상적인 위협이 종합적으로 중첩된 문제로 존재함

- 그렇기 때문에 현대 먹거리 문제를 시정하고자 하는 대응인 먹거리 전략은 부분적 영역, 특정한 부문에 그쳐서는 안됨

○ 둘째, 여러 먹거리 문제는 서로 연관되는 복잡성을 가짐. 문제를 시정하는 먹거리 전략은 ‘농업, 도시, 건강, 환경, 사회’를 포괄하는 종합전략으로서의 성격을 가짐 (황영모, 2015)

- 먹거리를 ‘어떻게 생산하여 누구를 먹일 것인가’의 생산역량, ‘사회적인 격차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분배역량의 균형을 찾는 정책의 복잡성이 있음

- 굶주림과 영양부족에 대응하는 ‘생산능력’과 소득 차이·격차에 따른 ‘사회적 능력’ 간에 보다 유효하게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먹거리 전략 실행에서 중심 영역을 바꾸어 가는 섬세한 노력이 필요함

○ 셋째, 먹거리를 둘러싼 주체가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갈등하며 상충함. 조정하여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사업조직-활동주체는 경쟁적 이해관계가 반드시 생겨 상시적인 ‘긴장관계와 다툼’이 일어남

- 시장에서 주체들이 어떠한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지 분석적인 대응이 필요한데³⁾, 이점에서 먹거리 전략은 경쟁적인 이해관계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잡는 곡예’와도 같음

- 사업과 활동을 하는 주체들 사이의 거래관계 등을 재조정·재구조화는 과정에서는 협력적 파트너십과 실행하는 거버넌스를 다층적이고 다부문적으로 갖추지 않으면 안됨⁴⁾

○ 넷째, 먹거리 전략이 다루는 공공(公共)의 이익(公익, 公益)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관한 것임.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이해득실과 관계망에 있어 복잡하고 다양한 주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임

- 정책은 ‘1축(정책당국, 정부), 2축(공급사슬, 시장), 3축(시민사회, 시민)’이 상호작용으로 균형점이 만들어지는 매커니즘인데, 그 균형점이 해당 시기·지역에서는 이른바 ‘공익’으로 정의되는 것임

- 한편 ‘소비자의 선택이 시장을 결정한다’는 논리로 (사회적)책임을 개인(소비자)의 선택·행동으로 치환하

3) 과거는 농업 생산부문이 공급사슬의 중심이 되어 먹거리를 둘러싼 이해관계 중심이었으나, 현대사회에서는 거대 유통자본이 주도권을 가지면서 먹거리를 자금과 권력, 영향력의 원천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더욱 커짐 (황영모 외, 2015)

4) 먹거리를 둘러싼 다층성과 다부문성은 세계(global)-대륙(supra-national region)-국가(national)-광역(sub-national region)-지역(local) 등 복잡성과 긴장관계의 다양한 층위에 주목해야 함 (황영모 외, 2015)

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누가 '현실적 주도권'을 갖는지 판단하여 공익과 사회적 가치를 정해야 함

- 다섯째, 정책의 효과성과 통합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임.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적 대응은 다양한 범위에서 동원 가능한 정책수단을 활용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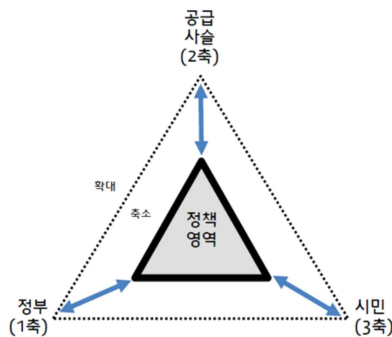
- 구체적으로 법률·규정·규제·라벨링·교육·홍보 등 정책수단은 '규제와 촉진'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세부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정책의 대응은 통합적이며 종합적이어야 함⁵⁾

-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책의 일관성과 통합성을 갖추기 위해 과정을 밝고 장치를 강구하는 것이 먹거리 정책에서 중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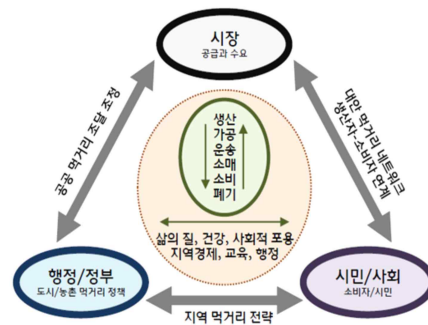
- 여섯째, 정책을 어디에 초점을 두고 시장에 어느 수준으로 개입할 것인가 임. 전략을 실행하는데 있어 강조점을 어디에 두고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임

- 먹거리 정책의 초점을 '시장의 재구성'에 둘 것인가, '개별 소비의 행동 장려'에 둘 것인가, '체계의 변화'에 둘 것인가, '틈새시장 성장'에 둘 것인가에 따라 결과는 매우 민감하게 나타남 (황영모, 2015)

- 중요한 것은 통계적으로 먹거리에 관한 일상의 위험을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하는데, 결국 '생산력'이 아니라 사회적 '분배력'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초점과 수준을 정해야 할 것임



자료 : 황영모 외(2014)



자료 : Moragues, A(2013)과 Wiskerke(2009)에서 수정

[그림 2-2] 먹거리 정책을 둘러싼 주체와 정책결정의 구조

- 5) 바이오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한 정책사례에서 알 수 있듯 에너지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결국 식량문제를 더욱 왜곡시키는 정책의 일관성과 통합성이 없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황영모 외, 2015)

2. 지역 먹거리 전략 방향⁶⁾

가. 지역 먹거리 전략의 추진방향

- 먹거리 전략 활성화 사례와 ‘세계도시먹거리정책협약(Urban Food Policy Pact)’⁷⁾으로 제출된 먹거리 전략의 정책 실행 프레임 등을 검토할 때, 지역 먹거리 전략의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대별할 수 있음
- 첫째, 지역 먹거리 전략은 지역사회(공동체)를 강화하고 발전시켜 가는 중요한 실천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점임
 - 지역 먹거리 체계는 지역생산, 지역소비, 먹거리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높여나가는 시스템을 강조하는데, 결국 지역사회에서 더 나은 신뢰기반을 갖추면서 공동체 수준에서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귀결되어야 함
- 둘째, 지역 먹거리 전략은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고 시민(주민)의 건강을 증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실행되어야 함 (황영모, 2015)
 - 지역 내 생산~가공~유통~소비~재활용·순환 되는 체계는 먹거리 가치사슬 각각의 단계에서 먹거리의 투명성을 높여 해당 지역의 물질적 환경 부담을 줄이는 시스템이며, 그 결과로 주민의 건강을 개선시키는 지향점을 가져야 함
- 셋째, 지역 먹거리 전략은 차별되지 않는 먹거리 기본권을 실현해 나가는 사회적 가치를 가져야 함
 - 사람 모두가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권(dignity)이 먹거리에 있으므로 먹거리 접근성과 안전성을 높여 경제·사회적 불평등을 시정하고, 먹거리 체계가 가지는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필수 수단이 되어야 함
- 넷째, 지역 먹거리 전략은 주민(시민)의 참여와 협력으로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행되는 거버넌스 구조의 구축이 중요함
 - 먹거리를 매개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연결되면서 각자의 이해관계를 수정·조정해 나가는 과정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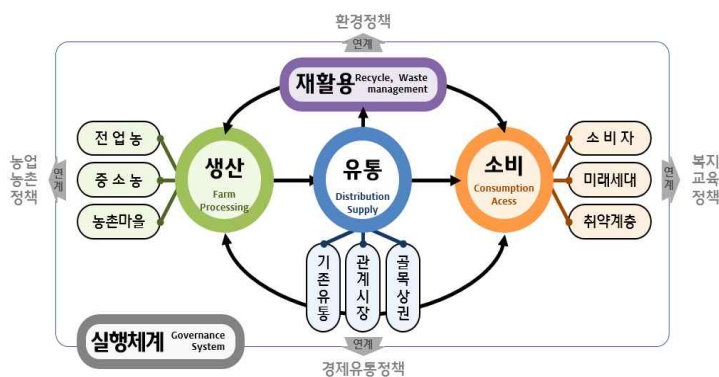
6) 이 내용은 황영모(2015), 황영모(2016), 황영모 외(2019)에서 정리하였음

7) 2015년 세계의 136개 지방정부 대표가 그동안 실행해온 자기 지역의 먹거리 계획·전략(food plan) 경험을 토대로 ‘지역(도시) 먹거리 전략을 위한 공통의 정책실행 기준’을 채택

지역 먹거리 체계이므로, 참여와 협력으로 실천 가능한 공통의 합의를 도출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갖춰 가는 과정이 전략 실천을 관통하는 주요한 과정이 되어야 함

나. 지역 먹거리 전략의 정책구조

- 먹거리 전략의 추진방향에 입각하여 ‘지역 먹거리 정책’을 어떠한 구조로 구성할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함
- 첫째, 지역 먹거리 정책은 먹거리 선순환 구조에 근거하는 ‘생산~가공~유통~소비~재 활용’이라는 순환단계를 포괄하는 정책구조가 되어야 함
- 먹거리의 생산, 유통, 소비, 분배, 순환하는 일련의 흐름이 지역에서 작동 가능한 영역을 정하고, 현실적으로 구체화하는 정책과제 도출이 필요함
- 지역 먹거리 체계의 가치와 지향을 고려할 때 생산자와 소비자를 다양한 방식·경로로 연결하여 소비자 입장에서 먹거리 접근성을 높이는 구조가 되어야 함
- 둘째, 순환구조에 기초로 하여 지역차원에서 정책으로 실천할 여건을 사회적으로 마련하는 구조가 정책구조가 되어야 함
- 먹거리와 관련된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여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수준과 형태에



자료 : 황영모 외(2015)

[그림 2-3] 지역 먹거리 전략의 정책구조 및 체계 모형

서 정책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거버넌스 방식의 실행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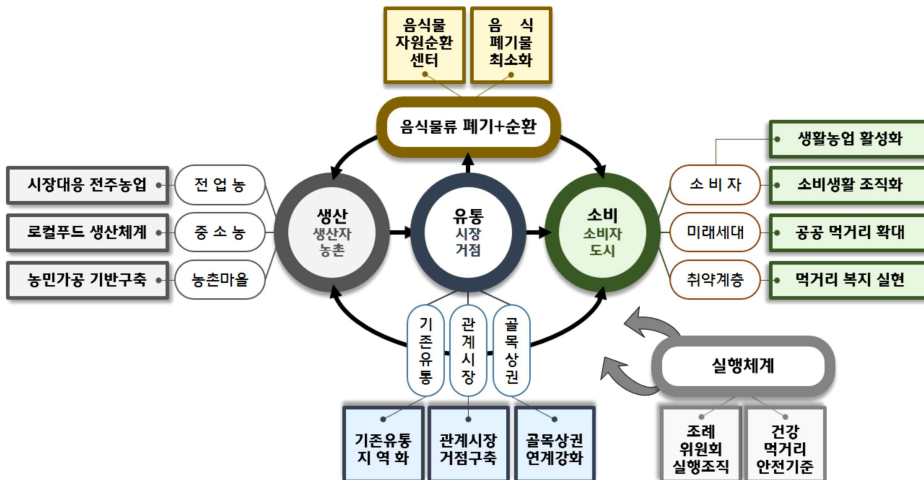
다. 지역 먹거리 전략의 정책영역

- 지역 먹거리 전략 구조를 구체화한 정책영역은 크게 5개 영역으로 나누어 정할 수 있음
- 첫째, 생산영역(farm & processing), 지역 먹거리를 생산하는 생산자가 분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업농·중소농·농촌주민 등을 포괄하는 것이 적절함
 - 전업적인 대농과 중소 고령농가로 분화된 농촌 여건을 고려할 때, 다양하게 먹거리를 생산하는 주체를 포괄하는 것이 필요함
- 둘째, 유통영역(supply & distribution), 산지이면서 소비지인 지역 여건에서는 경쟁시장에 대응하는 산지유통 강화와 함께 지역시장에 대응하는 로컬푸드 판매거점 조성과 기존의 지역(골목)상권과 연계하는 것이 현실적임
 - 많은 경우 지역은 산지이기 때문에 지역 이외의 판매확대와 기존 유통주체가 지역에 밀착하는 것이 요청되며, 골목상권에서 지역 먹거리 취급을 늘리는 관계시장 창출이 중요한 과제임
- 셋째, 소비영역(access & consumption), 지역 먹거리 체계를 새롭게 만드는 핵심은 소비자 조직화에 있고, 지역의 취약계층과 미래세대가 먹거리 존엄성을 가질 수 있는 공급과 소비체계를 포함해야 함
 -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지고 취약계층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불평등은 식료품비에서 대표적으로⁸⁾ 나타나고 있으므로 공공조달과 연계한 정책이 핵심임
- 넷째, 폐기·순환(recycle & waste management), 먹거리를 생산-가공-유통하는 단계에서 버려지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순환적으로 이용하여 생태를 배려하는 지속가능 환경체계를 구축하는 과제임
 - 자원의 순환 이용체계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여 자원화에 그치지 말고, 가정·학교·단체 등의 영역에서 관련된 주체들이 생활에서 실천하는 변화를 의미함
- 다섯째, 실행체계(system & governance), 지역 먹거리 체계가 실효적으로 작동되기 위해

8) 전라북도의 월소득 1백만 원 미만 소득계층은 가계소비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9%나 됨

서는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먹거리 거버넌스 체계와 행정(부서간)-민간(부문간)이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 먹거리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에 근거하여 시민사회가 참여를 통해 전략을 결정하고 정책을 실행하며 평가하는 과정에서의 협력체계가 중요함



자료 : 황영모 외(2015)

[그림 2-4] 지역 먹거리 체계와 전략에서의 세부과제

라. 지역 먹거리 전략의 정책수단

- ‘생산~가공~유통~폐기·순환’의 구조를 만들고 ‘접근성과 분배’를 개선하는 사회적 가치를 높여가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의 동원이 중요함
- 지역 먹거리 계획이 활성화된 지역(국내외)의 정책사례를 검토하면, 지역 먹거리 전략이 실효적으로 작동되는 데 필요한 정책수단을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공공조달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이 우선적인 정책수단이 되어야 함
 -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 먹거리 기본권 보장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는 학교급식, 공공급식, 먹거리 복지, 사회서비스 등에서 공공조달을 늘려가는 것임
 - 런던시(구매기준에 로컬 · 소농 생산 농산물을 포함), 뉴욕시(지역 농산물 우선구매 기준 적용), 프랑스

(공공급식소 식재료의 로컬푸드 우선구매, 2017년 40% 목표), 덴마크(코펜하겐 푸드하우스, 식재료의 90%를 유기농으로 충당) 등의 공동조달 사례의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대목임 (황영모, 2015)

- 둘째, 실효적인 먹거리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실효적으로 실행해야 함
 - 많은 경우 계획이 작동되지 않는 한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참여의 상시적 먹거리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관건임. 거버넌스 구조에서 지역 먹거리 전략의 목표·과제 등이 다뤄져야 함
 - 외국(북미 등)에서는 독립된 시민사회 기구를 구성하고, 이 단위에서 먹거리 정책수립, 정책자문, 네트워크, 교육·홍보, 핵심활동 등을 담당하고 있음
- 셋째, 지역 먹거리 체계의 구조에서는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가 전제되어야 함
 - 먹거리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주체가 지역 먹거리 체계를 인식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데, 결국 주체적 역량으로 이어지는 것임
 - 시민사회단체와 민간의 조직·단체가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야 보완할 수 있음
 - 지방정부의 정권 교체로 정책의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NGO·NPO 조직 등이 중심이 되어 먹거리 체계를 유지하고 지역 간 네트워크를 맺고 있는 런던시 사례에 주목해야 함
- 넷째, 다차원적으로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정책사업 등을 통합적으로 실행해야 함
 - 먹거리 전략은 농업, 소비, 유통, 복지, 환경, 교육 등의 정책영역에 걸친 종합 정책체계인데,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통합적으로 정책이 추진되지 않으면 특정한 분야의 세부 정책에 그쳐 효과가 미미함
 - 그렇기 때문에 지역 먹거리 전략은 '도시계획, 지역발전계획, 농업농촌발전계획, 학교급식계획, 식생활교육계획, 환경계획'과 같이 계획들이 연계되는 구조가 중요함
- 다섯째, 지역주민 인식의 변화를 촉진할 선도사업(leading project)으로 출발해야 함
 - 규제와 촉진에 관한 정책수단을 동시에 동원하여 사회 시스템 변화를 도모해 나가는 실행계획이므로 구성원의 인식을 확대하고 변화를 유도해 나갈 적절한 영역의 정책고리에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함
 - '나와 우리 모두의 문제'로 먹거리 전략을 인식하고 생활에서의 변화를 유도하는 선도사업(정책)이 중요하며, 이를 매개로 주체가 연결되면서 정책 거버넌스의 단초가 마련되는 것임

마. 지역 먹거리 전략의 공간범위

- 지역 먹거리 전략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먹거리 체계가 실제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계획과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사전 검토되어야 할 과제임 (황영모, 2015)
- 지역 먹거리 체계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야기되고 글로벌 먹거리 체계가 만들어 내는 먹거리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므로 의지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region & local)을 공간적 범위로 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적절함
 - 먹거리 계획이 활성화된 사례에서는 도시(urban)를 중심으로 도시근교(prei-urban)와 농촌(rural)을 전략적으로 연계하여 정책과 사업·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황영모, 2015)
 - 메가시티(mega city)에서는 먹거리 문제에서 기인하는 구체적인 도시문제를 도시 내 공간(도시농업, 활동(로컬푸드), 분배·유통(푸드허브) 등 관계(네트워킹)를 통하여 해결해 나가는 실행전략을 채택하고 있음 (황영모, 2015)
- 그러나 절대적으로 공급과 수요가 불균형되는 상황은 결국 도시(소비지)를 둘러싸고 있는 배후지역인 농촌(생산지)과의 전략적인 연계구조를 갖추지 않는다면 지역 먹거리 전략은 물론 먹거리 체계가 작동되지 않는 한계가 있음
- 우리 사회는 지역경제의 불균형 구조가 고착화된 한계에서 먹거리를 매개로 재구조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전환(transformation)시켜 지역순환경제(circle economy)를 만들어 나가야 함⁹⁾
- 이렇게 본다면, 지역 먹거리 전략은 농업·농촌 문제를 도시·소비 문제와 연계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전략적 접근이며, 지역적으로 조달 가능하며 실효적인 분배가 이뤄지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과제임
-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광역 자치단체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고, 다시 광역 내에서 도시-농촌, 소비-생산 구조를 고려하여 지역과 지역을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함

9)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지역은 먹거리 시장(food market)의 생성(creation)이 중요하며, 도시지역은 먹거리 시장의 접근(access)이 실질적 과제로 제기되기 때문에 다극화를 전제로 먹거리 체계의 중층적 구조가 필요함 (황영모 외, 2015)

- 이렇게 본다면, 광역단위 먹거리 전략은 기초 지자체 단위의 먹거리 계획이 기초가 되어 연계되는 네트워크 모델에 가까운 것이며, 이를 위한 핵심은 정책 당국의 칸막이 행정을 시정하는 역할이 중요함

바. 쟁점과 과제¹⁰⁾

① 지역 먹거리 전략의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의 사회적 합의’가 중요함

- 지역마다 현장 실천활동의 상이함으로 먹거리 전략을 이해하는 수준과 실행방식에 있어 차이가 큰데, 무엇보다 먹거리 관련 주체 사이에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지점이 있음
- 그러므로 지역 먹거리 전략의 세부내용 등에 대해 지역사회 차원의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고 구체적인 실천전략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함
-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의회), 먹거리의 생산, 소비, 공급주체가 지역 먹거리 전략에 대한 공통된 이해와 실행방안을 만드는 지속적이고 실효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함
- 이를 위해 세계도시먹거리정책협약(Milan Urban Food Policy Pact, 2015)의 ‘6대 권장수단과 37개 실행과제’¹¹⁾를 중심으로 지역에 맞는 실행기준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역 먹거리 전략은 ‘지역 먹거리 체계¹²⁾를 구축하기 위해 일정 지역에서 먹거리의 공급과 소비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균형을 이룬 시각에서 먹거리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계획으로 보완하고 균형을 찾겠다는 의도와 의지’임에 주목해야 함

② 먹거리 보장에 필요한 지역사회 차원의 ‘제도와 인적물적 기반’을 마련해야 함

.....
10) 이 내용은 황영모(2015)에서 작성하였음

- 11) ①효과적인 실행가능한 거버넌스(6개 실행과제), ②지속가능한 식생활과 영양(7개 실행과제), ③사회적·경제적 형평성(6개 실행과제), ④먹거리의 생산(7개 실행과제), ⑤먹거리의 공급과 유통(7개 실행과제), ⑥식품폐기·순환(4개 실행과제) (황영모 외, 2015)
- 12) 지역에서 생산자, 가공업자, 유통업자, 소비자가 먹거리를 매개로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먹거리안전성(food security)과 접근성(food access)을 높이고, 가족농(family farmers)과 지역주민(inner-city residents)을 중시하면서 사회정의(social justice) 실현을 목적으로 함 (황영모 외, 2015)

- 정책으로서 구현되는 지역 먹거리 전략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마련하고, 이에 기반하여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동원·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야 함
- 지역 먹거리 전략의 ‘가치·지향, 목적·목표, 정책수단’ 등을 규정하는 먹거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의 관련된 조례도 통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해야 함
- ‘먹거리 보장에 관한 기본조례’ 제정은 반드시 필요한데, ‘기본조례’를 중심으로 ‘개별조례’¹³⁾를 지역 먹거리 전략 실행에 필요한 내용으로 적극적으로 개정해 나가야 함
- 지역단위에서 먹거리 주체의 실행역량을 높이기 위한 인력을 강화하고, 재정지원(차액+현물), 교육, 인력양성, 계획수립·평가관리 등에 관한 근거 명시가 중요함

③ 지역 먹거리 전략에 효과적인 ‘실행 가능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실행해야 함

- 효과적이고 실행 가능한 수준에서 ‘지역 먹거리 거버넌스’를 갖추고, 실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지역 먹거리 전략의 가장 중요한 우선 과제로 꼽혀 왔는데, 세계도시먹거리정책협약에서는 먹거리의 가치사슬 체계에 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
- 먹거리 전략 추진체계를 갖추는데 있어 우선해야 할 점은 지역수준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기구(위원회 등)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임
- 그동안 유사한 거버넌스 기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권한과 역할을 갖는 실행체계를 갖추되, 운영 전반에 걸쳐 긴장감을 갖고 실행해 나가야 함
- 먹거리 순환체계(생산~가공~공급~소비~폐기·순환)와 먹거리 정책영역(교육~복지~영양~안전~환경)을 고려할 때, 먹거리 전략과 관계된 행정 기관과 행정 내 부서의 칸막이를 넘어서는 행정협력체계가 중요함
-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먹거리 정책 실행체계를 강제해 나갈 현장역량이 중요한데, 먹거리 전략의 이니셔티브가 시민사회의 역량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세계도시먹거리정책협약을 감안하면, 시민사회 먹거리 운동이 ‘지속가능 먹거리연대’로 조직화되어야 함

13) 학교급식, 공공급식, 식생활교육, 로컬푸드, 도시농업, 친환경농업, 6차산업화, 지역식품산업, 사회적경제 등에 관한 조례

④ 지역 먹거리 전략이 성과있게 작동할 수 있는 ‘핵심 실행전략’을 고도화해야 함

- 지역 먹거리 전략을 실행하는데 있어 핵심 정책영역은 ‘①학교급식·공공급식, ②로컬푸드 기획생산, ③식생활 교육, ④먹거리 복지’ 등으로 꼽을 수 있음
- 학교급식은 ‘지역산 식재료가 생산-공급-소비’ 구조를 고도화하는 구체적인 정책 프로그램(학교급식지원센터·수발주시스템·생산조직·공급조직·지원방식 등)을 세밀하게 개선해야 함
- 공공급식은 많은 공공기관이 지역 식재료를 해당 기관의 단체 급식소에 이용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수·위탁 혁신)하고,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등 공공성을 가진 기관·단체에 정책지원으로 확대해 나가야 함
- 식생활 교육은 지역사회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먹거리의 가치인식과 행동변화를 이뤄낼 수 있는 교육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늘려야 함(교육청-학교교육, 식생활교육네트워크-사회교육)
- 먹거리 취약성을 줄이고 최소한의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해 먹거리 취약계층(결식아동·청년학생·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먹거리 돌봄·복지체계를 촘촘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해야 함

⑤ 지역 먹거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먹거리 전략의 평가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지역 먹거리 전략의 ‘정책영역, 핵심과제, 대표사업, 관계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포괄하는 정책실행 매뉴얼(실행계획)을 만들어 정책추진의 과정에서 실효적으로 활용해야 함¹⁴⁾
- 지역 먹거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먹거리 선순환 체계와 먹거리 전략의 세부내용을 자료로 관리하는 ‘지역 먹거리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관련 먹거리 체계를 이루는 주체가 참여하여 지역단위에서 먹거리의 ‘생산정보, 수요정보, 공급정보, 안전정보’ 등에 관한 다중적인 정보 시스템으로 개발·운영되어야 함
-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전략의 목적·목표, 성과지표 등을 관리

14) 이를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기 만들어 제작한 ‘푸드플랜 정책지원 매뉴얼’을 참조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음

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데이터 기반의 근거를 마련해야만 먹거리 전략이 실효적일 수 있음

- ‘먹거리 통합정보 시스템’은 생산-수요-공급을 다루는 기반이면서, 먹거리 거버넌스 기구가 모니터링·평가를 통해 정책 개선할 과제를 검토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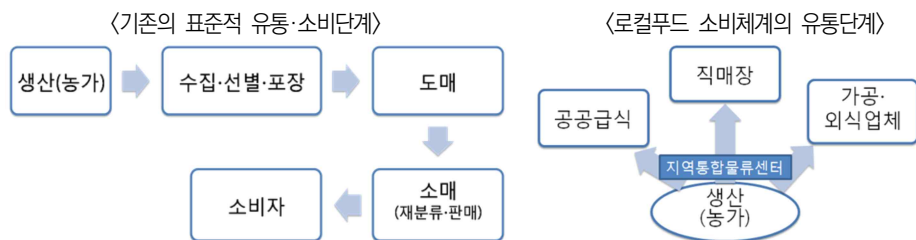
⑥ 광역과 기초단위 먹거리 전략의 현실적인 보완과 결합이 중요함

- 지역 먹거리 전략을 구축해 나가는데 있어서, 종합계획이 다루는 조직화의 범위(광역-기초-시·군/시·도간 연계 등)가 구체적인 정책을 실행하는데 있어 주요 쟁점이 되고 있음
- 먹거리 종합계획은 중소농가를 중심으로 연중 다품목 생산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지역농업 차원의 재편(작부체계, 접근성 등)을 지향하지만, 현실적인 조직화의 한계가 노정되고 있음
- 산지와 소비지가 공존하는 지역의 특성 상 도시지역의 소비에 기대는 생산전략은 결국 지역과 지역을 연계하는 광역단위의 도농상생 전략으로 보완하는 전략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음
- 광역단위 먹거리 전략은 식재료를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먹거리 조달·분산 기능에 국한되어서는 안되며, 기초 지자체 먹거리 전략의 안정성·지속성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보완과 필요할 경우 광역단위 핵심역량을 직접 갖추어 지원하는 역할이 필요함
- 한편 지역 내(기초+광역)에서의 먹거리 전략 작동의 한계(소비를 통한 생산의 견인 등)를 감안하면,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와 연계하는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례를 참조하여 이를 지속·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인 지원방안(인센티브) 마련도 검토해 나가야 함

3. 먹거리 전략 정부 정책

가. ‘로컬푸드 확산’ 정책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 푸드플랜 정책을 추진하기 이전부터 ‘로컬푸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로컬푸드 확산을 위한 3개년 추진계획(2019.6.)’을 수립하여 시행해 왔음
- 정부의 로컬푸드 지원정책은 ‘하나의 지역단위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그 지역 내에서 우선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공급-유통-소비 시스템’임 (농림축산식품부, 2019)
- 지역 중소농이 생산한 농식품을 조직화하여 학교·공공급식, 로컬푸드 직매장, 가공·외식업체 등 지역 내 수요처로 순환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농축산물 이동거리를 최대한 단축시킴으로써 신선도를 높이고 농업인과 소비자의 효용 제고를 목적으로 함 (농림축산식품부, 2019)
-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얼굴 있는 건강한 먹거리’를 비전으로 로컬푸드 국민 인지도 향상, 로컬푸드 유통비중 확대 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 정부 계획의 주요내용은 ‘로컬푸드 공공급식, 로컬푸드 유통비중, 대국민 인지도, 푸드플랜 참여 지자체 지원’이 주요한 골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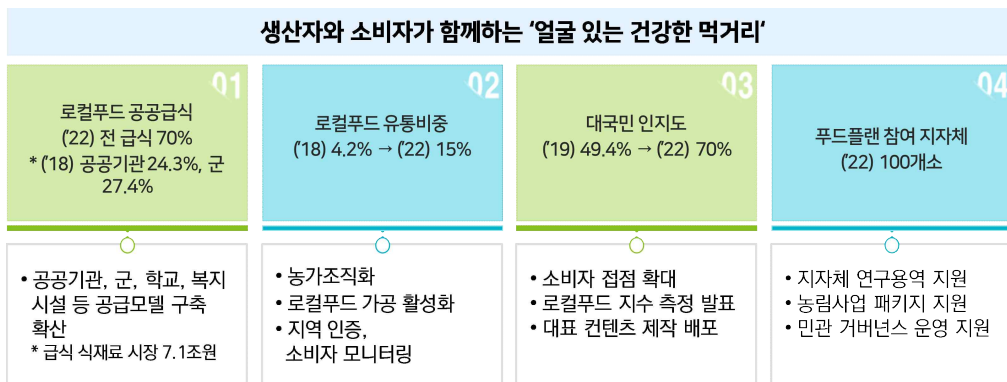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 ‘로컬푸드 확산을 위한 3개년 추진계획’.

[그림 2-5] 로컬푸드 생산-소비체계의 구조

- 첫째, 로컬푸드 식재료의 공공급식의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군대, 학교, 복지시설 등의 공급 모델 구축 확산’을 추진하여 2022년 공공급식에 로컬푸드를 70%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임

- 둘째, 로컬푸드 농식품의 유통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생산자(농가) 조직화, 로컬푸드 가공 활성화, 지역인증과 소비자 모니터링 강화’를 추진하여 2022년까지 15% 수준으로 올린다는 계획임
- 셋째, 로컬푸드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 접점 확대, 로컬푸드 지수 측정 발표, 대표 콘텐츠 제작 배포’ 등으로 2022년까지 국민의 70%가 로컬푸드를 알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임
- 넷째, 로컬푸드 확산과 활성화는 지역 먹거리 계획과 연계되므로 ‘푸드플랜’ 참여 지자체를 2022년 100개소까지 늘리기 위해 ‘지자체 연구용역 지원, 농림사업 패키지 지원, 민관 거버넌스 운영 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 ‘로컬푸드 확산 3개년 계획’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1)에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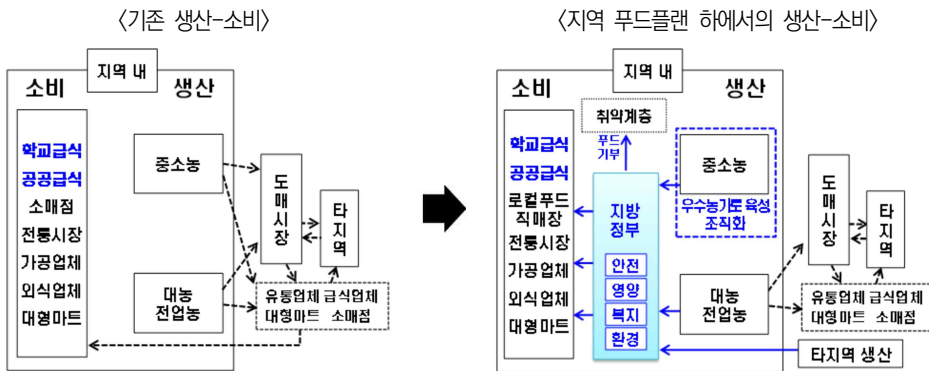
[그림 2-6] 농림축산식품부 ‘로컬푸드 확산 3개년 계획’ 주요내용

나. ‘지역 푸드플랜’¹⁵⁾ 정책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부터 ‘지역 푸드플랜 구축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자체 확대’를 목표로 하는 관련 정책을 지원하고 있음
- ‘지역 푸드플랜’은 생산·소비·안전·영양·복지·환경 등 다양한 먹거리 관련 이슈를 통

15)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해온 ‘지역푸드플랜’ 정책은 윤석열 정부에서 ‘지역 먹거리 계획’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정책을 추진할 당시의 자료에서 사용한 용어인 ‘푸드플랜’으로 기술함

합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별 지역 내 먹거리 순환 종합전략으로 공공급식을 중심으로 신선·안전한 먹거리의 지역 공급체계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 2019)



[그림 2-7] 지역 푸드플랜을 통한 생산~소비체계 구조

- 지자체가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단위 푸드플랜'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는 '계획수립 가이드라인 제공, 계획수립 연구용역 지원, 교육·거버넌스 지원, 관련사업 연계지원, 푸드플랜 운영 지원'을 담당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고 있는 '지역 푸드플랜' 지원정책은 '푸드플랜 기반조성과 푸드플랜 다양성·확장성 확보'로 구분할 수 있음



[그림 2-8] 농림축산식품부 '지역 푸드플랜 정책' 주요내용

- 첫째, ‘푸드플랜 기반조성’은 지역 먹거리의 ‘생산-소비기반 구축, 제도적 기반 확보, 지자체 역량강화’를 주요내용으로 추진되고 있음
- ‘생산-소비기반 구축’을 위해 ‘공공급식 공급체계 구축·확산, 생산자 조직화, 로컬푸드 복합센터로 소비문화 조성’ 등을 지원하고 있음
 - 로컬푸드 복합체험문화센터(식사·체험·문화활동이 가능한 복합공간), 로컬푸드 직매장 배송서비스, 로컬푸드 가공활성화(밀키트, 가공센터, 농민가공·마을기업) 등을 지원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1)

[그림 2-9] 지역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 등의 주요내용

- ‘제도적 기반 확보’를 위해 ‘로컬푸드 지수개발, 공공기관 평가지표 반영, 공공급식 표준조례(안) 마련’ 등을 실행하고 있음
 - 로컬푸드 지수를 ‘로컬푸드 생산·소비 체계(생산+소비), 지역경제 활성화, 먹거리 거버넌스’ 등 12개 과제 17개 지표로 평가하여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 선정
- ‘지자체 역량강화’를 위해 ‘연구용역비 지원, 패키지 지원사업, 전담 전문가 배치, 추진주체 실행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음
 - 16개의 기존 농림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푸드플랜을 수립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5년간 지원하여 지자체 차원의 중장기 푸드플랜 전략 실행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전문가 컨설팅은 푸드플랜 수립 지자체별로 FD(family doctor)로 전담 자문위원(지역당 2명)을 지정하

였고, 실무 대상자와 관계기관(활동가 등) 장기 전문과정을 통해 거버넌스 실행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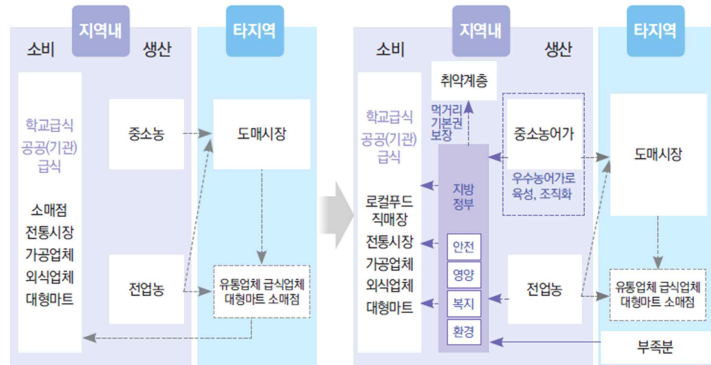
- 둘째, ‘푸드플랜 다양성·확장성 확보’는 ‘로컬푸드·푸드플랜 가치 확산, 시민사회의 참여 확대,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및 연계’를 주요내용으로 추진되고 있음
- ‘로컬푸드·푸드플랜 가치확산’을 위해 ‘컨텐츠 제작·배포, 서포터즈, 체험행사, TV·SNS 등 다채널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시민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시민단체 로컬푸드 지수 공동개발 운영, 민관 거버넌스 지원, 지역별 붙임 활동’ 지원 등을 하고 있음
 - 로컬푸드 지수는 지역 농산물의 활성화 노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전국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측정하여 6개 등급(S-A-B-C-D-E)을 부여하여 평가 시상
-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및 연계’를 위해 ‘사회적경제 모델 발굴 육성 및 홍보 확산, 직거래 활성화 사업 가점 우대’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지역사회의 사회적경제 조직을 발굴 육성하여 지역 먹거리 활동가를 육성하고, 다양한 먹거리 돌봄 영역에서의 사회적경제 연계 공공급식 체계 개선을 추진(나눔냉장고, 취약계층 무료급식, 빈그릇 운동 등)

다. 주요 정책성과¹⁶⁾

① 지역단위 먹거리의 생산·소비 선순환 체계 구축을 늘려가고 있음

- 그동안 정부는 지역 푸드플랜 수립과 실행을 적극 지원하여 전국 141개 지자체가 ‘지역 푸드플랜’을 추진하고 있음
 - 지역 특성에 맞는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증연구, 거버넌스 구축 등 지원하고 있음, (~’17)4개소→(’18)15개소→(’19)35개소→(’20)40개소→(’21)26개소 →(’22)20개소(기초 123, 광역 18)
- 로컬푸드 직매장의 개설과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여 전국적으로 554개소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운영되고 있음

16) 이 내용은 황영모(2021)에서 작성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

[그림 2-10] 지역 푸드플랜에 기반한 지역 먹거리 생산·소비 순환체계

- 로컬푸드 직매장이 지역 내 로컬푸드 가치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기능하도록 복합 매장화하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② 국민들의 먹거리 보장과 영양·건강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 먹거리 보장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추진,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친환경농산물 임산부 꾸러미 지원, 공공급식에 로컬푸드·친환경 식재료 공급 등을 꼽음
 - 농식품바우처 (시범)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2.8만가구), 국내산 채소·과일·흰우유·신선계란, 농협·로컬푸드 지원, 대상품목·사용처·지원대상 확대 등 추진, 예비타당성 대응 및 예산협의 추진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약 24만명 수준), 친환경농산물 임산부 꾸러미 지원 (8만명 수준)
 - 공공기관·지자체·농협 운영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공공급식에 로컬푸드·친환경 농산물을 식재료로 공급, 공공기관 급식 중심으로 친환경·지역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급식 통합플랫폼’ 구축 중
- 영양·건강 지원 위해 나트륨·당류 저감화 방안 시행, 가공식품·농축산물 등 원재료 식품, 외식·음식 등 식품영양정보 공공DB연계·통합과 공공영양정보 개방표준 등을 마련함
 - 나트륨·당류 저감화 방안 시행(‘21.2) : 2025년까지 나트륨·당류 섭취량 저감목표 설정, 나트륨 1일 섭취량 3,000mg 이하, 가공식품 당류 1일 섭취 열량의 10% 이내(2,000kcal 기준 50g 이내)
 - 어린이 기호식품 조라·판매 우수업외식·음식 등 식품영양정보 공공DB 연계·통합 및 공공영양정보 개방 표준 : (‘21)5만개 식품 → (‘23)7만개 → (‘25)10만개



* 자료 : 황영모 외(2020)

[그림 2-11] 생애주기 먹거리 돌봄 강화

③ 먹거리 지원과 함께하는 식생활 교육을 확대하고 있음

- 생애주기별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제3차 식생활교육기본계획(‘20~’24)’을 수립하고, 유아기부터 지속가능한 식생활 교육을 확대하고 있음
 - 농식품바우처 사업으로 취약계층에게 신선 농식품을 지원, 이와 연계하여 식생활 관리 교육 실시
-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교육 확대를 위해 생애주기별 식생활 교육 콘텐츠 개발과 식생활 교육 정보 플랫폼 및 식생활 교실을 운영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 2,688개소(우수농촌식생활체험공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교육농장), 해양수산부 320개소(어촌체험휴양마을, 산지위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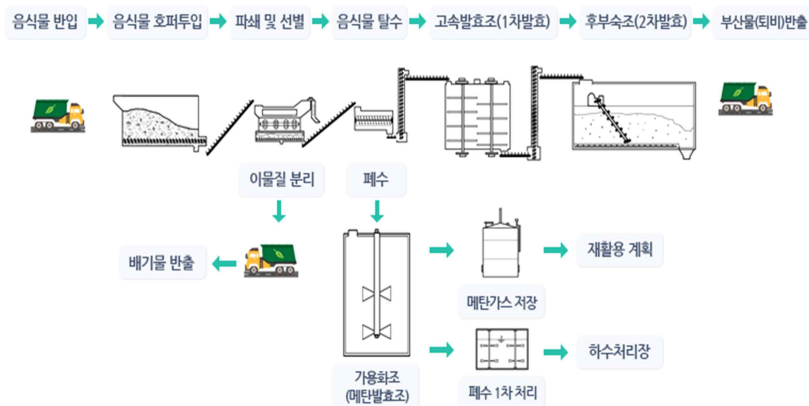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

[그림 2-12] 생애주기별 식생활 교육의 주요골자

④ 음식물 폐기물의 저감과 자원순환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음

- 폐기물 감량 정책지원을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지침 개정, 종량제 원칙 개정 확립, 식품 폐기비용 절감 일자 표기방식 개선 및 유통단계 감축 등을 확립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음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지침’ 개정, 종량제 원칙 개정 확립(‘12년제정, ’18년/’21년 개정), 지자체·공공 급식소·다량배출 사업장 감량 정책지원, 공동주택 종량제 중심 배출 확립, 지자체별로 가정·다량배출장·전체 폐기물 발생량 감량목표 설정·이행평가·감축기조 등
- 음식 폐기물을 사료화·퇴비화·에너지화하기 위해 필요한 처리시설 등을 확충해 나가면서, 바이오가스 에너지를 지역사회와 공유하여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친환경시설로 탈바꿈을 추진하고 있음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과 처리방법 확대 원칙 개정 확립(‘12 제정, ’18/’21년 개정) : 사료화·퇴비화 74%, 바이오가스화 13%, 기타 13% 등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

[그림 2-13] 음식 폐기물의 처리 단계 및 활용구조

⑤ 국가 식량계획을 수립·마련하여 식량과 먹거리 대책으로 삼고 있음

- 국민의 먹거리 관련 국내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단위의 ‘범부처 통합 전략’으로 ‘국가 식량계획’을 수립하였음

- ‘푸드플랜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 강조 (농정틀 전환 타운홀 미팅 보고대회, ’19.12.12.), ‘국가 식량계획 수립과 지역의 자급체계 조성’을 강조함 (25회 농업인의날 기념식, ’20.11.11.)
-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반영한 추진방향 설정, 교육·환경·복지 등 다른 계획과 연계하여 상호보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국가 식량계획에 대해 먹거리 시민사회단체(전국먹거리연대 등)는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축산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안)’에서 다루는 먹거리 체계 전반이 생산을 중심으로 한 해당 부처(농림축산식품부)의 부분계획으로 그쳤다는 비판도 있었음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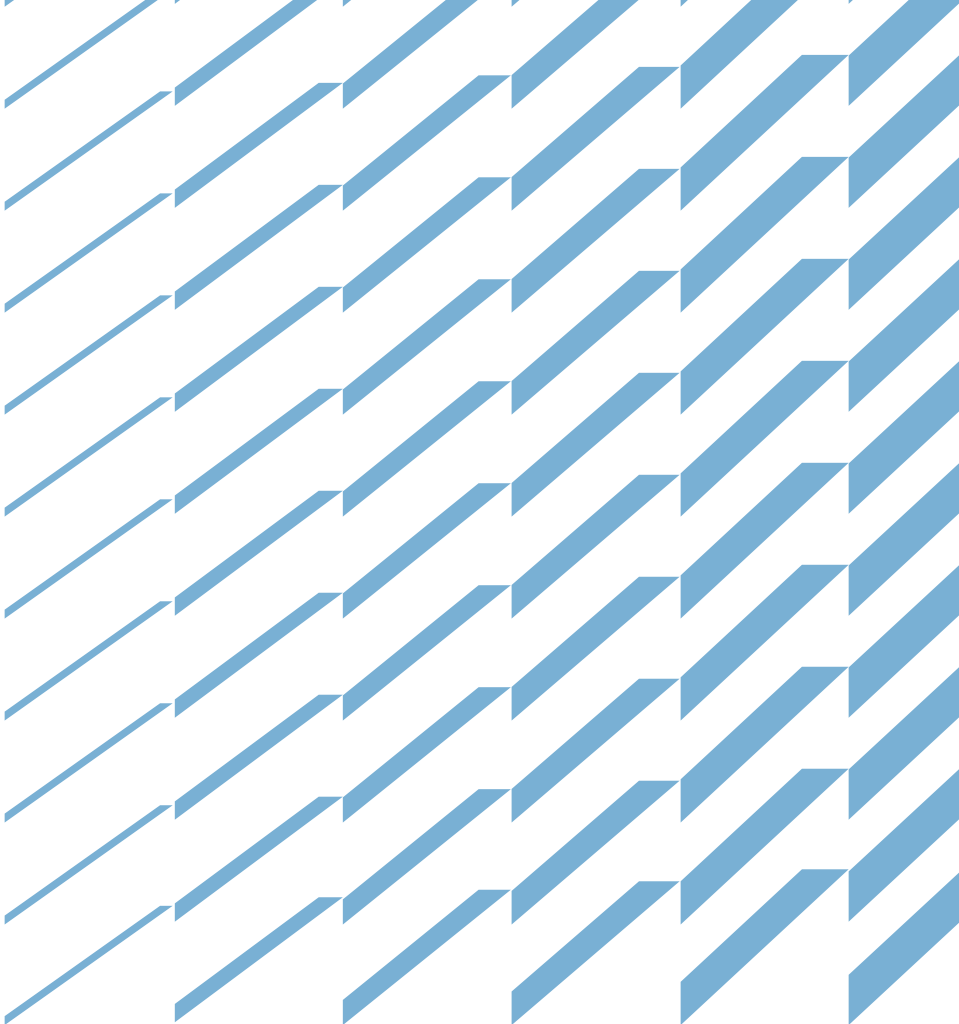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1)

[그림 2-14] 국가 식량계획의 주요내용

-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먹거리 계획 수립·추진 근거, 정부의 먹거리 계획 지원 근거, 취약계층의 식품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였음

17) ‘전국먹거리연대’가 발표한 성명서 ‘국가식량계획이 아닌 먹거리 종합전략을 발표하고 먹거리기본법 제정에 앞장서라’(2021.9.23.)를 참조

-
- 제23조의 3(지역 먹거리 계획의 수립·시행) 조항에 ‘①지역먹거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②지역먹거리 위원회, ③먹거리 통합지원센터, ④조례제정, ⑤지자체 장에게 국가 의견제시, ⑥지역 먹거리 계획 수립·추진에 대한 국가 지원’ 등을 명시 (2022.7.5. 시행)
 - 제23조의2(취약계층 등에 대한 식품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등 모든 국민에게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식품 지원 정책을 세우고 시행



제3장

전북 먹거리 관련 자원 검토



- | | |
|------------|-----------|
| 1. 지역생산 | 2. 지역가공 |
| 3. 지역유통 | 4. 지역소비 |
| 5. 학교·공공급식 | 6. 음식물 폐기 |
| 7. 사회복지 | 8. 영양관리 |
| 9. 식생활 교육 | 10. 추진체계 |

제3장 전북 먹거리 관련 자원 검토

- 이 장에서는 ‘전라북도 먹거리 종합계획’에서 다루는 먹거리 관련 자원을 ‘지역 먹거리 체계’의 구성요소를 토대로 영역을 나누고 핵심현황의 내용을 진단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 ‘①지역생산, ②지역가공, ③지역유통, ④지역소비, ⑤공공급식, ⑥음식폐기, ⑦사회복지, ⑧영양관리, ⑨생활교육, ⑩추진체계’ 등 10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봄



[그림 3-1] 지역 먹거리 체계에 따른 먹거리 자원 진단의 틀

1. 지역생산

- 전라북도 농림어업의 총 생산액은 3조 4,130억원(2019년)인데, 2015년(3조 6,768억원)에 비해 감소하였음
 - 도내 지역내총생산액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7.8%에서 2019년 6.6%로 감소하였음
 - 시·군별 비중은 김제시(11.9), 정읍시(11.7), 익산시(10.6), 고창군(10.1), 남원시(8.8), 부안군(8.3), 완주군(8.0), 군산시(6.4), 순창군(5.2), 진안군(4.3), 임실군(4.2), 무주군(3.9), 장수(3.8), 전주시(2.7) 순
- 농가는 90,862호(2021년)로 2017년(96,780호)보다 감소하였고, 농가인구는 188,689명(2021년)으로 2017년(214,548명)보다 줄어들었음

- 시·군별 농가인구 비중은 정읍시(11.8%), 익산시(11.2%), 전주시(9.1%), 고창군(8.7%) 등의 순

[표 3-1] 전라북도 농가 및 농가인구 추이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전라북도 농가인구(명)	214,548	208,600	204,124	199,157	188,689
(도내 비중, %)	11.7%	11.5%	11.3%	11.0%	10.6%
전라북도 농가수(호)	96,780	94,935	94,735	93,305	90,862
(전북 전체 인구, 명)	1,826,174	1,818,157	1,807,423	1,802,766	1,787,053

시·군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농가인구(명)	17,242	13,270	21,113	22,239	13,023	14,451	14,716
(도내 비중)	9.1%	7.0%	11.2%	11.8%	6.9%	7.7%	7.8%
(시·군내 비중)	2.3%	5.8%	8.6%	19.0%	19.6%	21.8%	16.7%
시·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농가인구(명)	7,117	8,816	8,815	8,981	8,344	16,347	14,215
(도내 비중)	3.8%	4.7%	4.7%	4.8%	4.4%	8.7%	7.5%
(시·군내 비중)	28.8%	31.7%	40.3%	63.0%	65.2%	63.8%	50.0%

자료 : 전라북도 '전라북도 통계연보', 각 년도에서 작성

[표 3-2] 전라북도 경지면적 추이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경지면적(논+밭, ha)	199,196	197,541	195,191	193,791	191,601

시·군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시·군 경지면적(ha)	4,908	13,859	22,725	21,455	14,353	26,567	10,689
(도내 비중)	2.6%	7.2%	11.9%	11.2%	7.5%	13.9%	5.6%
시·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시·군 경지면적(ha)	6,990	4,988	6,737	7,177	9,650	23,660	17,844
(도내 비중)	3.6%	2.6%	3.5%	3.7%	5.0%	12.3%	9.3%

자료 : 전라북도 '전라북도 통계연보', 각 년도에서 작성

[표 3-3] 전라북도 농림어업 생산액 추이

구분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전북 농림어업 생산액(a)	3,676,762	3,525,747	3,723,674	3,588,055	3,412,985
전라북도 지역총생산액(b)	47,018,028	47,879,046	49,348,477	50,595,318	51,997,535
(비중, a/b)	7.8%	7.4%	7.5%	7.1%	6.6%

시·군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농림어업 생산액	91,586	217,753	362,349	400,672	301,031	405,714	271,351
(도내 비중)	2.7%	6.4%	10.6%	11.7%	8.8%	11.9%	8.0%
시·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농림어업 생산액	148,154	134,264	129,158	143,168	181,472	343,845	282,467
(도내 비중)	4.3%	3.9%	3.8%	4.2%	5.3%	10.1%	8.3%

자료 : 전라북도 '지역내총생산'에서 작성

- 경지면적은 191,601ha(2021년)로 2017년(199,196ha) 이후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
 - 시·군별 비중은 김제시(13.9%), 고창군(12.3%), 익산시(11.9%), 정읍시(11.2%) 등의 순
- 농가를 경지규모별로 보면 1ha 미만은 65.3%, 1ha~3ha는 22.2%, 3ha 이상은 12.5%
- 농축산물 판매액 1천만원 미만 농가는 62.5%, 1천만원~3천만원 20.1%, 3천만원~1억원 12.5%, 1억원 이상은 4.9%

[표 3-5] 경지규모별 농가 추이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농가내 비중)
농 가 수(호)	104,036	100,362	98,930	96,780	94,935	94,735	-
경지없는 농가	736	1,232	1,060	1,112	1,048	1,100	1.2
0.1ha 미만	1,382	2,414	1,731	1,008	1,832	1,450	1.5
0.1~0.5ha 미만	37,820	37,029	40,135	38,110	38,428	37,622	39.7
0.5~1.0ha 미만	21,910	21,830	20,670	21,376	20,222	21,690	22.9
1.0~1.5ha 미만	12,135	10,621	10,459	10,263	9,767	8,786	9.3
1.5~2.0ha 미만	8,624	7,270	6,914	7,108	6,290	6,808	7.2
2.0~3.0ha 미만	8,232	6,916	6,376	6,148	5,686	5,469	5.8
3.0~5.0ha 미만	6,434	6,228	5,878	5,600	5,987	5,809	6.1
5.0ha 이상	6,763	6,822	5,709	6,054	5,675	6,000	6.3

자료 : 전라북도 「전라북도 통계연보」,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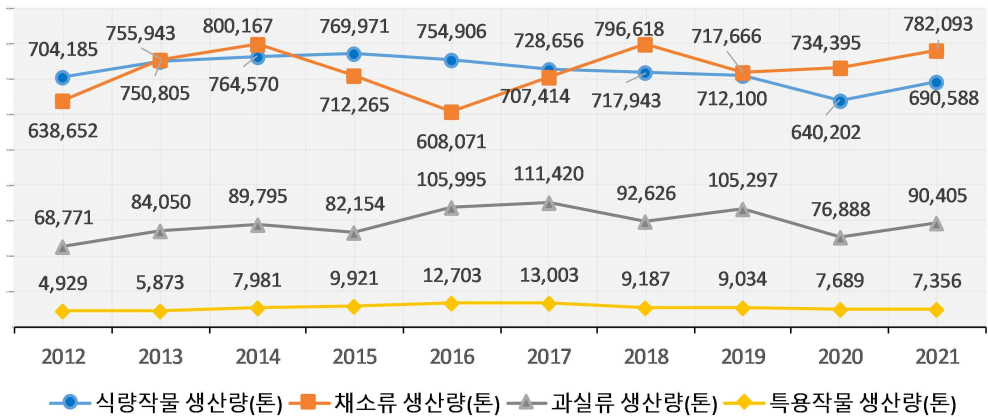
[표 3-4] 농축산물 판매규모별 농가 비중 (2019년 기준)

구분	판매없음(a)	1천만원 미만(b)	(a+b)	1천~3천만원	3천~1억원	1억원 이상
전라북도	11.3%	51.2%	(62.5)	20.1%	12.5%	4.9%
(농가수)	10,734호	48,517호	(59,251)	19,026호	11,812호	4,645호
전주시	16.7	67.4	(84.1)	10.2	4.6	1.1
군산시	13.5	54.1	(67.6)	19.1	10.1	3.2
익산시	11.1	50.4	(61.5)	19.8	14.2	4.5
정읍시	6.1	59.2	(65.3)	19.4	11.6	3.7
남원시	11.2	49.4	(60.6)	21.6	14.8	3.0
김제시	5.6	42.9	(48.5)	25.7	19.7	6.0
완주군	12.4	57.3	(69.7)	18.6	9.7	1.9
진안군	8.1	60.7	(68.8)	20.3	9.3	1.6
무주군	11.0	61.2	(72.2)	17.6	8.7	1.5
장수군	5.1	56.1	(61.2)	21.2	13.1	5.0
임실군	9.1	59.2	(68.3)	17.8	10.4	3.5

구분	판매없음(a)	1천만원 미만(b)	(a+b)	1천~3천만원	3천~1억원	1억원 이상
순창군	7.3	57.2	(64.5)	21.1	11.1	3.5
고창군	5.6	51.8	(57.4)	25.3	13.6	3.7
부안군	5.9	61.9	(67.8)	17.1	11.9	3.2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2019.

- 품목 부류별 생산량을 보면 식량작물은 2014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채소류, 과실류는 생산량의 등락을 반복하다가 약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재배면적으로는 식량작물은 지속적인 감소세이며, 채소류는 등락을 반복하다가 감소세, 과실류와 특용작물을 등락을 반복하다가 최근 약 보합세



[그림 3-2] 품목 부류별 생산량 추이

[표 3-6] 품목 부류별 재배면적 추이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식량작물	157,517	153,592	150,886	146,676	147,319	141,219	147,931	147,014	142,190	144,037
채소류	18,399	18,761	18,145	17,132	16,938	17,872	18,547	18,082	17,694	18,077
과실류	7,118	8,883	9,629	10,009	11,101	10,962	10,569	10,259	9,517	7,593
특용작물	5,225	5,396	6,685	6,997	8,883	9,255	6,944	7,531	6,937	5,564

자료 : 통계청, 「농작물생산조사」에서 작성

-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은 전국의 6.9%(2020년), 출하량은 7.2%, 농가수는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2016년 이후 감소세를 보임
- 시·군별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은 순창군(22.2%), 고창군(12.9%), 익산시(10.4%), 군산시(9.3%)에 집중되어 있고, 출하량은 익산시(15.0%), 군산시(12.0%), 전주시(14.3%) 비중이 높음

[표 3-7]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출하량+농가수 추이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ha)	6,799	6,280	5,858	5,707	5,633
(전국 대비 점유율)	8.6%	7.8%	7.5%	7.0%	6.9%
친환경 농산물 출하량(톤)	18,142	34,268	29,949	34,174	35,486
(전국 대비 점유율)	9.5%	6.9%	6.6%	6.9%	7.2%
친환경 농산물 농가수(호)	5,211	4,800	4,311	4,191	4,136
(전국 대비 점유율)	8.4%	8.1%	7.5%	7.2%	7.0%

시·군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유기농 농가(호)('19년)	136	272	114	86	112	123	85
무농약 농가(호)('19년)	273	213	250	87	144	104	226
GAP 농가(호)('20년)	780	522	958	979	1,216	2,274	521
시·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유기농 농가(호)('19년)	73	18	13	11	166	119	78
무농약 농가(호)('19년)	174	165	55	74	719	176	75
GAP 농가(호)('20년)	301	805	382	1,074	625	540	1,536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GAP정보시스템에서 작성

- 축산업을 축종별로 보면 사육농장은 감소하나(닭 제외), 사육 마리수는 증가하는 추세

[표 3-8] 축종별(5대) 농장수 및 마리수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한우	사육농장	8,699	8,291	9,439	9,370	9,227
	마리수	317,405	322,579	359,109	372,905	394,925
젖소	사육농장	317	320	461	495	477
	마리수	29,712	29,517	33,105	33,787	33,157
돼지	사육농장	507	485	827	802	784
	마리수	1,215,603	1,191,999	1,342,634	1,352,113	1,406,178
닭	사육가구	502	555	528	503	519
	마리수	25,979,086	30,267,004	28,255,815	29,400,802	31,309,251
오리	사육가구	180	162	128	130	111
	마리수	2,763,678	2,586,115	2,011,690	2,454,377	2,275,220

자료 : 전라북도, '전라북도 통계연보', 각 년도에서 작성

- 전라북도 농업+축산업+수산업의 위치는 농작물은 재배면적 14.4%와 생산량 11.7%를, 축산물은 농장수의 7.6%와 사육량의 2.5%를, 수산물은 생산량의 17.6%를 차지함
- 농산물을 품목 부류별로 생산량의 비중은 식량작물은 16.3%, 과채류 9.2%, 엽채류 6.8%, 근채류 10.2%, 조미채소류 9.5%, 과실류 4.8%, 특용작물 14.2% 등임

[표 3-9] 농산물+축산물+수산물 생산수준(전국 대비) (2019년 기준)

구분		전라북도(b)		비중(b/a)		전국(a)		
		면적(ha) 농장수(가구)	생산량(톤) 사육량(마리)	면적/농장수 (%)	생산량/사육량 (%)	면적(ha) 농장수(가구)	생산량(톤) 사육량(마리)	
농 업	식량작물		147,014	712,100	15.9	16.3	924,291	4,374,899
	채 소 류	과채류	3,773	177,155	8.9	9.2	42,623	1,928,430
		엽채류	2,644	161,097	6.4	6.8	41,635	2,354,329
		근채류	1,788	120,554	8.3	10.2	21,572	1,178,201
		조미채소류	9,877	258,860	9.4	9.5	104,860	2,725,088
		소계	165,096	1,429,766	14.5	11.4	1,134,981	12,560,947
	과실류		10,259	105,297	6.4	4.8	160,571	2,206,348
	특용작물		7,531	9,034	11.5	14.2	65,772	63,546
소계		329,900	2,256,197	14.4	11.7	2,285,615	19,205,740	
축 산 업	소		9,704	428,082	9.7	11.7	100,175	3,645,190
	돼지		784	1,406,178	12.8	12.5	6,133	11,279,894
	닭		519	31,309,251	18.6	18.1	2,784	172,920,159
소계		67,860	82,664	7.6	2.5	893,987	3,357,172	
수 산 업	일반해면	6,268	24,565	2.2	2.7	289,743	911,852	
	천해양식		51,052		2.1		2,410,039	
	내수면어업		61,592	7,047	10.2	20.0	604,244	35,281
소계		11,007	33,143,511	10.1	17.6	109,092	187,845,243	

주 1. 축산업은 면적 대신 사육농가 수, 생산량 대신 사육두수를 반영, 수산업 면적은 일반천해양장 면적
 2. 축산업에서 소는 한육우+젖소 합계 3. 닭은 3천수 이상 사육농가 전수자료(전라북도)
 자료 : 통계청, '농작물생산조사', '어업생산동향조사', '가축동향조사', '전라북도 기본통계(가축사육)'에서 작성

2. 지역가공

- 전라북도에서 농축산물을 가공하는 법인은 2020년 742개소로 2018년(710개)보다 연평균 2.2% 증가하고 있음
 - 지역 내 농축산물 가공법인은 전국에서 14.6%('20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데, 2018년 이후 감소세
 - 지역 내 농축산물 가공법인이 전체 농업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5%(2020년)으로 매년 비중이 감소하지만, 전국 농업법인 중 농축산물 가공법인의 비중(20.8%)보다는 높음
- 식품가공 및 제조업체는 378개소(2020년)로 2016년(336개소)보다 증가세이지만, 전국의 식품가공 및 제조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3%로 6.3%로 감소

- 시·군별 비중은 익산시(22.0), 군산시(12.7), 김제시(10.8), 정읍시(9.3), 전주시(7.7), 부안군(7.1), 완주군·고창군(5.6), 남원시(4.5), 임실군(4.2), 순창군(3.4), 진안군(3.2), 무주군(2.4) 순

[표 3-10] 농축산물 가공법인 추이

구분		2018	2019	2020	CAGR('18~'20)
전북	농축산물 가공법인(개)	710	707	742	+2.2%
	(농업법인 중 가공법인 비율)	27.4%	25.4%	25.5%	
전국	농축산물 가공법인(개)	4,517	4,928	5,093	+6.2%
	(농업법인 중 가공법인 비율)	20.7%	21.1%	20.8%	

자료 : 전라북도, '전라북도 통계연보', 각 년도에서 작성

[표 3-11] 식품가공 및 제조업체 추이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식품가공 및 제조업체(개)	336	356	366	382	378
(전국대비 비중)	6.4%	6.5%	6.5%	6.6%	6.3%

시·군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식품가공 및 제조업체(개)	29	48	83	35	17	41	21
(도내 비중)	7.7%	12.7%	22.0%	9.3%	4.5%	10.8%	5.6%

시·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식품가공 및 제조업체(개)	12	9	6	16	13	21	27
(도내 비중)	3.2%	2.4%	1.6%	4.2%	3.4%	5.6%	7.1%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각 년도에서 작성

- 식품가공 및 제조업체의 가공(생산)의 내역으로는 육류 가공 및 저장, 동물용 사료, 기타 식품 제조업 중심으로 종사자, 출하액, 부가가치의 비중이 높음

[표 3-12] 식품가공 및 제조업 세부내역별 종사자+출하액+부가가치 (2020년 기준)

구분	종사자(명)	출하액(백만원)	부가가치(백만원)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	6,820	2,313,699	544,000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730	204,591	54,892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817	152,720	64,388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282	107,769	30,344
낙농제품 및 식용 빙과류 제조업	1,053	704,454	254,750
곡물 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926	891,739	173,043
기타 식품 제조업	6,565	1,840,755	779,269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1,177	2,422,850	515,257
알코올 음료 제조업	776	707,425	406,078
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325	87,469	41,864
합계	19,471	9,433,471	2,863,885

자료 : 통계청(2021), '광업제조업조사'

- 지역 농산물 생산자원을 매개로 한 향토산업육성사업은 총 34개소로 전국의 13.1%를 차지, 전남도(22.8%) 다음으로 사업선정 비중이 높음

- 시·군별로는 완주군(6건), 김제시(4건), 군산시·정읍시·남원시·임실군·고창군(각 3건), 전주시·무주군·순창군(각 2건) 등의 순

[표 3-13] 향토산업육성사업 선정 현황 (2020년 기준)

구분	전국	전북	부산	인천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개소	259	34	2	1	1	1	14	28	12	29	59	34	28	16
비중	100	13.1	0.8	0.4	0.4	0.4	5.4	10.8	4.6	11.2	22.8	13.1	10.8	6.2
시·군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개소	2	3	1	3	3	4	6	-	2	1	3	2	3	1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실적'.

- 농산물 자원을 활용한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은 17개소로 전국의 20.0%를 차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음

- 시·군별로는 완주군(3건), 전주시·임실군·순창군·고창군(각 2건), 정읍시·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각 1건) 등의 순

[표 3-14]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선정 현황 (2020년 기준)

구분	전국	전북	부산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개소	85	17	3	2	6	6	9	7	14	9	6	6		
비중	100	20.0	3.5	2.4	7.1	7.1	10.6	8.2	16.5	10.6	7.1	7.1		
시·군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개소	2	-	-	1	1	-	3	1	1	1	2	2	2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추진실적'.

[표 3-15]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 현황 (2020년 기준)

구분	전국	전북	광역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개소	2,047	328	76	213	184	134	217	359	222	185	129			
비중	100	16	3.7	10.4	9	6.6	10.6	17.5	10.9	9.0	6.3			
시·군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개소	12	15	26	46	27	24	40	21	20	15	12	14	38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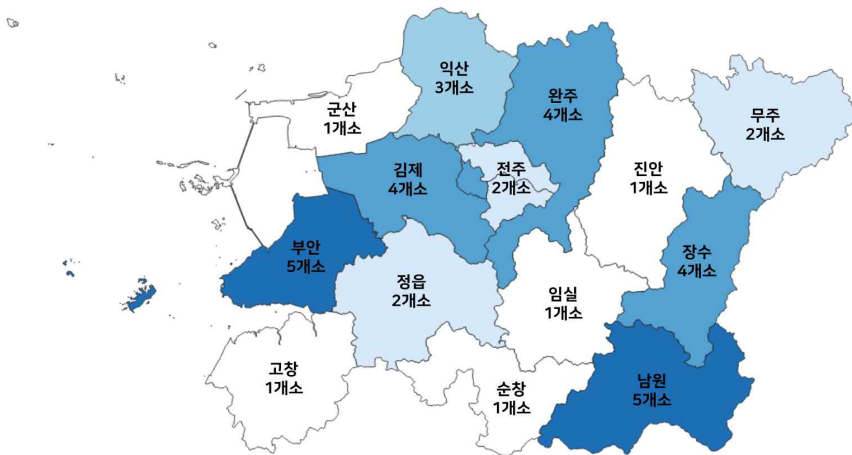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 현황'.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는 328개소로 전국의 16.0%를 차지, 전남(17.5%) 다음으로 인증 사업자 비중이 높음

- 시·군별로는 정읍시(46건), 완주(40건), 고창군(38건), 남원시(27건), 익산시(26건), 김제시(24건), 진안(21건), 무주군(20건), 부안군(18건), 장수군·군산시(각 15건), 순창군(14건), 전주시·임실군(각 12건) 순

3. 지역유통

- 산지에서 농산물을 수집하고 선별·유통을 담당하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는 총 36개소(2021년)가 있음
- 시·군별로는 남원시·부안군(각 5개소), 김제시·완주군·장수군(각 4개소), 익산시(3개소), 전주시·정읍시·무주군(각 2개소), 군산시·진안군·임실군·순창군·고창군(각 1개소)
- 취급하는 품목은 주로 양파 고추 등과 같은 조미채소류, 사과 등 과실류, 토마토(과채류) 위주



[그림 3-3]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군별 현황

[표 3-16]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현황 (2021년 1월 기준)

시·군	운영주체	주요 품목	시·군	운영주체	주요 품목
전주시	전주농협	토마토, 복숭아	완주군	삼례농협	딸기, 수박
	전주원협	배, 사과		고산농협	양파, 감자
익산시	익산원협	멜론, 배, 기타		봉상생강영농조합	생강
	망성농협	토마토, 수박		완주임협	대추, 감자,
	익산참다래유통사업단	고구마, 참다래	진안군	진안마이산조공법인	수박, 사과

시·군	운영주체	주요 품목	시·군	운영주체	주요 품목
정읍시	정읍원협	토마토, 복분자, 수박	무주군	무주농협	사과, 복숭아
남원시	남원원협	복숭아, 딸기	장수군	구천동농협	사과
	운봉농협	파프리카, 상추		장수군조공법인	사과, 토마토, 양파
	춘향골농협	딸기, 복숭아		장수농협	사과
	지리산농협	포도, 토마토		장계농협	사과
	남원농협	양파, 오이		장수사과원협	사과
김제시	한우물영농조합법인	양파, 포도	고창군	황토배기유통	고구마, 수박, 배
	백구농협	포도, 토마토	부안군	부안중앙농협	양파
	(주)농산	파프리카		남부안농협	양파
	김제지평선조공법인	토마토		변산농협	양파, 대파
군산시	군산원예농협	배추, 무, 건고추, 양파, 마늘, 생강, 감자, 대파, 고구마, 수박		새만금유통	양파
임실군	오수농협	딸기, 복숭아		부안마케팅영농조합	수박, 양파,
			순창군	동계농협	매실, 밤, 대봉

자료 : 공공데이터포털, 전라북도 농산유통과

- 지역 농산물의 마케팅을 담당하는 통합마케팅전문조직은 16개 조직이며, 대부분 도매 시장에 출하하는 비중이 큼

-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대형 유통업체 출하 비중도 높은 편인데, 채소류, 과실류 중심으로 출하

[표 3-17]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현황과 출하처+출하량 (2021년 기준)

구분	출하처별(비율, %)							주요 품목별 연간 출하량
	공영 도매 시장	도매 시장	대형 유통 업체	식자 재	수출	소비 자 직판	기타	
고창군농협조공법인	60	-	20	5	-	-	15	고구마 4,751톤, 양파 7,000톤, 멜론 1,500톤, 수박 3,801톤, 배 800톤
김제지평선조공법인	68	-	26	-	-	-	6	감자 10,044톤, 토마토 1,449톤, 고구마 1,411톤, 딸기 715톤, 오이 549톤
남원시조공법인	70	-	20	-	-	-	10	포도 4,809톤, 상추 3,705톤, 파프리카 3,117톤, 양파 2,740톤
농업회사(주)로즈피아	40	25	-	-	30		5	장미 1,500톤, 국화 120톤, 토마토 147톤
농업회사 농산	5	-	57	-	30	3	5	파프리카 7,000톤
무주반딧불조공법인	50	-	30	10	-	-	10	사과 4,000톤, 복숭아 700톤, 포도 432톤, 수박 310톤
부안마케팅영농조합	20	-	60	5	-	-	15	수박 17,000톤, 양파 6,200톤, 토마토 4,200톤
부안천년의숨씨조공법인	57	-	29	-	-	-	14	무 8,089톤, 양파 3,514톤, 대파 3,157톤, 감자 3,030톤, 배추 1,345톤
순창군조공법인	78	-	20	-	-	-	2	딸기 519톤, 두릅 342톤, 밤 277톤, 콩 141톤
완주군조공법인	44	-	17	-	-	-	39	딸기 1,350톤, 양파 10,347톤, 수박 1,300톤, 토마토 1,220톤, 고구마 1,600톤
익산탑마루조공법인	58	-	5	13	-	-	24	고구마 2,029톤, 상수 3,780톤, 수박 3,370톤

구분	출하처별(비율, %)							주요 품목별 연간 출하량
	공영 도매 시장	도매 시장	대형 유통 업체	식자 재	수출	소비 자 직판	기타	
임실군조공법인	35	-	54	-	-	-	11	양파 2,363톤, 복숭아 1,312톤, 딸기 321톤, 토마토 776톤, 오이 578톤
장수군조공법인	79	-	12	1	-	-	8	토마토 4,272톤, 사과 3,551톤, 양파 2,811톤
전주시조공법인	30	-	47	-	11	-	12	배 4,200톤, 복숭아 800톤, 딸기 400톤
정읍단풍미인조공법인	24	-	18.5	-	-	-	57.5	수박 2,360톤, 토마토 1,648톤, 배 528톤
진안군농협조공법인	70	-	1%	-	-	-	11	수박 3,000톤, 토마토 1,900톤, 배추 1,000톤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aT, 2021 산지통합 마케팅조직 소개집

- 농산물의 수집, 분산, 가격발전 기능을 하는 도매시장은 총 3개소이며, 모두 공영도매 시장으로 도매시장 내 도매법인은 총 8개소임(전주시 4개소, 익산시 3개소, 정읍시 2개소)
- 도매시장별 거래실적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산지유통+ 소비자 유통 주체의 다변화를 반영한 수준을 보여줌
- 도매시장별로 거래실적은 청과부류 거래물량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산부류는 2017년과 2019년 약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표 3-18] 지방도매시장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추이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CAGR
거래 물량 (톤)	합계	청과부류	144,505	143,800	135,994	133,887	122,608	-4.0%
		수산부류	3,613	3,843	3,675	3,837	3,251	-2.6%
	전주 도매시장	청과부류	76,515	75,005	71,823	69,502	63,119	-4.7%
		수산부류	1,708	1,612	1,387	1,554	1,472	-3.6%
	익산 도매시장	청과부류	50,304	51,197	48,142	48,813	46,234	-2.1%
		수산부류	1,905	2,231	2,288	2,283	1,779	-1.7%
	정읍 도매시장	청과부류	17,686	17,598	16,029	15,572	13,255	-7.0%
		수산부류	-	-	-	-	-	-
거래 금액 (백만원)	합계	청과부류	122,287	121,040	118,845	108,711	113,158	
		수산부류	7,666	8,291	7,503	8,007	9,214	
	전주 도매시장	청과부류	89,897	86,411	84,712	81,053	87,617	
		수산부류	7,951	10,627	9,786	9,509	8,585	
	익산 도매시장	청과부류	28,357	28,045	26,853	26,356	24,859	
		수산부류	-	-	-	-	-	
	정읍 도매시장	청과부류	17,686	17,598	16,029	15,572	13,255	
		수산부류	-	-	-	-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물 도매시장 통계연보

- 도매시장별 친환경 농산물 거래실적을 보면 거래물량과 거래금액 모두 전년에 비해 감소하고 있는 상황

- 정읍도매시장의 친환경 농산물 거래실적이 가장 높은 반면, 전주도매시장은 일반 농산물 중심으로 취급

[표 3-19] 지방도매시장 내 친환경농산물 거래실적 추이

구분	2019		2020		증감율	
	물량(톤)	금액(백만원)	물량(톤)	금액(백만원)	물량(%)	금액(%)
전체	1,867	6,907	1,173	3,422	-37.2%	-50.5%
전주도매시장	27(1.4%)	66(1.0%)	23(2.0%)	81(2.4%)	-14.8%	+22.7%
익산도매시장	1,041(55.8%)	4,284(62.0%)	400(34.1%)	1,178(34.4%)	-61.6%	-72.5%
정읍도매시장	799(42.8%)	2,557(37.0%)	750(63.9%)	2,163(63.2%)	-6.1%	-15.4%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물 도매시장 통계연보

4. 지역소비

- 도민의 월평균 생활비(191.8만원) 중 식료품에 지출하는 비용은 평균 47만원으로 생활비의 24.5%를 차지함
 - 전라북도 평균 식료품비 지출액(47만원)을 상회하는 지역은 전주시(55.8만원), 군산시(52.6만원), 완주군(47.6만원) 등 3개 시·군임
 - 평균 식료품비 지출액보다 낮은 지역은 익산시(46.4만원), 남원시(40.5만원), 정읍시(38.3만원), 김제시(37.0만원), 진안군(36.9만원), 임실군(32.5만원), 부안군(31.9만원), 무주군(31.7만원), 고창군(28.5만원), 장수군·순창군(각 27.6만원)임
- 도민이 체감하는 소비생활 만족도는 만족하는 비중이 27.4%인 반면 불만족한다는 비율은 36.6%로 만족하지 않는 상황임
 - 소비생활 만족도가 높은 지역은 고창군(56.4%), 정읍시(40.7%), 임실군(39.7%), 김제시(33.4%) 등이며, 낮은 지역은 장수군(15.9%), 무주군(16.5%), 부안군(19.0%) 순
- 전라북도 내의 식품접객 업체수는 34,103개소로,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남원시, 김제시 등의 순으로 분포

[표 3-20] 도민의 가계지출 구조와 소비생활 만족도 (2020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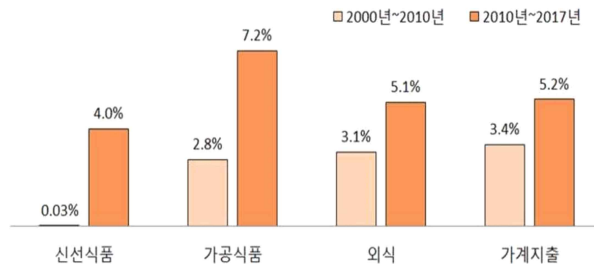
월평균 생활비	식료품비 지출액		소비생활 만족도			식품접객업체 수
	식료품비 지출액	비중	만족	보통	불만족	
191.8만원	47.0만원	24.5%	27.4%	36.0%	36.6%	34,103개소

구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식료품비 지출액	55.8만원	52.6만원	46.4만원	38.3만원	40.5만원	37.0만원	47.6만원
(생활비 대비 비중)	25.9%	25.6%	24.4%	22.0%	22.8%	21.3%	23.6%
소비생활 만족 비율	26.3%	23.0%	25.1%	40.7%	26.7%	33.4%	24.9%
식품접객업체 수	12,170개	5,719개	5,086개	1,835개	1,633개	1,306개	1,878개

구분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식료품비 지출액	36.9만원	31.7만원	27.6만원	32.5만원	27.6만원	28.5만원	31.9만원
(생활비 대비 비중)	21.8%	22.5%	18.7%	26.3%	20.3%	22.4%	21.6%
소비생활 만족 비율	26.0%	16.5%	15.9%	39.7%	24.2%	56.4%	19.0%
식품접객업체 수	388개	639개	394개	530개	446개	944개	1,135개

자료 : 전라북도 사회조사, 2021

- 가구당 식료품비의 변화 구조(전국적 소비 트렌드)를 가구 당 신선식품 지출액, 가공식품 지출액, 외식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2000년~2010년 대비 2010~2017년 가공식품 지출액이 2.8%에서 7.2%로 2010년대 들어서 증가하는 추세임



자료 : 이계임 외(2017)

[그림 3-4] 기간별 가구당 식료품비의 연평균 증가율

- 지역 먹거리 대표 소비거점인 로컬푸드 직매장은 총 40개소가 개설되어 운영 중이며, 전체 매출액은 1,300억원(2021년)으로 2012년(48억원)보다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임
- 로컬푸드 직매장은 서부를 중심으로 입지·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아직 미흡함
 - 시·군별 직매장 비중 : 완주군(27.5%), 전주시(15.0%), 김제시(12.5%), 익산시·정읍시(각 10.0%), 부안군(7.5%), 군산시·남원시(각 5.0%), 진안군·순창군·고창군(각 2.5%) 순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직매장 매출액(억원)	48	223	396	551	724	893	961	993	1,222	1,300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비(백만원)					직원(임사)	조직화 농가(품목수)
	계	국비	도비	시·군	자담		
40개소	43,896	8,740	2,052	26,982	6,122	281(23)	10,766농가(11,804)

구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개소수(비중)	6(15.0%)	2(5.0%)	4(10.0%)	4(10.0%)	2(5.0%)	5(12.5%)	11(27.5%)
구분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개소수(비중)	1(2.5%)	-(0.0%)	-(0.0%)	-(0.0%)	1(2.5%)	1(2.5%)	3(7.5%)

County	Number of Gas Stations
완주 (Wansu)	11개소
진주 (Jeonju)	6개소
익산 (Eksan)	4개소
김제 (Gimje)	5개소
부안 (Buan)	3개소
정읍 (Jeongeup)	4개소
고창 (Gochang)	1개소
순창 (Sunchang)	1개소
남원 (Namyon)	2개소
진안 (Jinan)	1개소
장수 (Jangsu)	0개소
무주 (Muju)	0개소
임실 (Imseil)	0개소

[표 3-22] 전라북도 시·군별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현황 (2020년 기준)

구분	매장명	개장시점	매출액(억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39개소		48	223	396	551	724	893	951	992.8	1,222
전주시 (6)	전주푸드(송천점)	'15.12.04	-	-	-	1	12.5	14	16.7	18.2	22.2
	전주푸드(종합경기장)	'16.08.12	-	-	-	-	3.4	9.1	12	13.7	18.5
	전주농협(중화산점)	'16.11.10	-	-	-	-	1.3	11.6	14.1	15.2	16.9
	전주농협(평화동점)	'17.02.15	-	-	-	-	-	37.7	31.9	15.2	13.4
	전주농협(신성점)	'17.06.23	-	-	-	-	-	5.1	8.9	10.6	15.9
	전주농협(아중점)	'18.07.01	-	-	-	-	-	-	31	20.8	26.9
군산시 (2)	옥산농협	'14.06.27	-	-	21.5	43	52.2	56.2	35.8	39.7	52.8
	박물관(군산원협)	'15.09.21	-	-	-	3.7	19	19.9	18.3	14.6	18

구분	매장명	개장시점	매출액(억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익산시 (3)	익산로컬	'16.03.01	-	-	-	-	43.1	53.5	57.2	62.6	76.9
	금마농협	'16.11.19	-	-	-	-	0.7	6	8.2	10.5	15.6
	익산원협	'18.01.01	-	-	-	-	-	-	5.5	9.7	16.1
정읍시 (4)	정읍원협	'14.11.13	-	-	9.8	35.6	43.3	48.7	40.1	41.3	52.2
	고모네장터	'17.04.06	-	-	-	-	-	4.2	5.1	6.1	8
	정읍농협(수성점)	'17.11.02	-	-	-	-	-	1	5.1	5.3	7.4
	정읍농협(상동점)	'17.12.28	-	-	-	-	-	-	9.3	11.7	14.5
남원시 (2)	남원원협	'16.01.21	-	-	-	3.5	34.8	51.3	59	59	67.5
	남원농협	'18.06.21	-	-	-	-	-	-	6.5	17.7	25.7
김제시 (3)	동김제농협	'14.07.10	-	-	17.6	40.1	47.5	48.2	52	53	67
	백구농협	'14.04.30	-	-	3.7	4	3.1	3.3	3	2.6	3.5
	행복장터(공덕농협)	'17.11.30	-	-	-	-	-	0.3	3.3	3.2	2
완주군 (12)	용진농협	'12.04.27	43.3	93.7	88.4	91.2	89.4	92	97.1	98.1	111.2
	용진농협(효자점)	'15.09.22	-	-	-	2.4	13.8	11.7	11	10.9	9.4
	완주로컬(효자점)	'12.10.31	4.5	77.2	86.8	92.2	94.2	95.8	94.4	92.4	114.2
	완주로컬(모악점)	'13.07.27	-	22.2	49.7	52.9	51.7	51.9	50.9	48.1	56.7
	완주로컬(하가점)	'14.01.29	-	-	34	47.7	49.6	53.9	54.8	51.4	57.7
	완주로컬(둔산점)	'15.01.22	-	-	-	23.9	22.6	24.6	26.8	22	21.4
	완주로컬(삼천점)	'15.08.08	-	-	-	6.4	27.3	28.9	26.6	29.3	35.6
	삼락마켓	'16.10.15	-	-	-	-	3.9	37.2	47.8	53.5	62.7
	상관농협	'13.07.04	-	4.2	7.7	8.3	7.6	8.1	8.6	8	10.9
	고산농협	'13.07.25	-	22.9	38.6	50.3	40.1	41.3	39.6	39.2	47.9
	소양농협	'13.11.26	-	1.1	12.7	14.3	14.4	15.2	15.6	15.2	18.3
	봉동농협	'13.12.19	-	0.6	21.2	22	31.4	41.4	41.8	38.5	46.3
진안군 (2)	진안마을	'15.04.15	-	-	-	2.9	6	4.8	3.1	2	0.4
	진안로컬	'19.01.25	-	-	-	-	-	-	-	28.8	60.8
순창군	순창로컬	'13.10.28	-	0.6	3.3	2.6	4.4	4.8	4.1	4.9	8.3
고창군	고창농협	'14.02.27	-	-	1.2	2.4	1.9	2.8	3.9	6	6.6
부안군 (2)	남부안농협	'17.09.21	-	-	-	-	-	2.9	7.1	8.3	8.5
	변산농협	'18.11.02	-	-	-	-	-	-	0.1	1	1.2
도청	도청매장(동김제)	'15.12.08	-	-	-	0.4	4.7	5.1	5.1	4.5	2.9

자료 : 지역파트너플러스·커뮤니티링크협동조합(2021)에서 재인용

- 전라북도 먹거리를 판매하는 온라인 매장인 ‘전북 생생장터’는 매출액은 33.4억원(2021년)으로 2017년(50.1억원)보다 줄었는데, 연평균 9.6% 감소세
 - 온라인 회원 수 7,074명, 입점업체 수 243개, 품목 수 1,456개(2021년)로 2017년 이후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생생장터의 매출액은 잡곡, 축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쌀, 과일·채소, 김치·장류, 수산, 가공식품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여 매출액 감소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표 3-23] 전라북도 생생장터 운영실적 추이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CAGR
매출액(백만원)	5,014	5,757	4,513	4,827	3,343	-9.6%
쌀	2,006	2,553	2,000	1,117	1,314	-10.0%
잡곡	106	182	147	202	153	+9.6%
과일, 채소	853	920	908	252	614	-7.9%
김치, 전통장	150	149	116	312	93	-11.3%
축산	142	143	110	417	287	+19.2%
수산물	76	79	84	1,258	20	-28.4%
가공식품 등	1,681	1,731	1,148	1,269	862	-15.4%
회원 수(명)	22,811	24,416	24,947	5,100	7,074	-25.4%
입점업체(개소)	517	584	656	297	243	-17.2%
품목 수(개)	3,775	4,306	4,499	2,555	1,456	-21.2%

자료 : 전라북도, '생생장터 운영실적'

5. 학교·공공급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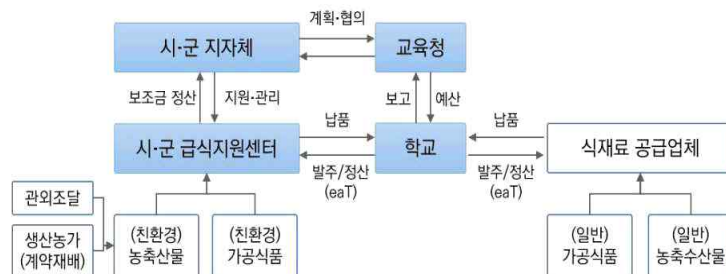
-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예산은 무상 학교급식과 친환경 농산물을 포함하여 1,225.7억원 이 지원되고 있으며, 학교급식에 사용된 농산물은 8,501톤으로 집계(2019년)
-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된 농산물 공급금액은 282.6억원(2020년)이며, 학교급식 운영조직의 종사자는 267명(2019년)으로 집계됨
 - 시·군별 공급량은 전주시(37.2%), 익산시(15.7%), 군산시(13.8%), 정읍시(6.8%), 완주군(5.4%), 남원시(4.4%), 고창군(3.9%), 김제시(3.7%), 부안군(3.4%), 장수군·임실군·순창군(각 1.2%) 순
- 학교급식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데, 전라북도는 각 시·군에 설치(지정)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식재료 등을 조달하고 있음
 -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전자조달시스템(eaT)을 활용, 가격입찰 및 수발주 업무 추진
 - 전라북도, 교육청과 지자체는 학교급식 운영, 예산을 협의하여 급식경비를 지원하며, 식재료 공급, 급식 경비에 대한 정산과 각종 지원업무를 담당 (배경기 외, 2020)

[표 3-24] 학교급식 지원 농산물의 공급량과 공급액

학교급식지원사업 예산('19)		학교급식 공급량('19)		학교급식 공급액('20)		학교급식운영조직 종사자수('19)	
무상급식	친환경농산물	친환경	일반	친환경	일반		
111,005백만원	11,567백만원	5,462톤	3,039톤	21,677백만원	6,579백만원	267명	
구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학교급식지원예산(백만원)	48,472	18,421	19,740	7,131	5,017	4,537	6,331
학교급식 농산물 공급량(톤)	3,158	1,171	1,334	574	377	317	459
학교급식 농산물 공급액(백만원)	5,894	3,381	8,176	2,860	2,302	358	3,101
학교급식 운영조직 종사자(명)	54	51	38	12	32	5	33
구분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학교급식지원예산(백만원)	1,226	1,405	1,218	1,175	1,527	3,496	2,874
학교급식 농산물 공급량(톤)	80	96	101	101	106	327	285
학교급식 농산물 공급액(백만원)	312	270	98	241	168	911	184
학교급식 운영조직 종사자(명)	8	3	4	12	5	4	6

자료 : 배균기 외(2020), '전라북도 공공급식 현황분석과 광역지원조직 기본구상 연구'에서 작성

-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일부 지역의 생산농가와 계약재배, 또는 농가 조직화 등을 통해 친환경 식재료를 우선 공급하고 있으나, 많은 비중을 지역 외에서 조달하고 있고, 시·군의 지역 농산물 공급량과 친환경농산물의 비율에 편차가 있음
-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공급받을 수 없는 식재료는 별도 가격입찰방식으로 일반 공급업체를 통해 조달
-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지역 농산물 공급 비중은 57%, 친환경 농산물은 76%로 공급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이나 해당 지역 조직화를 통한 기획생산 기반은 편차가 큼



자료 : 배균기 외(2020), '전라북도 공공급식 현황분석과 광역지원조직 기본구상 연구'에서 작성

[그림 3-6] 전라북도 학교급식의 일반적인 운영체계

[표 3-25] 시·군별 학교급식 농산물 공급현황 (2020년 기준)

학교급식 농산물 공급액 (백만원)													참여 농가수 (명)
구분	합계				친환경농산물				일반농산물				
	계	시·군·산	도내산	기타 (타도산)	계	시·군·산	도내산	기타 (타도산)	계	시·군·산	도내산	기타 (타도산)	
전 북	28,371	16,121	6,361	5,889	21,677	14,390	5,203	2,198	6,579	1,732	1,157	3,690	1,688
전주시	5,894	1,291	2,116	2,487	4,108	1,121	1,986	1,001	1,786	170	130	1,486	437
군산시	3,381	1,895	899	587	3,320	1,893	885	541	61	3	13	45	382
익산시	8,176	5,112	917	2,147	5,293	4,710	264	319	2,883	402	653	1,828	58
정읍시	2,860	2,311	375	174	2,833	2,289	372	172	27	22	3	2	82
남원시	2,302	1,739	449	114	2,134	1,691	408	35	168	48	41	79	100
김제시	358	208	148	2	355	208	147	-	3	-	1	2	14
완주군	3,101	2,342	470	289	1,934	1,483	362	89	1,167	859	108	200	218
진안군	312	148	112	52	130	91	33	6	182	57	79	46	45
무주군	270	8	262	-	205	-	205	-	65	8	57	-	1
장수군	98	98	-	-	98	98	-	-	-	-	-	-	-
임실군	241	46	168	27	240	45	168	27	1	1	-	-	109
순창군	168	98	70	-	98	98	-	-	70	-	70	-	17
고창군	911	624	287	-	750	463	287	-	161	161	-	-	105
부안군	299	201	88	10	179	200	86	8	5	1	2	2	120

자료 : 배균기 외(2020), '전라북도 공공급식 현황분석과 광역지원조직 기본구상 연구'에서 작성

[표 3-26] 전라북도 학교급식(공공급식 등) 공급조직 및 농가조직화 현황

구분	운영조직 명	종사자	생산조직 명
합계		267	
전주시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54	(사)전주푸드생산자회, 전주친환경영농조합법인
군산시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51	우리영농조합(친환경농산물), 일반농가 조직화 중
익산시	익산원협, 재단법인 설립('21년)	38	익산학교급식영농조합법인
정읍시	농업회사 친환경연합	12	정읍친환경연합회
남원시	남원원협(서울공급)/남원학교급식(남농)	32	친환경 공선출하회
김제시	지평선학교급식센터	5	친환경농산물 출하농가
완주군	(재)완주군공공급식지원센터	33	출하농가
진안군	진안로컬푸드영농조합	8	진안로컬푸드영농조합법인
무주군	무주농협	3	광역, 일반업체 조달
장수군	친환경영농조합	4	장수친환경영농조합법인
임실군	남농영농조합	12	임실농협(푸드플랜 수립중)
순창군	순창농협	5	순창친환경연합영농조합법인
고창군	고창친환경영농조합	4	고창친환경생산자영농조합, 친환경쌀 작목반
부안군	하서미래영농조합, 재단법인 설립('21년)	6	친환경농산물생산자연합회

자료 : 배균기 외(2020), '전라북도 공공급식 현황분석과 광역지원조직 기본구상 연구'에서 작성

- 공공급식의 대상이 되는 기관으로는 도내 공공기관 1,426개소(2019년), 지역아동센터 28개소, 공공급식 제공 사회복지시설 210개소, 집단급식소 2,025개소(2020년), 노인복지시설 149개소(2019년) 등임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은 7,436명(2020년), 노인복지시설 연간 이용자는 64,332명(2019년), 공공급식 제공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650명(2020년)으로 집계
- 시·군별 공공기관 비중 : 전주시(19.4%), 남원시(10.3%), 익산시(9.7%), 군산시(9.0%), 김제시(7.6%)
- 시·군별 지역아동센터 :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 진안군, 김제시, 장수군·고창군
- 시·군별 공공급식 사회복지시설 비중 : 전주시(42.9%), 익산시(15.7%), 군산시(9.5%)
- 시·군별 노인복지시설 : 전주시(22.8%), 군산시(18.1%), 익산시(17.4%), 완주군(8.1%), 김제시(7.4%)

[표 3-27] 전라북도 공공급식 대상기관 주요현황

공공기관 (‘19)	지역아동센터(‘20)		공공급식 제공 사회복지시설(‘20)		노인복지시설(‘19)		집단급식소 (‘20)		
	시설 수	이용자	시설 수	종사자	시설 수	연간이용자			
1,426개	285개	7,436명	210개	650명	149개	64,332명	2,025개		
구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지역 내 공공기관 수			276	128	138	101	147	108	88
지역아동센터			67	46	48	30	23	11	13
공공급식 제공 사회복지시설			90	20	33	10	12	7	13
노인복지시설			34	27	26	6	10	11	12
구분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지역 내 공공기관 수			64	51	42	66	64	85	68
지역아동센터			12	6	7	6	3	7	6
공공급식 제공 사회복지시설			3	2	1	2	4	7	6
노인복지시설			4	2	3	6	1	3	4

자료 : 배균기 외(2020), '전라북도 공공급식 현황분석과 광역지원조직 기본구상 연구'에서 작성

- 공공급식(학교급식 포함)을 담당하는 먹거리 지원센터는 총 14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납품농가는 1,119호, 공급대상은 총 2,709개소로 나타남
- 매출액은 487억원(2021년)으로 2019년(448억원)에서 2020년(430억원)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
- 시·군별 납품농가는 완주군(29.9%), 군산시(20.9%), 정읍시(8.8%)가 타 시·군에 비해 높음
- 시·군별 납품품목 : 완주군(15.8%), 진안군(14.2%), 군산시(10.1%), 전주시(9.9%), 정읍시(9.7%) 순

- 시·군별로 공급대상 개소는 남원시(43.9%), 완주군(17.7%), 전주시(11.0%), 익산시(9.4%) 등의 순
- 시·군별 통합지원센터의 매출액은 전주시(104.5억원), 완주군(99.0억원), 익산시(90.9억원), 군산시(79.5억원) 등의 순

[표 3-28] 전라북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주요현황 (2021년 기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수 (학교급식·공동급식센터)	납품농가 (총사자)	공급대상	매출액		
			2019	2020	2021
14개소 (재단법인 4, 농협운영 3, 민간운영 7)	1,119농가 (293명)	2,709개소	448.4억원	429.9억원	487.0억원

구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납품농가(농가)	64	247	55	104	40	46	354
총사자수(명)	22	47	40	15	68	6	50
품목수(품목)	130	133	106	128	38	62	208
공급대상(개소)	299	155	256	53	1,188	68	479
매출액(억원)	104.5	79.5	90.9	21.3	33.2	8.5	99.0

구분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납품농가(농가)	55	66	6	10	22	65	50
총사자수(명)	8	3	3	6	15	4	6
품목수(품목)	186	66	62	50	58	52	35
공급대상(개소)	40	35	21	17	25	49	24
매출액(억원)	9.0	3.0	2.5	8.6	6.9	9.1	11.0

자료 : 지역파트너플러스·커뮤니티링크협동조합(2021)에서 재인용

- 농촌마을 공동급식은 농번기에 여성농업인의 노동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으로 건강증진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
- 지역 식재료 조달이 가능하고, 공동급식시설을 갖춘 마을(참여농업인 15~20명이상)을 대상으로 인건비·식재료비 등 예산(도비 30%, 시·군비 70%)을 지원 (배경기 외, 2020)
- '19년 500개소에 16억원을 지원, '20년에는 630개소 20.2억원(개소 당 연 320만원)의 예산 지원

6. 음식물 폐기

- 전라북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총 36개소로 음식물류를 사료화, 퇴비화, 바이오가스화 위주의 방법으로 순환처리하고 있음

- 공공기관 운영 5개소, 민간 운영 31개소로 주로 사료화 하는 방식이 많은 비중을 차지

[표 3-29]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구분	운영주체(공공, 민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전주시	공공운영 1개소	바이오가스화(1)
군산시	민간운영 6개소	사료화(5), 퇴비화(1)
익산시	민간운영 13개소	사료화(11), 건조(1), 퇴비화(1)
정읍시	민간운영 4개소	바이오가스화(2), 퇴비화(2)
남원시	공공운영 1개소, 민간운영 1개소	바이오가스화(1), 퇴비화(1)
김제시	공공운영 1개소	퇴비화(1)
진안군	민간운영 1개소	퇴비화(1)
순창군	민간운영 3개소	사료화(3)
고창군	공공운영 1개소	퇴비화(1)
부안군	공공운영 1개소, 민간운영 3개소	사료화(2), 퇴비화(2)

자료 : 환경부(2020),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현황'에서 작성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은 2,114개소이지만, 자원화 시설은 부족한 상황으로 볼 수 있음
-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은 29개소(2021년)로 2020년(36개소)보다 감소하였음

[표 3-30]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현황

구분	음식물류 다량배출 사업장 (개소)	감량 목표	종량제 방식(개소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총계)	자원화 방법				
			RFID	용기	기타		소계	사료화	퇴비화	바이오 가스	기타
전 체	2,114	2.7	1,219.0	696.0	138.0	78.5	28.9	-	27.8	1.1	-
전주시	991	1.0	906.0	85.0	-	40.5	-	-	-	-	-
군산시	308	0.1	-	308.0	-	15.7	13.6	-	13.6	-	-
익산시	219	0.6	-	153.0	66.0	10.5	4.5	-	4.5	-	-
정읍시	74	0.4	74.0	-	-	1.7	1.7	-	1.7	-	-
남원시	61	-	-	61.0	-	1.1	1.1	-	-	1.1	-
김제시	69	0.1	-	69.0	-	1.4	1.4	-	1.4	-	-
완주군	164	-	164.0	-	-	2.6	2.6	-	2.6	-	-
진안군	30	-	17.0	-	13.0	0.3	0.3	-	0.3	-	-
무주군	44	0.2	34.0	-	10.0	1.7	1.0	-	1.0	-	-
장수군	24	0.0	24.0	-	-	0.1	0.1	-	0.1	-	-
임실군	17	-	-	17.0	-	0.7	0.7	-	0.7	-	-
순창군	19	0.1	-	15.0	4.0	0.3	0.2	-	0.2	-	-
고창군	49	0.1	-	49.0	-	1.0	1.0	-	1.0	-	-
부안군	45	0.1	-	-	45.0	0.9	0.7	-	0.7	-	-

자료 : 장남정 외(2020), '전라북도 자원순환시행계획'

- 시설용량은 895톤/일(2021년)로 전년 대비 24.4% 감소, 처리량은 208,042톤/년(2021년)으로 전년대비 1.6% 감소
- 시·군별 폐기물 처리시설 용량의 차이가 있는데, 시설 수와 달리 처리량과 시설용량은 전주시(82,168톤/년, 300톤/일)가 높은 수준, 시설 수는 익산이 가장 많음
- 시·군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량 : 전주시(82,168톤/년), 익산시(37,375톤/년), 군산시(31,952톤/년), 진안군(20,758톤/년), 정읍시(9,761톤/년), 김제시(8,644톤/년), 남원시(7,898톤/년), 고창군(5,663톤/년), 부안군(3,824톤/년) 순

[표 3-31]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지역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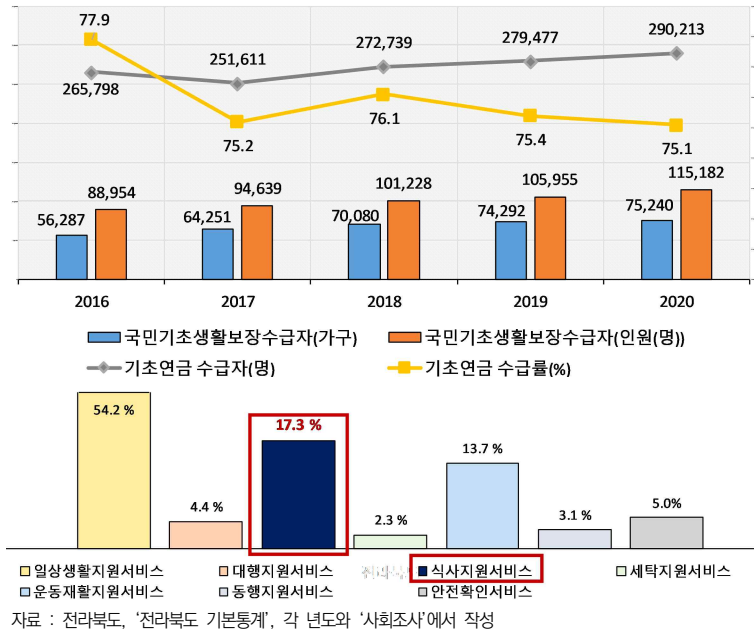
구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2020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2021년)		
	시설수(개소)	시설 용량(톤/일)	처리량(톤/년)	시설수(개소)	시설 용량(톤/일)	처리량(톤/년)
전 체	36	1,184	211,529.6	29	895	208,042.2
전주시	1	300	83,751.3	1	300	82,168.2
군산시	6	159	33,191.7	6	185	31,951.7
익산시	13	288	35,579.1	15	143	37,374.7
정읍시	4	205	10,824.0	1	50	9,760.7
남원시	2	100	9,132.0	2	100	7,898.0
김제시	1	35	9,056.5	1	35	8,644.0
완주군	0	0	0.0	0	0	0.0
진안군	1	60	19,292.0	1	60	20,758.0
무주군	0	0	0.0	0	0	0.0
장수군	0	0	0.0	0	0	0.0
임실군	0	0	0.0	0	0	0.0
순창군	3	1	0.1	0	0	0.0
고창군	1	20	5,339.0	1	15	5,663.0
부안군	4	16	5,363.9	1	7	3,824.0

자료 : 장남정 외(2020), '전라북도 자원순환시행계획'

7. 사회복지

- 취약계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초연금 수급자 또한 2017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
-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필요한 노인요양서비스로는 일상생활지원서비스(54.2%) 다음으로 식사지원서비스가 17.3%로 2순위로 지적됨

- 노인요양서비스 수요 : 일상생활지원(54.2%), 식사지원(17.3%), 운동재활지원(13.7%), 안전확인(5.0%), 대행지원(4.4%), 통행지원(3.1%), 세탁지원(2.3%) 순



[그림 3-7] 취약계층의 연도별 추이(위)와 필요 노인요양서비스 수요(아래)

- 취약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15,182명(2020년), 장애인 132,207명(2020년), 저소득 및 한부모 가족 25,493명(2020년), 독거노인 91,919명(2019년) 임
- 시·군별 취약계층 비중 : 전주시(26.0%), 익산시(17.1%), 군산시(12.4%), 정읍시(8.3%), 남원시(6.1%), 김제시(7.1%), 완주군(5.2%), 부안군(4.2%), 고창군(3.8%), 임실군(2.5%), 순창군(2.0%), 무주군(1.8%), 진안군(1.7%), 장수군(1.6%)

[표 3-32] 사회적 취약계층 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20)	장애인('20)		저소득 및 한부모 가족('19)			독거노인('19)	
115,182명	132,207명		25,493명			91,919명	
구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명)	35,661	16,742	20,285	8,198	6,565	7,607	5,626
장애인(명)	33,939	17,888	20,592	10,114	7,777	9,336	8,033

저소득 및 한부모 가족(명)	9,619	3,771	5,070	1,592	1,124	1,138	1,092
독거노인(명)	15,717	6,939	16,479	10,534	6,918	7,789	4,060
구분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명)	1,561	1,301	1,399	1,920	1,719	3,281	3,317
장애인(명)	2,796	2,476	2,344	3,164	2,934	5,634	5,180
저소득 및 한부모 가족(명)	173	177	203	182	249	578	525
독거노인(명)	1,837	2,784	1,718	3,701	2,557	4,530	6,356

자료 : 전라북도, '전라북도 기본통계', 각 년도와 '사회조사'에서 작성

- 복지급식 예산은 1,053.4억원, 지원사업은 278개(2019년)로 나타나며, 취약계층 먹거리 돌봄을 수행하는 푸드뱅크는 26개소(2021년)
 - 시·군별 복지급식 지원사업 수 : 전주시(33개), 순창군(24개), 김제시·고창·장수군(22개), 부안군(21개), 익산시(20개), 남원시·진안군(각 18개), 무주군·임실군(각 17개), 정읍시·완주군(각 15개), 군산시(14개)
 - 푸드뱅크 개소수 : 전주시(6개소), 정읍시·고창군(각 3개소), 군산시·김제시·진안군(각 2개소) 등 순
- 취약계층의 먹거리 나눔과 돌봄 기관인 푸드뱅크의 접수금액은 65.5억원, 배분금액은 76.4억원이며, 푸드마켓의 접수금액은 14.6억원, 배분금액은 11.7억원으로 집계

[표 3-33] 복지급식 예산과 사업, 푸드뱅크+푸드마켓 현황

복지급식(2019)		푸드뱅크(2020)			푸드마켓(2020)		
지원예산	사업수	센터('21)	접수금액	배분금액	접수금액	배분금액	
105,338백만원	278개	26개소	6,553백만원	7,635백만원	1,462백만원	1,167백만원	
구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복지급식 사업 수	33	14	20	15	18	22	15
푸드뱅크 수(개소)	6	2	1	3	1	2	1
푸드뱅크 배분금액(백만원)	1,505	764	998	706	266	557	215
푸드마켓 배분금액(백만원)	388	-	325	-	-	5	-
구분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복지급식 사업 수	18	17	22	17	24	22	21
푸드뱅크 수(개소)	2	1	1	1	1	3	1
푸드뱅크 배분금액(백만원)	137	347	88	508	210	879	453
푸드마켓 배분금액(백만원)	300	53	-	-	-	46	50

자료 : 전라북도(2021), '사회복지협의회 회의자료'에서 작성

-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배분금액 비중 : 전주시(21.5%), 익산시(15.0%), 고창군(10.5%), 군산시(8.7%), 정읍시(8.0%), 김제시(6.4%), 임실군(5.8%), 부안군(5.7%), 진안군(5.0%), 무주군(4.5%), 남원시(3.0%), 완주군·순창군(2.4%), 장수군(1.0%) 순

8. 영양관리

- 전라북도 도민 중 ‘주 5일 이상 아침식사 하는 사람 비율(아침결식 예방인구 비율)’은 60.4%(2021년)로 2017년(70.4%)보다 감소하여 아침식사를 거르는 인구가 더 늘어나는 추세
 - 시·군별로 보면 비교적 군 단위 지역에서 아침식사 결식 예방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시·군별 아침결식 예방인구 비율 : 순창군(79.0%), 임실군(78.7%), 고창군(78.3%), 부안군(77.9%), 장수군(76.8%), 진안군(75.0%), 무주군·김제시(74.1%), 남원시(68.8%), 정읍시(64.2%), 완주군(60.5%), 익산시(59.7%), 군산시(57.5%), 전주시(51.9%) 순
- 영양표시 활용률은 2017년 80.8%에서 2021년 84.2%로 증가하였으며,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임
 - 시·군별로 보면 비교적 시 단위 지역에서 먹거리 소비에 있어 영양표시를 활용하는 비율이 높음
 - 시·군별 영양표시 활용 비율 : 전주시(86.8%), 익산시(85.9%), 군산시(83.7%), 부안군(83.5%), 완주군(83.2%), 정읍시(82.4%), 진안군(81.8%), 김제시(79.0%), 고창군(77.8%), 남원시(77.7%), 무주군(76.1%), 임실군(74.0%), 장수군(73.9%) 순

[표 3-34] 아침결식 예방인구 비율과 영양표시 활용률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아침결식 예방인구 비율	70.4%	71.2%	61.6%	60.7%	60.4%
영양표시 활용률	80.8%	74.7%	79.1%	81.6%	84.2%

구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아침결식 예방인구 비율	51.9%	57.5%	59.7%	64.2%	68.8%	74.1%	60.5%
영양표시 활용률	86.8%	83.7%	85.9%	82.4%	77.7%	79.0%	83.2%

구분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아침결식 예방인구비율	75.0%	74.1%	76.8%	78.7%	79.0%	78.3%	77.9%
영양표시 활용률	81.8%	76.1%	73.9%	74.0%	65.2%	77.8%	83.5%

자료 :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각 년도에서 작성

- 전라북도 청소년의 주 5일 이상 아침식사 결식률은 37.5%(2021년)로 2017년(31.6%)보다 증가하여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청소년이 늘어나는 추세
 - 타 시·도와 비교하면 전라북도는 10위 수준으로 결식하는 청소년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청소년 아침식사 결식률 : 전남도(40.8%), 충북도(40.4%), 대전시·서울시(각 39.2%), 강원도(39.0%), 광주시·부산시(각 38.7%), 충남도(38.1%), 경기도(37.7%), 전북도·인천시·경남도(각 37.5%), 대구시(37.4%), 경북도(36.1%), 울산시(35.8%), 제주도(35.3%), 세종시(28.7%) 순

- 전라북도 청소년의 주 3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24.6%(2021년)로 2017년(17.9%)보다 증가하여 영양섭취의 불균형이 우려됨

- 타 시도와 비교하면 13위 수준으로 패스트푸드를 섭취하는 청소년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청소년 패스트푸드 섭취율 : 제주도(28.5%), 충북도(28.2%), 광주시(27.9%), 서울시(27.5%), 경기도(27.0%), 인천시(26.7%), 충남도(26.0%), 대전시(25.9%), 강원도(25.7%), 전남도·부산시(24.3%), 대구시(24.7%), 전북도(24.6%), 경남도·울산시(24.3%), 경북도(23.2%), 세종시(21.0%) 순(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표 3-35] 청소년 아침식사 결식률과 패스트푸드 섭취율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전라북도 청소년 주5일 이상 아침식사 결식률	31.6%	36.7%	39.1%	40.9%	37.5%
전라북도 청소년 주3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	17.9%	21.7%	25.5%	26.8%	24.6%

2021년 기준	전북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청소년 주5일 이상 아침식사 결식률	37.5	39.2	38.7	37.4	37.5	38.7	39.2	35.8	28.7
청소년 주3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	24.6	27.5	25.0	24.7	26.7	27.9	25.9	24.3	21.0
2021년 기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청소년 주5일 이상 아침식사 결식률	37.7	39.0	40.4	38.1	40.8	36.1	37.5	35.3	
청소년 주3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	27.0	25.7	28.2	26.0	25.0	23.2	24.3	28.5	

자료 :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각 년도에서 작성

9. 식생활 교육

- 전라북도는 2015년 '전라북도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식생활 교육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음
- 14개 시·군 중 11개 시·군에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가 마련되어 있으며, 3개 시·군(군산시·정읍시·무주군)은 조례가 없음
- 식생활 교육 제정 추이 : (2017년)진안군, (2019년)김제시, (2020년)전주시·익산시·남원시·완주군·임실군·고창군·부안군, (2021년)장수군·순창군

[표 3-36]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현황

구분	시행일자	조례명	거버넌스명
전라북도	2015.05.01	전라북도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식생활교육위원회
전주시	2020.06.12	전주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전주시 식생활교육위원회
군산시	-	-	-
익산시	2020.12.30	익산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익산시 식생활교육위원회
정읍시	-	-	-
남원시	2020.12.30	남원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남원시 식생활교육위원회
김제시	2019.09.17	김제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김제시 식생활교육위원회
완주군	2020.07.02	완주군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완주군 식생활교육위원회
진안군	2017.05.01	진안군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진안군 식생활교육위원회
무주군	-	-	-
장수군	2021.01.04	장수군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장수군 식생활교육위원회
임실군	2020.06.01	임실군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임실군 식생활교육위원회
순창군	2021.07.07.	순창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순창군 식생활교육위원회
고창군	2020.07.15	고창군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고창군 식생활교육위원회
부안군	2020.03.16	부안군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부안군 식생활교육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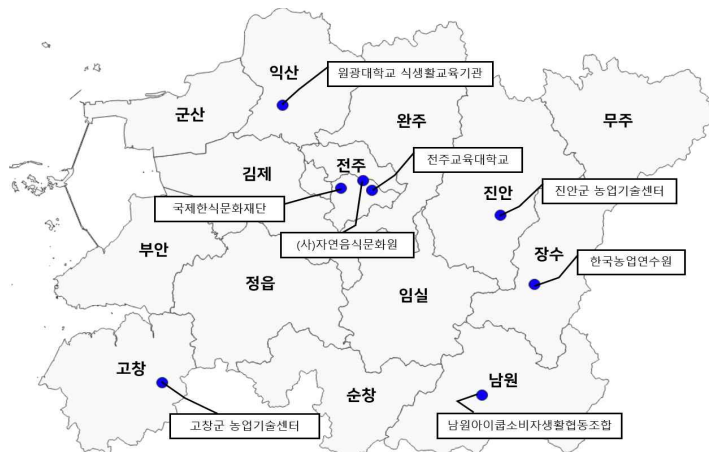
자료 : 국회 입법정보 시스템에서 작성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15개소(2022년)이며, 종사자는 103명(2020년)임
 - 시·군별 센터는 전주시에 2개소(완산, 덕진구)이고, 나머지 13개 시·군은 각각 1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 시·군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 : 전주시 26명, 군산시 13명, 익산시 11명, 정읍시·남원시·김제시·완주군 7명, 고창군·부안군 5명, 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순창군 3명
- 전라북도 식생활 교육 지정기관은 총 8개소로 서울시 다음으로 지정기관이 많음
 - 시·군별 : 전주시 3개소, 고창군 1개소, 진안군 1개소, 장수군 1개소, 남원시 1개소, 익산시 1개소

[표 3-37]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현황 (2022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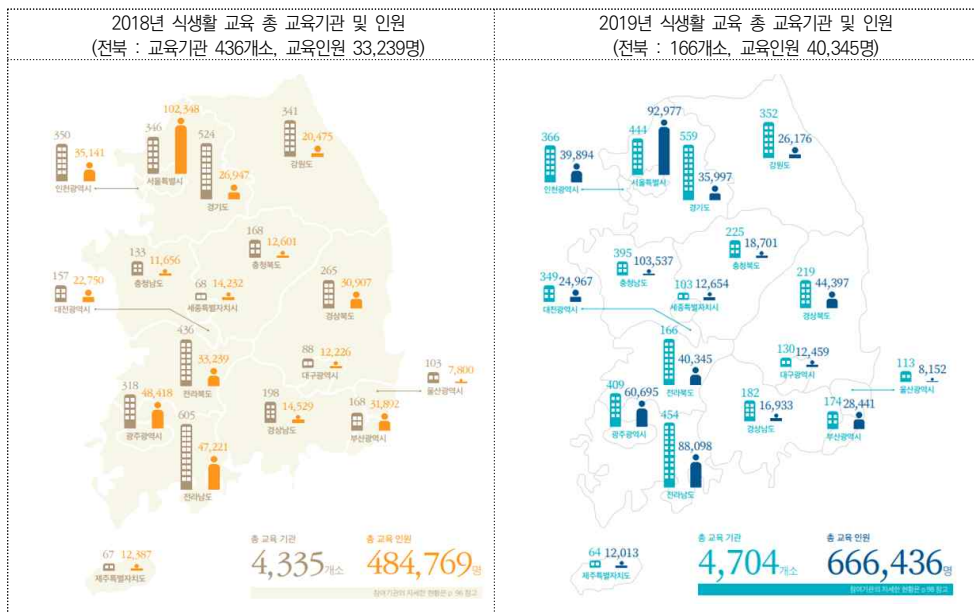
구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수	2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종사자 수)	26명	13명	11명	7명	7명	7명	7명
구분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수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종사자 수)	3명	3명	3명	3명	3명	5명	5명

자료 : 보건복지부, 어린이급식관리 시스템에서 작성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2022), '식생활교실'에서 작성

[그림 3-8] 지역별 식생활 교육 전문교육 기관 현황 (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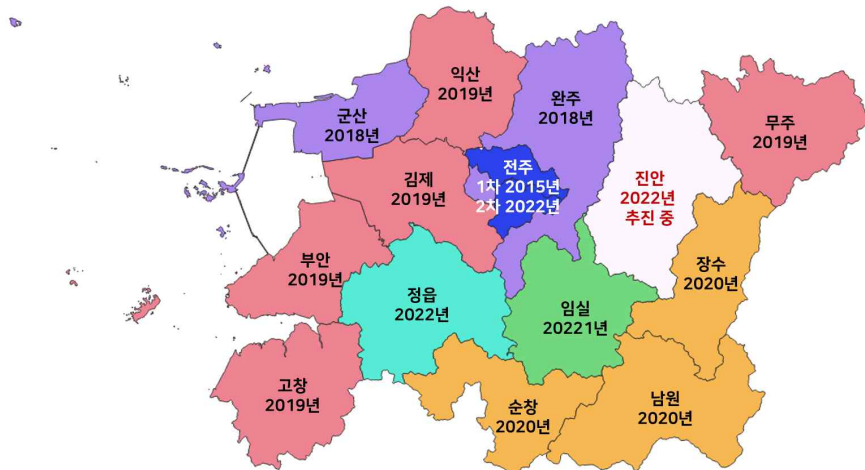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식생활교육 연차보고서'. 각 년도에서 작성

[그림 3-9] 식생활 교육 전문교육 기관의 교육운영 실적

10. 추진체계

- 전라북도에서 먹거리 종합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한 지역은 14개 시·군 중 13개 시·군임
 - 진안군은 2022년 추진 중이며, 전주시는 2015년 수립된 1차계획에 이어 2022년 2차계획을 수립
 - 시·군별 수립 추이 : (2015년)전주시(1차계획), (2018년)군산시·완주군, (2019년)김제시·익산시·부안군·고창군·무주군, (2020년)장수군·남원시·순창군, (2021년)임실군, (2022년)정읍시·전주시(2차계획), 진안군 추진 중
- 전라북도는 타 시·도에 비해 먹거리 종합계획을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13개 시·군에서 연구용역을 마치고 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추진 중임
 - 전주시 먹거리 종합계획(전주푸드플랜)은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의 먹거리 종합계획으로 이후 푸드플랜 정책이 본격화된 계기가 되었음



[그림 3-10] 먹거리 계획의 시·군별 수립 현황

-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해 5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개 시·군은 계획된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음
 -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재단법인으로 설립한 지역은 5개 시·군인데, 도시지역 시·군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농촌지역 시·군은 민간조직에게 학교급식·공공급식을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의 규모를 고려할

때, 지자체 출연 재단법인의 설립이 여의치 않은 여건임

[표 3-38] 지역별 먹거리 종합계획 추진에 관한 주요현황

시·군	계획수립 연구	먹거리 기본조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담당부서	비고
전라북도	'21.6.	'21.12.	'23.1.(재단위탁)	농생명식품과	로컬푸드팀
전주시	'15.7.+ '22.5.	'20.6.	'15.8.(재단법인)	먹거리정책과	먹거리정책팀
군산시	'18.12.	-	'20.9.(재단법인)	먹거리정책과	먹거리정책팀
익산시	'20.8.	-	'21.4.(재단법인)	농산유통과	먹거리정책팀
정읍시	'22.1.	-	'24.3.(예정-재단)	농수산유통과	먹거리지원팀
남원시	'21.7.	-	-	원예산업과	농산물유통팀
김제시	'19.12.	'20.9.	'23.12.(예정-재단)	먹거리활력과	푸드플랜팀
완주군	'18.4.	'19.12.	'13.6.(재단법인)	먹거리정책과	푸드플랜팀
진안군	'22(추진중)	-	-	농축산유통과	로컬푸드팀
무주군	'20.9.	-	-	농촌활력과	푸드플랜팀
장수군	'20.11.	-	-	농축산유통과	식품진흥팀
임실군	'21.10.	-	-	농촌활력과	먹거리정책팀
순창군	'21.4.	-	-	농축산과	유통마케팅팀
고창군	'20.2	-	'24년(예정-재단)	농촌활력과	먹거리정책팀
부안군	'20.6.	'20.12.	'21.6.(재단법인)	농업정책과	푸드플랜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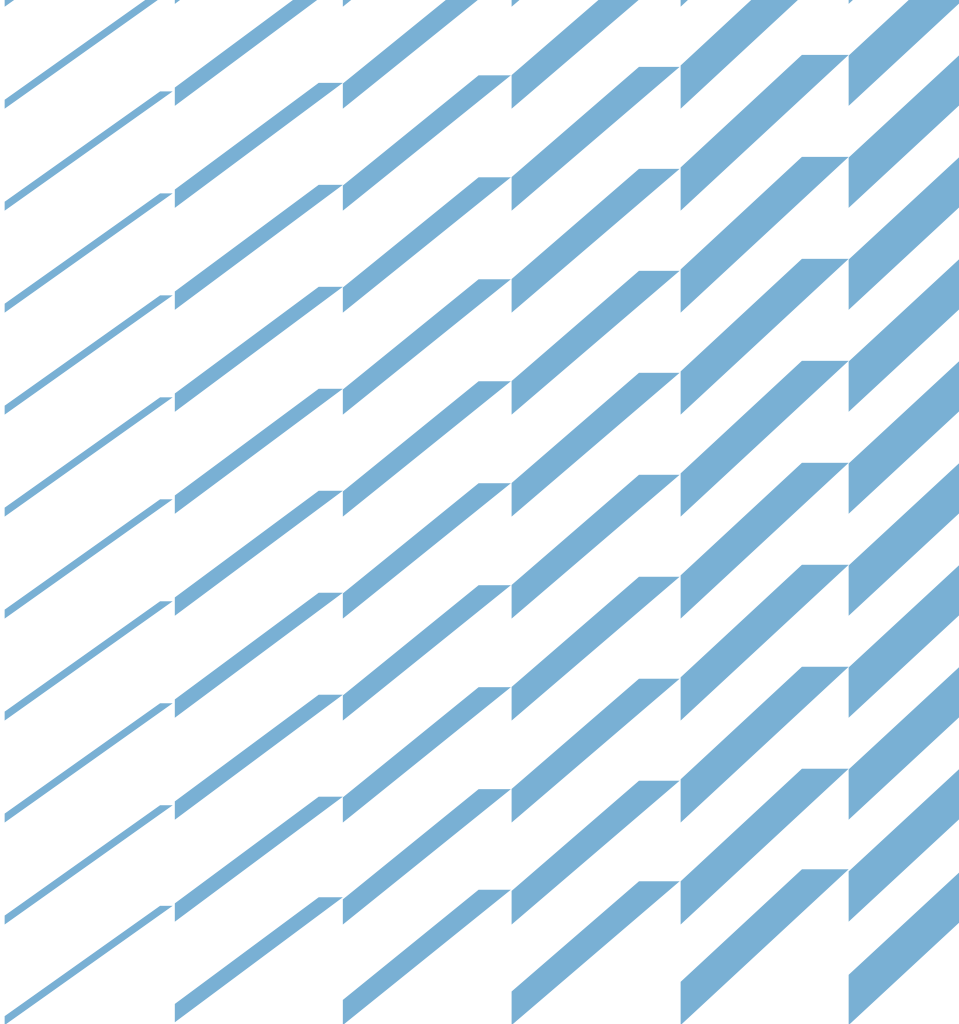
[표 3-39] 지역별 먹거리 관련 주요 조례 현황

시·군	학교급식 조례	공공급식 조례	로컬푸드 조례	식생활교육 조례	먹거리 기본 조례
전라북도	○	○	○	○	○
전주시	○	○	-	○	○
군산시	-	○	○	-	-
익산시	○	○	○	○	-
정읍시	○	-	○	-	-
남원시	○	-	-	○	-
김제시	○	○	○	○	○
완주군	-	○	○	○	○
진안군	○	-	○	○	-
무주군	○	-	-	-	-
장수군	○	-	-	○	-
임실군	○	-	-	○	-
순창군	○	-	-	○	-
고창군	○	-	-	○	-
부안군	-	○	-	○	○

-
- 먹거리 종합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의 사업부서로는 전담조직으로 먹거리정책과를 설치한 지역은 4개 시·군(전주시·군산시·김제시·완주군)이며 다른 지역은 기존 농정부서에서 맡고 있음
 - 전담부서로 '과'를 신설·설치하지 않은 시·군에서도 기존 농정부서 내에 '전담팀'을 설치하여 담당·추진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임(푸드플랜팀, 먹거리정책팀, 로컬푸드팀 등)

[표 3-40] 전라북도 먹거리 관련 자원진단 종합

지역생산	지역가공	지역유통	지역소비	학교·공공급식
·생산액 : 3조 4,130억원('19년) ·생산자 : 90,862호('21년) ·농경지 : 191,601ha('21년) ·중소농 : 56,788~59,332호('19년) (1ha ↓ 62.5%+판매1천만원 ↓ 65.3%) ·친환경농가 : 4,136호('20년) ·친환경출하 : 35,486톤('20년) ·축산농장(5대축종) : 11,118호('19년) ·학교급식생산자 : 1,688농가('20년) ·공공급식생산자 : 1,199농가('21년)	·농축산가공업체(법인) : 742개('20년) ·식품가공제조업체 : 378개('20년) (출하액 9조 4,335억원) ·향토산업육성사업 : 34개('20년) ·지역전략식품사업 : 17개('20년) ·농촌융복합인증 : 328개('20년)	·산지유통센터(APC) : 36개소('21년) ·통합마케팅전문조직 : 16개('21년) ·지방도매시장 : 3개('22년) (청과1,131억원, 수산92억원, 친환경34억원('20년)) ·로컬푸드 직매장 : 40개소('21년) (매출액 1,300억원) ·전북생생장터(온라인) : 33억원('21년)	·식료품지출(가구) : 47만원('20년) (생활비의 24.5%) ·도민 소비생활 만족도('20년) 만족한다(27.4%) 불만족(36.6%) ·식료품비지출 : 4조3,304억원 (12개월×47만원(월평균)× 767,803가구)	·학교급식 지원금 : 1,226억원('19년) (식재료 공급액 : 283억원('20년)) ·학교급식지원센터 : 모든 시·군 (지역 농산물 57%, 친환경76%) ·공공급식 공급 : 2,709개('21년) ·공공급식매출액 : 487억원('21년)
폐기순환	사회복지	영양관리	식생활교육	추진체계
·음식폐기물처리시설 : 35개소('22년) (다량배출 사업장 2,114개('19년)) ·음식물폐기물처리량 : 년21만톤('21년) ·음식물폐기물자원화 방법 (퇴비화 27.8%, 나머지소각('19년))	·노인필요 돌봄서비스 식사지원 17.3%(2위)('20년) ·취약계층('20년) 기초생활수급자 115,182명 장애인 132,207명 저소득/한부모가족 25,493명 독거노인 91,919명('19년) ·복지급식 예산 : 1,053억원('19년) ·푸드뱅크 : 26개소('21년) 접수81억원('20년), 배분88억원('20년)	·(주 5일 이상)아침식사 : 60.4%('21년) ·영양표시활용 : 84.2%('21년) ·청소년(주5일 이상)아침결식 : 37.5%('21년) ·청소년(주3회 이상)패스트푸드 섭취 24.6%('21년)	·식생활교육조례 : 11개 시·군('22년) ·식생활교육과정 : 166개 과정('19년) (40,345명 교육)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15개('22년)	·먹거리계획 : 13개 시·군 수립 ·통합지원센터 : 5개 시·군('22년) (재단법인 설립) ·먹거리기본조례 : 4개 시·군 ·먹거리정책전담부서 : 11개시·군 (과(4개), 팀(7개))('22년)



제4장

시·군 먹거리 계획 주요현황



- | | | |
|---------|---------|----------|
| 1. 전주시 | 2. 군산시 | 3. 익산시 |
| 4. 정읍시 | 5. 남원시 | 6. 김제시 |
| 7. 완주군 | 8. 진안군 | 9. 무주군 |
| 10. 장수군 | 11. 임실군 | 12. 순창군 |
| 13. 고창군 | 14. 부안군 | 15. 종합검토 |

제4장 시·군 먹거리 계획 현황

- 이 장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역 푸드플랜 수립 연구’ 지원을 받거나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전라북도 시·군의 지역 먹거리 계획의 현황이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함¹⁸⁾
- 14개 시·군이 수립한 ‘먹거리 계획’의 주요내용과 추진현황을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의 구조를 중심으로 주요한 흐름을 살펴보고자 함
- 시·군 먹거리 계획의 주요 내용은 ‘추진과정, 목표와 과제, 추진체계, 로컬푸드 직매장, 학교·공공급식, 식생활 교육, 취약계층 지원, 소비체험 및 도시농업, 안전성 관리, 먹거리 관련 사회적 경제조직, 음식물류 폐기순환’ 등으로 검토함

1. 전주시

- 전주시는 지역 먹거리 계획으로 ‘전주푸드플랜’을 민선 6기 단체장의 공약으로 추진했는데, ‘15년 7월 연구용역으로 계획을 마련하여 ‘15년 8월 계획을 수립하였고, ‘19년 농림축산식품부의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재정지원을 받았음
- 전주시 먹거리계획(전주푸드플랜)의 추진목표는 ‘지속가능한 지역농업 생산체계 구축,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소비 체계 강화, 지역순환경제 실현의 유통체계 구축, 자연·사람이 공존하는 환경체계 강화, 소외 없고 따뜻한 지역공동체 구축’으로 삼고 있음
- 중점과제는 ‘전업농·중소농·농촌마을 생산기반 구축, 기존유통·골목상권·관계시장 포함 전주푸드 유통, 일반시민·미래세대·취약계층의 먹거리 보장과 소비체계 구축, 음식물 폐기물 최소화과 재활용 자원화, 전주푸드플랜 실행체계 구축’임

18) 이 내용은 지역파트너플러스(2021), ‘전라북도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전라북도에서 정리하였음. 시·군의 조사는 2021년 2월에 진행하였으며, 주요 추진 실적 중 일부는 수정 보완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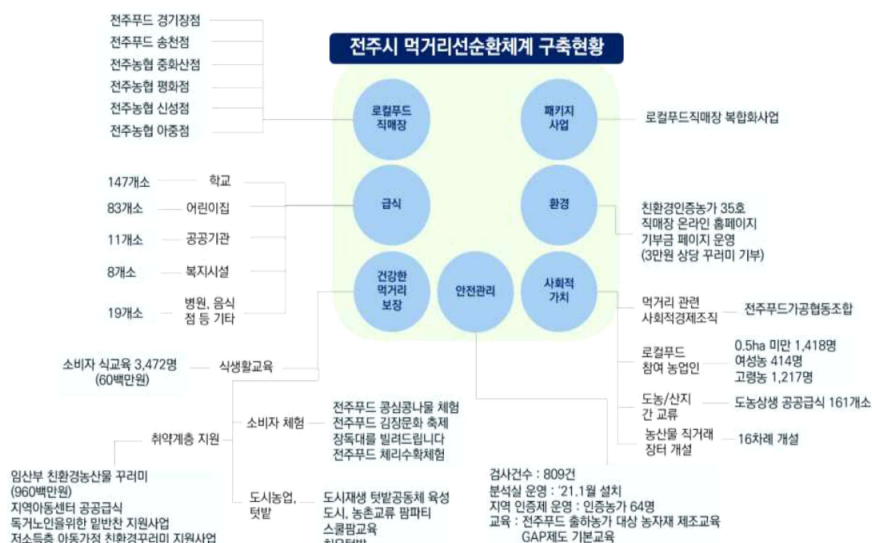
- 먹거리 계획의 추진을 위해 전담조직으로 '19년 11월 '먹거리정책과(3개 팀, 14명)'를 신설하였으며, 정책추진에 필요한 조례로 '지역 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조례('19.12.),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20.6.), 식생활 교육 지원조례('20.6)'를 제정하였음
- '전주푸드플랜'의 실행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로 '먹거리위원회'를 '20년 6월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5년 8월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운영하여 전주푸드 기획생산, 직매장 운영, 학교급식·공공급식에 지역 식재료 공급 등을 담당하고 있음
- 로컬푸드 직매장은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3개소, 지역농협 4개소 등 총 7개소임

[표 4-1] 전주시 로컬푸드 직매장 현황

구분		개점시기	매출액('20년)	품목 및 조직화('20년)
전주 푸드	경기장점(단독)	'16.8.~	1,850백만원	1,116개 품목(농산물 349, 가공품 767), 454 농가
	송천점(단독)	'16.8.~	1,850백만원	
	효천점(복합)	'22.4.~	-	
전주 농협	중화산점(단독)	'16.11.~	1,690백만원	403개 품목, 747 농가
	평화점(복합)	'17.2.~	1,850백만원	2,110개 품목, 747 농가
	신성점(복합)	'17.6.~	1,590백만원	608개 품목, 747 농가
	아중점(복합)	'18.7.~	1,950백만원	1,539개 품목, 1,274 농가

- 공공급식으로는 초중고 147개소, 어린이집 83개소, 공공기관 11개소, 복지시설 8개소, 병원·음식점·기타 19개소에 지역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음
- 시민 대상의 식생활 교육(연간 3,472명)과 취약계층(노인·아동·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역아동센터 급식, 독거노인 밑반찬, 저소득층 아동가정 친환경꾸러미, 밥끓는 아이없는 엄마의 밥상' 등을 먹거리 돌봄으로 지원하고 있음
- 소비자를 대상으로 '콩나물 체험, 김장문화 축제, 장독대 대여, 체리수확체험' 등 먹거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도시농업 활동으로 '도시재생 텃밭공동체 육성, 스쿨팍교육, 치유타밭, 도농교류 팜파티'를 하고 있음
-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위해 '21년 1월 분석실을 설치해 연간 809건 검사하고 있고, '18년 1월부터 지역 인증제를 하고 있으며, 출하농가 농자재 제조교육도 하고 있음

-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으로 '20년 124개소에 지역 농산물을 식재료로 공급하고 있으며,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19년부터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음
- 친환경농업 인증농가는 35농가, 전주푸드 생산 농가는 0.5ha 미만 1,418명, 여성 414명, 고령농 1,217명 등이고, 전주푸드가공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전주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식생활교육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연대·협력 등으로 푸드플랜의 실행에 요구되는 인적기반의 역량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전라북도의 중심 소비지임을 감안하여 전라북도 13개 시·군 간의 교류를 통해 시민이 요구하는 품목을 연계하고 협력해 나가는 체계도 갖춰가고 있음
- 푸드플랜의 실행에 요구되는 먹거리 관련 조례 제정, 실행체계 등은 잘 구축하였으나, 기획생산 체계의 고도화, 공공 먹거리 관계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운영조직의 실행력 확보를 중요한 과제로 꼽을 수 있음



자료 : 지역파트너플러스·커뮤니티링크(2021)

[그림 4-1] 전주시 지역 먹거리 계획 현황

2. 군산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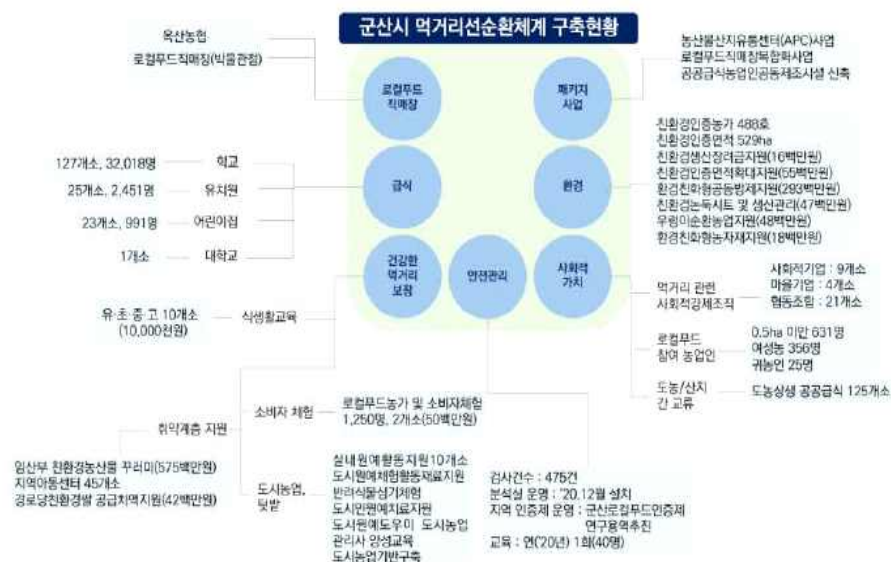
- 군산시는 민선 7기 단체장의 공약으로 지역 먹거리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18년 12월 먹거리 계획을 수립하였고, '19년 농림축산식품부의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재정지원을 받았음
- 군산시 먹거리 계획의 추진목표는 '농업인과 시민이 함께하는 생산-유통-가공-소비-폐기-자원화하는 지역순환 푸드시스템 운영'임
- 중점과제로는 '먹거리 정책 종합 추진체계 구축, 먹거리 가치사슬 단계별 재구화 실행 조직 설치 운영, 제도 구축 및 사회여건 마련, 먹거리 거버넌스 운영' 등임
- 먹거리 계획 추진 전담조직으로 '20년 1월 먹거리정책과를 신설하였으며, 정책추진에 필요한 조례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조례('18.12.), 재단법인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19.11.), 군산로컬푸드 인증제 조례('21.3.)'를 제정하였음
- 먹거리 계획 실행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로 '먹거리위원회'를 '20년 11월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년 9월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음
- 군산시 로컬푸드 직매장은 총 4개소로, 기존 2개소(옥산농협+재단법인)에 2개소가 추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1개소는 설치 예정임

[표 4-2] 군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현황

구분	개점시기	매출액('20년)	품목 및 조직화('20년)
재단법인 운영(단독)	'21.1.~	1,800백만원	388개 품목(內 가공품 80개), 282농가
옥산농협(습인습)	'14.6.~	5,286	420개 품목(內 가공품 150개), 514농가
군산농협(복합)	'21.7.~	-	-
동군산농협(복합)	'22.8.~	-	-
군산로컬푸드복합센터(복합)	'23.3.~	-	-

- 공공급식으로는 초중고 127개소, 유치원 25개소, 어린이집 23개소, 대학교 1개소에 지역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유치원부터 초중고에 식생활 교육을 실행하고 있음

- 취약계층(노인·아동·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역아동센터 급식, 경로당 친환경쌀 공급차액지원’ 등 먹거리 돌봄을 지원하고 있음
- 소비자를 대상으로 ‘로컬푸드 농가와 소비자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도시농업 활동으로 ‘실내원예활동, 도시원에 체험활동 재료, 반려식물체험, 도시원예치료, 도시농업 관리자 양성’ 등을 하고 있음
- 전주푸드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위해 분석실을 설치(‘20.12.)하여 연간 475건을 검사하고 있고, 군산로컬푸드 인증제 도입 연구(‘20.6.), 통합인증제 브랜드 개발’을 통해 지역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음
-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으로 ‘20년 125개소에 지역 농산물을 식재료로 공급하고 있음
- 친환경농업 인증농가 488농가, 로컬푸드 생산 농가는 0.5ha 미만 631명, 여성 356명, 귀농인 25명 등이고, 먹거리 관련 사회적기업 9개소, 마을기업 4개소, 협동조합 21개소가 활동 중임



자료 : 지역파트너플러스·커뮤니티링크(2021)

[그림 4-2] 군산시 지역 먹거리 계획 현황

- 지역 내 공공기관 및 기업, 서울시 도농상생 급식에 지역 먹거리 식재료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건강한 지역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일반농산물, 가공식품 등으로 구분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야 함

3. 익산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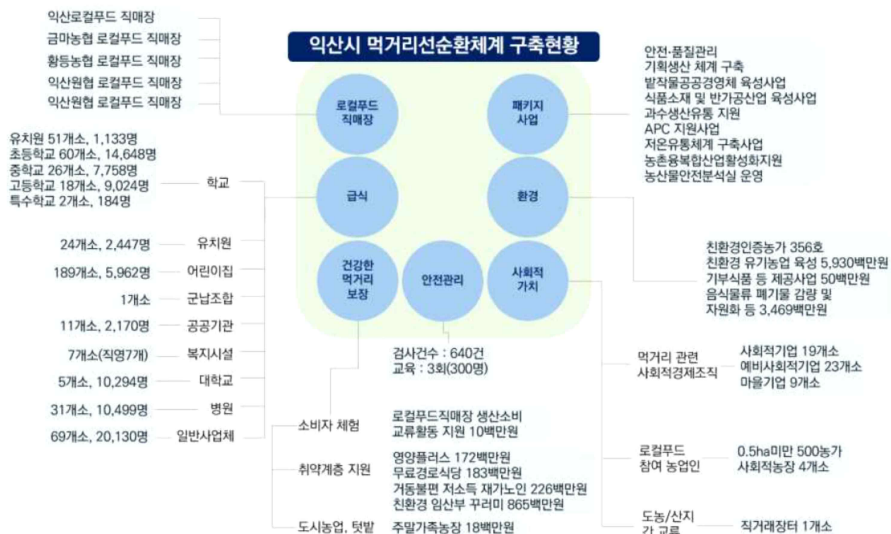
- 익산시는 민선 7기 농정의 핵심 정책과제로 먹거리 계획을 선정하여 추진했는데, '20년 8월 연구용역으로 계획을 마련하였고, '21년 농림축산식품부의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재정지원을 받았음
- 익산시 먹거리 계획의 추진목표는 '공공 먹거리 수급 시스템 구축과 강화, 상생 먹거리 소비자 확산, 건강한 먹거리 보장 체계 강화, 먹거리 시민 양성과 커뮤니티 활성화, 먹거리 자원순환 체계 강화, 추진체계 구축 거버넌스 제도화'로 잡고 있음
- 중점과제는 '지속가능 생산, 가공식품 조달, 로컬푸드 유통, 소비처 다양화, 도농상생 공공급식 확대, 먹거리 보장 확대, 건강 식생활 지원 확대, 먹거리 시민 양성, 자원순환 체계 강화, 추진체계·거버넌스 제도화'임
- 먹거리 계획의 추진을 위해 전담조직으로 '21년 7월 '먹거리정책팀'을 신설하였으며, 정책추진에 필요한 조례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로컬푸드 육성 지원조례, 재단법인 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운영 조례, 식생활 지원조례, 공공급식 지원조례,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21.5.)'를 제정하였음
- 먹거리 계획의 실행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로 '먹거리위원회'를 '21년 5월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1년 4월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음
-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역농협 운영 3개소, 로컬푸드 협동조합 1개소, 재단법인 운영 1개소 등 총 5개소임
- 공공급식으로는 초·중고 157개소, 어린이집 189개소, 유치원 24개소, 공공기관 11개소, 복지시설(직영) 7개소, 대학교 5개소, 병원 31개소, 군납조합 1개소, 일반 사업체

69개소에 지역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음

[표 4-3] 익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현황

구분	개점시기	매출액('20년)	품목 및 조직화('20년)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단독)	'16.3.~	7,594백만원	400개 품목, 600농가
금마농협 직매장(습인습)	'16.11.~	1,460백만원	416개 품목, 270농가
황등농협 직매장(습인습)	'17.6.~	216백만원	100개 품목, 37농가
익산원협 직매장(습인습)	'18.1.~	1,592백만원	250개 품목, 300농가
재단 서부권 직매장(복합)	'21.9.~	-	-

- 취약계층(노인·아동·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영양플러스, 무료경로식당,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친환경 임산부 꾸러미' 등을 먹거리 돌봄으로 지원하고 있음
- 소비자를 대상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생산소비 교류활동'을 하고 있고, 도시농업 활동으로 '주말 가족농장'을 운영하고 있음
-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위해 분석실은 '23년 1월 분석실을 설치할 계획이지만, 연간 640건을 검사하고 있고, '21년부터 로컬푸드와 공공급식 참여농가를 중심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지역 먹거리 인증제는 '22년 1월부터 도입하고 있음



자료 : 지역파트너플러스·커뮤니티링크(2021)

[그림 4-3] 익산시 지역 먹거리 계획 현황

- 도농 먹거리 교류를 위해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도권과 대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을 '24년부터 실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친환경농업 인증농가는 356농가, 로컬푸드 생산 농가는 0.5ha 미만 500여명, 사회적 농장 4개소가 참여하고 있고, 먹거리 관련 사회적 기업 12개소, 마을기업 4개소 등이 먹거리 돌봄과 방과후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음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24년부터 자원순환 체계 강화를 위한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임
- 익산시의 먹거리 계획은 행정, 농협, 민간 등이 먹거리 계획 내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푸드플랜을 통한 공적인 정책사업 등을 종합하여 체계적인 운영체제로 진화해 나가는 단계임
- 대표적인 주산지인 점을 고려, 친환경 농가 조직화를 확대하고 기획생산을 통해 푸드 플랜 내 필요한 식재료·먹거리를 생산할 조직화와 가공식품 확대 노력도 필요함
- 먹거리 정책사업을 체계화하고, 재단법인의 전문적 실행역량을 확보하는 과제가 시급 하며, 관련 조례 등의 제정·정비, 핵심주체 역량강화, 시민의 공감대 확보가 과제임

4. 정읍시

- 정읍시는 민선 7기 단체장의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공약을 매개로 지역 먹거리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21년 3월 연구용역을 수립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을 지원받았음
- 정읍시 푸드플랜은 '주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속가능한 도농상생을 통한 순환과 공생 실현'을 비전으로 먹거리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중점과제로는 '먹거리 실태조사를 통한 과제 도출, 비전에 따른 분야별 실행계획 수립, 먹거리 정책 추진체계 구축'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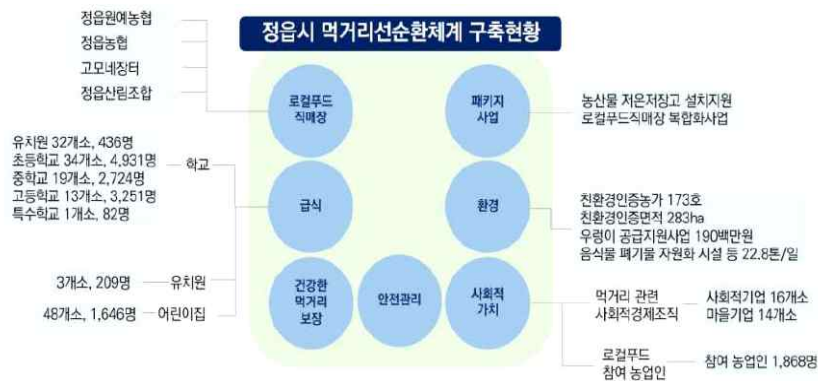
- 먹거리 계획 추진 조직은 기존 부서(농수산유통과)에 전담인력을 두고 있으며, 정책추진에 필요한 조례로 '공공급식 지원조례('22.3.)'를 제정하였음
- 먹거리 계획 실행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로 '먹거리위원회'를 '21년 5월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급식지원센터로 '농업회사법인 정읍시친환경연합('16.10.)'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재단법인 정읍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24년 3월 설립할 예정임
- 정읍시 로컬푸드 직매장은 총 4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표 4-4] 정읍시 로컬푸드 직매장 현황

구분	개점시기	매출액('20년)	품목 및 조직화('20년)
정읍원예농협 직매장(습안습)	'14.11.~	5,211백만원	240개 품목, 789농가
정읍농협 직매장(습안습)	'17.11.~	2,608백만원	350개 품목, 260농가
고모네장터 직매장(단독)	'17.4.~	797백만원	332개 품목, 299농가
정읍산림조합 직매장(단독)	'18.1.~	593백만원	230개 품목, 520농가

- 공공급식으로는 초중고 99개소(병설 유치원 포함), 유치원·어린이집 51개소에 지역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식생활 교육은 준비 중에 있음
- 취약계층(노인·아동·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 사업을 통해 먹거리 돌봄을 지원하고 있음
-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체험 프로그램, 도시농업 활동, 식재료 안전성 검사 등은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은 없음
- 친환경농업 인증농가 173농가, 로컬푸드 생산 농가는 1,868명 등이고, 먹거리 관련 사회적기업 16개소, 마을기업 4개소가 활동 중임
- 음식폐기물 자원화 시설을 갖추고 자원화(22.8톤/일)를 하고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한 경진대회를 '22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 정읍시의 먹거리 계획은 체계화해 나가는 과정으로 정읍시가 가진 농업·농촌의 잠재력(주산지로서의 다양한 품목, 농촌마을 공동체 등)을 활용하여 지역수요에 대응한 기획생산체계를 갖추어나가느냐가 현실적 과제임

- 특히 학교급식·공공급식, 로컬푸드, 단체급식, 대도시 관계시장 등과 대응하여 지역 푸드플랜의 관점에서 대응해 나갈 실행역량 확보가 관건임
- 정읍시의 농업자원을 연계하여 지역 먹거리 계획으로 전략화하기 위한 행정의 전담조직 마련, 실행체계, 운영조직의 설립과 운영 등이 필요함



자료 : 지역파트너플러스·커뮤니티링크(2021)

[그림 4-4] 정읍시 지역 먹거리 계획 현황

5. 남원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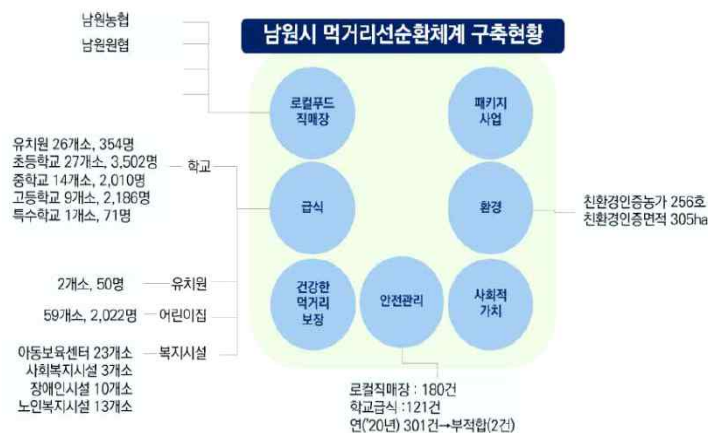
- 남원시는 먹거리 계획 등에 관한 단체장의 공약은 없으며, '21년 7월 푸드플랜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남원시 푸드플랜은 '건강한 시민, 지속가능한 농업, 순환경제도시 남원'을 비전으로 '2050년까지 1,500 가족소농이 참여한 300억원 관계시장 창출'을 목적으로 먹거리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이를 위한 중점과제로는 '생산 조직화, 소비 조직화, 통합 추진체계 구축' 등임
- 먹거리 계획 추진 조직은 기존 부서(원예산업과)에 전담인력을 두고 있으며, 정책추진에 필요한 조례로 '공공급식 지원조례(21.10.)'를 제정하였음

- 먹거리 계획 실행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로 ‘푸드플랜 추진위원회’를 ‘21년 3월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없으며 학교급식은 남원원협과 남원농협 등이 맡아서 식재료 등을 공급하고 있음
- 남원시의 로컬푸드 직매장은 총 2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표 4-5] 남원시 로컬푸드 직매장 현황

구분	개점시기	매출액('20년)	품목 및 조직화('20년)
남원농협 직매장(습인습)	'16.1.~	6,751백만원	450개 품목, 553농가
남원원협 직매장(습인습)	'17.11.~	2,608백만원	450개 품목, 457농가

- 공공급식으로는 초중고 77개소(병설 유치원 포함), 유치원·어린이집 61개소, 사회복지시설 49개소(아동보육센터 23, 사회복지시설 3, 장애인시설 10, 노인복지시설 13)에 지역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식생활 교육은 준비 중에 있음
- 취약계층(노인·아동·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 사업을 통해 먹거리 돌봄을 지원하고 있음
-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체험 프로그램, 도시농업 활동 등은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은 없으며,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지원하여 연간 로컬푸드 직매장 180건, 학교급식 121건을 검사하고 있음



자료 : 지역파트너플러스·커뮤니티링크(2021)

[그림 4-5] 남원시 지역 먹거리 계획 현황

- 친환경농업 인증농가 256농가, 로컬푸드 생산 농가는 1,010명 등이고, 먹거리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업과 활동 등은 별도로 없음
- 중소·고령농과 여성농민·귀농인·청년농업인 등을 조직화하여 학교급식·공공급식, 복지·단체급식, 로컬푸드 직거래 등을 통해 생산-공급하는 기획생산 체계를 갖추나가야 함
- 지역관광이 활성화된 남원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식당 등 지역상권과 식품가공 등에 원재료를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는 조달-공급체계 구축도 필요함

6. 김제시

- 김제시는 민선 7기 단체장의 공약(친환경 학교급식 확대)을 토대로 푸드플랜을 추진하고 있는데, '20년 1월 연구용역으로 계획을 마련하였고, '20년 농림축산식품부의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재정지원을 받았음
- 김제시 먹거리 계획의 추진목표는 '기획생산체계 확대로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 시민중심 맞춤형 정책으로 시민 먹거리 질 향상, 시민 공감대 형성으로 지속가능 먹거리 생태계 구축'으로 잡고 있음
- 중점과제는 '안정적 먹거리 생산기반 구축, 시민 먹거리 접근성 강화, 지역 먹거리 소비 확대, 먹거리 신뢰 강화, 푸드플랜 공감대 형성'임
- 먹거리 계획의 추진을 위해 전담조직으로 '19년 2월 '먹거리활력과(푸드플랜팀)'을 신설하였으며, 정책추진에 필요한 조례로 '공공급식 지원조례('19.5.), 먹거리 보장 조례('20.9.),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립·운영 조례('21.6.)'를 제정하였음
- 먹거리 계획의 실행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로 '먹거리보장위원회'를 '20년 12월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먹거리 정책 행정실무협의체('20.4.)도 구성하였고, '23년 12월 재단법인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계획임
- 김제시에서 운영되는 로컬푸드 직매장은 총 4개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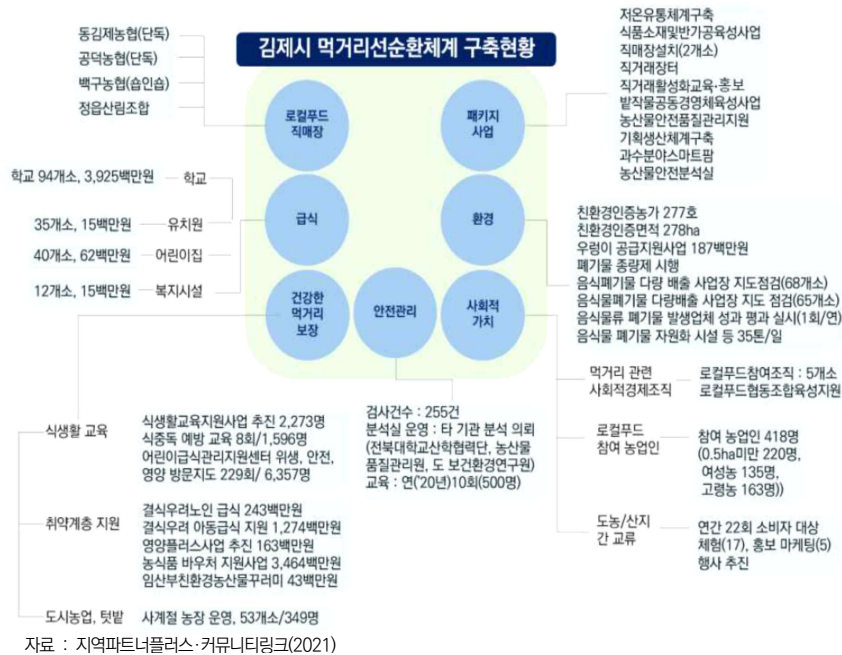
- 공공급식으로는 초중고 94개소, 유치원 35개소, 어린이집 40개소, 복지시설 12개소에 지역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음

[표 4-6] 김제시 로컬푸드 직매장 현황

구분	개점시기	매출액('20년)	품목 및 조직화('20년)
동김제농협(단독)	'14.7.~	5,301백만원	300여개 품목, 312농가
공덕농협 직매장(단독)	'17.11.~	209백만원	가공품 517개 품목, 47농가 / 고속도로 행복장터
백구농협 직매장(습인습)	'14.4.~	356백만원	100여개 품목, 56농가
김제농협 직매장(습인습)	'22.0.~	-	-

- 취약계층(노인·아동·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결식우려 노인급식, 아동급식, 영양플러스사업,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엄마손 영양가득 건강간식 사업' 등을 먹거리 돌봄으로 지원하고 있음
- 소비자를 대상으로 '도농+산지 교류행사'를 추진해 오고 있고, 도시농업 활동으로 '사계절 농장(53개소)'을 운영하고 있음
-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위해 연간 255건을 검사하고 있고, 출하 농업인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2년부터 김제푸드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해 준비 중임
- 친환경농업 인증농가는 277농가, 로컬푸드 생산 참여 농가는 418명(소농 220명, 여성농 135명, 고령농 163명), 먹거리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은 5개소로 로컬푸드 협동조합 육성을 지원하고 있음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등에 관한 캠페인과 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는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 김제시는 초기 미곡 중심의 생산구조를 넘어 다품목 생산체계를 바탕으로 지역 먹거리 체계로 나아가고 있으며, 푸드플랜 수립을 계기로 향토산업·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음
- 김제시는 여러 사업·활동 주체가 관련 정책사업을 추진·시행하다보니, 지역 푸드플랜 관점에서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을 위해 일관된 목표와 로드맵으로 추진이 요구됨

- 다양한 주체, 다양한 정책사업의 분산적·분절적 추진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지역 먹거리 체계로 통합화해나가기 위한 연계 프로그램과 실행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림 4-6] 김제시 지역 먹거리 계획 현황

7. 완주군

- 완주군은 지역 먹거리 계획을 민선 7기 농정공약으로 선정하여 추진했는데, '18년 6월 연구용역으로 계획을 마련하였고, '19년 1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9년 농림축산식품부의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재정지원을 받았음
- 완주군 먹거리 계획은 '군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 시스템 구축'을 비전으로 '지역농업의 지속성을 높이고 지역순환경제 활성화로 삶의 질 높은 완주군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중점과제는 '공공급식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공급망 구축, 먹거리 공급이

어려운 취약지역 공급, 혁신도시 공공급식 등 확장되는 관계시장 대응' 등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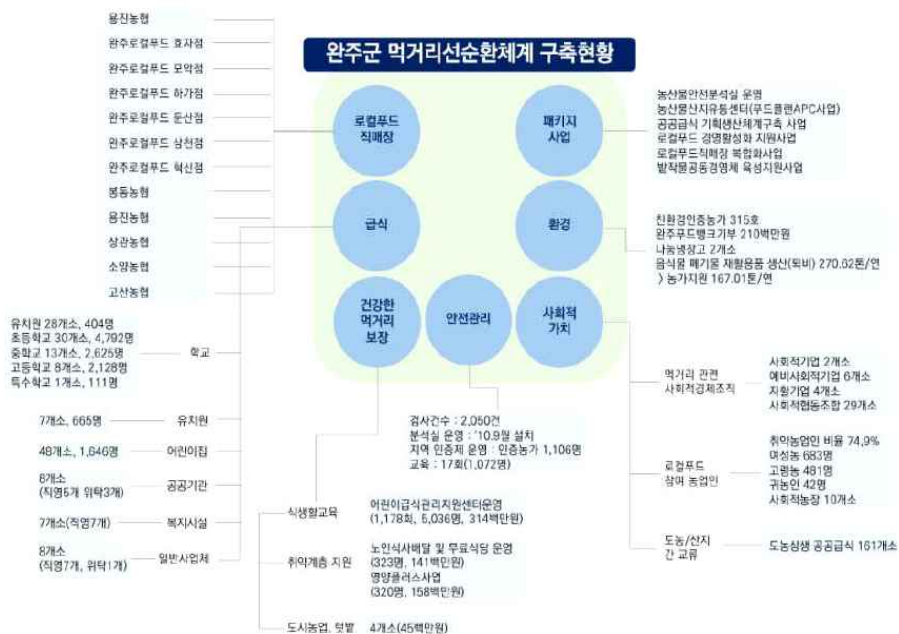
- 먹거리 계획의 추진을 위해 전담조직으로 '19년 1월 '먹거리정책과'를 신설하였으며, 정책추진에 필요한 조례로 '공공급식 지원조례('15.11), 먹거리 보장 조례('19.12.)'를 제정하였음
- 먹거리 계획의 실행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로 '먹거리위원회'를 '18년 11월과 '20년 11월 2기에 걸쳐 운영하고 있으며, '13년 6월부터 재단법인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음
- 로컬푸드 직매장은 전라북도에서 가장 많은데, 지역농협 운영 6개소, 로컬푸드 협동조합 6개소 등 총 12개소임

[표 4-7] 완주군 로컬푸드 직매장 현황

구분	개점시기	매출액('20년)	품목 및 조직화('20년)
용진농협 1호점(단독)	'12.4.~	11,108백만원	600개 품목, 790농가
완주로컬푸드(협) 효자점(단독)	'12.10.~	11,427백만원	1,000여개 품목, 1,285농가
완주로컬푸드(협) 모악점(단독)	'13.7.~	5,678백만원	
완주로컬푸드(협) 하가점(단독)	'14.1.~	5,778백만원	
완주로컬푸드(협) 둔산점(단독)	'15.1.~	2,141백만원	
완주로컬푸드(협) 삼천점(단독)	'15.8.~	3,562백만원	
완주로컬푸드(협) 혁신점(단독)	'17.7.~	6,273백만원	1,000여개 품목, 800농가
봉동농협 직매장(습인습)	'13.12.~	4,634백만원	182개 품목, 358농가
용진농협 직매장(습인습)	'15.9.~	1,001백만원	600개 품목, 790농가
상관농협 직매장(습인습)	'13.7.~	1,099백만원	308개 품목, 85농가
소양농협 직매장(습인습)	'13.11.~	1,831백만원	500개 품목, 185농가
고산농협 직매장(습인습)	'13.7.~	4,792백만원	550개 품목, 503농가

- 공공급식은 초중고 52개소, 유치원(병설) 28개소, 유치원 7개소, 어린이집 48개소, 공공기관 8개소, 복지시설(직영) 7개소, 일반 사업체 8개소에 지역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음
- 취약계층(노인·아동·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노인 식사배달 및 무료식당, 영양플러스사업' 등을 먹거리 돌봄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완주푸드뱅크 기부와 나눔냉장고 2개소를 운영하고 있음

-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으로 161개소에 식재료를 공급하고 소비자와의 교류활동을 하고 있고, 도시농업 활동으로 '도시텃밭(4개소)'을 운영하고 있음
-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위해 분석실은 '10년 9월부터 분석실을 설치하여 연간 2,050건을 검사하고 있고, 지역 먹거리 인증제를 '13년 4월부터 도입하여 1,106농가를 인증하였으며, 이를 위한 생산자 교육도 진행하고 있음
-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영양관리, 위생 및 안전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활동이 우수함
- 친환경농업 인증농가는 315농가, 로컬푸드 생산 농가는 여성농 683명, 고령농 481명, 귀농인 42명, 사회적 농장 10개소 등인데, 취약한 농업인의 약 74.9%에 해당함
- 먹거리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으로는 사회적 기업 8개소(예비 6개소 포함), 마을기업 10개소, 자활기업 4개소, 협동조합 29개소(사회적협동조합 포함) 등이 먹거리 돌봄과 방과 후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음



자료 : 지역파트너플러스·커뮤니티링크(2021)

[그림 4-7] 완주군 지역 먹거리 계획 현황

-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버려진 음식물류 폐기물을 활용하여 퇴비를 생산하여 농가에게 지원하고 있음
- 완주군은 로컬푸드 기획생산과 직매장 등을 중심으로 먹거리 생산-소비 체계를 가장 먼저 구축하였고, 행정 전담조직과 사업 실행조직(재단법인, 협동조합, 지역농협 등)이 오랜 추진과정에서 지역사회 전반에 푸드플랜 실행의 사회적 여건을 잘 갖춰옴
- 지역 먹거리 (관계)시장에 대한 대응역량, 먹거리 세부사업의 실행역량, 행정과 실행주체 간 역할분담, 푸드플랜의 지향 목적과 달성목표 등의 사회적 합의가 주요한 과제임

8. 진안군

- 진안군은 지역 먹거리 계획의 수립을 연구용역을 통해 준비 중인 지역으로 푸드플랜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 진안군이 운영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은 1개소로 진안로컬푸드협동조합이 위탁관리하고 있음

[표 4-8] 진안군 로컬푸드 직매장 현황

구분	개점시기	매출액('20년)	품목 및 조직화('20년)
진안로컬푸드협동조합(관리위탁)	'19.1.~	6,018백만원	656개 품목, 195농가

- 공공급식으로는 초중고 23개소, 유치원(병설) 11개소, 유치원 1개소에 지역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음
-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위해 분석실은 '16년 1월부터 분석실을 설치하여 연간 360건을 검사하고 있고, 생산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업 인증은 261농가임
- 푸드플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안군을 포괄하는 지역 먹거리 계획에 필요한 진단, 대응전략, 핵심과제, 사업계획, 추진체계 등으로 구체화해 나가야 함
- 푸드플랜에서 행정과 민간의 역할분담과 추진체계, 지역 먹거리와 별도의 산지유통 대

응전략 등을 결합하여 기존 농업정책의 성과에 기반한 농가참여를 늘려나가야 함

- 푸드플랜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 중소농가의 조직화·참여, 건강 먹거리 수요 대응, 농림사업 활용 등이 필요하며, 전담조직 설립과 실행체계를 체계적으로 갖춰가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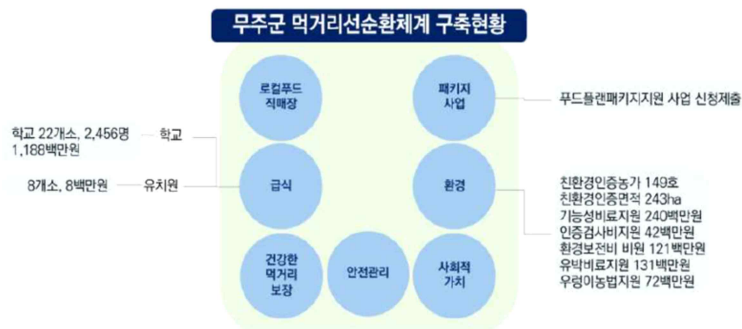
자료 : 지역파트너플러스·커뮤니티링크(2021)

[그림 4-8] 진안군 지역 먹거리 계획 현황

9. 무주군

- 무주군은 지역 먹거리 계획을 농정공약으로 선정하지는 않았지만, '20년 9월 연구용역으로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
- 무주군 먹거리 계획은 '농가소득 증대, 군민 먹거리 보장, 일자리 창출'을 비전으로 '1,500농가 참여와 300억원 소비시장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중점과제는 '기획생산 체계 구축, 관계시장 창출, 통합 운영체계 구축, 안전성 관리, 거버넌스 구축' 등 임
- 먹거리 계획의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은 기존의 '농촌활력과'(2명)가 맡아서 추진하고 있으며, 정책추진에 필요한 조례로 '지역 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조례('20.11)'를 제정하였음

- 먹거리 계획의 실행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로 ‘먹거리위원회’를 ‘20년 9월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급식지원센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음
- 로컬푸드 직매장은 ‘22년 지역농협(무주농협)이 1개소를 개설하여 운영을 시작하였음
- 공공급식으로는 초중고 22개소, 유치원(병설) 8개소에 지역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음
- 취약계층(노인·아동·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먹거리 돌봄, 식재료 안전성 검사 등은 앞으로 추진할 계획임
- 친환경농업 인증농가는 149농가이며,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농림사업 지원을 늘려가고 있음
- 먹거리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 도농간 체험교류 활동, 식생활 교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등은 현재 추진 실적이 없으나 먹거리 계획을 통해 추진할 계획임
- 지역 먹거리 계획에 의거 공공형 통합 실행조직을 설립하고, 지역 학교급식·공공급식과 로컬푸드 직거래 등에 지역 식재료를 공급하는 기획생산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함
- 지역농협 중심 산지유통 조직화(통합마케팅) 전략을 보완하는 지역 먹거리 체계로서 푸드플랜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세밀한 프로그램과 역량을 갖춘 실행조직이 필요함



자료 : 지역파트너플러스·커뮤니티링크(2021)

[그림 4-9] 무주군 지역 먹거리 계획 현황

10. 장수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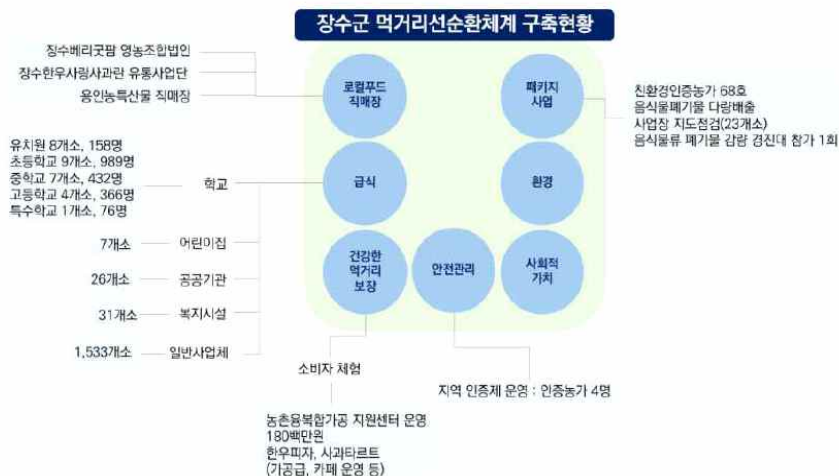
- 장수군은 농정공약으로 먹거리 계획의 내용이 없지만, '20년 11월 연구용역으로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
- 장수군 먹거리 계획은 '건강한 먹거리 장수 만세'를 비전으로 '제도적 기반구축, 생산자 조직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중점과제는 '푸드통합지원센터 설치 활성화, 지역 농축산물 기획생산' 등임
- 먹거리 계획의 추진을 위해 기존 '농축산유통과'가 업무를 맡고 있으며, 정책추진에 필요한 조례로 '지역 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조례('20.12), 식생활 교육 지원조례('21.1.)'를 제정하였음
- 먹거리 계획의 실행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구성하거나 운영하지 않고 있음
- 로컬푸드 직매장은 총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도시(용인시) 직매장을 운영한다는 특징이 있음

[표 4-9] 장수군 로컬푸드 직매장 현황

구분	개점시기	매출액('20년)	품목 및 조직화('20년)
베리솜팜(영) 덕유산 휴게소(단독)	'17.5.~	171백만원	과일·특작·가공식품, 30농가
한우량사과량사업단 특산물센터(단독)	'13.6.~	1,338백만원	-
용인농특산물직매장(단독)	'15.12.~	5,678백만원	-

- 공공급식으로는 초중고 21개소, 유치원(병설) 8개소에 지역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음
- 취약계층(노인·아동·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먹거리 돌봄, 식생활 교육, 식재료 안전성 검사 등은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 먹거리 인증제는 '17년 2월부터 도입하여 4농가가 인증을 받았음
- 친환경농업 인증농가는 68농가이며, 먹거리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은 없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해 지도점검과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음

- 장수군은 친환경 생산자조직에서 학교급식에 일부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는데, 지역 먹거리 체계의 관점에서 푸드플랜을 종합적으로 수립해 나가야 함
- 행정 내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지역 먹거리 계획의 전문성을 갖춘 운영조직을 설립하여 전반적인 먹거리 관련 사업을 통합하는 실행체계 구축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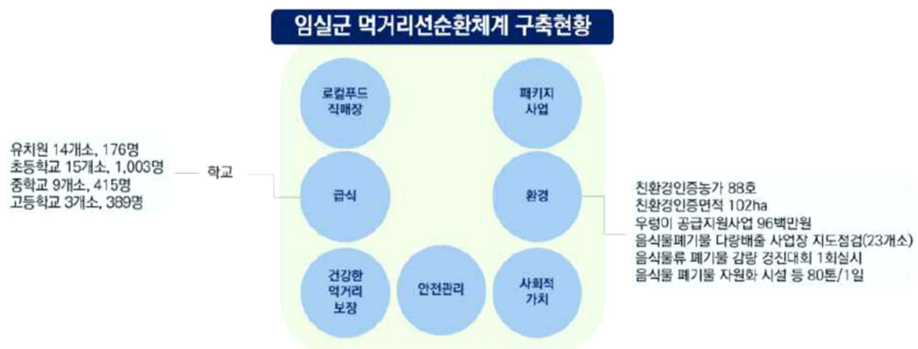
자료 : 지역파트너플러스·커뮤니티링크(2021)

[그림 4-10] 장수군 지역 먹거리 계획 현황

11. 임실군

- 임실군은 지역 먹거리 계획을 농정공약으로 선정하여 추진하지는 않았지만, '21년 10월 연구용역으로 계획을 마련·수립하였고, '21년 농림축산식품부의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재정지원을 받았음
- 임실군 먹거리 계획은 '군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농가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을 비전으로 '지역 생산 농산물을 지역에서 우선 소비하는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먹거리 계획의 추진을 위해 기존 ‘농촌활력과’에 전담인력을 배치하였고, 정책추진에 필요한 조례의 제정, 먹거리 계획 실행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성 등은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로컬푸드 직매장은 1개소 운영을 준비하고 있음
- 공공급식으로는 초중고 27개소, 유치원(병설) 14개소에 지역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음
- 취약계층(노인·아동·임산부 등) 대상의 먹거리 돌봄, 식생활 교육, 소비자 교류체험, 식재료 안전성 검사 등은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먹거리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은 없음
- 친환경농업 인증농가는 88농가로 친환경농업 확산 위해 농림사업 지원을 늘려가고 있음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한 지도점검과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버려진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를 실행하고 있음
- 임실군은 인접한 남원시와 연계하여 공공급식지원센터와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



자료 : 지역파트너플러스·커뮤니티링크(2021)

[그림 4-11] 임실군 지역 먹거리 계획 현황

- 푸드플랜은 중소·고령농가가 많은 임실군의 지역 여건에서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소득을 보장하면서, 지역순환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정책목표와 전략이 되어야 함
- 행정의 전담조직 신설, 사업의 운영조직, 실행체계 구축이 우선 과제이며, 이를 통해 농가 조직화, 기획생산 체계, 지역 먹거리 시장을 확보해 나가는 전략이 요청됨

12. 순창군

- 순창군은 지역 먹거리 계획 관련 농정공약이 없으나, '21년 4월 연구용역으로 계획을 마련하였고, '22년 농림축산식품부의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을 신청하였음
- 순창군 먹거리 계획은 '참 좋은 먹거리를 함께 나누는 행복 순창'을 비전으로 '푸드플랜 공급 시스템 마련과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먹거리 계획의 추진을 위해 기존 '농축산과'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정책추진에 필요한 조례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15.12)'를 제정하였고 '공공급식 지원 조례('22.12.)'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 먹거리 계획의 실행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와 통합지원센터는 구성하거나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로컬푸드 직매장은 1개소를 운영 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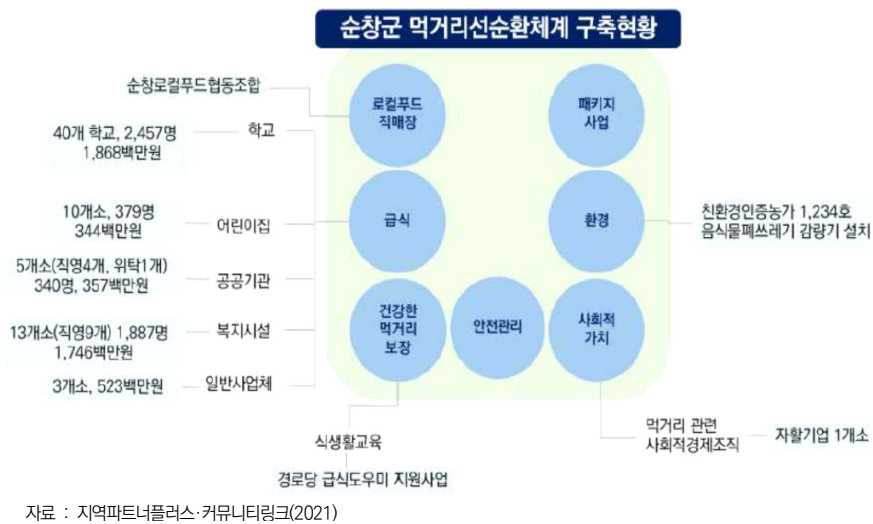
[표 4-10] 순창군 로컬푸드 직매장 현황

구분	개점시기	매출액('20년)	품목 및 조직화('20년)
순창로컬푸드협동조합(민간위탁)	'13.10.~	836백만원	1,500개 품목, 428농가

- 공공급식으로는 초중고 40개소, 유치원(병설) 10개소, 공공기관 5개소, 복지시설 13개소(직영 9개소), 일반 사업체 3개소에 지역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음
- 취약계층(노인·아동·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경로당 급식 도우미'를 먹거리 돌봄으로 지원하고 있음
- 식생활 교육, 식재료 안전성 검사 등은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먹거리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자활기업 1개소가 사업을 하고 있음
- 친환경농업 인증농가는 1,234농가이며,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감량기 설치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순창군은 지역농협과 친환경생산자조직에서 학교급식을 담당하고 있고, 로컬푸드 직매장을 민간이 맡아서 운영하고 있으나 직매장이 지역 농산물의 소비 거점으로 더욱 활

성화될 과제가 있음

- 지역농업의 구조와 여건을 고려할 때, 기존의 산지유통 조직화(통합마케팅 전문조직)와 지역 먹거리 체계의 전략을 결합한 현실적 대응이 체계를 갖추는데 유효한 전략임
- 공공 먹거리 수요(시장) 대응이 민간에 관련 경비 등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정책사업을 통해 공적인 성과를 창출한다는 지역사회 합의와 대응전략이 요구됨



[그림 4-12] 순창군 지역 먹거리 계획 현황

13. 고창군

- 고창군은 민선 7기 단체장의 공약(삼시세끼 로컬푸드 육성)를 토대로 푸드플랜을 추진하고 있는데, '20년 2월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21년 4월 계획을 마련하였고, '21년 농림축산식품부의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재정지원을 받았음
- 고창군 먹거리 계획은 '함께 만드는 청정 먹거리, 모두가 누리는 감동 먹거리'로 잡고, '친환경 안전 먹거리 생산 확대, 먹거리 접근성 확보, 고창푸드 우너재료 조달 확대, 지속가능 푸드시스템 구축, 먹거리 복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중점과제는 ‘수요기반 공공급식 기획생산 시스템 구축, 지역 먹거리 접근성 및 소비기반 확대, 촘촘한 복지 먹거리 실현, 특화 안심 먹거리 육성, 환경친화적 순환체계 구축, 율력하는 먹거리 상생체계 운영’ 등 임
- 먹거리 계획의 추진을 위해 기존 ‘농어촌식품과’에 전담팀(푸드플랜팀)을 신설(‘21.7)하였고, 정책추진에 필요한 조례로 ‘학교급식 지원조례(‘10.11.),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21.7.)’를 제정하였음
- 먹거리 계획의 실행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로 ‘먹거리위원회’를 ‘21년 8월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급식지원센터(‘13.12.)을 운영하고 있는데, 재단법인 푸드통합지원센터를 ‘24년 설립할 계획임
- 고창군의 로컬푸드 직매장은 2개소인데, 지역농협이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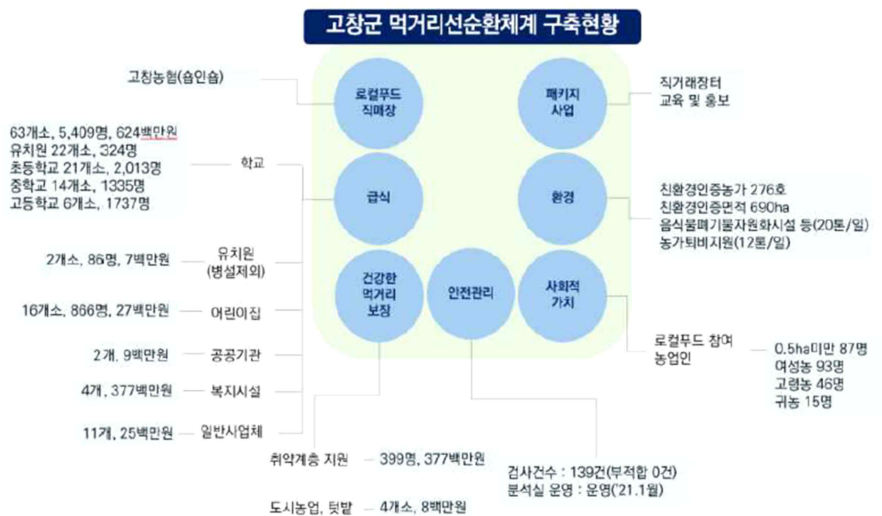
[표 4-11] 고창군 로컬푸드 직매장 현황

구분	개점시기	매출액(‘20년)	품목 및 조직화(‘20년)
고창농협(습인습)	‘14.2.~	663백만원	123여개 품목, 258농가
흥덕농협(습인습)	‘21.10.~	-	18개 품목, 166농가

- 공공급식으로는 초중고 41개소, 유치원(병설) 22개소, 유치원 2개소, 어린이집 16개소, 공공기관 2개소, 복지시설 4개소, 일반 사업체 11개소에 지역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음
- 취약계층(노인·아동·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영양플러스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등을 먹거리 돌봄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도시농업 활동으로 ‘도시텃밭(4개소)’이 운영되고 있음
-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위해 분석실을 ‘21년 1월부터 운영하여 연간 139건을 검사하고 있고, ‘22년부터 고창 먹거리 인증사업을 준비하고 있음
- 친환경농업 인증농가는 276농가이며 친환경농업 농립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로컬푸드 생산 참여 농가는 241명(소농 87명, 여성농 93명, 고령농 46명, 귀농인 15명)이고, 먹거리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은 없음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해 지도점검과 캠페인, 자원화 시설을 통해 퇴비의 농가지

원을 하고 있음

- 지역 내 학교급식·공공급식의 양적인 한계를 고려할 때, 복지영역에서의 먹거리 공급 등을 활용한 군민의 건강 먹거리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전략이 요구됨
- 주산지로서 산지유통 조직화가 앞서 있는 지역 여건에서 통합마케팅 산지유통 조직화 전략이 당분간 지역농업의 핵심 전략이 되고 있는 점을 반영해야 함
- 푸드플랜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행정내 전담조직 설치, 전문적 운영조직의 설립, 민관 거버넌스 등의 실행체계를 구축하여 기획생산, 지역시장(수요) 조직화 대응이 필요함



자료 : 지역파트너플러스·커뮤니티링크(2021)

[그림 4-13] 고창군 지역 먹거리 계획 현황

14. 부안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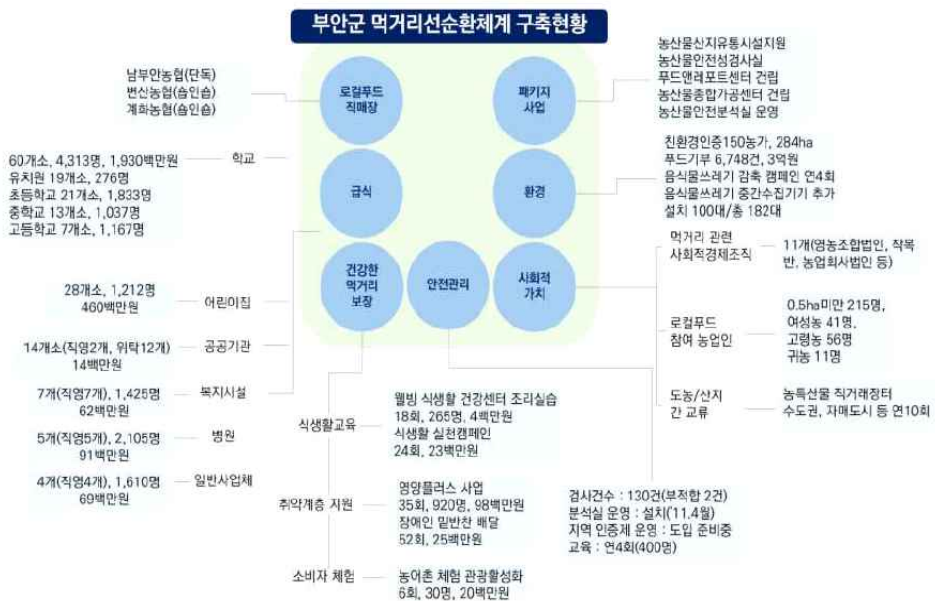
- 부안군은 민선 7기 단체장의 농정공약(부안군 푸드플랜 구축)을 토대로 먹거리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20년 6월 연구용역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부안군 푸드플랜은 '함께 만드는 부안 먹거리 순환과 보장으로 더욱 건강한 부안'을 비전으로 '공공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과 먹거리 질 향상, 지속가능한 먹거리 생태계 구축'을 목적으로 먹거리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이를 위한 중점과제로는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 지역순환 농식품 체계 구축, 따뜻한 먹거리 공동체 육성, 주민 참여형 먹거리 거버넌스 구축' 등임
- 먹거리 계획 추진 조직은 기존 부서(농업정책과)에 전담인력을 두고 있으며, '22년 1월 먹거리유통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정책추진에 필요한 조례로 '공공급식 지원조례('19.12.),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20.12.)'를 제정하였음
- 먹거리 계획 실행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로 '먹거리위원회'를 '21년 2월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재단법인 푸드통합지원센터를 '21년 6월 설립하였음
- 부안군의 로컬푸드 직매장은 총 3개소가 운영되고 있음(1개소(단독) 설치 예정)

[표 4-12] 부안군 로컬푸드 직매장 현황

구분	개점시기	매출액('20년)	품목 및 조직화('20년)
남부안농협 직매장(단독)	'17.9.~	210백만원	229개 품목, 293농가
변산농협 직매장(습인습)	'18.11.~	100백만원	45개 품목, 48농가
계화농협 직매장(습인습)	'20.9.~	33백만원	90개 품목, 58농가

- 공공급식으로는 초중고 41개소, 유치원(병설) 19개소, 어린이집 28개소, 공공기관 14개소(직영 2개소), 사회복지시설 7개소(직영 7개소), 병원 5개소(직영), 일반사업체 4개소(직영)에 지역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음
- 식생활 교육으로는 '웰빙 식생활 건강센터 조리실습, 식생활 실천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비자를 대상으로 농어촌 체험 관광 지원도 추진하고 있음

- 취약계층(노인·아동·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영양플러스 사업, 장애인 밀반찬 배달’ 사업을 통해 먹거리 돌봄을 지원하고 있음
-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위해 ‘11년 4월 분석실을 설치하고 연간 130건을 분석하고 있고 지역 인증제를 ‘21년 5월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친환경농업 인증농가 150농가, 로컬푸드 참여 323농가(소농 215명, 여성농 41명, 고령농 56명, 귀농인 11명)이며, 먹거리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으로는 11개소(영농조합, 작목반 등)가 사업과 활동을 담당하고 있음
- 수도권 자매결연 도시와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열어 왔고, ‘21년 5월 서울시 도농 상생 공공급식을 시작하였음
- 먹거리·식자재 기부와 제공시설을 늘려가고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감축을 위한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자원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자료 : 지역파트너플러스·커뮤니티링크(2021)

[그림 4-14] 부안군 지역 먹거리 계획 현황

- 농가 조직화를 통한 연중 다품목 기획생산 체계를 갖추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사업 실행역량을 전문화하여 푸드플랜의 단계적 실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함
- 친환경생산자조직, 가공품 사업조직 등이 푸드플랜으로 실익을 얻는 인센티브 구조를 고도화하면서 지역 수산물을 매개로 시·군 간 연계를 높이는 제휴푸드 방안이 중요함

15. 종합검토

■ 먹거리 계획 수립

- 14개 시·군이 먹거리 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거나 진행(진안군) 중으로 계획 마련은 높으나, 행정계획으로 확정이 완료되지 못한 시·군이 있어 후속절차가 요구됨
- 공식적인 행정계획으로 먹거리 계획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먹거리 기본조례 등)에 의거하여 먹거리위원회 등 심의기구에서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함
- 연구결과를 통해 제안된 먹거리 계획을 공식적인 심의기구를 통해 확정하는 행정절차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야할 과제가 있음

■ 전담부서·관련조례

- 먹거리 계획 실행을 위한 전담부서로 ‘과’를 신설한 지역은 4개 시·군이며, ‘팀’을 설치한 지역은 7개 시·군으로 많은 지역에서 행정 전담부서 설치로 정책추진의 의지가 높음
- 전담부서는 단체장 의지에 달려있지만, 정책환경과 지역사회 중요도, 업무영역의 통합을 고려할 때, 최소 전담팀(먹거리정책팀)과 전담인력 배치를 안내할 과제가 있음
- 먹거리 계획 수립·실행, 주요 정책사업 추진 근거로 ‘먹거리기본 조례, 학교급식 조례, 공공급식 조례, 로컬푸드 조례, 식생활교육 조례’ 등을 제정하였는데, 정책추진의 여건에 맞춰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 지역별 제정 상황에 차이가 있음

- 먹거리 계획과 관련한 조례의 제정 배경을 고려하더라도 먹거리 기본조례를 중심으로 실효적인 관련 조례의 재정비(제정+개정)를 정책협력을 통해 추진해 나갈 필요가 큼

■ 거버넌스·실행조직

- 먹거리 정책의 거버넌스 기구로서 ‘먹거리위원회’를 구성한 지역은 9개 시·군이지만, 실제 먹거리위원회가 조례에 명시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평가가 높음
- ‘먹거리위원회’ 미 구성 지역은 위원회 구성을, 구성한 지역은 위원회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운영방안(사무국 기능 수행)을 마련해 나가야 하겠음
- 핵심 정책인 ‘학교급식, 공공급식’에 지역 농산물·식재료를 공급하는 사업실행 전담조직은 공공형 재단법인 설립(5개 시·군)+민간조직 위탁 운영(9개 시·군)으로 지역별 급식규모와 정책여건에 따라 상이하지만, 여러 지역에서 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 공공형 정책실행 조직으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시·군 출연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은 지역 내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정책시행의 조건(수위탁 계약 등)에 필수조건임

■ 기획생산 조직화

- 그동안 로컬푸드 직매장과 학교급식·공공급식을 중심으로 지역별 지역 먹거리의 기획생산을 늘려가고 있지만, 생산자 조직화와 품목별 생산력의 수준은 지역별 편차가 크고, 수요처의 요구와 거리가 있음
- 지역 먹거리(신선+가공+축산+수산 등)를 생산·공급하기 위해 지역별 생산자 조직화를 통한 연중 작부체계를 갖춰야 하는데, 기획생산 정책지원이 지속되고 있으나 단체 급식소의 필요·수요에 부응하는 수준이 되지 못하고 있음
- 공공형 단체 급식소의 수요를 정량화하고, 이를 근거로 품목별·시기별 기획생산 조직화를 늘려가야 하는데, 먹거리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역 먹거리 생산력을 혁신해 나갈 과제가 있음
- 기획생산으로 공급되는 농산물(식재료)의 안전성 분석실은 7개 시·군¹⁹⁾에서 갖추었음

며, 다른 지역도 잔류농약 등 검사를 하고 있어 농산물 안전성 관리 수준이 매우 높음

- 안전성 검사 등을 통해 자주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5개 시·군²⁰⁾으로 조사됨

■ 학교급식·공공급식

- 모든 시·군에서 학교급식(초중고+병설유치원+특수학교)에 지역 농산물을 식재료로 공급하고 있는데, 학교급식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토대로 식재료 공급의 양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학교급식은 지역 먹거리의 가장 크고 중요한 수요처로 학교급식에서 요구되는 품목·품위의 식재료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별 기획생산의 조직화가 관건으로 강조되고 있음
- 어린이집+복지시설+대학+병원+군대+일반사업체 등 단체 급식소의 공공급식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농산물의 공급을 늘려가고 있으나, 공공급식의 양과 기관 등은 지역별 조사에서 명확하게 활용할 수준으로 조사되지는 못했음(향후 추가 조사 필요)
- 지역별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공공급식을 늘려가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확대를 위한 행정에서의 정책적 인센티브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나갈 과제가 있음

■ 로컬푸드 직매장

- 로컬푸드 1번지인 전라북도 위상에 맞게 모든 시·군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주체(지역농협+협동조합)에 따라 운영실적·성과의 차이가 있음
- 로컬푸드 직매장이 단순한 지역 농산물의 판매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소비자의 관계·교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 활성화와 복합문화센터로서 기능의 확대가 요구됨
- 지역별로 지역사회의 먹거리 수요시장(인구비례)의 차이로 로컬푸드 직매장별 실적 차이

19) 전주시, 군산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고창군, 부안군

20) 전주시, 군산시, 완주군, 장수군, 부안군

가 있는데, 도시지역 먹거리 수요에 부응한 농촌 지자체의 관계시장 확장이 필요함

■ 먹거리 돌봄·나눔

- 먹거리 계획 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돌봄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결식아동·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지역아동센터 등 정책사업을 매개로 6개 시·군²¹⁾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그동안 농업부서 중심으로 농산물의 소비처를 늘리기 위한 정책적 관점에서 먹거리 돌봄을 파악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사회복지 영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먹거리 돌봄과 나눔을 먹거리 정책의 영역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어져야 하겠음
- 이를 위해 지역사회에 산재한 취약계층 지원기관·조직(푸드뱅크·푸드마켓, 사회복지기관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파악과 정책적 연계를 추진해 나가야 함

■ 식생활 교육

- 농림축산식품부의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단위 식생활 교육 확대를 위한 인프라(교육기관+교육과정 등)가 늘어나고 있으나, 5개 시·군²²⁾에서만 식생활 교육이 진행되는 것으로 조사됨
- 식생활 교육을 진행한 민간의 전문교육기관은 전주시·군산시·완주군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으나, 다른 지역은 그렇지 못한 실정임
-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식생활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문기관(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데, 지역별 민간의 식생활 교육 기관의 유무가 이러한 결과의 배경으로 분석됨
- 민간의 식생활 교육 담당 기관을 육성하거나, 먹거리 관련 지원조직(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이 관련 사업을 통해 사회적 먹거리 교육의 지평을 넓혀가는 대책이 요구됨

21) 전주시, 군산시, 김제시, 완주군, 고창군, 부안군

22) 전주시, 군산시, 김제시, 완주군, 부안군

■ 소비자 교류와 도시농업

- 소비자와의 농업·농촌·먹거리 체험 행사를 진행하는 지역은 7개 시·군²³⁾이며, 서울시와의 도농상생 공공급식은 4개 시·군²⁴⁾으로 나타남
- 소비자와의 먹거리 체험 등의 교류 프로그램은 지역 먹거리에 대한 시민의 우호적 인식을 넓히고 소비자 조직화에 있어 중요한 방안이므로 프로그램의 확대와 지속적인 시행이 중요함
- 도시민의 생활농업으로서 도시농업 활동(도시텃밭 등)을 먹거리 계획과 연계하는 지역은 7개 시·군²⁵⁾으로 조사되었는데,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도시농업 활동을 활성화해 나갈 과제가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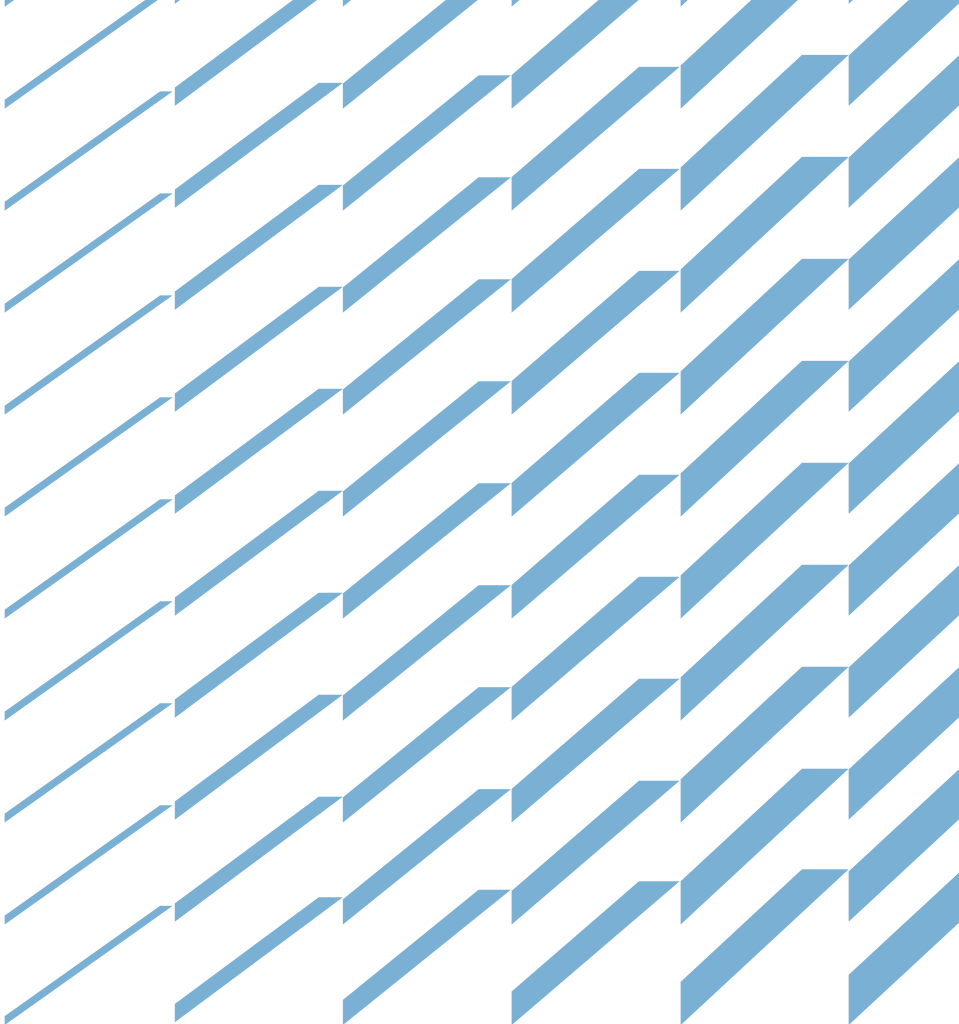
23)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장수군, 부안군

24) 전주시, 군산시, 완주군, 부안군

25)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장수군, 고창군

[표 4-13] 시·군 먹거리 계획 관련 주요현황 종합

시·군	계획마련 (1차+2차)	푸드플랜 패키지지원	전담부서	실행조직	거버넌스	관련조례	안전성 분석실	자체인증	학교급식	공공급식	서울도농 상생급식	로컬푸드 직매장	식생활교육	도시농업	교류체험	먹거리돌봄
전주시	◎ (1차+2차)	○	◎(전담과)	◎(재단법인)	◎	4개	◎	◎	◎	◎	◎	7개소	◎	◎	◎	◎
군산시	○	○	◎(전담과)	◎(재단법인)	◎	2개	◎	◎	◎	◎	◎	4개소	◎	◎	◎	◎
익산시	○	○	○(전담팀)	◎(재단법인)	◎	4개	◎	◎	◎	◎	-	5개소	-	◎	◎	◎
정읍시	○	○	△(기존)	○(재단예정)	◎	2개	○(검사)	-	◎	-	-	4개소	-	◎	◎	◎
남원시	○	-	△(기존)	△(지역농협)	◎	1개	○(검사)	-	◎	◎	-	2개소	-	-	◎	◎
김제시	○	○	◎(전담과)	○(재단예정)	◎	5개	○(검사)	○(예정)	◎	◎	-	4개소	-	◎	◎	◎
완주군	○	○	◎(전담과)	◎(재단법인)	◎	4개	◎	◎	◎	◎	◎	12개소	◎	◎	◎	◎
진안군	△ (수립중)	-	△(기존)	△(농업회사)	-	3개	◎	-	◎	-	-	1개소	-	-	-	-
무주군	○	-	△(기존)	△(지역농협)	◎	1개	○(검사)	-	◎	-	-	1개소	-	-	-	-
장수군	○	-	△(기존)	△(영농조합)	-	2개	○(검사)	◎	◎	-	-	3개소	-	-	-	-
임실군	○	○	△(기존)	△(지역농협)	-	2개	-	-	◎	-	-	1개소	-	-	-	-
순창군	○	○	△(기존)	△(지역농협)	-	2개	○(검사)	-	◎	◎	-	1개소	-	-	-	◎
고창군	○	○	○(전담팀)	○(재단예정)	◎	2개	◎	◎	◎	◎	-	2개소	-	◎	-	◎
부안군	○	-	◎(전담과)	◎(재단법인)	◎	3개	◎	◎	◎	◎	◎	3개소	◎	◎	◎	◎



제5장

전북 먹거리 종합계획 기본방향

- 
- 1. 계획수립 근거
 - 2. 기본개념과 성격
 - 3. 기본방향
 - 4. 비전과 목적
 - 5. 전략체계
 - 6. 추진전략
 - 7. 핵심과제
 - 8. 성과목표 검토

제5장 전북 먹거리 종합계획 기본방향

1. 계획수립의 근거

가. 정부정책의 추진근거

-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은 지난 정부에서부터 추진해온 ‘지역 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한 ‘먹거리 종합전략’으로 정부는 광역·기초지자체의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음
- 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을 통해 ‘지역 먹거리 계획’ 수립과 시행의 근거 마련 (개정, ‘22.1.)
 - 제23조의3(지역 먹거리 계획의 수립·시행) ①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주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먹거리 관련 생산·소비·유통·폐기 현황 및 분석
 3.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의 지역 내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
 4.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의 생산에 관한 사항
 5. 지역 중소농 조직화 및 식품가공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²⁶⁾
 7. 도농상생에 관한 사항
 8.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먹거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먹거리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의 업무를 수행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급식 지역농산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지역농산물 생산·가공·유통의 체계적 관리
 2. 농산물 생산자 조직화 및 안전성 관리

26) 개정된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에서는 ‘먹거리 돌봄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음.
제23조의2(취약계층 등에 대한 식품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등 모든 국민에게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식품 지원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3. 먹거리 관련 교육 및 홍보 지원
 4. 먹거리 관련 거버넌스 운영·지원
 5. 그 밖에 지역먹거리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④지역먹거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⑤국가는 지역먹거리계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⑥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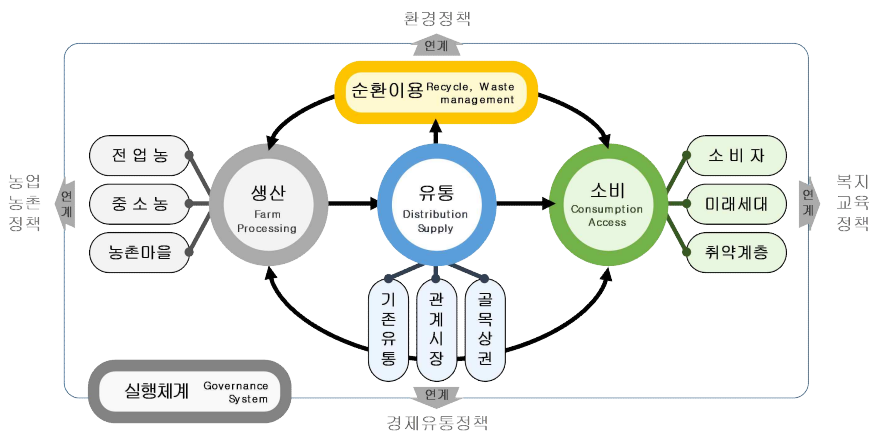
나. 전라북도의 수립근거

-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먹거리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전라북도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정책추진, 정책시행의 근거를 자치 법규로 마련하였음
- 근거 : ‘전라북도 먹거리 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전라북도 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의 근거를 마련 (제정, '21.12.)
 - 제8조(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시행) ①도지사는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전라북도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먹거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
 2. 분야 및 단계별 추진목표, 실행계획 및 핵심과제
 3. 전라북도 먹거리 위원회 등 민관협력 체계 구축과 운영
 4.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 5.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 먹거리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특기사항 : ‘전라북도 먹거리 기본조례’는 먹거리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각호로 정하고 있음
 - 먹거리 위원회의 설치·운영(제11조~제13조), 먹거리정책책임관의 지정(제14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제15조), 도민참여 숙의기구 설치·운영(제17조), 먹거리 지식·정보의 보급(제18조), 교육·홍보·실태조사(제19조), 연도별 먹거리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제9조)
 - 이에 따라 전라북도 먹거리 종합계획은 먹거리 기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각 호의 주요내용을 고려하여 작성해야 함

2. 기본개념과 성격

가. 개념과 성격

- 기본개념 : ‘전라북도 먹거리 종합계획’은 ‘지역에서 먹거리의 공급과 소비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균형적인 시각에서 먹거리의 공급과 이용체계를 계획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공공부문에서의 의지적인 실행계획’임
- 주요성격 : 먹거리 종합계획은 ‘지역 먹거리의 생산-가공-유통-소비-폐기-순환 체계를 갖추는 것으로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근거하여 도민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실천을 통해 먹거리 체계의 지향과 가치를 사업과 활동으로 실행하는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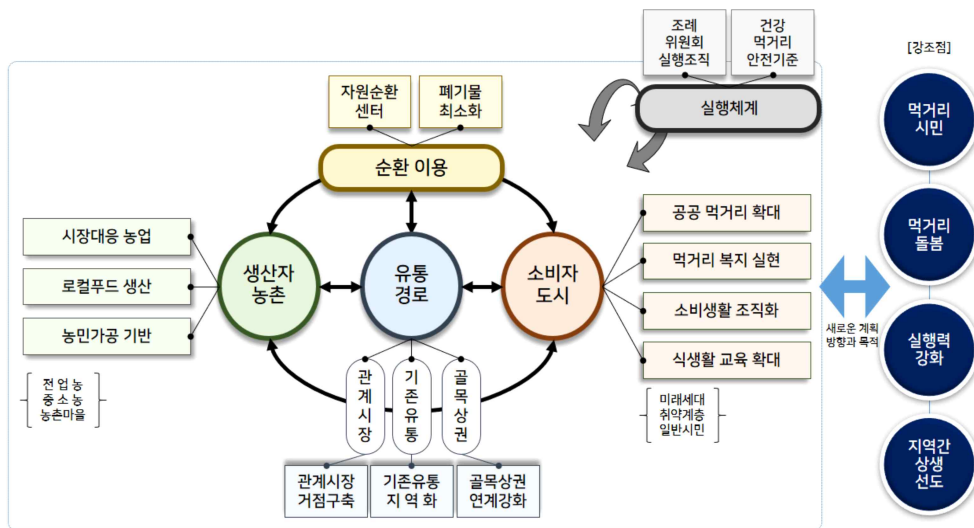
자료 : 황영모 외(2015)

[그림 5-1] 지역 먹거리 전략의 구조와 지역생산-지역소비 순환구조

나. 전략의 범위

- 전략범위 : 전라북도 먹거리 종합계획에서 다루는 전략의 기본골격은 ‘지역 먹거리의 생산→가공→유통→소비→폐기·활용의 순환적 모델을 기본구조로 하여 지역사회의 먹거리 ‘필요와 요구에 입각한 지향을 비즈니스(사업과 활동)로 실천하는 영역’을 다룸

- 전략요소 : 먹거리 종합계획은 ①지역생산, ②지역가공, ③지역유통, ④지역소비, ⑤순환 이용, ⑥먹거리 접근성, ⑦사회적 인식, ⑧먹거리 돌봄, ⑨실행체계, ⑩도농상생 등을 먹거리 전략의 구성요소로 삼음



[그림 5-2] 먹거리 종합계획 전략의 범위

다. 역할과 기능

- ‘전라북도 먹거리 종합계획’은 ‘전라북도 지역’에서 지역 먹거리 전략을 구축해 나가기 위한 ①방향과 실행 틀’을 제시하고(1단계), ②추진체계 구축과 전략과제 실행’을 마련 하여(2단계), ③주체 간 협력과 행동조정 기준’을 제시(3단계)하는 역할을 담당함
- (1단계) ‘먹거리 전략의 추진방향과 실행의 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함
 - ① (이슈진단과 방향검토) 지역사회의 먹거리 이슈와 우선 사안을 검토하고 문제를 시 정27)·해결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함
 - ② (대응원칙과 대응방향) 도와 시·군, 지역사회가 먹거리 전략에 따라 실효적으로 대

27) 현실의 먹거리 체계가 야기하는 여러 먹거리 영역에서의 문제는 개별 소비자의 선택·행동으로 전가되는 구조이니, 이를 바로잡아 나가는 것을 의미함. 먹거리 문제의 시정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공익과 사회적 가치의 판단이 요구(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응해 나갈 수 있는 실행의 틀(원칙·방향·과제 등)을 확립하여 제시하는 기능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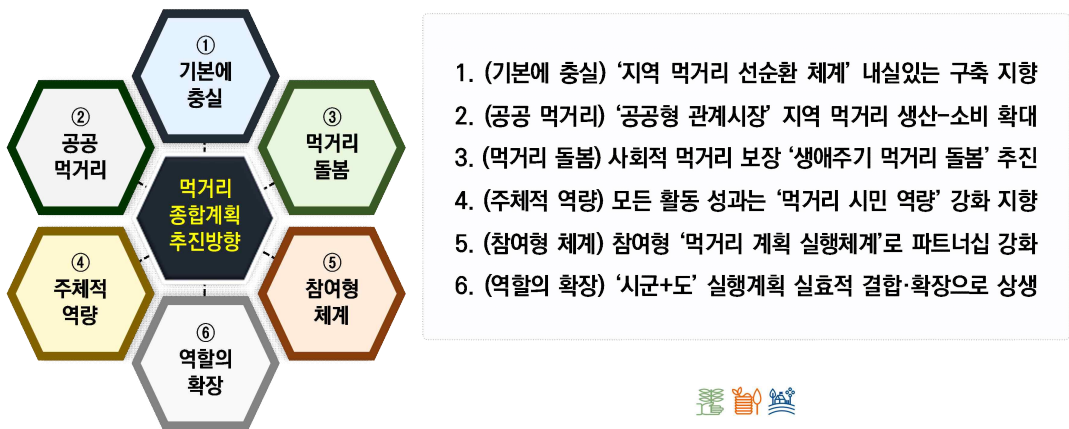
- (2단계) ‘먹거리 계획의 추진체계를 갖추고 전략과제를 실행’하는 역할을 함
 - ③ (추진전략과 실행과제) 방향과 틀에 따라 지역 먹거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필요한 전략-과제를 마련하여 직접 실행하는 기능을 함
 - ④ (종합계획의 추진체계) 먹거리 종합계획에서 다루는 추진전략과 실행과제 등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 필요한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기능을 함
 - ⑤ (시·군계획의 지원연계) 시·군(지역)이 추진하고 있는 먹거리 계획의 실행을 지원하고, 지역계획의 협력적 연계를 촉진하는 기능을 함
- (3단계) ‘지역 먹거리 관련 주체의 협력과 행동 조정의 기준’으로 역할을 함
 - ⑥ (핵심주체 협력의 장) 행정(도-시·군), 영역(부문-부문), 공간(지역-사회)에 걸쳐 먹거리 관련 주체가 계획을 매개로 협력·연대하는 장을 만드는 기능을 함
 - ⑦ (관련주체의 행동조정) 공공부문, 민간부문, 시민사회 등 관련 주체가 지역 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해 계획적인 행동조정을 안내하는 기능을 함

[표 5-1] 전라북도 먹거리 종합계획의 역할과 기능

담당역할	주요기능	
(1단계) 추진방향과 실행 틀 제시	① (이슈진단과 방향검토)	지역사회 먹거리 이슈와 우선 사안을 검토하고 문제를 시정·해결하는 방향을 제시
	② (대응원칙과 대응방향)	도/시·군/지역사회의 대응 실행의 틀(원칙·방향·과제 등)을 확립하여 제시
↓		↓
(2단계) 체계구축과 전략과제 실행	③ (추진전략과 실행과제)	지역 먹거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필요한 전략-과제를 마련하여 직접 실행
	④ (종합계획의 추진체계)	종합계획의 추진전략·실행과제 추진에 필요한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마련
	⑤ (시·군계획의 지원연계)	시·군(지역) 먹거리 계획의 실행을 지원하고, 지역계획의 협력적 연계를 촉진
↓		↓
(3단계) 주체협력과 행동조정 기준	⑥ (핵심주체 협력의 장)	행정(도-시·군), 영역(부문-부문), 공간(지역-사회) 관련 주체의 협력·연대 장 조성
	⑦ (관련주체의 행동조정)	공공부문·민간부문·시민사회 등 관련 주체가 계획적으로 대응할 행동조정을 안내

3. 기본방향

- 먹거리 종합계획이 지향하면서 주요한 내용으로 담아야 할 것은 ‘원칙(지역 먹거리 체계), 필요(지역사회 요구), 수단(공공형 먹거리), 주체(참여와 실행체계), 기능(도 역할과 시·군 지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를 ‘전라북도 먹거리 종합계획의 6대 기본방향’으로 제시²⁸⁾



[그림 5-3] 전라북도 먹거리 종합계획의 추진방향

① (기본에 충실)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의 내실있는 구축을 지향함

-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가공·제조~공급·유통~소비~폐기·순환’에 이르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을 위한 공공부문의 실행계획을 지향함
- 지역 먹거리의 ‘생산·공급 대책, 안전·환경 대책, 소비·생활 대책, 복지·보장 대책, 사회·통합 대책’ 등 현실의 먹거리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실행계획(액션플랜)임

② (공공 먹거리) ‘공공형 관계시장’의 지역 먹거리 생산-소비를 확대함

- 건강한 지역 먹거리의 생산~공급~소비 확대를 위해 ‘공공 먹거리’를 중심으로 ‘먹거리 관계시장’을 확대하여 ‘먹거리 접근성’을 제고함
- 학교급식·공공급식·복지급식·(로컬푸드)직매장 등 공공형 먹거리 관계시장을 중심으로

28) 이 내용은 황영모 외(2022)에서 수정하여 작성하였음

지역 먹거리의 생산~소비 구조를 지속적으로 확대함

③ (먹거리 돌봄) 사회적 먹거리 보장의 '생애주기 먹거리 돌봄'을 추진함

- '양적'인 식품의 공급을 넘어 '사회적' 먹거리 보장(분배)이 실효적으로 이뤄져 먹거리에 있어 소외 받지 않는 지역사회의 기반을 만들
- 생애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먹거리 취약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먹거리의 '돌봄과 나눔'을 실천하는 구조를 갖추어 나감

④ (주체적 역량) 모든 활동의 성과는 '먹거리 시민²⁹⁾ 역량' 강화를 지향함

- 먹거리 관련 구조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는 대응으로 지역의 '사회규범' 수준에서 건강한 먹거리를 '일상화'하는 역량을 갖는데 초점을 둠
- 사업과 활동의 모든 성과는 도민 모두가 건강한 먹거리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먹거리 (시민)역량'을 갖추는 것으로 귀결되어야 지속가능성을 가짐

⑤ (참여형 체계) 참여형 '먹거리 계획 실행체계'로 파트너십을 강화함

- 먹거리 계획은 현실적 이해관계 균형점을 감안해, 다양한 형태로 실행·수정·보완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실행력'을 고려한 다층적 추진체계 구축이 관건임
- '참여형 추진체계'를 통해 다양한 핵심주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공통의 실행과제를 도출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높임

⑥ (역할의 확장) '시·군+도' 실행계획을 실효적으로 결합·확장시켜 상생을 추진함

- 시·군의 '지역생산-지역소비 구조'를 갖추면서도 지역의 한계를 보완하고 장점을 살리는 '지역간 상생'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함
- 도시-도농복합-농촌의 지역적 특성에 기반하여 '지역상생 먹거리 체계'를 갖춰가는 '정책적 협력과 연대'의 실행계획으로 기능함

29) '먹거리 시민(food citizen)'은 사회적·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전 과정을 잘 체득하고 실천하는 사람

4. 비전과 목적

□ 비전

도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는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

- ‘먹거리 종합계획’이 지향하고 반영해야 할 원칙이자 핵심가치인 ‘^①먹거리 순환체계³⁰⁾, ^②먹거리 보장³¹⁾, ^③건강한 먹거리³²⁾’를 비전의 문구로 반영함
- 지역 먹거리 ‘생산~공급~소비’ 순환체계 구축이 모든 도민(생산자+소비자)의 ‘건강한 먹거리 보장’을 지향함을 명시하여, 계획이 특정한 ‘부문 계획’을 넘어 ‘도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 계획’임을 표현함

□ 목적

^①먹거리 ‘공공성’ 강화, ^②먹거리 ‘접근성’ 확대, ^③정책의 ‘실행력’ 확립

① 먹거리 ‘공공성³³⁾’ 강화

-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체계를 갖추어 공공급식³⁴⁾ 등의 핵심수단을 통해 먹거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 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보는 것을 의미
- (핵심수단) 공공 먹거리의 생산~공급~소비구조의 안정화, 공공급식과 먹거리 돌봄³⁵⁾

30) ‘먹거리 순환체계’는 지역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복지, 교육, 폐기물 처리 등 순환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연계되어 있는 구조를 말함(전북 먹거리기본조례, 제3조).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우선 소비함으로써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 중소농 소득 증대, 지역 일자리 창출, 환경부담 완화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의 생산 및 소비 체계를 의미(농림축산식품부)

31) ‘먹거리 보장(food security)’은 식량안보 뿐만 아니라 먹거리 불평등과 영양불균형 해소, 식품안전, 농업자원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등을 통해 모든 국민들에게 충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것을 의미(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32) 환경친화적으로 재배하고 과도한 이동을 줄인 것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사회적 관계까지 고려한 지역 먹거리

33) ‘먹거리 공공성’은 먹거리는 모든 사람과 두루 연관된 문제이므로 개인에게만 맡기지 말고 사회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

34)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복지시설 등에서 정부 재정으로 이루어지는 급식. 사회적 욕구가 있는 계층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조직적 행위로서 시장 효율성보다는 공공성의 원리에 의해 제공되는 급식

의 확대와 강화

② 먹거리 '접근성³⁶⁾' 확대

- 지역생산-지역소비 주체와 영역에서 관계를 맺는 사회적·인적인 관계망과 물리적인 거점(관계망)을 늘려 나가는 사업과 활동을 의미
- (핵심수단) 로컬푸드³⁷⁾의 접근과 이용 여건의 강화, 식생활 교육³⁸⁾과 도농상생³⁹⁾의 사회적 관계망을 확립

③ 정책의 '실행력' 확립

- 지역 먹거리 체계를 이루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추진·실행체계를 갖추어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실행을 늘려가는 파트너십⁴⁰⁾을 강조
- (핵심수단) 지역 먹거리 (민관)거버넌스 체계⁴¹⁾의 구축과 운영, 먹거리 정책의 조정·실행과 도민의 실효적인 참여 구조를 마련

-
- 35) '먹거리 돌봄'은 시혜적·자선적 차원의 선별적 식품제공(food charity)이 아니며, 보편적 인권 차원의 먹거리 보장으로 전환하는 것(food security & sovereignty)으로 먹거리 불안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을 강조
- 36) '먹거리 접근성'은 모두가 공평하게 먹거리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보편성', 어떤 상황에서도 지속가능하게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안정성', 먹거리 제공이 개인적이나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존엄성'을 포괄. 지역의 범위에서 지역생산(생산자)과 지역소비(소비자)의 관계를 맺어가는 인적·사회적 관계망 또는 주체와 지역 먹거리의 접점이 쉽게 이뤄지도록 기존 시장을 활성화하고 거점 관계망을 새롭게 조정하는 활동을 포함(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 37) '로컬푸드'는 장거리 수송 및 다단계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와 농식품을 의미함. '지역'의 범위는 국가와 사람마다 다르게 규정하나 우리 사회는 행정구역(시·군·도)의 경계 내로 이해하고 있음
- 38)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지자체·민간협력으로 추진
- 39) 농산물이 생산되지 않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간 상호협력력을 통해 공공급식에 필요한 식재료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것. 소비자는 건강·안전한 먹거리를 만나고, 생산자는 지속가능한 농업과 적정가격을 보장받음으로써 도시와 농촌이 상생관계를 맺고,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실현하는데 목적
- 40) '파트너십'은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서도 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공공·민관·시민사회의 파트너십 확장과 증진이 강조
- 41) 지역 내 논의·협의·합의 등을 통한 먹거리 과제 도출 및 사업·활동의 관리를 위한 민관협치의 의사결정협의체(기구 또는 조직). 거버넌스는 특정한 유형의 '조직+법+제도'가 아니라 정책이 추진되는 '시스템'이며 정책추진의 바탕이 되는 '연결망' 자체 또는 그러한 시스템·네트워크의 작동방식에 있음(김정섭, 2020)

5. 전략체계

- ‘추진목적’(3대)+‘추진전략’(7대)+‘실행과제’(21대) → ‘핵심과제’(4대)로 집중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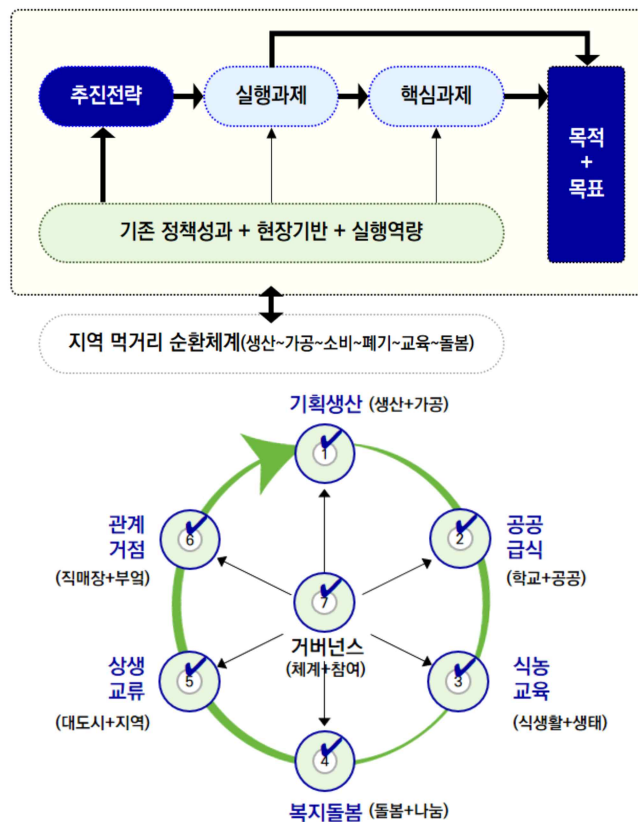
[표 5-2] 전라북도 먹거리 종합계획 비전·목적·전략체계

비전	도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는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	
추진 목적	✓먹거리 ‘ 공공성 ’ 강화	→ 공공 먹거리의 생산~공급~소비구조 안정화 → 공공급식과 먹거리 돌봄을 확대하고 강화
	✓먹거리 ‘ 접근성 ’ 확대	→ 지역 먹거리의 접근·이용·소비 여건의 강화 → 식생활 교육과 도농상생 사회적 관계망 확립
	✓정책의 ‘ 실행력 ’ 확립	→ 지역 먹거리 정책 거버넌스 확립과 내실화 → 먹거리 정책조정·협력과 도민참여 구조 마련
	추진전략 (7대)	실행과제 (21대)
전략 과제	① (기획생산) 기획생산·지역가공 강화	(1) 지역 먹거리 기획생산·조직화 의 강화 (2) 지역 먹거리 가공식품 확대와 활성화 (3) 지역 먹거리 안전성관리시스템 구축
	② (공공급식) 학교급식·공공급식 확대	(4) 학교급식 의 지역 먹거리 강화 (5) 공공급식 의 지역 먹거리 확대 (6) 공공먹거리통합정보시스템 구축
	③ (식농교육) 식생활·식생태교육 강화	(7) 학교교육 식생활·식생태 교육 강화 (8) 사회교육 식생활·식생태 교육 확대 (9) 식생활교육전문기관·전문인력 육성
	④ (복지돌봄) 먹거리 돌봄·나눔 확산	(10) 미래세대 먹거리 돌봄 강화 (11) 취약계층 먹거리 돌봄 확대 (12) 먹거리 나눔 의 촉진과 확대
	⑤ (상생교류) 도농상생·도시농업 확대	(13) 대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확대 (14) 지역 내 먹거리 교류·체험 확대 (15) 도시농업 촉진과 폐기·순환 추진
	⑥ (소비거점) 로컬푸드 관계거점 강화	(16) 로컬푸드 직매장 기능 활성화 (17) 마을부엌 확대와 운영 활성화 (18) 지역식당 에 지역 먹거리 공급
	⑦ (거버넌스) 도민참여 실행체계 구축	(19) 먹거리 거버넌스 체계 확립과 운영 (20)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21) 먹거리 정책 홍보·관리 와 개선체계

6. 추진전략

□ 추진전략 논리와 구조

- (논리단계) ①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전제’로, ②전라북도-시·군의 정책성과를 ‘바탕’으로, ③계획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전략·과제’로 구체화하여, ④정책의 우선 핵심 과제로 ‘관리’하여, ⑤계획을 통해 실현하는 ‘목표’를 제시함
- (기본구조)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와 먹거리 종합계획의 정책목적을 고려하여 ‘①기획생산, ②공공급식, ③식생활교육, ④복지·돌봄, ⑤상생·교류, ⑥관계거점, ⑦추진체계’가 결합된 구조로 설정함



[그림 5-4] 추진전략의 논리단계와 기본구조

□ 추진전략 1. 기획생산·지역가공 강화 (핵심)

○ (실행과제 1) 지역 먹거리 '기획생산·조직화' 강화

- 도민의 건강한 '밥상 수요'에 대응하여 다양한 식재료를 일정 수준까지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는 '연중 다품목 기획생산 체계'를 갖추고 생산역량과 기반을 강화함

○ (실행과제 2) 지역 먹거리 '가공식품' 확대 활성화

- 소비자의 다양한 '먹거리 수요'와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지역가공'을 확대하고, 가정간편식 상품화 등으로 지역 먹거리 소비기반을 확대함

○ (실행과제 3) 지역 먹거리 '안전성관리시스템' 구축

- '공공형 먹거리 관계시장'에 공급되는 지역 먹거리(식재료+농식품)의 안전성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책임있는 안전성 관리 체계'를 구축함

□ 추진전략 2. 학교급식·공공급식 확대 (핵심)

○ (실행과제 4) '학교급식'에 지역 먹거리 확대 공급

- '학교급식'에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 먹거리와 친환경 우수 식재료가 안정적으로 '공급' 되도록 '지원을 유지·확대'하고, 식재료 '조달·공급방식'을 실효적으로 개선' 추진함

○ (실행과제 5) '공공급식'에 지역 먹거리 확대 공급

- 지역의 공공기관(국가+도+시·군), 복지시설, 지역기업 등의 '단체 급식소'에 지역 식재료 공급을 늘리기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함

○ (실행과제 6) '먹거리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

- 학교급식 등 '공공형 관계시장'(공공급식·복지급식·직매장 등) 먹거리의 생산·공급·소비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지원하는 '공공 먹거리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함

□ 추진전략 3. 식생활·식생태 교육 강화 (핵심)

- (실행과제 7) ‘학교교육’ 식생활·식생태 교육 확대
 - 정부의 식생활 교육 정책을 기반으로 ‘초등학생-청소년 학교교육’ 과정에서 다면적인 식생활 교육과 바른 먹거리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여 ‘식생활 교육을 내실화’해 나감
- (실행과제 8) ‘사회교육’ 식생활·식생태 교육 확대
 - 먹거리의 가치를 이해하고 생활 속 실천력을 갖추기 위해 성인대상 ‘사회교육’으로 바른 먹거리와 식생태 교육을 늘려 사회적으로 ‘먹거리 취약성 대응역량’을 향상시킴
- (실행과제 9) 식생활 교육 ‘전문기관·전문인력’ 육성
 - 식생활 교육을 담당할 ‘전문기관을 육성’하고, 식생활 교육에 관련된 다양한 주체를 대상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식생활 교육의 사회적 실천 확산 실행역량을 갖추

□ 추진전략 4. 먹거리 돌봄·나눔 확산

- (실행과제 10) ‘미래세대’의 먹거리 돌봄 지원 확대
 -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먹거리 취약성’(결식 등)에 책임있게 대응하기 위해 ‘먹거리(식사) 지원과 돌봄’을 늘리고, ‘지역 먹거리(식재료)를 제공·공급하는 기반’을 갖추
- (실행과제 11) ‘취약계층’의 먹거리 돌봄 지원 강화
 - 사회적·경제적 이유로 먹거리 불안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먹거리 돌봄 프로그램’을 촘촘하게 갖추어 지역사회 ‘먹거리 취약성을 줄이는 실천기반’을 만들
- (실행과제 12) ‘먹거리 나눔’ 활동의 활성화 지원
 - 공적영역 식사(기준 식사) 제공 방식의 먹거리 돌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사회(주민 자치조직)의 ‘먹거리 나눔 거점을 확장’하면서 ‘돌봄·나눔 활동을 촉진’해 나감

□ 추진전략 5. 도농상생·도시농업 확대

- (실행과제 13) '대도시' 연계 도농상생 '공공급식' 확대
 -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공급관리를 강화하고, 시·군 별로 '대도시 공공급식'으로 확대할 '먹거리 상생 정책협약'을 추진함
- (실행과제 14) '지역사회'의 '먹거리 제휴와 체험' 확대
 - '시·군 기획생산-지역소비의 미스매치'를 시정·조정하기 위해 전라북도 '지역 내 먹거리의 제휴'를 안정화하고, 소비자 참여 교류 프로그램 확대로 사회적 신뢰를 도모함
- (실행과제 15) '도시농업' 활성화와 '폐기·순환'의 추진
 - 생활 속 농업·농촌·먹거리·순환 가치를 실천하는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축'을 촉진하며 (상징적) '자원화 방안'을 마련함

□ 추진전략 6. 로컬푸드 관계거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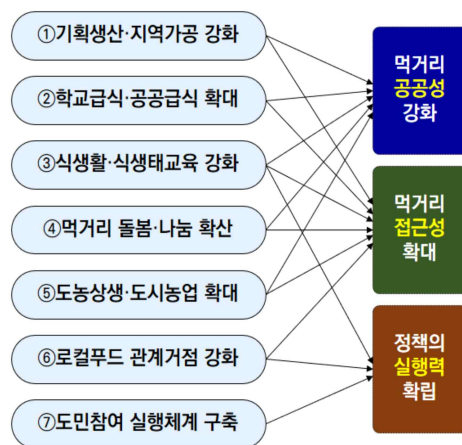
- (실행과제 16) '로컬푸드 직매장'의 운영 활성화
 - '로컬푸드 1번지'를 대표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의 인증과 관리를 내실화'하고, 소비자 이용 편리성 향상을 위해 '복합문화 기능'을 결합해 도민 '참여 프로그램'을 늘려 나감
- (실행과제 17) 먹거리 돌봄 '마을부엌' 확대 운영
 - 지역 먹거리의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는 공동체 기반 먹거리 나눔·돌봄의 거점으로 '마을부엌(커뮤니티키친)'의 확대 조성'하고 '운영을 활성화'하여 소셜 다이닝을 확산함
- (실행과제 18) 지역 먹거리 '지역식당' 공급 추진
 - 로컬푸드의 이용 한계를 보완하는 '지역식당 공급'과 '소생활권 거점'을 마련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 먹거리 식재료의 '소비를 늘리는 골목상권 구조'를 갖춰 나감

□ 추진전략 7. 도민참여 실행체계 구축 (핵심)

- (실행과제 19) 먹거리 ‘거버넌스’ 체계 운영 확립
 - ‘먹거리 거버넌스 기구(위원회·상설속의기구)를 설치·운영’하고, 행정의 ‘정책 총괄(조정) 단위(담당)를 지정’하며, ‘시·군의 먹거리 정책 추진역량’을 지원하여 추진체계를 확립함
- (실행과제 20)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 전라북도 범위에서 지역 먹거리의 지원·연계를 강화하여 맞춤형 ‘먹거리 정책실행의 체계(조직화·기획생산·관계망구축 등)를 담당할 실행조직’을 설립하여 운영함
- (실행과제 21) 먹거리 정책 ‘홍보·관리·개선’ 체계
 - 도민 모두가 지역 먹거리의 가치·내용을 이해하고 생활 속 이용을 높이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도민 참여형 추진체계에 따른 다층적 평가·환류체계를 갖춰 운영함

□ 추진전략과 목표의 관계

- 이상의 7대 ‘추진전략’이 먹거리 종합계획의 3대 ‘정책목적’과 관계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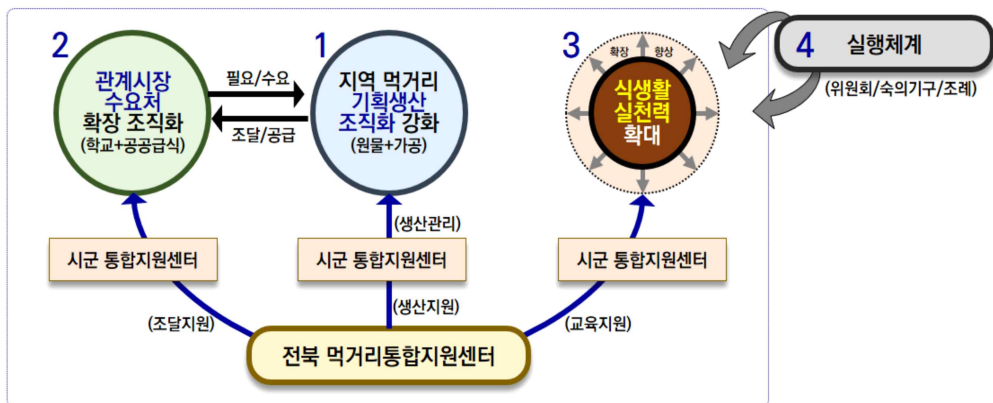


[그림 5-5] 추진전략과 목적의 관계

7. 핵심과제

□ 핵심과제 설정의 논리와 구조

- ‘추진전략(7대)+실행과제(21대)’는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에서 먹거리 정책의 ‘목적’(공공성·접근성·실행력)을 달성하기 위해 ‘먹거리 종합계획’이 다루고자 하는 (현실적으로) ‘균형을 갖춘 정책 구조’라 할 수 있음
- 전라북도가 추진해온 정책의 실행여건(현장+행정)을 종합할 때, ‘추진전략+실행과제’ 중에서 먹거리 종합계획의 목적 달성에 비중이 큰 내용을 중심으로 ‘핵심과제’로 설정하여 정책의 실행·관리에 중점을 둠
- 첫째,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 먹거리(원물+가공)의 ‘생산력’(조직화+생산량+품목)을 높이고, 지원 시스템을 갖추어 전라북도 차원(범위)에서의 ‘기획생산 역량’을 강화해 나감
- 둘째, 지역 먹거리의 ‘생산력’은 먹거리 ‘소비력’을 전제로 하므로, ‘공공형 관계시장’(학교·공공·복지급식·직거래)의 수요·공급관리로 ‘조달력’을 높이고 ‘공공성’을 도모함
- 셋째, 도민이 지역 먹거리의 가치를 이해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생활에서 실천하는 역량을 키우고 현실화하기 위해 ‘먹거리 이해력과 실천력’을 높여 나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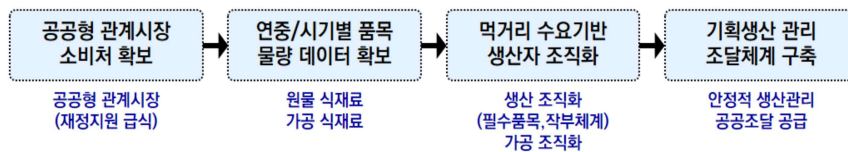


[그림 5-6] 핵심과제 설정의 구조와 주요내용

- 넷째, 먹거리 종합계획의 실효적 실행의 기본역량이 되는 ‘추진체계’(위원회·숙의기구·정책총괄·지원센터·평가개선)를 잘 갖추 먹거리 정책의 ‘실행력’을 확립함

□ 핵심과제 1. 지역 먹거리 ‘생산력’ 강화 (기획생산+지역가공)

- 지역 먹거리 전략의 기반(토대)은 ‘생산자(농가) 조직화’이며, 연중 다품목 농산물(식재료)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는 ‘생산력’을 비상이 높여 나감
- 수요를 고려하지 않는 관행적 생산방식을 극복하기 위해 ‘수요(조직화)에 기반한 기획생산 체계’로 개편하여 연간 시기별 공급할 ‘품목·수량을 예측하는 작부체계’로 재편함
- 재정사업(국비·도비·시·군비)으로 운영되는 ‘공공형 관계시장(학교·공공급식·단체급식소)에서 필요한 먹거리(식재료) 수요’에 부응하는 기획생산 작부체계를 갖추
- 공공형 관계시장 급식 등에서 높아지고 있는 ‘전처리·(1차)가공’ 등 가공식품 수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지역 먹거리의 지역가공 기반을 강화해 ‘가공력’을 높임
- 결국, 지역 먹거리 생산력은 ‘공공형 관계시장 소비자 확보 → 연중 시기별 필요 품목·수량 데이터 마련 → 필요 품목·수량에 따른 생산·가공 조직화 → 기획생산의 관리와 조달체계 마련 → 지역 먹거리의 공급 및 정산’ 등의 과정으로 추진함
- 성과목표(검토) : 기획생산 생산자, 원물·가공식품 공급액, 지역 조달체계 개선 등



[그림 5-7] 지역 먹거리 ‘생산력’ 강화를 위한 단계와 영역

[표 5-3] 기획생산이 필요한 주요 식재료의 품목(안)

종분류	품 목	(학교급식·공공급식 현장) 필수 요구 품목
과수류	과 수	배, 사과, 건대추, 감, 밤, 수박, 참외 등
식량작물	식량작물	감자, 고구마(밤, 호박), 백미, 현미, 수수, 찰현미, 찹쌀, 흑미, 서리태,

중분류	품 목	(학교급식·공공급식 현장) 필수 요구 품목
		보리, 찰보리, 참깨, 들깨, 기장, 팥
채소	과채류	가지, 애호박, 오이(취청, 백다다기), 고추(청양, 아삭이, 풋, 파리), 파프리카, 피망, 토마토, 딸기
	산채류	콩나물, 숙주나물, 참나물, 도라지(간), 케일, 돌나물, 취나물 등
	근채·조미채소류	대파, 양파, 당근, 무, 생강, 열무, 쪽파, 깐마늘, 마늘, 실파, 연근, 총각무 등
	엽경채류	상추(적, 청, 로메인), 배추(얼갈이, 속음), 부추, 깻잎, 양배추, 싹채소, 근대, 머위
	양채류	시금치, 아욱, 치커리, 콜라비, 겨자채, 썩갠 등
	건나물	무시래기, 호박고지, 건토란줄기, 무말랭이, 건가지, 건고사리, 건고추, 건취나물
특용작물	버 섯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양송이, 팽이 등
	견과류	은행, 호두 등
	약용작물	오가피, 헛개나무, 엄나무, 옷나무, 옥수수 수염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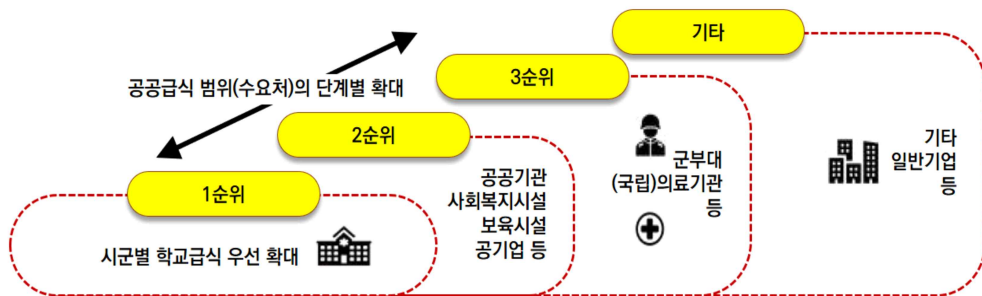
자료 : 정은미(2019)에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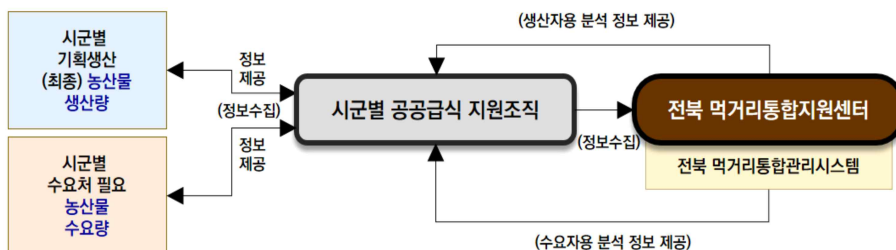
[그림 5-8] 전라북도 먹거리 통합관리 플랫폼 모식도

□ 핵심과제 2. 지역 먹거리 ‘공공성’ 확대 (학교급식+공공급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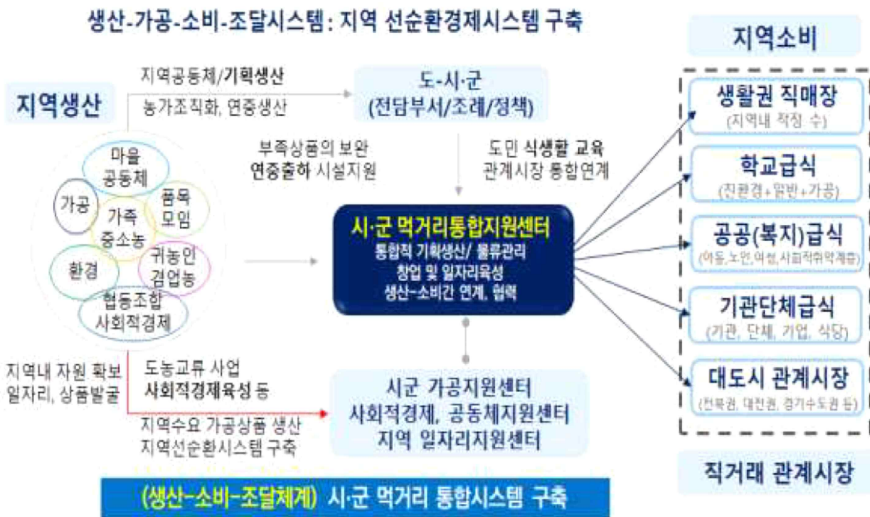
- ‘학교급식·공공급식·복지급식’은 먹거리 보장과 공공성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소비처’로 이를 중심으로 ‘지역 먹거리(식재료) 공급 확대를 위한 조달체계’를 구축함
- 학교급식에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 먹거리(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정책지원을 유지하면서 늘려가고, 지역 먹거리에 특화된 ‘식재료 조달방식’을 실효적으로 개선함
- 공공기관(국가+도+시·군)·복지시설·군부대·지역기업 등 ‘단체 급식소’에 지역 먹거리 식재료 공급을 늘리는데 우호적인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함
- 공공급식 수요에 도 차원에서 부족·잉여 품목(식재료)을 시·군 제휴하여 생산-공급-소비하는 체계를 총괄적으로 관리·지원하는 ‘공공먹거리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함
- 성과목표(검토) : 학교급식 공급액, 공공급식 공급액·수요처,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액·매장수, 복지급식 이용자 등



[그림 5-9] 공공급식의 단계별 지역 먹거리 공급 확대



[그림 5-10] 먹거리통합관리시스템에 따른 식재료 연계 구조



[그림 5-11] 지역 먹거리 생산-소비 통합물류 체계 구축 모식

□ 핵심과제 3. 도민의 ‘먹거리 이해력’ 강화 (식생활 교육+마을부역)

- 지역사회(공동체+도민市民)가 ‘사회규범’ 수준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 먹거리를 일상화 하여 이용·소비할 수 있는 ‘생활능력’을 갖추어 가는데 초점을 둬
- 먹거리 전략과 계획의 주요한 활동 성과가 도민(市民) 모두가 건강한 먹거리를 이해하고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역량’으로 귀결(수렴)되도록 정책 추진 과정에 반영함
- 도민역량을 높이기 위해 ‘학교교육’(초·중·고·대학교)에서 다면적 식생활+바른 먹거리 교육을, ‘사회교육’(연령·계층별) 방안으로 ‘바른 먹거리+식생태 교육’의 운영을 강화함
- 먹거리를 매개로 하는 지역의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동체 기반의 먹거리 돌봄 거점’으로 기능하는 ‘마을부역(커뮤니티키친)’ 조성을 늘리고 운영을 활성화를 추진함
- 성과목표(검토) : 식생활 교육 참여자(학교교육, 사회교육), 학교텃밭·시민텃밭(참여자, 텃밭수), 마을부역(참여자, 운영수) 등



[그림 5-12] 먹거리 이해력의 실천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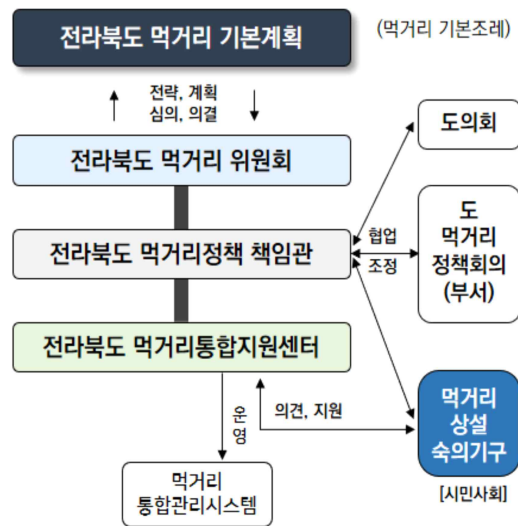
[표 5-4] 마을부역의 주요기능과 세부활동(안)

범주	주제	주요활동	범주	주제	주요활동
식생활 개선	조리기술 습득	레시피 공유, 조리 자신감, 조리방법 습득, 집밥 증가	먹거리 시민성 고양	시민의식 형성	초등 연계 마을부역 먹거리교육, 도시경험 최소한 하늘땅 살이
	비용 절감	공동 조리와 나누기, 신선 좋은 재료 공동 구입		나눔·공유 문화	남은 식재료 함께 나눔, 김치냉장고, 대형냉장고 필요감소
	식습관 개선	혼밥 줄고 함께 먹는 기쁨, 채소 거부감 감소	사회계층·소외계층 먹거리 보장	부역의 공유	공간문제 공유부역시범사업 필요 1-2평 쪽방, 주방시설 없음
공동체성 증진	아동 돌봄	아이 사랑방, 방과후 공간, 아이 함께 키움		결식·혼밥 감소	혼자 찬밥 물 말아 먹는 것 개선, 집밥에 나와 먹는 것 자체가 의미
	관계 형성	한술밥 친밀감 향상, 다문화 가정 이질감 해소, 식사중 담소		자존감 회복	공짜에 길들여지지 않음, 반찬나눔·배식봉사 당사자 참여
	이웃돌봄	반찬나눔, 이웃 나눔 밥상		돌봄연결	교류로 고립감 해소, 나눔밥상 자문

□ 핵심과제 4. 먹거리 ‘정책의 실행력’ 강화 (추진체계+전담조직)

- 행정과 민간의 역량을 결합하여 먹거리 정책의 조정·협력, 도민의 참여구조를 반영된 ‘참여형 먹거리 정책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고 내실있게 운영해 나감
- 민관의 먹거리 거버넌스 기구(위원회+상설속의기구)를 설치·운영하고, 행정에 먹거리 정책을 총괄·조정할 단위를 지정·운영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갖추

- 먹거리 종합계획의 핵심사업(정책)을 직접 실행하고, 시·군의 먹거리 정책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중간지원조직’을 ‘공공형 조직’으로 설치하여 정책의 책임성을 갖추
- 먹거리 종합계획의 추진체계(먹거리위원회-상설숙의기구-정책책임관)에 따른 실행력을 바탕으로 정책의 평가와 개선이 상향식으로 이뤄지는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함
- 성과목표(검토) : 정책 거버넌스 기구(회의개최-도+시·군), 먹거리 도민역량(실태조사에 따른 역량진단), 공공형 지원조직(조직수-도+시·군)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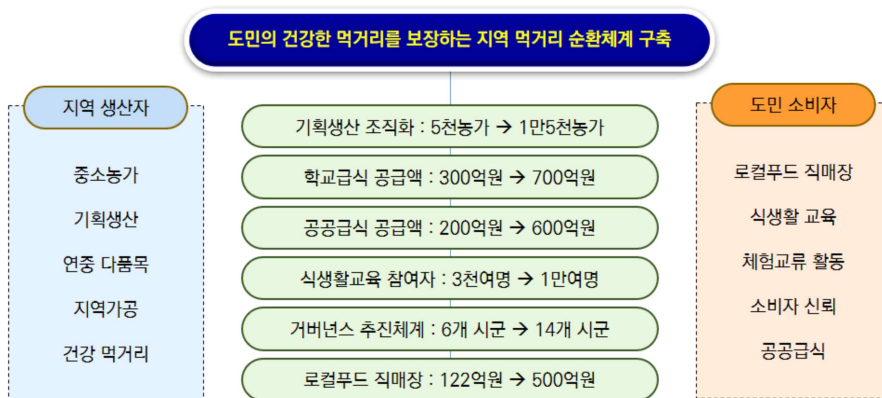
[그림 5-13] 전라북도 먹거리 종합계획의 추진체계

8. 성과목표 검토

- 전라북도 먹거리 종합계획의 ‘추진전략-중점과제-핵심과제’를 통해 계획기간(5년)의 달성 목표를 양적으로 제시하여 세부사업 등을 통한 정책시행의 내실을 도모함⁴²⁾
- 성과목표는 종합계획의 계획기간(5개년)을 감안하면 수정 계획을 수립할 시점(2025년)을 고려하여 ‘단기목표’(2024년)와 계획기간 종료시점(2027년)인 ‘중기목표’(2027년)으로 구분하여 검토할 수 있음
- 먹거리 종합계획을 통해 달성할 성과목표는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먹거리 위원회’에서 ‘대표지표’(양적+질적)를 검토·선정·관리해 나가는 구조를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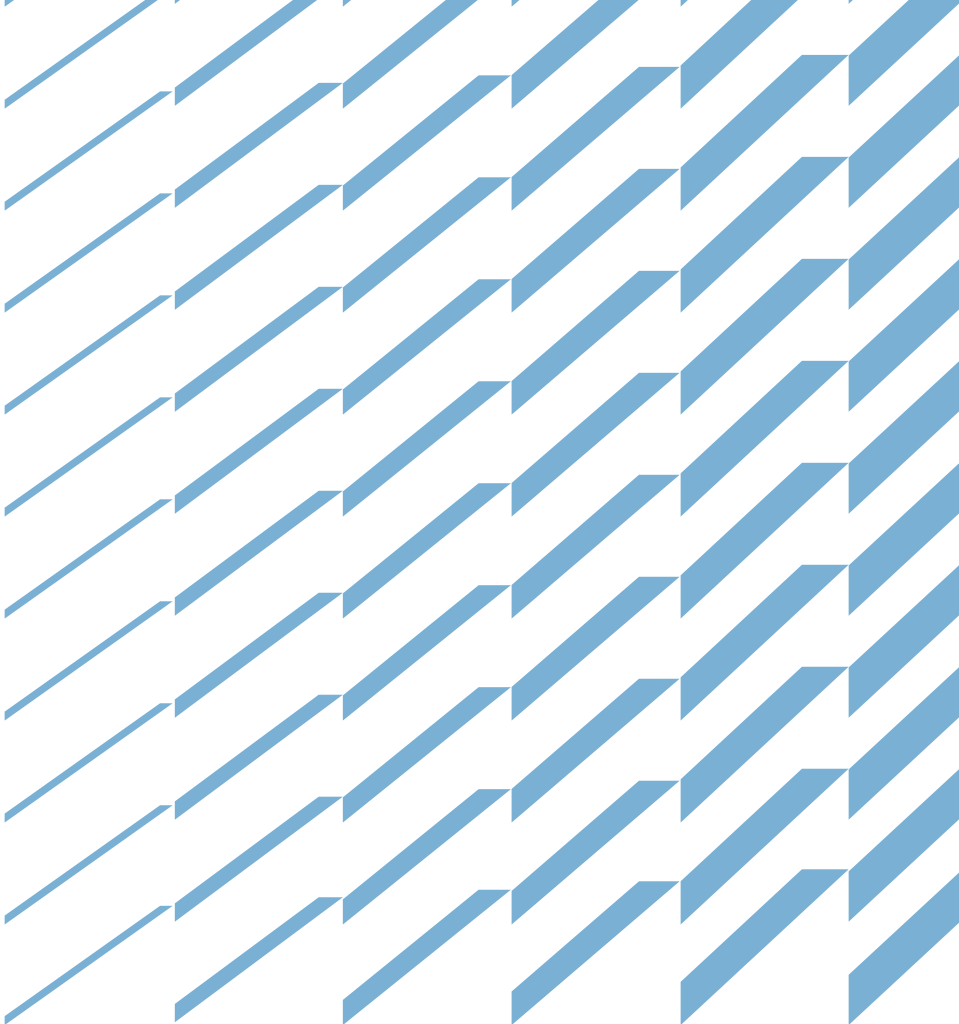
[표 5-5] 전라북도 먹거리 종합계획의 (양적) 성과목표 (예시)

핵심과제	성과목표	현재('21년)	단기('24년)	중기('27년)
지역 먹거리 '생산력' 강화	기획생산 조직화	5천여농가	1만농가	1.5만농가
지역 먹거리 '공공성' 확대	학교급식 공급액	300억원	500억원	700억원
	공공급식 공급액	200억원	400억원	600억원
도민 먹거리 '이해력' 강화	식생활교육 참여자	3천여명	6천여명	1만여명
먹거리 정책 '실행력' 강화	거버넌스 추진체계	6개 시·군	14개 시·군	14개 시·군



[그림 5-14] 전라북도 먹거리 종합계획 성과목표 (예시)

42) 성과목표(예시)는 지역파트너플러스·커뮤니티링크(2021)에서 다룬 영역과 수치를 중심으로 일부 수정하였음



제6장

전북 먹거리 종합계획 추진전략과 중점과제

1. 기획생산·지역가공 강화
2. 학교급식·공공급식 확대
3. 식생활·식생태 교육 강화
4. 먹거리 돌봄·나눔 확산
5. 도농상생·도시농업 확대
6. 로컬푸드 관계거점 강화
7. 도민참여 실행체계 구축
8. 관리방안과 실행체계



제6장 전북 먹거리 종합계획 추진전략과 중점과제

- 이 장에서는 전라북도 먹거리 종합계획의 기본방향과 전략체계에 따라 추진전략별 중점 추진과제를 살펴보고자 함
- 7대 추진전략 실행방안인 추진과제는 전략별로 3개 중점내용을 바탕으로 구조화하고, 중점과제별로 세부사업을 개괄 제안하며, 세부사업의 주요내용을 부록에서 다룸

1. [추진전략 1] 기획생산·지역가공 강화

- 건강한 ‘밥상 수요’에 대응해 다양한 식재료를 일정 수준까지 지역생산 하는 ‘연중 다 품목 기획생산 체계’⁴³⁾를 갖추고 생산역량·기반을 강화해 나감

[표 6-1] ‘기획생산·지역가공 강화’ 추진전략, 중점과제와 세부사업

(3대) 중점과제		no	누적	(12개) 세부사업	구분
1	지역 먹거리 기획생산 조직화 강화	1-1	1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	기존
		1-2	2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 지원	기존
		1-3	3	시·군 기획생산 기반 확대 지원	신규
		1-4	4	토종농작물 재배확대와 로컬푸드 연계	기존+개선
		1-5	5	지역 먹거리 ‘기획생산협의체’ 운영	기존+개선
2	지역 먹거리 가공식품 확대·활성화	2-1	6	시·군 지역 가공식품 활성화 지원	기존+개선
		2-2	7	공공급식 가공식품 기획가공 추진	신규
		2-3	8	신선편의 지역 먹거리 확대 지원	기존+개선
		2-4	9	지역 먹거리 ‘가공식품협의체’ 운영	신규
3	지역 먹거리 안전성관리 시스템 구축	3-1	10	농식품 안전성 관리체계 구축 지원	기존+개선
		3-2	11	중소농 농산물 안전·유통 지원사업	기존
		3-3	12	지역 먹거리 소비자 신뢰구축 강화	기존+개선

43) 다품목 기획생산 체계 : 연중 시기별로 공급할 품목·수량 등을 예측하고, 이를 담당할 생산자 조직화로 품목별 작부체계를 재편하여 생산·공급하는 먹거리 체계의 기반 전략

- 다양한 ‘먹거리 수요’와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해 지역 농산물 활용 ‘지역가공’을 확대하고, 가정간편식 상품화 등으로 지역 먹거리 소비기반을 늘림
- 공공형 먹거리 관계시장에 공급되는 지역 먹거리(식재료+농식품)의 안전성 관리체계를 구축해 소비자가 신뢰하는 책임있는 생산관리 체계를 강화함

(중점과제 1) 지역 먹거리 ‘기획생산·조직화’ 강화

□ 대응방향

- 시·군(지역) 특성·여건을 고려하여 먹거리 수요에 따른 품목별·시기별 기획생산의 운영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며, 생산자(기반) 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감
- 공공형 관계시장 먹거리(식재료) 수요에 근거한 품목별 기획생산 조직화 시스템을 갖추고 시·군별 로컬푸드 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감

□ 추진사업

- ①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 (기존)
 - 로컬푸드 직매장의 다품목 지역 먹거리 공급을 위해 기획생산 참여 농업인에게 최소의 생산기반(소규모 비닐하우스)를 지원, 지역 먹거리 연중 생산기반 구축
- ②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 지원 (기존)
 - 공공기관·학교 등 공공급식을 중심으로 지역 농산물(로컬푸드)를 지역 내 우선 소비하는 체계 구축에 필요한 협의체 운영, 생산농가 조직화 교육, 품목기획 지원
- ③ 시·군 기획생산 기반 확대 지원 (기존+개선)
 - 공공형 관계시장 수요에 대응하여 시·군별로 생산자 조직화를 기반으로 기획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생산역량을 유지하는 생산기반(시설·자재) 지원
- ④ 토종 농작물 재배 확대와 로컬푸드 연계 (기존+개선)

- 건강한 먹거리로 대표되는 토종 농작물 재배를 확대하고, 지역 먹거리 관계시장(직매장, 공공급식 등)과 연계하여 여성농업인 등을 지역 먹거리 주체로 조직화

⑤ 지역 먹거리 ‘기획생산협의체’ 운영 (기존+개선)

- 시·군별 지역 먹거리 DB 구축을 토대로 기획생산 생산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군별 기획생산 협의체 운영을 내실화하고, 도 차원의 상설 협의구조로 확대

(중점과제 2) 지역 먹거리 ‘가공식품’ 확대 활성화

□ 대응방향

- 공공형 먹거리 관계시장과 도민의 밥상에 가공식품 및 간편식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에 대응하여 지역 먹거리를 활용한 가공식품(먹거리)를 확대해 나감
- 먹거리 수요·소비패턴이 다변화하고, 공공 먹거리 관계시장에서 가공식품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지역가공 확대가 핵심과제

□ 추진사업

① 시·군 지역 가공식품 활성화 지원 (기존+개선)

- 시·군별 공공형 먹거리 관계시장(학교·공공급식·직매장 등)에 공급되는 가공식품을 늘리기 위해 지역별 지역가공센터와 공동체 조직의 생산기반 확대 지원

② 공공급식 가공식품 기획가공 추진 (신규)

- 지역별 공공급식 등 먹거리(식재료·식품 등) 필요·수요 분석을 토대로 공통으로 대량 소비되는 가공식품(식용유 등)을 도 차원에서 기획가공·공급하는 방안 추진

③ 신선편의 지역 먹거리 확대 지원 (기존+개선)

- 식재료를 고르고 손질하고 양념을 만드는 밑 준비 과정을 생략한 가정간편식(밀키트)⁴⁴⁾의 가공과 공급기반을 확대해 건강한 지역 먹거리 상품 다양성을 갖추

④ 지역 먹거리 ‘가공식품협의체’ 운영 (신규)

- 지역 먹거리(식재료)를 활용한 가공식품의 생산-공급 활성화를 위해 시·군 참여 도 차원의 가공식품협의체를 정례적으로 운영, 상품의 개선과 기획력을 향상

(중점과제 3) 지역 먹거리 ‘안전성관리시스템’ 구축

□ 대응방향

- 공공형 먹거리 관계시장과 도민의 가정 밥상에 가공식품 및 간편식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에 대응하여 지역 먹거리를 활용한 가공식품(먹거리)를 확대
- 먹거리 수요와 소비패턴이 다변화하는 가운데, 공공 먹거리 관계시장에서 가공식품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지역가공 확대가 핵심과제

□ 추진사업

① 농식품 안전성 관리체계 구축 지원 (기존+개선)

- 시·군이 공공형 먹거리 관계시장 공급 모든 먹거리(식재료+농식품)의 안전성 관리체계에 필요한 잔류농약 검사 등 시설·설비를 지원하고 통합적으로 운영

② 중소농 농산물 안전·유통 지원사업 (기존)

-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농산물의 사전 잔류농약 검사로 안전한 먹거리의 품질을 확보, 학교급식 제공 농산물·가공품 물류비용 지원으로 유통비용 절감 지원

③ 지역 먹거리 소비자 신뢰구축 강화 (기존+개선)

- 지역 먹거리 안전성 점검(모니터링) ‘소비자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공공형 먹거리 관계시장(직매장, 학교·공공급식 등)의 품질관리 점검 등 소비자 신뢰제고

44) 밀키트(meal kit) : 손질된 식재료와 양념을 포함하는 조리 직전단계 간편식

2. [추진전략 2] 학교급식·공공급식 확대

- 지역 학교급식에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 먹거리와 친환경 우수 식재료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지원을 유지·확대하고, 조달·공급의 실효적 개선 추진
- 공공기관(국가+도+시·군), 복지시설, 지역기업 등 단체 급식소에 지역 먹거리 식재료 공급을 늘리기 위한 사회적 여건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등 지원
- 학교급식 등 공공형 관계시장(공공급식·복지급식·직매장 등)의 먹거리 생산-공급-소비 등 총괄적 관리·지원 위한 공공먹거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표 6-2] '학교급식·공공급식 확대' 추진전략, 중점과제와 세부사업

(3대) 중점과제		no	누적	(11개) 세부사업	구분
1	학교급식 지역 먹거리 확대	1-1	13	학교 무상급식 식재료 지원	기존
		1-2	14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기존
		1-3	15	친환경쌀 어린이집 급식 지원	기존
		1-4	16	학교급식 식재료 현물지원 확대	신규
		1-5	17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장비 지원	기존
		1-6	18	학교급식협의체 운영 실질화	기존+개선
2	공공급식 지역 먹거리 확대	2-1	19	공공기관 지역 먹거리 우선구매 지원	신규
		2-2	20	복지기관 지역 먹거리 식재료 공급 지원	신규
		2-3	21	지역기업 지역 먹거리 식재료 소비 촉진	신규
		2-4	22	공공급식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원	신규
3	통합관리체계구축	3-1	23	먹거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기존

(중점과제 1) '학교급식' 지역 먹거리 확대

□ 대응방향

-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 사용을 확대하고 공급을 촉진하며, 안정적인 공급·유통망을 구축하여, 친환경 농산물의 지속가능 생산체계 등을 유도
- 지역 생산 우수 친환경 농산물과 Non-GMO 가공식품 등이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활용되는 지원을 내실화하여 성장기에 있는 미래세대의 심신발달을 도모

□ 추진사업

① 학교 무상급식 식재료 지원 (기존)

- 학교급식·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초중고 학교급식비를 지원(보호자 부담 경비전액)하고, 가공품은 지역산과 non-GMO 가공품 의무사용을 위한 단가 규정

②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기존)

- 건강한 지역생산 친환경 쌀·농산물 등이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되도록 (차액)지원으로 미래세대의 건강급식과 친환경농업 확대(농가소득 증대) 도모

③ 친환경쌀 어린이집 급식 지원 (기존)

- 지역 어린이집 대상으로 친환경쌀이 급식으로 제공되도록 (차액)지원하여, 자라나는 성장기 영유아의 건강한 심신 발달과 친환경농업 확대(농가소득 증대) 도모

④ 학교급식 식재료 현물지원 확대 (신규)

- 학교급식 식재료의 공적조달 방식을 보완하여 건강한 지역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재료 현물지원 사업(수의계약)을 공공형 지원센터 운영 지역부터 추진

⑤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장비 지원 (기존)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한 시설·장비 구축을 통한 안전성 확보로 성장기 학생 심신발달 기여, 로컬푸드와 연계한 학교급식 공급기반 구축

⑥ 학교급식협의체 운영 실질화 (기존+개선)

- 기존 학교급식 관련 위원회(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학교급식위원회·교육행정협의회의)의 기능적 통합 운영으로 학교급식 개선과제의 보완과 내실있는 운영 추진

(중점과제 2) ‘공공급식’ 지역 먹거리 확대

□ 대응방향

- 지역생산 건강한 지역 먹거리의 공공기관·단체·지역기업 등 이용을 늘려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계층별로 다양한 도민이 이용하는 단체 급식소가 안심하는 지역 먹거리 식재료를 이용·소비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급식 확대를 추진

□ 추진사업

- ① 공공기관 지역 먹거리 우선구매 지원 (기존+개선)
 - 지역 내 다양한 공공기관(이전 공공기관, 지자체, 공기관 등)의 급식에 지역 먹거리가 식재료로 이용될 수 있도록 공급협약 및 이용 촉진 우선 구매 등을 지원
- ② 복지기관 지역 먹거리 식재료 공급 지원 (신규)
 - 사회복지·보육시설 등 복지기관(시설)의 단체 급식소에 지역 먹거리(식재료)가 공급되도록 식재료 공급협약 및 이용 촉진 방안 지원(현물지원·차액지원 등)
- ③ 지역기업·지역기관 식재료 소비 촉진 (신규)
 - 지역 향토기업과 민간기관 등 단체 급식소에 지역 먹거리가 식재료로 이용되도록 업무협약을 체결(ESG경영 연계)하고 식재료 공급 및 직거래 등 교류 촉진
- ④ 공공급식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원 (신규)
 - 공공급식 수요처를 확대하고, 식재료의 안정적 수급관리 및 적정수준 가격결정 등을 상시적으로 협의·조정할 핵심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

(중점과제 3) 먹거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 대응방향

- 전라북도 먹거리 종합계획이 시·군 지역 먹거리 계획을 연계해 공공 먹거리의 통합적 관리, 지역적 연계, 효율적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통합정보 시스템 개발

- 공공형 먹거리 관계시장 중심 수요-생산 DB를 구축, 부족·잉여 식재료의 지역 간 거래를 활성화하는 등 생산-소비-조달-연계 등의 먹거리 연결망을 만들

□ 추진사업

① 먹거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기존)

- 시·군 공공형 관계시장 조사·분석한 자료와 시·군 먹거리 생산 DB를 통합 구축하여 시·군 기획생산 지원 및 부족·잉여 품목의 시·군 간 연계·협력을 지원

3. [추진전략 3] 식생활·식생태 교육 강화

- 정부 식생활 교육정책 기반으로 초·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다면적인 식생활 교육과 바른 먹거리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여 식생활 교육을 내실화
- 먹거리 가치를 이해하고 생활 속 실천을 확대하기 위해 성인 대상 바른 먹거리와 식생태 교육을 늘려 사회적으로 먹거리 취약성 대응역량을 높여 나감
- 식생활 교육 담당할 전문기관을 육성하고 다양한 식생활 교육 주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식생활 교육의 사회적 실천확산의 실행역량을 갖추

[표 6-3] '식생활·식생태 교육 강화' 추진전략, 중점과제와 세부사업

(3개) 중점과제		no	누적	(8개) 세부사업	구분
1	학교교육 적용·확대	1-1	24	초등학교 다면적 식생활 교실	기존+개선
		1-2	25	청소년 바른 먹거리 미각·조리교육	신규
		1-3	26	식생태 교육 학교텃밭 운영 확대	기존+개선
2	사회교육 적용·확대	2-1	27	지역 먹거리 도민 아카데미 운영	신규
		2-2	28	바른 먹거리+식생태 교육 프로그램	신규
3	식생활 교육 기관·인력 육성	3-1	29	식생활교육전문기관 지정과 교육 지원	기존
		3-2	30	식생활교육 전문인력 양성 확대	기존
		3-3	31	식생활교육협의체 구성 및 운영	신규

(중점과제 1) ‘학교교육’ 식생활·식생태 교육 확대

□ 대응방향

- 미래세대가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고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갖추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에서부터 입체적이고 실효적인 식생활 교육을 확대하여 운영
-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필요한 ‘건강-영양-맛-신체활동-가치인식-식생태’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학교교육에서의 식생활 교육을 강화

□ 추진사업

- ① 초등학교 다면적 식생활 교실 (기존+개선)
 - 초등학교 대상으로 영양관리·신체활동·건강교육 등이 결합된 ‘다면적 식생활 교실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어린이 영양 개선과 신체활동 증진을 도모
- ② 청소년 바른 먹거리 미각·조리교육 (신규)
 - 건강한 식재료의 맛을 알고 직접 조리할 역량이 먹거리 이해력이라는 점에 주목해 ‘미각과 조리교육’으로 생산~조리의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지원
- ③ 식생태 교육 학교텃밭 운영 확대 (기존+개선)
 -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대상으로 생태텃밭을 확대 조성, 교과과정과 식생활 교육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먹거리 전반 인식을 개선

(중점과제 2) ‘사회교육’ 식생활·식생태 교육 확대

□ 대응방향

- 먹거리 관련 사회적 활동력을 갖추기 위해 먹거리 사회교육 프로그램이 중요, 성인 대상 사회교육으로 먹거리 취약성 대응역량과 식습관 행동개선을 도모

- 도민 모두가 먹거리 이해력과 실천력을 갖춘 ‘먹거리 시민(市民)’이 되도록 도민 아카데미와 바른 먹거리·식생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생활 속 참여를 촉진

□ 추진사업

- ① 지역 먹거리 도민 아카데미 운영 (신규)
 - 지역 먹거리 체계와 건강하고 바른 식문화에 대한 도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활동 네트워크를 지원하여 먹거리 이해력과 실천력을 갖춘 ‘먹거리 시민’ 육성
- ② 바른 먹거리+식생태 교육 프로그램 (신규)
 - 기존 식생활 교육의 강조점(영양관리·식습관 형성 등)과 차별화된 탄소중립 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자연+환경+재배+조리 등이 결합된 식생태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점과제 3) 식생활 교육 ‘전문기관·전문인력’ 육성

□ 대응방향

-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교육 전문기관 지원을 매개로 지역사회에 전문+실행역량을 갖춘 식생활 교육 전문기관을 지정·지원하여 식생활 교육 실천주체 육성
- 다양한 식생활 교육 활동을 담당하는 주체(급식영양(교)사, 먹거리 관계자 등)가 식생활 교육 전문적 직무역량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는 지원 프로그램 실행

□ 추진사업

- ① 식생활교육전문기관 지정과 식생활교육 지원 (기존)
 - 계층별 건강 먹거리 보장과 생애주기별 먹거리 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식생활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식생활 교육 사업과 활동을 촉진
- ② 식생활 교육 전문인력 양성 확대 (기존)
 - 먹거리 종합계획 실행과 지역 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해 건강한 식생활·식생태 문화

확산과 다양한 먹거리 전략 실천분야에서의 전문 활동가 양성 활동 지원

③ 식생활교육협의체 구성 및 운영 (신규)

- 학교·사회교육에서 식생활 교육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영양(교)사·먹거리·식생활 관련 지원센터 종사자 등이 참여하는 상설적 식생활교육협의체를 구성·운영

4. [추진전략 4] 먹거리 돌봄·나눔 확산

-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먹거리 취약성(결식)에 책임있게 대응하기 위해 먹거리(식사) 지원·돌봄을 늘리고, 지역 먹거리(식재료) 활용한 제공·공급기반을 갖추
- 사회적·경제적 이유로 먹거리 불안에 처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먹거리 돌봄 프로그램을 촘촘히 강화하여 지역사회 먹거리 취약성을 줄이는 실천 확대
- 공적영역의 지원방식(일정 기준 심사)에 따른 식사 제공 방식의 먹거리 돌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사회 먹거리 나눔(거점+활동)을 확장하고 활성화

[표 6-4] '먹거리 돌봄·나눔 확산' 추진전략, 중점과제와 세부사업

(3개) 중점과제		no	누적	(12개) 세부사업	구분
1	미래세대 먹거리 돌봄	1-1	32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기존
		1-2	33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행복 꾸러미	기존
		1-3	34	임산부 영양플러스 식재료 공급개선	기존+개선
		1-4	35	결식아동·청소년 아침밥 제공 지원	기존+개선
		1-5	36	대학생 천원 아침밥 제공 지원	기존+개선
2	취약계층 먹거리 돌봄	2-1	37	농식품바우처(시범) 확대 추진	기존+개선
		2-2	38	지역사회통합 먹거리 돌봄 연계	기존+개선
		2-3	39	농촌마을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기존
		2-4	40	먹거리 취약계층 조사·모니터링	신규
3	먹거리 나눔 확대 지원	3-1	41	푸드뱅크·푸드마켓 활성화 지원	기존
		3-2	42	먹거리 나눔냉장고 확대 지원	기존+개선
		3-3	43	나눔 먹거리 식재료 기부 촉진	신규

(중점과제 1) ‘미래세대’ 먹거리 돌봄 확대

□ 대응방향

- 미래세대의 영양 개선과 다양한 먹거리를 섭취할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임산부·영유아·초등학생에게 건강한 지역 먹거리를 공급하는 프로그램 강화
- 아침 결식률이 높은 미래세대(아동+대학생)는 영양 불균형에 처해 있어 아침식사 지원 프로그램으로 먹거리 돌봄을 강화하고 지역 먹거리의 사회적 소비처 확대

□ 추진사업

①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기존)

- 초등학교(1학년) 대상 ‘과일 바우처 시범사업’(‘23년부터 개편, ‘25년부터 농식품바우처에 통합)을 한시적으로 활용하여 미래세대의 먹거리 돌봄 상징 사업 추진

②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행복 꾸러미 (기존)

- 임산부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지역 먹거리를 공급하여 임산부의 건강관리와 지역 먹거리 식재료를 통한 먹거리 돌봄의 사회적 지원 여건을 높임

③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식재료 공급 개선 (기존+개선)

- 보건소가 시행하는 영양플러스 사업에 제공·공급되는 식재료·먹거리를 시·군 공공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공급·조달하는 계약체제로 전환, 지역 먹거리 공급

④ 결식아동·청소년 아침밥 제공 지원 (기존+개선)

- 결식 우려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침 도시락 배달 제공하는 ‘엄마의 밥상 프로젝트’를 확대 운영 경제적인 이유로 밥 굶는 아이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⑤ 대학생 천원 아침밥 제공 지원 (기존+개선)

- 농림축산식품부 지원과 지역대학과 협력하여 대학식당 통해 저렴한 아침식사를 공급하여 대학생의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고, 청년 학생의 먹거리 돌봄 지원

(중점과제 2) '취약계층' 먹거리 돌봄 강화

□ 대응방향

- 사회적·경제적 먹거리 취약계층(수급자+차상위 등)에게 안정적이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여 먹거리 취약계층 식생활 개선 및 먹거리 취약성 해소 도모
- 취약계층 먹거리 돌봄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 영역 정책사업과 연계한 식사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에 지역 먹거리 식재료(구매처)가 제공·활용되는 체계를 갖추

□ 추진사업

- ① 농식품바우처(시범) 확대 추진 (기존+개선)
 - '농식품바우처 사업(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하여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생계급여 식품비를 포함한 사용가능 식품비 차액을 지원, 먹거리 돌봄 강화
- ② 지역사회통합 먹거리 돌봄 연계 (기존+개선)
 -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보건복지부 선도사업)과 결합한 먹거리 돌봄(도시락) 서비스 제공과 공동생활 공동체 대상 주·부식 식재료 지원으로 고령자 돌봄 강화
- ③ 농촌마을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기존)
 - 농촌마을은 농번기 시기에는 집안일과 농작업을 병행해야 해서 주로 식사를 준비하는 여성 농업인에게 큰 부담이 되어 먹거리 돌봄을 위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 ④ 먹거리 취약계층 조사·모니터링 (신규)
 - 경제적·사회적 배경의 먹거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먹거리 실태조사를 통해 먹거리 돌봄·나눔 지원사업 및 정책수립의 기반 마련 필요 자료 구축

(중점과제 3) '먹거리 나눔' 활성화 지원

□ 대응방향

-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은 사회적으로 일상적인 먹거리 나눔 여건을 만들고 실행역량을 갖추는데 있으므로 공공영역에서 먹거리 나눔의 관리와 지원을 늘려 나감
- 먹거리 나눔 실천되는 기존 핵심거점 운영을 활성화하고, 주민자치 기반의 신규거점 조성을 늘리며, 지역사회 주체가 먹거리 기부를 늘리는 촉진방안을 마련

□ 추진사업

① 푸드뱅크·푸드마켓 활성화 지원 (기존)

- 먹거리 나눔 활동 거점으로 기능하는 푸드뱅크와 식재료 지원 필요 저소득층이 직접 기부된 식료품 등을 선택하는 이용자 중심의 푸드마켓 활성화를 촉진

② 먹거리 나눔냉장고 확대 지원 (기존+개선)

- 주민자치조직 등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나눔냉장고를 활성화하는 체계를 갖추고, 나눔냉장고를 통한 식재료·먹거리 기부·나눔을 촉진·확산시키는 캠페인을 전개

③ 나눔 먹거리 식재료 기부 촉진 (신규)

- 푸드뱅크·푸드마켓·나눔냉장고 등에 나눔 식료품을 채우는 지역사회 식당·가게·단체·개인 후원의 '채움가게' 모집·운영과 규격 외+여유 농산물 식재료 기부를 촉진

5. [추진전략 5] 도농상생·도시농업 확대

- 도시농업은 생활 속 농업·농촌·먹거리·순환의 가치를 직접 배우고 실천하는 생활농업의 대표 공간·방식으로 지역 먹거리 체계의 주요 영역으로 추진
- 지역 먹거리 체계의 지속가능성은 도시(소비지)-농촌(생산지) 간 먹거리 공급이 이뤄지는 도농상생 먹거리 공급체계에 있음에 주목, 정책실행 여건을 갖추

- 시·군 기획생산-지역소비의 미스매치를 시정·조정하기 위해 지역 내 먹거리·식재료의 제후를 안정화, 소비자 참여 교류 프로그램으로 사회적 신뢰 도모

[표 6-5] '도농상생·도시농업 확대' 추진전략, 중점과제와 세부사업

(3개) 중점과제		no	누적	(11개) 세부사업	구분
1	대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확대	1-1	44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기존
		1-2	45	1시·군-1대도시 상생 공공급식 추진	신규
2	지역 내 먹거리 교류·체험 확대	2-1	46	지역 먹거리 제후푸드 정책협약	신규
		2-2	47	시·군 먹거리 제후푸드 교류 확대	기존+개선
		2-3	48	도농교류 먹거리 체험 확대	기존+개선
3	도시농업 활성화와 폐기·순환 추진	3-1	49	지역사회 도시농업 시민텃밭 확대	기존
		3-2	50	도시농업공동체 육성과 활성화 지원	기존
		3-3	51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저감 캠페인	기존+개선
		3-4	52	음식물류 폐기물 퇴비화 지원	신규

(중점과제 1) '대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확대

□ 대응방향

- 대표 농산물·먹거리 산지에서 지역소비의 제약을 극복하고 도시-농촌의 상생형 먹거리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도시와 먹거리 상생을 위한 정책기반 구축
- 서울시 중심으로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공급관리를 강화하고, 시·군별로 대도시 공공급식을 중심으로 하는 상생형 정책협약 추진

□ 추진사업

①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기존)

- 서울시 공동의 '도농상생 공공급식 협력사업'의 식재료 공급과 협력강화를 안정화하기 위해 식재료 품질관리, 안전성 검사, 교류 프로그램 등 사업주체 지원

② 1시·군-1대도시 상생 공공급식 추진 (신규)

- 수도권 및 광역 대도시 공공급식·단체급식소에 지역 먹거리 식재료를 공급하는 식재

료 공급·지원 프로그램 개발하여 도농상생 먹거리 협력기반을 확대

(중점과제 2) ‘지역 내’ 먹거리 ‘제휴·체험’ 확대

□ 대응방향

- 지역별 다양한 품목, 연중 출하·공급, 가공식품 등 기획생산 체계를 강화하면서 지역적 먹거리 수요-공급의 현실적 한계를 제휴푸드 방식 연계·교류로 보완
- 생산자와 소비자 간 상호이해를 기반으로 지역 먹거리에 대한 가치를 정립하고, 사회적 신뢰관계를 형성해가는 지속적 도농교류 먹거리 체험활동을 촉진

□ 추진사업

- ① 지역 먹거리 제휴푸드 정책협약 (신규)
 -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이 로컬푸드 공공조직(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과 지역 먹거리 협력 ‘제휴푸드 협약’을 체결, 시·군간 지역 먹거리 연계·협업 제도화
- ② 시·군 먹거리 제휴푸드 교류 확대 (기존+개선)
 - 소비자 밥상에 필요하지만, 지역별로 구조적·일시적 생산이 어려운 품목(수산물+축산물+임산물, 시기적 신선농산물, 가공품)을 중심으로 공급체계 구축과 협력
- ③ 도농교류 먹거리 체험 확대 (기존+개선)
 - 농촌·도시, 생산자-소비자가 만나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관계형 먹거리 도농교류 정책사업(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지역 먹거리 소비촉진 및 문화 확산에 기여

(중점과제 3) ‘도시농업’ 활성화와 ‘폐기·순환’ 추진

□ 대응방향

- 도민 누구나 건강한 농산물과 먹거리를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양한 형태

의 도시농업 활동공간을 조성하고, 주민주도의 지역사회 공동체 활동 지원

- 먹거리·식재료의 유통과 소비(가정·음식점·집단급식소 등) 단계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사회적으로 줄여나가면서 (상징적) 자원화 방안을 마련

□ 추진사업

① 지역사회 도시농업 시민텃밭 확대 (기존)

- 도민들의 다양한 도시농업 실천활동 욕구 실현을 위해 다양한 활동공간을 조성·보급하고, 식생활 교육과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도시농업 교육을 지원

② 도시농업공동체 육성과 활성화 지원 (기존)

- 도시농업 교육과정을 매개로 도시농업 실천자를 도시농업공동체로 활동하도록 도시농업공동체 등록 및 체험농장 운영, 도시농업 홍보행사 등 활동을 지원

③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저감 캠페인 (기존+개선)

- 집단 급식소와 가정 내 발생하는 먹거리의 손실 및 폐기량 최소화를 유도하고, 도민 참여 기반의 음식폐기물 저감 우수 사례 확산 및 캠페인 등을 추진

④ 음식물류 폐기물 퇴비화 지원 (신규)

- 지역별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원화하여 리사이클(순환)하는 방안으로 퇴비화를 통해 도시농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퇴비 관련 시설 마련 및 운영 지원

6. [추진전략 6] 로컬푸드 관계거점 강화

- ‘로컬푸드 1번지’를 상징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의 인증을 내실화하고, 소비자 이용 편리성을 높이는 복합화, 세분화, 도민참여 프로그램을 늘려나감
- 지역 먹거리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는 공동체 기반 먹거리 나눔·돌봄의 거점으로 ‘마을

부엌(커뮤니티키친)의 구성과 운영 활성화로 소셜다이닝을 확산

- 지역 먹거리 로컬푸드의 접근과 이용 한계를 넘기 위해 지역식당과 소생활권 거점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 먹거리 식재료가 사용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감

[표 6-6] '로컬푸드 관계거점 강화' 추진전략, 중점과제와 세부사업

(3개) 중점과제		no	누적	(8개) 세부사업	구분
1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	1-1	53	로컬푸드 직매장 인증과 활성화 지원	기존
		1-2	54	로컬푸드 직매장 복합문화센터화 추진	기존
		1-3	55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 활성화	기존
		1-4	56	소생활권 작은 직매장 개설 추진	신규
2	마을부엌 확대 운영 활성화	2-1	57	지역사회 마을부엌 조성 지원	기존+개선
		2-2	58	공동체 소셜다이닝 프로그램	기존+개선
3	지역 먹거리 지역식당 공급	3-1	59	지역식당 지역 식재료 이용 장려 지원	신규
		3-2	60	로컬푸드 지역식당(레스토랑) 인증 홍보	신규

(중점과제 1)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

□ 대응방향

- '로컬푸드 1번지'를 대표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소비자가 찾고 싶은 공간이 되도록 이용 편리성을 높이는 복합화, 세분화, 참여 프로그램을 늘려 나감
-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모범적 기준을 설정하고 선도할 핵심주체를 집중 육성, 유사 직매장 난립에 따른 소비자 보호를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인증 내실화

□ 추진사업

① 로컬푸드 직매장 인증과 활성화 지원 (기존)

-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 먹거리 '전라북도 로컬푸드' 판매장을 도지사 인증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심사·평가하여 명패 부착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와 활성화 지원

② 로컬푸드 직매장 복합문화센터화 추진 (기존+개선)

- 로컬푸드 판매 중심으로 농가레스토랑·카페·공유부엌 등을 결합한 '지역 먹거리 복합

센터'를 늘리고, 기존 로컬푸드 직매장에 다양한 정보제공 기능 강화

③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 활성화 (기존)

-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 먹거리로 인증된 로컬푸드 농산물·가공품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우수 농특산물-마을상품과 공동으로 정기 소비확대 활성화 지원

④ 소생활권 작은 직매장 개설 추진 (신규)

- 지역 먹거리 이용 활성화와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생활권(인구밀집) 범위 '작은 직매장'을 소상공인 협력으로 개설 추진

(중점과제 2) '마을부엌' 확대 운영 활성화

□ 대응방향

- 마을부엌은 '주민들이 정기적으로 식사를 함께 준비하고 나누는데 필요한 공동체 기반 시설과 프로그램'으로 먹거리 시민 활동의 대표 공간으로 역할·기능이 중요
- 먹거리 나눔을 위해 필요한 마을부엌 공간(시설 등) 조성을 지원, 이미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조직이 마을부엌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촉진

□ 추진사업

① 지역사회 마을부엌 조성 지원 (기존+개선)

- 조리시설(부엌)을 갖추고 조리과 식사나눔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과 나눔 먹거리를 실천하는 마을부엌(커뮤니티키친)을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조성 확대

② 공동체 소셜다이닝 프로그램 (기존+개선)

- 식생활 개선(조리기술·식습관), 공동체 증진(관계형성·이웃돌봄), 먹거리 시민성 고양(시민의 식·나눔문화)을 위한 마을부엌의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을 특성 있게 지원

(중점과제 3) 지역 먹거리 ‘지역식당’ 공급

□ 대응방향

- 지역 먹거리 식재료가 도민의 생활과 지역경제에 확산되기 위해서는 로컬푸드로 조리된 다양한 먹거리를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지역소비 체계를 갖추
- 주된 소비처(직매장, 공공·학교급식, 푸러미 등) 이외 지역식당에 지역 먹거리로 조리된 식사를 먹을 수 있도록 소비 다양화를 위한 지원방안 추진

□ 추진사업

- ① 지역식당 지역 식재료 이용 장려 지원 (신규)
 - 지역식당(외식업자) 대상으로 지역 먹거리 식재료를 정해진 기준과 절차 등으로 이용할 경우 기준에 따른 방법으로 ‘장려금’ 등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확산을 도모
- ② 로컬푸드 지역식당(레스토랑) 인증 홍보 (신규)
 - 지역 식재료 이용 외식사업자를 ‘로컬푸드 지역식당’으로 인증, 인증간판 부착 및 정보를 제공하고 외식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외식사업자’ 지정도 활용하여 지원

7. [추진전략 7] 도민참여 실행체계 구축

- 행정-민간의 담당역량이 결합된 참여형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주체의 장점을 살린 상호보완 실행체계를 통해 실효적 운영방안 확립
- 전라북도 차원 지역 먹거리 지원·연계를 강화하여 맞춤형 먹거리 지원체계(조직화, 기획생산, 관계망 구축 등) 담당 실행조직을 마련, 공공 먹거리 확대
- 도민이 지역 먹거리 가치·내용을 이해하고 생활 속 이용을 높이기 위한 홍보를 강화

하고, 참여형 추진체계 기반의 다층적 평가·환류체계를 갖춰 운영

[표 6-7] '도민참여 실행체계 구축' 추진전략, 중점과제와 세부사업

(3개) 중점과제		no	누적	(9개) 세부사업	구분
1	먹거리 거버넌스 체계 운영 확립	1-1	61	먹거리 정책 거버넌스 기구 운영	신규
		1-2	62	먹거리 정책 행정협력체계 구축	신규
		1-3	63	시·군 먹거리정책 추진체계 강화 지원	기존+개선
2	통합센터 운영	2-1	64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신규
3	먹거리 정책 홍보·관리 개선체계	3-1	65	지역 먹거리 홍보 활성화 지원	기존+개선
		3-2	66	전북 먹거리 온라인 플랫폼 운영	신규
		3-3	67	먹거리 실태조사 및 도민여량 평가	신규
		3-4	68	먹거리 보고대회와 활동백서 발간	신규
		3-5	69	먹거리 정책 평가·개선체계 확립	신규

(중점과제 1) 먹거리 '거버넌스' 체계 운영 확립

□ 대응방향

- 지역 먹거리 체계는 시민사회 역량에 기반한 거버넌스 구축이 관건으로 도민 참여형 체계를 안착, 행정 부서의 정책협력과 시·군의 추진체계 강화를 지원
- 먹거리 거버넌스 기구(위원회, 상설숙의기구)의 설치·운영과 행정의 정책을 총괄·조정할 단위를 지정하며, 시·군이 먹거리 정책 추진역량을 갖추고 높이는 데 지원

□ 추진사업

① 먹거리 정책 거버넌스 기구 운영 (신규)

- 정책 전반 실행점검·개선평가 기구로 '먹거리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상설숙의기구'를 운영, 참여형 먹거리 거버넌스 체계 마련

② 먹거리 정책 행정협력체계 구축 (신규)

- 먹거리 정책을 종합하여 실행하기 위해 행정 직제에 따른 부서 간 (칸막이)행정을 넘어서 정책을 종합·연계·조정하는 먹거리정책책임관 지정과 행정협의체 운영

③ 시·군 먹거리 정책 추진체계 강화 지원 (기존+개선)

- 전라북도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군 먹거리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조례 제·개정, 전담조직의 마련, 거버넌스 기구 운영 등의 추진체계 강화를 지원

(중점과제 2)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 대응방향

- 전라북도 먹거리 종합계획 핵심 실행단위이자 시·군 먹거리 정책의 종합적 지원을 담당할 중간지원조직을 공공형 조직으로 설치, 공공먹거리 책임성 갖추
- 전라북도 및 시·군 먹거리 정책에 대한 현장 중심적 지원체계를 구축, 먹거리 계획의 실행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별·부문별 먹거리 관련 수요를 정책화하는 기능

□ 추진사업

①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신규)

- 학교·공공급식 총괄, 기획생산 지원, 지역가공 기획, 시·군계획 지원, 식생활교육 지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온라인플랫폼 운영, 거버넌스 체계 운영 지원 등

(중점과제 3) 먹거리 정책 ‘홍보·관리·개선’ 체계

□ 대응방향

- 도민 모두가 지역 먹거리를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먹거리 자원을 이용·소비할 사회적 여건을 위해 홍보 기획력에 근거한 다양한 홍보 활동 활성화를 지원
- 먹거리 종합계획 실행을 위한 추진체계(먹거리위원회-상설속의기구-행정체계)의 실행력을 전제로 도민 참여형 정책의 상향식 평가와 환류·개선체계를 마련

□ 추진사업

① 지역 먹거리 홍보 활성화 지원 (기존+개선)

- 지역 먹거리의 가치·내용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홍보·광고물을 지속 노출하여, 우호적 인식과 사업·활동 참여 촉진(방송·언론·SNS 다양화, 소비의 날 행사 등)

② 전북 먹거리 온라인 플랫폼 운영 (신규)

- 지역 먹거리의 상품·구매정보, 활동 프로그램 정보, 먹거리 자원·홍보정보 등을 담은 통합 온라인 플랫폼, 먹거리의 이용 및 관련 활동 프로그램 참여 촉진

③ 먹거리 실태조사와 도민역량 평가 (신규)

- 먹거리 종합계획이 실효적인 추진전략과 중점과제 도출하기 위해서는 도민의 먹거리 이용실태 등 근거에 기반한 정기적인 조사·진단을 통해 개선

④ 먹거리 보고대회와 활동백서 발간 (신규)

- 먹거리 정책과 활동을 정리하는 성과 보고대회의 정례적 개최, 먹거리 거버넌스 추진 체계의 활동과 결합하여 활동결과를 담은 자료(백서)로 정리

⑤ 먹거리 정책 평가·개선체계 확립 (신규)

- 먹거리위원회 성과평가·환류 방안 마련→활동·성과자료 작성(행정+센터)→도민참여 단위의 논의·과제도출→먹거리위원회 성과평가·과제→성과대회 보고

8. 관리방안과 실행체계

가. 관리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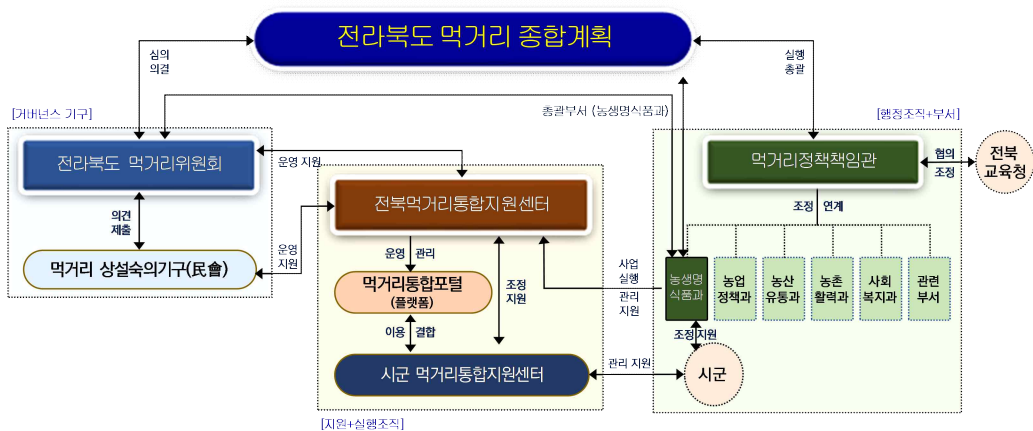
- 종합계획의 ‘계획(plan)→실행(do)→평가(see)’ 순환구조를 일관적으로 적용하여 실행을 통한 개선을 상시적으로 시행하는 구조를 적용함
- 추진전략별 중점과제별 세부사업의 평가에 대해서 일관된 평가체계를 적용하는 방식임
- 먹거리 전략이 가지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 및 지침을 마련하고 평가결과를 환류하는 원칙을 준수함
- 세부사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주요내용을 수집하여, 전문가 자문 및 토론을 거쳐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
- 먹거리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평가와 환류를 시행하는데, 먹거리 종합전략 추진체계 내에서 관련 주체가 참여하여 거시적 관점의 사업추진과 보완 등이 이루어지도록 함

나. 계획실행

- 계획실행의 사업부서는 전라북도 ‘농생명식품과’와 관계 부서들이 먹거리 종합전략의 실행을 위한 기능을 강화함 (먹거리정책 행정협의체 구성 운영)
- 통합적인 먹거리 종합전략의 정책추진과 실행 등 정책업무 총괄기능 및 정책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함
- 먹거리 종합전략의 사업을 담당하는 지원조직으로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며 기능을 강화해 나감
-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별로 실행주체를 명확히 하여 정책실행과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책임성을 제고함
- 먹거리 거버넌스 협의체로 ‘먹거리위원회’를 운영하고, 도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먹거리 상설숙의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함

- 민관 거버넌스 위원회 체계의 역할을 강화하고 제약조건을 보완하기 위한 도민참여와 의견수렴 등을 결합하는 구조임
- 종합계획의 수정은 사업부서, 지원조직, 거버넌스 기구 등이 협업체계를 갖추어 실행해 나감
- 계획기간 5년을 고려할 때, 2개년 시행 후 3차년도에 계획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수정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 변경을 추진함
- 5개년 계획에 대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연차별 실행결과 보고서 등은 정책시행의 여건을 통해 실효적으로 추진함



[그림 6-1] 전라북도 먹거리 종합계획의 실행 및 관리체계

참 고 문 헌

REFERENCE

- 강마야. (2018). 국내외 푸드플랜 수립 및 운영사례-해외사례. 지역농업네트워크 협동조합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2018). 도농상생 가치실현을 위한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체계 개선방안.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2019). 경기도 먹거리 전략 수립 및 추진 방안 연구용역.
- 김기대. (2012). 생태교육의 정립 및 생태학 이론에 기반한 생태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생태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 김동환. (2018). 미래지향적 식생활 정책 발전전략-푸드시스템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식생활학회 학술대회논문집
- 김민구. (2020). 공유주방이란 무엇인가. 시그널.
- 김소연 외. (2016). 서울시 '집밥&도농상생' 공공급식 정책제언: 할머니텃밭 사례를 중심으로. 작은 연구 좋은 서울. 서울연구원.
- 김정선. (2018). 고령자 맞춤형 식품 및 급식서비스 관리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종안 외. (2017). 국가 푸드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진방안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 김종안 외. (2017). 푸드플랜, 추진전략과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종안, 최문식, 길청순 & 황운재. (2018). 푸드플랜, 추진전략과 활성화 방안, 농업전망 201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철규. (2011). 한국 로컬푸드 운동의 현황과 과제-농민장터와 CSA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12(1). 111-133.
- 김철규. (2020). 먹거리 교육과 식해력. 농민신문.
- 김한샘. (2018). 생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 방안.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김흥주 외. (2015). 한국의 먹거리와 농업 : 한국 농식품체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대안. 따비.
- 김흥주. (2009). 학교급식운동을 통한 지역먹거리 체계 구축방안-나주시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농촌사회 19(2). 63-92.
- 김흥주. (2011). 먹거리 약자 위한 한국은 없다. 한겨레.
- 김흥주. (2014). 먹거리 대안체계와 공공급식-서울시 사례분석. 인문사회과학연구 15(3), 1-29.

- 김홍주, 김선엽, 윤병선, 이해진, 김철규, Geoffrey & Lawrence. (2014). 먹거리와 지속가능성 (food & sustainability). 한국연구재단.
- 김홍주 & 이해진. (2012). 한국의 먹거리 보장 실태와 정책과제. 보건사회연구, 32(2), 468-499.
- 농림축산식품부. (2017).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기본계획(안).
- 농림축산식품부. (2019).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 수범 사례집.
- 농림축산식품부. (2019). 푸드플랜 관련 사업장 운영 매뉴얼.
- 농림축산식품부. (2019). 푸드플랜 지원 정책 매뉴얼.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2019). 지역자원기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방안.
- 농촌진흥청. (2014). 농식품 가공활성화를 위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매뉴얼.
- 마이크캐롤란. (2013). 먹거리와 농업의 사회학. SSK먹거리와지속가능성연구팀. 따비.
- 문은숙. (2017). 서울의 먹거리기본계획 추진내용과 발전방향. 농정연구62호, 농정연구센터.
- 배균기, 서환석 & 이병훈. (2020). 전라북도 공공급식 현황분석과 광역지원조직 기본구상 연구. 전북연구원.
- 서울시지역상생교류사업단. (2019). 도농상생공동체 성과 공유회 자료.
- 서울시복지재단. (2019). 서울시 어르신 식사배달 사업 개선 방안 연구.
- 윤병선 외. (2018). 푸드플랜 관점의 서울시 공공급식정책에 관한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윤병선. (2009). 지역먹거리운동의 전략과 정책과제. 농촌사회, 19(2), 93-121.
- 윤병선. (2011). 식량위기를 다시 생각한다. 농촌사회, 21(1), 194-204.
- 윤병선. (2015). 농업과 먹거리의 정치경제학. 울력.
- 윤병선. (2017). 도농상생의 먹거리정책, 서울시에 길을 묻다. 대신농촌문화. 통권96호.
- 윤병선. (2020). 푸드플랜, 농업과 먹거리 문제의 대안 모색. 울력.
- 윤병선 & 송원규. (2014). 로컬푸드를 활용한 지역생협의 활성화 방안. 산업경제연구, 27(1), 55-75.
- 이계임. (2017). 건강 먹거리 소비를 위한 5가지 정책 논제. 안전·안심 먹거리를 위한 새 정부의 정책과제 토론회 자료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계임, 김상호 & 김부영. (2017). 정부의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체계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명기 외. (2017). 미래를 위한 10대 농정 전략과 30대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수행 외. (2019). 경기도 먹거리 전략 수립 및 추진방안 연구용역.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 이수행 외. (2019). 경기도 먹거리 전략 추진방향과 과제. 이슈&진단. 경기연구원.

-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2019). 국가·지자체 먹거리 전략분석과 먹거리 기본권 관련 법령 제도 분석.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 이인우. (2020). 국가 먹거리기본법 제정방향. 전국먹거리연대 워크숍 발표자료.
- 이종수 외. (2017). 서울 먹거리 통계(Seoul Food Survey) 정책 분석 및 지표개발 연구.
- 이종태. (2016). 생산부터 소비까지 이력추적 정보연계 전략 수립 연구.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 이해진, 김선업 & 김홍주. (2015). 농업시민권을 통한 식량주권 실현-친환경농업 생산자를 중심으로. 환경사회학연구, 19(1), 281-320.
- 전라북도. (2019). 전라북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2019~2023.
- 정은미 외. (2012).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은미 외. (2016).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컬푸드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은미 외. (2018). 지역단위 푸드플랜의 기대효과 분석과 향후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은미. (201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컬푸드시스템 구축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은미, 최병옥, 정천섭 & 정환열. (2018). 지역단위 푸드플랜의 기대효과 분석과 향후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조완형. (2014).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농업농촌정책의 방향. 생태사회전환포럼 2014 연차보고서.
- 조혜영 외. (2013).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현황 및 발전을 위한 제언. 식품유통연구, 30(3), 139-165.
-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2019). 지역단위 푸드플랜 기초모델 개발연구. 농림축산식품부.
- 지역파트너플러스·커뮤니티링크. (2021). 전라북도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전라북도.
- 최슬기. (2020). 미국 보충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의 구매 식품 제한과 관련 쟁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지현. (2019). 주요국의 국가 푸드플랜 현황과 시사점: 프랑스, 호주, 영국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 세계농업 11월호.
- 허남혁 외. (2012). 충남 지역순환식품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 허남혁. (2013). 선진국의 도시 먹거리계획-캐나다 토론토 사례를 중심으로. 계간 세계와 도시 3. 서울연구원.
- 환경부. (각 연도). '전국폐기물통계조사.
- 환경부. (각 연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황수철. (2000). 일본 푸드시스템의 전개와 과제: 식품산업의 구조변화를 중심으로. 농촌사회 10,

233-260.

- 황영모. (2015). 푸드플랜의 실천조건-전주시 사례. 농정연구 56. 69-102.
- 황영모. (2016). 지역 먹거리 체계 구축 1차 전문가 세미나 발표자료. 삼락농정위원회.
- 황영모. (2016). 지역먹거리 체계의 이해와 접근 방향. 전북연구원.
- 황영모. (2018). 생산과 소비를 잇는 지속 가능한 먹거리전략의 방향과 과제. 국민총행복과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 도서출판 따비.
- 황영모. (2021).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 실현. 정책성과평가 세미나,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정책기획위원회.
- 황영모 외 (2015). 전주푸드플랜 기본계획. 전주시.
- 황영모 외. (2015). 푸드플랜 시대, 지역단위 푸드플랜의 방향과 전략. 이슈브리핑 145. 전북연구원.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198>
- 황영모 외. (2016). 지역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전북 로컬푸드 활성화 전략. 전북연구원.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374>
- 황영모 외. (2020).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연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 황영모 외. (2021).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 활성화 방안 연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 황윤재 외. (2018).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황윤재, 홍연아, 박시현 & 최준영. (2019).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실태와 개선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Alkon, A.H. & Guthman, J. (2017). Introduction. in Alkon, A. H. and Guthman, J.(Eds.), The new food activism: Opposition. Cooperation, and Collective Ac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islop, R.S. (2014). Reaping Equity: A Survey of Food Justice Organizations in the U.S.A.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California-Davis].
- Gottlieb,R. & Joshi,A. (2010). Food Justice [MIT Press].
- Milan Urban Food Policy Pact(2015).
- Morgan, K. (2014). The Politics of the Public Plate: School Food and Sustainabi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of Agriculture & Food].
- Morgan, K. & Sonnino, R. (2010). The Urban Foodscape: World Cities and the New Food Equation [Cambridge Journal of Regions, Economy and Society].
- Moragues, A. (2013). Urban Food Strategies-the rough guide to sustainable food

system [FOODLINK].

OECD. (2017). Preventing Ageing Unequally.

TORONTO Public Health. (2010). Cultivating Food Connections: Toward a Healthy and Sustainable Food System for Toronto.

TORONTO Public Health. (2015 update). Toronto Food Strategy.

UN. (2015).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UNFPA). (2007). Unleashing the Potential of Urban Growth, New York, State of World Population 2007 [UNFPA].

Via Campesina. (2007). Declaration of nyeleni.

농림축산식품부. (2021). 농림업 생산액 및 생산지수.

농림축산식품부. (2021).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농림축산식품부. (2021). 농림축산식품 통계연보.

농림축산식품부. (2021). 농수산물 도매시장 통계연보.

농림축산식품부. (2021).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현황.

전라북도. (각 연도). 전라북도 통계연보.

질병관리본부. (2018). 제14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질병관리본부. (2020). 국민건강영양조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4). 외식산업 식재료 유통현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0).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정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각 연도). 식품수급표.

A Study of Execution Strategies for a Comprehensive Food Plan in Jeollabuk-do

Young-Mo Hwang · Hojung Jeong · Byeong Hun Lee

1. Purpose and Contents of the Study

- The purpose of this policy study is to establish the basic direction, execution strategies, operating system, and field-specific implementation plans of a comprehensive food plan with a view to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food plan according to the Jeollabuk-do Basic Food Ordinance.
- First, the key contents and tasks of previous studies on local food strategies are discussed, and government policy trends supporting local food plans are reviewed and applied as the main background for designing the plan.
- Second, after reviewing the current situation of Jeollabuk-do's key food resources and examining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food plan of each city and county, the results are organized as the basis for designing the comprehensive food plan and establishing the execution strategies.
- Third, the basic direction of the comprehensive food plan in Jeollabuk-do is established, and the strategy system to be executed as an administrative plan, consisting of the vision, goals, execution strategies, key tasks, and an execution system, is established and presented.
- Fourth, field-specific key tasks are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strategy system of the comprehensive food plan, and specific projects according to the key tasks are

prepared specifically at the level of an implementation plan, and presented.

2. Conclusion and Policy Proposal

■ Strategy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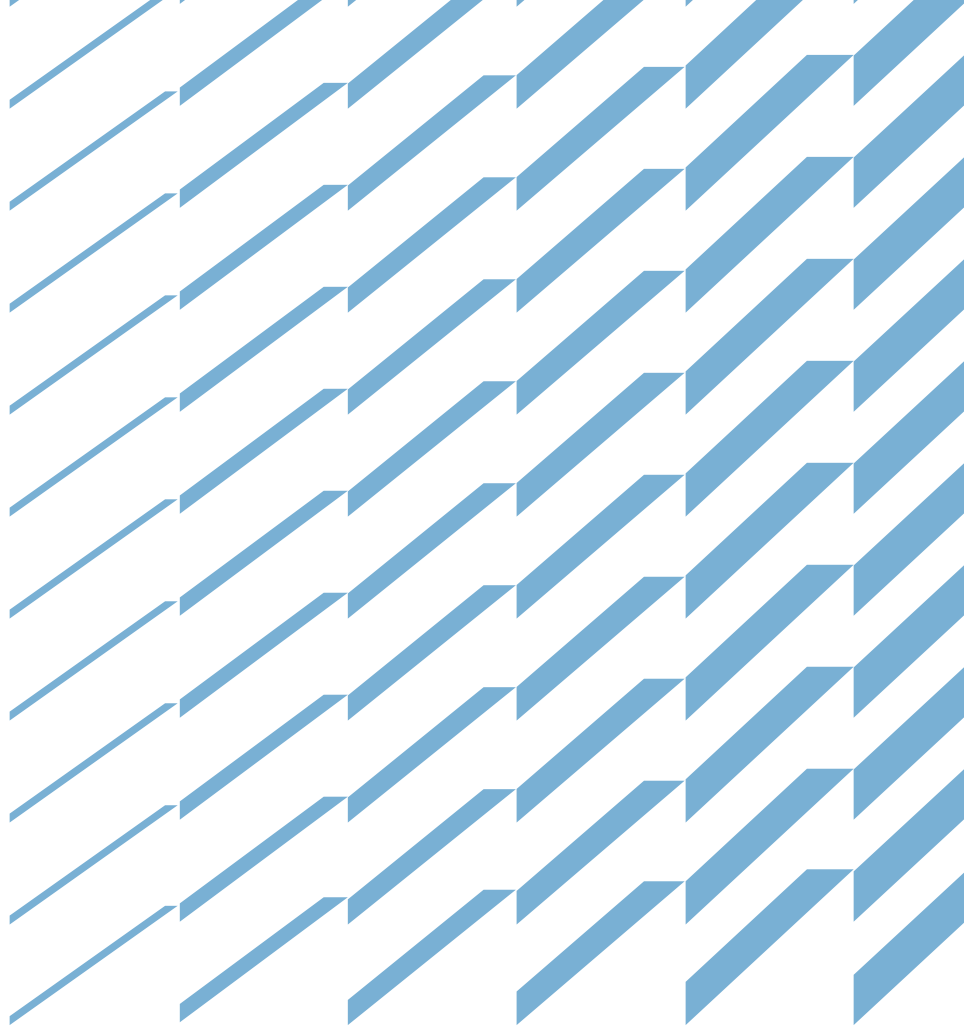
- Vision: Constructing a circulation system for local food that ensures healthy food for all residents
- Goals: ①Strengthening the nature of being relevant to the public, ②Expanding the accessibility of food, and ③Establishing the execution power of food policies
- Strategy System: Composed of seven execution strategies, 21 implementation tasks, and 69 specific projects in order to achieve the goals

■ Key Tasks

- When piecing together the policy implementation conditions (field + administration), the four key tasks were determined with a focus on contents most important in achieving the comprehensive food plan goals among the execution strategies and implementation tasks, with an emphasis on implementation and management.
- ①Strengthening the productivity (organization, output, and items) of local food (raw materials and processed food), ②Expanding the public-type market (school, public, welfare, and direct transaction) and the nature of being relevant to the public, ③Strengthening residents' understanding of food and ④Establishing the system's capability to execute food policies

Key Words

Food System, Food Plan, Food Strategy, Community Food System, Local Food System, Food Governance, Public Procurement, Dietary education, Food Care



부록

전북 먹거리 종합계획, 중점과제별 세부사업



부록. 전북 먹거리 종합계획, 중점과제별 세부사업

- 이 장에서는 먹거리 종합계획이 먹거리 관련 전라북도 차원의 실행전략인 점을 고려하여 정책의 추진과 실행을 위해 세부 정책사업 수준으로 내용을 검토하였음
- 다만, 이 장에서 다루면서 제시하는 세부사업의 사업량, 실행예산, 담당부서, 실행주체 등은 관계부서와의 검토·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가야 함

[표 7-1] 추진전략 및 중점과제별 세부사업 (1/3)

추진전략	중점과제 (21대)	no	세부사업 (69개)	구분	담당부서	협력부서	실행주체
1. 기획생산 지역가공 강화 (12)	1-1 지역 먹거리 기획생산 조직화 강화	1-1-1 1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	기존	농생명식품과		행정직접
		1-1-2 2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 지원	기존	농생명식품과		행정직접
		1-1-3 3	시·군 기획생산 기반 확대 지원	신규	농생명식품과	농산과	행정직접
		1-1-4 4	토종농작물 재배확대와 로컬푸드 연계	기존+개선	농산유통과		행정직접
		1-1-5 5	지역 먹거리 '기획생산협약체' 운영	기존+개선	농생명식품과		먹거리센터
	1-2 지역 먹거리 가공식품 확대·활성화	1-2-1 6	시·군 지역 가공식품 활성화 지원	기존+개선	농생명식품과		행정직접
		1-2-2 7	공공급식 가공식품 기획가공 추진	신규	농생명식품과		먹거리센터
		1-2-3 8	신선편의 지역 먹거리 확대 지원	기존+개선	농생명식품과		먹거리센터
		1-2-4 9	지역 먹거리 '가공식품협약체' 운영	신규	농생명식품과		먹거리센터
	1-3 지역 먹거리 안전성관리 시스템 구축	1-3-1 10	농식품 안전성 관리체계 구축 지원	기존+개선	농생명식품과		행정+센터
		1-3-2 11	중소농 농산물 안전·유통 지원사업	기존	농생명식품과		행정직접
		1-3-3 12	지역 먹거리 소비자 신뢰구축 강화	기존+개선	농생명식품과		행정직접
2. 학교급식 공공급식 확대 (11)	2-1 지역 먹거리 확대 학교급식	2-1-1 13	학교 무상급식 식재료 지원	기존	농생명식품과		행정직접
		2-1-2 14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기존	농생명식품과		행정직접
		2-1-3 15	친환경쌀 어린이집 급식 지원	기존	농생명식품과		행정직접
		2-1-4 16	학교급식 식재료 현물지원 확대	신규	농생명식품과		행정직접
		2-1-5 17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장비 지원	기존	농생명식품과		행정직접
		2-1-6 18	학교급식협약체 운영 실질화	기존+개선	농생명식품과		행정직접
	2-2 공공급식 지역 먹거리 확대	2-2-1 19	공공기관 지역 먹거리 우선구매 지원	신규	농생명식품과		행정+센터
		2-2-2 20	복지기관 지역 먹거리 식재료 공급 지원	신규	농생명식품과		행정+센터
		2-2-3 21	지역기업 지역 먹거리 식재료 소비 촉진	신규	농생명식품과		행정+센터
		2-2-4 22	공공급식협약체 구성 및 운영 지원	신규	농생명식품과		행정+센터
	2-3 통합관리체계구축	2-3-1 23	먹거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기존	농생명식품과		행정+센터

[표 7-2] 추진전략 및 중점과제별 세부사업 (2/3)

추진전략	중점과제(21대)		no		세부사업 (69개)	구분	담당부서	협력	실행주체
3. 식생활 식생태 교육 강화 (8)	3-1	학교교육 적용·확대	3-1-1	24	초등학교 다면적 식생활 교실	기존+개선	농생명식품과	도교육청	행정+센터
			3-1-2	25	청소년 바른 먹거리 미각·조리교육	신규	농생명식품과	도교육청	행정+센터
			3-1-3	26	식생태 교육 학교텃밭 운영 확대	기존+개선	농산유통과	도교육청	행정+센터
	3-2	사회교육 적용·확대	3-2-1	27	지역 먹거리 도민 아카데미 운영	신규	농생명식품과		먹거리센터
			3-2-2	28	바른 먹거리+식생태 교육 프로그램	신규	농생명식품과		먹거리센터
	3-3	식생활 교육 기관·인력 육성	3-3-1	29	식생활교육전문기관 지정과 교육 지원	기존	농생명식품과		행정+센터
			3-3-2	30	식생활교육 전문인력 양성 확대	기존	농생명식품과		행정+센터
			3-3-3	31	식생활교육협의체 구성 및 운영	신규	농생명식품과		행정+센터
4. 먹거리 돌봄 나눔 확산 (12)	4-1	미래세대 먹거리 돌봄	4-1-1	32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기존	농산유통과		행정+센터
			4-1-2	33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행복 꾸러미	기존	농산유통과		행정+센터
			4-1-3	34	임산부 영양플러스 식재료 공급개선	기존+개선	농생명식품과	건강증진과	행정+센터
			4-1-4	35	결식아동·청소년 아침밥 제공 지원	기존+개선	농생명식품과	건강증진과	행정+센터
			4-1-5	36	대학생 천원 아침밥 제공 지원	기존+개선	농생명식품과	건강증진과	행정+센터
	4-2	취약계층 먹거리 돌봄	4-2-1	37	농식품바우처(시범) 확대 추진	기존+개선	농생명식품과		행정+센터
			4-2-2	38	지역사회통합 먹거리 돌봄 연계	기존+개선	농생명식품과		행정+센터
			4-2-3	39	농촌마을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기존	농업정책과		행정+센터
	4-3	먹거리 나눔 확대 지원	4-2-4	40	먹거리 취약계층 조사·모니터링	신규	농생명식품과		행정+센터
			4-3-1	41	푸드뱅크·푸드마켓 활성화 지원	기존	사회복지과	식품과	행정+센터
			4-3-2	42	먹거리 나눔냉장고 확대 지원	기존+개선	자치행정과	식품과	행정+센터
			4-3-3	43	나눔 먹거리 식재료 기부 촉진	신규	농생명식품과		행정+센터
5. 도농상생 도시농업 확대 (9)	5-1	대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확대	5-1-1	44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기존	농생명식품과		행정+센터
			5-1-2	45	1시·군·1대도시 상생 공공급식 추진	신규	농생명식품과		행정+센터
	5-2	지역 내 먹거리 교류·체험 확대	5-2-1	46	지역 먹거리 제휴푸드 정책협약	신규	농생명식품과		행정+센터
			5-2-2	47	시·군 먹거리 제휴푸드 교류 확대	기존+개선	농생명식품과		행정+센터
			5-2-3	48	도농교류 먹거리 체험 확대	기존+개선	농생명식품과		행정+센터
	5-3	도시농업 활성화와 폐기·순환 추진	5-3-1	49	지역사회 도시농업 시민텃밭 확대	기존	농생명식품과	농업기술원	행정직접
			5-3-2	50	도시농업공동체 육성과 활성화 지원	기존	농생명식품과	농업기술원	행정직접
			5-3-3	51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저감 캠페인	기존+개선	생활환경과	식품과	행정직접
			5-3-4	52	음식물류 폐기물 퇴비화 지원	신규	생활환경과	식품과	행정직접
6. 로컬푸드 관계거점 강화 (8)	6-1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	6-1-1	53	로컬푸드 직매장 인증과 활성화 지원	기존	농생명식품과		행정+센터
			6-1-2	54	로컬푸드 직매장 복합문화센터화 추진	기존	농생명식품과		행정+센터
			6-1-3	55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 활성화	기존	농생명식품과		행정+센터
			6-1-4	56	소생활권 작은 직매장 개설 추진	신규	농생명식품과		행정+센터
	6-2	마을부엌 확대 운영 활성화	6-2-1	57	지역사회 마을부엌 조성 지원	기존+개선	농생명식품과		행정+센터
			6-2-2	58	공동체 소셜다이닝 프로그램	기존+개선	농생명식품과		행정+센터
	6-3	지역 먹거리 지역식당 공급	6-3-1	59	지역식당 지역 식재료 이용 장려 지원	신규	농생명식품과		행정+센터
			6-3-2	60	로컬푸드 지역식당(레스토랑) 인증 홍보	신규	농생명식품과		행정+센터

[표 7-3] 추진전략 및 중점과제별 세부사업 (3/3)

추진전략	중점과제(21대)		no		세부사업 (69개)	구분	담당부서	협력	실행주체
7. 도민참여 실행체계 구축 (9)	7-1	먹거리 거버넌스 체계 운영 확립	7-1-1	61	먹거리 정책 거버넌스 기구 운영	신규	농생명식품과	도교육청	행정+센터
			7-1-2	62	먹거리 정책 행정협력체계 구축	신규	농생명식품과	도교육청	행정+센터
			7-1-3	63	시·군 먹거리정책 추진체계 강화 지원	기존+개선	농생명식품과		행정+센터
	7-2	통합센터 운영	7-2-1	64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신규	농생명식품과		행정+센터
	7-3	먹거리 정책 홍보·관리 개선체계	7-3-1	65	지역 먹거리 홍보 활성화 지원	기존+개선	농생명식품과		행정+센터
			7-3-2	66	전북 먹거리 온라인 플랫폼 운영	신규	농생명식품과		행정+센터
			7-3-3	67	먹거리 실태조사 및 도민역량 평가	신규	농생명식품과		행정+센터
			7-3-4	68	먹거리 보고대회와 활동백서 발간	신규	농생명식품과		행정+센터
			7-3-5	69	먹거리 정책 평가·개선체계 확립	신규	농생명식품과		행정+센터

1-1-1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	기존+신규
-------	-------------------	-------

☐ 추진목적

- 연중 다품목 기획생산 체계를 안정적으로 갖추기 위해서는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는 연중 생산 및 출하 등 기획생산을 지원할 생산기반(시설) 마련이 필요
- 로컬푸드 직매장에 다품목 지역 먹거리(식재료)를 출하·공급하기 위해 기획생산 참여 농업인에게 최소의 생산기반(소규모 비닐하우스)를 지원

☐ 사업내용

- 사업내용 : 로컬푸드 직매장 농산물 출하 농가에게 원예·특용작물 재배를 위한 소규모 비닐하우스 시설 지원(소규모 비닐하우스 1동 330㎡(100평) 7,143천원 내 지원)
- 사업대상 : 로컬푸드 직매장과 농산물 출하약정을 맺은 농가,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 실적 있거나 해당 직매장과 출하약정 체결(예정포함) 농업인
- 추진방안 : 로컬푸드 기획생산 참여 생산자 역량강화 교육과 연계하여 약정출하 등을 고려한 대상자 선정 지원
- 담당부서 : 농생명식품과(로컬푸드팀) ○ 실행주체 : 행정 직접 시행

1-1-2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 지원	기존
-------	-------------------	----

☐ 추진목적

- 공공기관·학교 등 공공급식을 중심으로 지역 농산물(로컬푸드)을 지역 내 우선 소비하는 체계 구축에 필요한 협의체 운영, 생산농가 조직화 교육, 품목기획 지원
- 시·군 단위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역량을 높이기 위해 생산자 조직화를 중심으로 필요 품목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점 지원

☐ 사업내용

- 사업내용 : 시·군이 공공급식 기획생산 체계 구축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

- 주요내용 : 공공급식 및 로컬푸드 협의체 운영, 지역생산 품목 실태조사 및 공공급식 수요처 사용 품목분석, 기획생산농가 품목 다양화 및 공급관리 교육·설명회, 기획생산 출하농가 역량강화 등
- 사업대상 :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을 활용한 사업희망 시·군 선정 (시·군당 15백만원 내외), 매년 6개소씩 추진
- 담당부서 : 농생명식품과(로컬푸드팀) ○ 실행주체 : 행정 직접 시행

1-1-3	시·군 기획생산 생산기반 자재 확대 지원	신규
-------	------------------------	----

□ 추진목적

- 공공형 관계시장 수요에 대응하여 시·군별로 생산자 조직화를 기반으로 기획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생산역량을 유지하는 탄소중립형 생산기반(농자재 등) 지원
- 시·군이 공공형 관계시장 수요를 파악하고 부족 품목은 농가 조직화를 통해 생산기반을 늘려가면서, 잉여 품목은 타 시·군(통합센터 간) 간 교류를 촉진하도록 유도·지원

□ 사업내용

- 사업내용 : 농경지의 탄소배출을 줄이고 탄소저장 기능을 높이는 저탄소 농자재(바이오차⁴⁵⁾, 친환경 농자재, 생분해성 포장재 등)를 지원하여 생산자 조직화 참여를 유도
- 사업대상 : 기획생산 출하자 대상으로 저탄소 농자재 지원, 전라북도 로컬푸드 생산기준과 연계한 확대 방안 검토(의무 준수사항 등), 매년 6개소씩 추진
- 고려사항 : 탄소중립 농업 실천에 부합하는 생산자재 지원으로 환경친화형 로컬푸드 이미지 제고 도모
- 담당부서 : 농생명식품과+농산유통과 ○ 실행주체 : 행정 직접 시행

45) 바이오차(Bio-char) : 바이오매스와 숯의 합성어, 목재·축산부산물 등을 열분해로 만든 숯 형태 유기물, 토양살포 시 토양개량 및 탄소저장 효과 기대

1-1-4	토종 농작물 재배 확대와 로컬푸드 연계	기존+개선
-------	-----------------------	-------

□ 추진목적

- 건강한 먹거리로 대표되는 토종 농작물 재배를 확대하고, 보존·육성·관리를 통하여 토종 농작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인 소득증대 기여
- 토종 농작물을 지역 먹거리 관계시장(직매장, 공공급식 등)과 연계하여 여성 농업인 등을 지역 먹거리 주체로 조직화 도모

□ 사업내용

- 사업내용 : 채종포 운영 및 토종종자 보급,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품목은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정보센터에 등록한 도내 재래(토종)종자 및 사업자가 전라북도 내 자체 수집한 재래(토종)종자(30년 이상 토착화)
- 사업대상 : 토종 농작물 재배·보급·홍보하려는 단체 또는 법인, 매년 5개소씩 추진
- 추진방안 : 시·군별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주체와 협력으로 재배·생산된 토종 농작물의 판매공간(매대)를 확보하여 운영
- 담당부서 : 농산유통과
- 실행주체 : 행정 직접 시행

1-1-5	지역 먹거리 '기획생산협의체' 운영	기존+개선
-------	---------------------	-------

□ 추진목적

- 시·군별 지역 먹거리 DB 구축을 토대로 기획생산 생산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군별 기획생산 협의체 운영을 내실화하고, 도 차원의 상설 협의구조로 확대
- 전라북도 차원의 안정적인 지역 먹거리 생산기반은 시·군을 기초 단위로 한 기획생산 역량(기획+조정+연계)에 달려 있으므로 내실있는 운영을 추진

□ 사업내용

- 사업내용 : 시·군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생산자조직, 공공급식 주요 소비처 등이 참

여한 기획생산협의기구를 상설화하여 운영

- 사업대상 : 시·군별 먹거리통합지원센터(생산자조직+기관 참여), 매년 14개소 지원
- 고려사항 : 시·군 단위 기획생산협의체 운영실적 등을 토대로 한 인센티브 방안 고려
- 고려사항 : 시·군 차원의 기획생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생산분야 전담 거버넌스’로 기능하도록 유도, 작부체계·생산관리·출하관리 등에 집중하는 회의·협의기구로 운영
- 담당부서 : 농생명식품과(로컬푸드팀) ○ 실행주체 :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1-2-1	시·군 '지역 가공식품' 활성화 지원	신규
-------	----------------------	----

☐ 추진목적

- 시·군별 공공형 먹거리 관계시장(학교·공공급식·직매장 등)에 공급되는 가공식품을 늘리기 위해 지역별 지역가공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생산기반을 확대하는데 지원
- 공공 단체 급식소 등의 가공식품 소비수요가 늘고 있지만 농산물 활용 가공식품 공급 비중이 낮아 시·군별이 가공식품 기반을 갖춰 먹거리 수요에 대응할 역량을 지원

☐ 사업내용

- 사업내용 : 시·군별 '지역 먹거리 가공지원센터' 시설·설비와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농림축산식품부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 농촌진흥청 농민가공센터 등과 연계)
- 지원내용 : 가공식품 제조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교육·시제품 제작 등 사업비
- 사업대상 : 시·군 통합지원센터 또는 공동체 사업조직, 기 거점농민가공센터 설치·운영 시·군은 공공급식소 대응 필요사업을 지원
- 고려사항 : 단체 급식소 필요 가공식품과 직매장 수요 가공식품을 구분하여 가공역량을 강화
- 담당부서 : 농생명식품과
- 실행주체 : 행정 직접 시행

☐ 사업내용

- 사업내용 :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정간편식(밀키트 등) 생산기반(사업조직)을 육성하고, 농민가공시설을 이용한 가공제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
- 지원내용 : 가정 간편식 상품 및 메뉴를 개발하는 사업비와 컨설팅 비용 지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협력사업으로 추진
- 사업대상 : 지역 농산물 활용 가정간편식 생산 가능 지역 식품제조·가공 사업조직
- 담당부서 : 농생명식품과 ○ 실행주체 :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1-2-4	지역 먹거리 '가공식품협의체' 운영	신규
-------	---------------------	----

☐ 추진목적

- 지역 먹거리(식재료)를 활용한 가공식품의 생산-공급 활성화를 위해 시·군 참여 도 차원의 가공식품협의체를 정례적으로 운영, 상품의 개선과 기획력을 향상

☐ 사업내용

- 사업내용 : 지역 먹거리 가공식품 공급 확대와 수요 대응 기획가공을 추진하는 도 차원의 '지역 먹거리 가공 분야 거버넌스' 협의체 운영
- 사업대상 :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가공식품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운영방안 : 시·군 가공식품 핵심주체가 참여한 회의기구 구성, 공공급식 중심의 기획가공 기반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사업기획·수요조사·상품관리·연계방안 등을 논의·협의, 가공식품 분야 세부사업 추진·점검 단위로 활용
- 담당부서 : 농생명식품과
- 실행주체 :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1-3-1	‘농식품 안전성 관리체계’ 구축 지원	기존+개선
-------	----------------------	-------

☐ 추진목적

- 시·군이 공공형 먹거리 관계시장 공급 모든 먹거리(식재료+농식품)의 안전성 관리체계에 필요한 잔류농약 검사 등 시설·설비를 지원하고 통합적으로 운영

□ 사업내용

- 사업내용 : 시·군별 상이한 지역 농산물 안전성 관리 기반을 향상시키기 위해 ‘안전성 분석실 설치 + 농식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 지원내용 : 안전성 분석실 미 구축 시·군(7개47))의 설치 지원(개소 당 10억원), 생산-유통-소비단계에 이르는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5천만원)
- 사업대상 : 분석실-시·군(농업기술센터 또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관리체계-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 담당부서 : 농생명식품과 ○ 실행주체 : 행정 직접 시행+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1-3-2	중소농 농산물 안전·유통 지원사업	기존
-------	--------------------	----

□ 추진목적

-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농산물의 사전 잔류농약 검사로 안전한 먹거리의 품질을 확보, 학교급식 제공 농산물·가공품 물류비용 지원으로 유통비용 절감 지원
- 시·군이 구축하였거나 구축할 농산물 안전분석실이 실제 안전성 검사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학교급식 등의 식재료 조달 편의를 지원하는데 중점

□ 사업내용

- 사업내용 : 안전한 지역 먹거리의 과학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과 학교급식 등의 원활한 식재료 조달을 위한 ‘유통 물류비’ 지원
- 사업대상 : 시·군 로컬푸드 직매장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10개소
- 지원내용 : 잔류농약 검사(직매장 출하 전 검사, 가공품 원료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47) 정읍시·남원시·김제시·무주군·장수군·임실군·순창군, 익산시는 2023년 계획

유통물류(시·군이 전주권·학교급식지원센터 간 농산물·가공품 유통 시 물류비용 지원), 지원단가(잔류농약검사 130천원(택배비 5천원별도), 유통물류 (1km당) 430원)

- 담당부서 : 농생명식품과
- 실행주체 : 행정 직접 시행

1-3-3	지역 먹거리 소비자 신뢰구축 강화	기존+개선
-------	--------------------	-------

□ 추진목적

- 지역 먹거리 안전성 점검(모니터링) ‘소비자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공공형 먹거리 관계시장(직매장, 학교·공공급식 등)의 품질관리 점검 등 소비자 신뢰제고
- 건강한 지역 먹거리 농산물·식재료의 안전성, 품질·품위, 가격 등에 대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상시적인 지원 활동이 갈수록 중요

□ 사업내용

- 사업내용 : 로컬푸드 직매장 ‘소비자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사업대상 : 소비자기본법(제29조)에 따른 전라북도 소재 여성·소비자단체
- 지원내용 : 모니터 요원 교육, 직매장 모니터링(판매기한 공시, 가공품 표시사항 등), 유통단계 잔류농약검사(시료 채취, 검사의회), 소비자 만족도 조사 등
- 고려사항 : 소비자 모니터링단을 지역 먹거리 지킴이단으로 확대 개편 고려, 모니터링 결과의 자료화로 지속적인 개선과제 자료로 활용 방안 추진
- 담당부서 : 농생명식품과
- 실행주체 : 행정 직접 시행

2-1-1	학교 무상급식 식재료 지원	기존
-------	----------------	----

□ 추진목적

- 학교급식·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초중고 학교급식비를 지원(보호자 부담 경비전액)하고, 가공품은 지역산과 non-GMO 가공품 의무사용을 위한 단가 규정

- 성장기에 있는 미래세대에게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하고 안전한 지역 먹거리 농산물과 Non-GMO 가공식품을 식재료로 제공하여 심신발달에 기여

□ 사업내용

- 사업내용 : 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중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 전액 지원
- 사업대상 : 시·군+교육지원청, 769개교(초 423, 중212, 고134), 학생 176,700여명
- 지원내용⁴⁸⁾ : 초·중학교 100%(도 25%, 시·군 25%, 교육청 50%), 고등학교 도시지역·농어촌고 100%(도 20%, 시·군 30%, 교육청 50%), 저소득층 100%(교육청)
- 고려사항 : 지원단가 중 300원은 지역산 원재료 가공품 의무사용
- 담당부서 : 농생명식품과 ○ 실행주체 : 행정 직접 시행

2-1-2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기존
-------	-----------------	----

□ 추진목적

- 건강한 지역생산 친환경 쌀·농산물 등이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되도록 (차액)지원을 하여 미래세대에게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고 친환경 농업 확대(농가소득 증대)를 도모
- 학교급식 식재료로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는데 있어 일반 농산물과의 차액을 지원하여 지역의 우수하고 건강한 먹거리가 보장되도록 지원해 나감

□ 사업내용

- 사업내용 : 도내산 친환경농산물(쌀 포함)구입비 지원
- 사업대상 : 시·군+교육지원청 / 1,131개교(유 352, 초 423, 중 212, 고 134, 특수 10)
- 지원내용 : 친환경 쌀(정부양곡과 친환경쌀 차액지원(유기농·공립유·초, 무농약·중·고)), 친환경 농산물(지원단가 범위 내 친환경 쌀 차액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 지원)

48) 2023년부터 학교급식 단가 인상(유치원 2,800원→3,100원, 초등학교 3,000원→3,300원, 중학교 3,700원→4,000원으로, 고등학교 3,700원→4,100원 /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 90원과 소규모 학교 100원 인상), 전라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결과(2022.10.28.)

○ 추진방안 : 친환경농산물은 각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로 전량 공급(eaT 활용)⁴⁹⁾

○ 담당부서 : 농생명식품과

○ 실행주체 : 행정 직접 시행

2-1-3	친환경쌀 어린이집 급식 지원	기존
-------	-----------------	----

□ 추진목적

- 지역 어린이집 대상으로 친환경 쌀이 급식으로 제공되도록 (차액)지원하여, 자라나는 성장기 영유아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지원하고 친환경 농업 확대(농가소득 증대) 도모
-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하고 안전·건강한 지역 먹거리 친환경 농산물을 식재료로 제공하여 심신의 발달 기여를 도모

□ 사업내용

- 사업내용 : 도내 (희망)어린이집 대상으로 친환경 쌀(농산물) 구입비 일부(차액) 지원
- 사업대상 : 시·군 어린이집 / 500개소 수준(희망 어린이집)
- 지원내용 : 친환경 쌀(농산물) 구입비 일부 지원, 지원단가(정부양곡과 친환경쌀 차액) 내 친환경 쌀(유기농) 또는 친환경 농산물 선택 구입비 지원(44원, 1인1식/50g)⁵⁰⁾
- 추진방안 : 시·군 신청에 따른 어린이집 선정, 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전량 공급
- 담당부서 : 농생명식품과(로컬푸드팀) ○ 실행주체 : 행정 직접 시행

2-1-4	학교급식 식재료 현물지원 확대	신규
-------	------------------	----

□ 추진목적

- 학교급식 식재료의 공적조달 방식을 보완하여 건강한 지역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재료 현물지원 사업(수의계약)을 공공형 지원센터 운영 지역부터 추진

49) 지원단가(1인 1식) : 유 245원, 초 256원, 중 319원, 고 327원 / 지원일수 : 유 180일, 190일 이내(초 187일, 중 188일, 고 189일)

50) 어린이집 급식량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유아 단체급식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지원단가 산출, 유기농(17,100원/20kg)*50g=44원(0.86원/g)

- 학교급식 식재료의 전자입찰 방식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지역 농산물 식재료 공급의 현실적 제약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방안으로 추진

□ 사업내용

- 사업내용 :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식재료의 현물지원(수의계약)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 사업대상 : 학교급식 현물 조달역량을 갖춘 시·군부터 추진
- 지원내용 : 학교급식 식재료 조달체계 상 식재료 공급조직은 시·군이 출연·관리·감독하는 공공형 먹거리통합지원센터만이 가능
- 추진방안 : 전북도+교육청 합의→시·군+교육지원청 합의→시·군학교급식지원센터 공급, 매년 2개 시·군씩 추진하여 2025년 모든 시·군으로 확대
- 담당부서 : 농생명식품과(로컬푸드팀) ○ 실행주체 : 행정 직접 시행

2-1-5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장비 지원	기존
-------	-------------------	----

□ 추진목적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한 시설·장비 구축을 지원하여 시·군이 안정적으로 식재료를 공급·조달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여 학교급식 공급능력 향상을 도모
- 시·군별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먹거리 지원조직이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활동 등을 지원하여 로컬푸드와 연계한 학교급식 공급기반을 구축

□ 사업내용

- 사업내용 : 학교급식 공급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 사업대상 :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사업계획에 따른 공모, 매년 3개소씩 선정 지원
- 지원내용 : 시설(저온저장고·소포장실·창고 등 / 사업비의 30% 이상), 장비(냉장탑차·지게차·컴프레샤·절단기·팔레트·안전성검사기 등 / 사업비의 70% 이내), 교류활동(시설과 장비를 활용한 교류(체험)활동 등 / 사업비의 20%이내)

- 고려사항 : 기 사업으로 시설·장비 구축 시·군은 감가상각 등을 고려 심사 지원
- 담당부서 : 농생명식품과(로컬푸드팀) ○ 실행주체 : 행정 직접 시행

2-1-6	학교급식협의체 운영 실질화	기존+개선
-------	----------------	-------

☐ 추진목적

- 기존 학교급식 관련 위원회(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학교급식위원회·교육행정협의회)의 기능적 통합 운영으로 학교급식 개선과제의 보완과 내실있는 운영을 추진
- 전라북도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급식 관련 협의기구를 중심으로 교육청 소관 위원회와의 운영 연계를 지원하고, 식재료 수급 등 상시 협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 사업내용

- 사업내용 :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학교급식위원회’와 ‘교육행정협의회’ 간 협력을 통해 학교급식 분야 거버넌스 체계 운영 내실화를 지원
- 기구별 주요기능과 운영담당 :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전라북도 농생명식품과,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교에 대한 지원내용·지원절차·급식센터 등 담당, 전북학교친환경무상급식 지원조례 8조), 학교급식위원회(도교육청 인성건강과, 학교급식 계획마련·경비지원 등 담당, 학교급식법 5조), 교육행정협의회(도교육청 정책공보관, 학교급식 관련 재정분담 결정, 전북교육행정협의회구성·운영 조례 3조)
- 담당부서 : 농생명식품과(로컬푸드팀) ○ 실행주체 : 행정 직접 수행

2-2-1	공공기관 지역 먹거리 우선구매 지원	기존+개선
-------	---------------------	-------

☐ 추진목적

- 지역 내 다양한 공공기관(이전 공공기관, 지자체, 공기관 등)의 급식에 지역 먹거리가 식재료로 이용될 수 있도록 공급협약 및 이용 촉진 우선 구매 등을 지원
-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공공기관·단체 등이 이용을 늘려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

하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내용

- 사업내용 : 공공기관+공공단체 사용 급식 식재료를 지역 생산된 농산물로 대체할 수 있는 협약체결을 지원 (시·군은 식재료 현물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 공급을 담당)
- 사업대상 : 도·시·군, 출연·산하기관, 혁신도시 공공기관⁵¹⁾, 군대, 교도소 등 단계별 확대
- 추진방안 : 전북도-공공기관·시·군 간 협약체결 촉진, 전북통합지원센터-공공기관 공공급식 실태분석 및 지원방안 마련, 시·군-해당 공공기관 수요 식재료 공급지원(경비 및 차액 일부 등), 시·군통합지원센터-공공기관 식재료 공급
- 담당부서 : 농생명식품과(로컬푸드팀) ○ 실행주체 : 행정+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2-2-2	복지기관 지역 먹거리 식재료 공급 지원	신규
-------	-----------------------	----

□ 추진목적

- 사회복지·보육시설 등 복지기관(시설)의 단체 급식소에 지역 먹거리(식재료)가 공급되도록 식재료 공급협약 및 이용 촉진 방안 지원(현물지원·차액지원 등)
-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회적 취약계층을 돌보는 기관 등을 통해 식재료 이용을 늘려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내용

- 사업내용 : 사회복지시설 사용 급식 식재료를 지역 생산된 농산물로 대체할 수 있는 협약체결을 지원 (시·군은 식재료 현물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 공급을 담당)
- 사업대상 :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등 대상으로 단계별 확대
- 추진방안 : 전북도-복지기관·시·군 간 협약체결 촉진, 전북통합지원센터-복지기관 급식 실태분석 및 지원방안 마련, 시·군-해당 복지기관 수요 식재료 공급지원(경비 및 차액 일부 등), 시·군통합지원센터-복지기관 식재료 공급

51) 공공기관이 소재한 시·군의 지역 먹거리와 연계하는 ESG경영 도입 촉진

- 담당부서 : 농생명식품과(로컬푸드팀)
- 실행주체 : 행정+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2-2-3	지역기업 지역 먹거리 식재료 소비 촉진	신규
-------	-----------------------	----

□ 추진목적

- 지역 향토기업과 민간기관 등 단체 급식소에 지역 먹거리가 식재료로 이용되도록 업무협약을 체결(ESG경영 연계)하고 식재료 공급 및 직거래 등 교류 촉진
-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지역법인 기업의 단체급식소에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식재료로 소비되는 사회적 실천 기반을 마련하여 먹거리 지원의 틀을 확장

□ 사업내용

- 사업내용 : 지역 법인기업 운영 단체 급식소의 식재료를 지역 생산된 농산물로 대체할 수 있는 협약체결을 지원 (시·군은 식재료 현물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 공급을 담당)
- 사업대상 : 지역 법인기업 중 단체급식소를 운영하는 희망 기업
- 추진방안 : 전북도-지역법인기업 간 협약체결 촉진, 전북통합지원센터-지역기업 급식 실태분석 및 지원방안 마련, 시·군-해당 지역기업 수요 식재료 공급지원(경비 일부 등), 시·군통합지원센터-지역기업 식재료 공급
- 담당부서 : 농생명식품과(로컬푸드팀)
- 실행주체 : 행정+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2-2-4	공공급식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원	신규
-------	--------------------	----

□ 추진목적

- 공공급식 수요처를 확대하고, 식재료의 안정적 수급관리 및 적정수준 가격결정 등을 상시적으로 협의·조정할 핵심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
- 공공기관·복지기관·지역기업 등에 대한 지역 먹거리 식재료 공급현황을 상시적으로 파악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및 협력체계를 강화

□ 사업내용

- 사업내용 : 공공급식의 수요처를 확대하고, 식재료의 안정적인 수급관리 및 적정수준의 가격결정 등을 상시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핵심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
- 주요역할 : 공공급식 운영계획, 수급관리, 가격결정 등 논의, 공공급식 운영·관리 계획 수립 및 평가, 식재료 수급관리, 가격결정 등 협의, 소비촉진 공동활동 추진 등
- 운영방안 : 시·군 공공급식 핵심 관계자가 참여하는 ‘공공급식운영위원회’ 구성, 정례적 회의, 공동활동(캠페인 등) 기획, 협약체결 등의 퍼포먼스 추진
- 담당부서 : 농생명식품과(로컬푸드팀) ○ 실행주체 : 행정+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2-3-1	먹거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기존
-------	-------------------	----

□ 추진목적

- 시·군 공공형 관계시장 조사·분석한 자료와 시·군 먹거리 생산 DB를 통합 구축하여 시·군 기획생산 지원 및 부족·잉여 품목의 시·군 간 연계·협력을 지원
- 전북 먹거리의 안정적 조달과 공급체계 마련을 위하여 계획 생산체계를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 사업내용

- 사업내용 : 시·군 공공형 관계시장(학교급식, 공공급식 등)의 먹거리 실태·현황의 조사·분석, 지역 먹거리 DB 프로그램 구축(생산정보 시스템, 수발주 시스템 등)
- 사업대상 :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 추진방안 : DB 프로그램 전문기관 용역(도·시·군 단계적 시스템 구축),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시·군 DB 총괄관리, 시·군 연계·협력지원), 시·군(지역현황 입력, 부족·잉여 품목 관리, 기획생산 등)
- 담당부서 : 농생명식품과(로컬푸드팀) ○ 실행주체 : 행정+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3-1-1	초등학교 다면적 식생활 교실	기존+개선
-------	-----------------	-------

□ 추진목적

- 초등학교 대상으로 영양관리·신체활동·건강교육 등이 결합된 ‘다면적 식생활 교실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어린이 영양 개선과 신체활동 증진을 도모
-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건강-영양-맛-신체활동-가치인식’을 통합적으로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교교육에서의 식생활 교육을 강화

□ 사업내용

- 사업내용 :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영양관리와 신체활동이 결합된 ‘다면적 식생활 교실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어린이의 영양을 개선하고 신체활동 증진을 도모
- 사업대상 : 도 교육청 협업사업 단계별 추진(23년 개발, 24년~ 운영), 매년 10개소
- 지원내용 : 신체활동+식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과정 개발, 신체활동에 필요한 교구 지원, ‘다면적 식생활 교실’ 운영, 초등학생 대상 시범학교 선정(저학년 우선), 교육과정 개발, 교수자 양성 지원 등
- 담당부서 : 농생명식품과+도교육청 ○ 실행주체 : 행정+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3-1-2	청소년 바른 먹거리 미각·조리교육	신규
-------	--------------------	----

□ 추진목적

- 건강한 식재료의 맛을 알고 직접 조리할 역량이 먹거리 이해력이라는 점에 주목해 ‘미각과 조리교육’으로 생산~조리의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지원
-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건강-영양-맛-신체활동-가치인식’을 통합적으로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교교육에서의 식생활 교육을 강화

□ 사업내용

- 사업내용 : ‘미각과 조리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농산물 생산에서부터 음식이 만

들어지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

- 사업대상 : 도 교육청 협업사업 단계별 추진, 희망 중·고등학교 10개소
- 추진방안 : 농림축산품부 식생활교육 사업 활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23년) → 시범학교(10개소) 선정·운영('24년) → 성과진단·적용 확대('26년)
- 주요내용 : 조리·영양교육 운영(식생활 관리 능력을 생활기술로 체득, 영국 'cooking and nutrition'), '미각교육' 운영(오감교육으로 지역 음식 습득, 프랑스 '미각교육')
- 담당부서 : 농생명식품과+도교육청 ○ 실행주체 : 행정+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3-1-3	식생태 교육 학교텃밭 운영 확대(도시농업 기반 구축)	기존+개선
-------	-------------------------------	-------

☐ 추진목적

-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대상으로 생태텃밭을 확대 조성, 교과과정과 식생활 교육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먹거리 전반 인식을 개선
- 학교텃밭 조성 및 운영을 통해 미래세대가 먹거리의 생산과정을 체험하고,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개선, 바른 식생활 개념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

☐ 사업내용

- 사업내용 :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생태텃밭을 확대 조성하고, 교과과정과 식생활교육을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사업대상 : 도 교육청 협업사업 단계별 추진, 희망 학교 매년 20개소(현재 운영 중인 스쿨팜사업과 연계하여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 추진), 23년 기획준비, 24년 시행
- 지원내용 : 학교 생태텃밭 조성(교과과정 연계 먹거리 체험활동 학습공간), 참여 학교 대상 전담강사 배치 관리·운영, 도시농업·식생활교육 전문기관 프로그램 지원(연 20개소)
- 담당부서 : 농산유통과(농자재종자팀) ○ 실행주체 : 행정+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3-2-1	지역 먹거리 도민 아카데미 운영	신규
-------	-------------------	----

□ 추진목적

- 지역 먹거리 체계와 건강하고 바른 식문화에 대한 도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활동 네트워크를 지원하여 먹거리 이해력과 실천력을 갖춘 ‘먹거리 시민’ 육성
- 사회교육에서 식생활 교육은 다양한 시민 주체의 지속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장으로 지역 먹거리 계획(푸드플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행 주체 육성에 목적을 둠

□ 사업내용

- 사업내용 : ‘먹거리 시민’ 육성을 위한 ‘지역 먹거리 도민 아카데미’를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먹거리 시민 네트워크 활동’ 조직화 지원으로 식생활 교육 인프라를 확대
- 사업대상 :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거점 시·군 식생활교육 전문교육기관
- 교육내용 : 농림축산식품부(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개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활용
- 추진방안 : 시민인식 증진과 바른 식문화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연간 5개 과정, 과정당 3천만원) →수료자 네트워크 구성 소모임 활동 지원(5개소, 개소 당 3백만원)
- 담당부서 : 농생명식품과(로컬푸드팀) ○ 실행주체 :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3-2-2	바른 먹거리+식생태 교육 프로그램	신규
-------	--------------------	----

□ 추진목적

- 기존 식생활 교육 강조점(영양관리·식습관 형성 등)과 차별화된 탄소중립 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자연+환경+재배+조리 등이 결합된 식생태(食生態)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
- 도민이 음식에서 건강과 먹는 즐거움을 갖기 위해 먹거리에 대한 지식습득과 경험체득을 위한 생애주기별 계층별 식생태 교육 운영

□ 사업내용

- 사업내용 : 농림축산식품부의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에 의거, 생애주기에 따른 식생활

교육 공백을 메우는 생애주기 식생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

- 사업대상 :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거점 시·군 식생활교육 전문교육기관
- 교육대상 : 대학생·직장인·육아여성·고령자 세분 교육과정 (5개 과정, 과정당 3천만원)
- 교육내용 : 바른 먹거리에 대한 이해, 탄소중립 선도 식생태 교육, 도시농업 활동, 식품조리 등에 걸친 일정 기간의 실습형 프로그램
- 담당부서 : 농생명식품과(로컬푸드팀) ○ 실행주체 :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3-3-1	식생활 교육 전문기관 지정과 식생활 교육 지원	기존
-------	---------------------------	----

☐ 추진목적

- 계층별 건강 먹거리 보장과 생애주기별 먹거리 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식생활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식생활 교육 사업과 활동을 촉진
- 먹거리 분야에서 먹거리 시민을 양성하는데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교육 전문성 갖춘 다양한 조직(단체)을 육성해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의 실천적 기반을 확산

☐ 사업내용

- 사업내용 : 지역 먹거리 체계 교육과정 운영을 담당할 전담조직을 육성·지원
- 사업대상 : 지역 내 식생활 교육이 가능한 민간단체 또는 전문기관
- 지원내용 : 지역단위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해 영유아~고령자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식생활 교육 사업 추진 경비 지원(국가지정 사업+지자체 자율사업 시행)
- 특기사항 : 중앙단위 식생활 교육사업 수행기관(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과 연계 추진
- 추진방안 : 식생활 교육 수행기관의 교육역량을 강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검토 지원
- 담당부서 : 농생명식품과(농식품마케팅팀) ○ 실행주체 : 행정+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3-3-2	식생활 교육 전문인력 양성 확대	기존
-------	-------------------	----

□ 추진목적

- 먹거리 종합계획 실행과 지역 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해 건강한 식생활·식생태 문화 확산과 다양한 먹거리 전략 실천분야에서의 전문 활동가 양성 활동 지원
- 지역 먹거리 체계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육성·양성된 활동가 등이 생활 속에서 창의적인 방식으로 활동한 장(프로그램) 마련이 필요

□ 사업내용

- 사업내용 : 푸드플랜 코디네이터 양성 전문교육 과정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활동가(푸드플랜코디네이터) 실행 공간으로 ‘학습 동아리(소모임)’ 활동 지원
- 사업대상 : 지역 내 식생활 교육이 가능한 민간단체 또는 전문기관
- 교육내용 : 농림축산식품부 개발 ‘푸드플랜 지역 활동가 양성과정(기본편+심화편)’ 교육 프로그램과 교재 활용 교육과정 운영(매년 2개 과정, 과정 당 3천만원, ‘23년 시행)
- 활동지원 : 교육수료자 소모임 활동 지원, 먹거리 계획 개선 및 신규사업 발굴 등 프로그램 지원(매년 5개소, 개소 당 3백만원, ‘23년 기획, ‘24년 시행)
- 담당부서 : 농생명식품과(농식품마케팅팀) ○ 실행주체 : 행정+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3-3-3	식생활 교육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신규
-------	--------------------	----

□ 추진목적

- 학교·사회교육에서 식생활 교육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영양(교)사·먹거리·식생활 관련 지원센터 종사자 등이 참여하는 상설적 식생활교육협의체를 구성·운영
- 푸드플랜의 지속가능한 실행과 식생활 교육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식생활 교육 관계자, 급식영양(교)사, 먹거리 관계자⁵²⁾ 등이 참여하는 분야별 거버넌스 체계 운영

52) 먹거리 관계자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공공급식지원센터·학교공공급식(영양교사)·식생활교육지원센터 등이 다양한 활동을 수행 중임

□ 사업내용

- 사업내용 : 식생활 교육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식생활 교육 분야 거버넌스 회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역량강화 활동(연찬회 등)을 지원
- 사업대상 :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전북도 식생활 교육 전문교육기관 등
- 지원내용 : 식생활 교육 핵심주체 참여 회의체 구성·운영(운영계획·추진상황·개선과제·확대방안 등을 논의), 교육지원(영양(교)사·먹거리·식생활 관련 지원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 활동 지원
- 담당부서 : 농생명식품과(농식품마케팅팀) ○ 실행주체 : 행정+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4-1-1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초등과일바우처)	기존
-------	-------------------------	----

□ 추진목적

- 초등학교 과일간식 사업은 미래세대 먹거리 돌봄 대표 정책으로 건강한 지역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지역 먹거리가 현물로 공급되는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
- 초등학교 돌봄교실 대상 ‘과일 바우처 시범사업’을 활용하여 미래세대의 먹거리 돌봄 상징 사업 추진 (‘23년부터 개편, ‘25년부터 농식품바우처에 통합 등 정부계획 대응)

□ 사업내용

- 사업내용 : 초등돌봄 과일간식에 지역 산 과일이 우선 배정·공급
- 사업대상 : 초등학교 400개 학교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학생 전체)
- 지원내용 : 공급방식(1인당 150g 내외 조각과일을 신선편이 형태 공급), 품질기준(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받았거나 표준규격 상등급), 연간 30회 이상 공급(냉장 유통)
- 고려사항 : 공급 과일 간식 형태(형식)는 친환경성 등을 반영하여 플라스틱이 아닌 친환경 컵·파우치 등 과일 도시락 형태로 공급 (주1회)
- 담당부서 : 농산유통과(스마트원예팀) ○ 실행주체 : 행정+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4-1-2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행복 꾸러미 지원	기존
-------	-----------------------	----

□ 추진목적

- 임산부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지역 먹거리를 공급하여 임산부의 건강관리와 지역 먹거리 식재료를 통한 먹거리 돌봄의 사회적 지원 여건을 높임
- 미래세대의 건강과 직결되는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여 지역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가치 제고와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를 도모

□ 사업내용

- 사업내용 : 임산부 대상 친환경 농산물 행복 꾸러미 지원과 공급조직 관리
- 사업대상 : 임신 확인~출산 후 12개월(22개월) 해당 임산부(임신부+출산부), 연 4천명
-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50% 이상 주문),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유기 수산물, 유기·무농약 원료 가공식품 꾸러미 공급(꾸러미 구성 금액 중, 농산물 비중 50% 이상)
- 고려사항 : 기존 공급방식(직배송·택배 병행 8개, 택배 6개)을 직배송으로 개선 고려, 시·군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주요 공급조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안내
- 담당부서 : 농산유통과(친환경농업팀) ○ 실행주체 : 행정+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4-1-3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식재료 공급 개선	기존+개선
-------	-------------------------	-------

□ 추진목적

- 보건소가 시행하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에 제공·공급되는 식재료·먹거리를 시·군 공공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공급·조달하는 계약체제로 전환 추진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과 먹거리 현물공급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지역의 (친환경)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급체계 마련

□ 사업내용

- 사업내용 : 영양플러스 사업 식재료(보충 식품패키지 6종)를 지역 먹거리로 대체 공급

- 사업대상 :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사업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80% 미만 가구)
- 추진근거 :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영양플러스 사업(보건복지부)에 지역 농산물을 공급하는 체계 개편 근거가 마련
- 지침개선 : 영양플러스 식재료는 공개입찰 방식 보충식품 조달체계, 품질·신선도와 지역 먹거리 연계 부족, 사업부서(보건소)와 업무협의로 수의계약 방식 규정 마련, 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이 식재료 공급을 담당
- 담당부서 : 농생명식품과+건강증진과 ○ 실행주체 : 행정+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4-1-4	결식 아동·청소년 아침밥 제공 지원	신규
-------	---------------------	----

□ 추진목적

- 결식 우려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침 도시락 배달 제공하는 ‘엄마의 밥상 프로젝트’를 확대 운영 경제적인 이유로 밥 굶는 아이 없는 지역 사회를 만들기 추진
- 따뜻한 먹거리 돌봄을 상징하는 ‘엄마의 밥상’ 프로젝트(전주시)를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먹거리 돌봄 프로그램으로 위치 짓고, 사업과 활동을 지원해 나감

□ 사업내용

- 사업내용 :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지역 먹거리 아침 식사 제공 지원
- 사업대상 : 갑작스런 상황으로 결식우려 있는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연간 1,000명 수준, 시·군 및 주민자치센터 지원대상 파악·갱신)
- 지원내용 : 1식 단가 6천원 도시락(밥·국·3찬)과 밑반찬 주 5회 새벽 배달로 지원⁵³⁾
- 추진방안 : 시·군 먹거리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조리실 구비) 선정, 시·군은 대상자 파악, 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식재료 조달, 지정기탁으로 돌봄 프로그램 추가
- 담당부서 : 농생명식품과(로컬푸드팀) ○ 실행주체 : 행정+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53) 배송할 원거리가 많은 농촌 지역은 배달 방식과 공급 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을 검토

4-1-5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제공 지원	기존+개선
-------	-------------------	-------

□ 추진목적

- 청년 대학생 아침 결식률을 완화하는 먹거리 돌봄 프로젝트를 지역대학 연계사업으로 청년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지역 먹거리에 대한 우호적인 사회인식을 확산
- 농림축산식품부 지원과 지역대학과 협력하여 대학식당 통해 저렴한 아침식사를 공급하여 대학생의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고, 청년 학생의 먹거리 돌봄 지원

□ 사업내용

- 사업내용 : 지역대학(학생식당)에도·시·군+대학+학생 분담 실구매 1천원 아침밥 제공
- 사업대상 : 지역대학,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 추진방안 :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지원 ‘천원의 아침밥’ 사업 공모(대학+시·군, 1식 5천원) (‘23년 준비, ‘24년 4개소 2년 시행, 이후 확대 검토)
- 정책동향 :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가 지역대학과 재원 분담 협력 사업으로 ‘천원의 아침밥’을 대학 구내식당에서 제공(경북대, 영남대, 전주대 등)
- 담당부서 : 농생명식품과+건강증진과 ○ 실행주체 : 행정+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4-2-1	농식품바우처(시범) 확대 추진	기존+개선
-------	------------------	-------

□ 추진목적

-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시범사업으로(전국 15개 시·군)⁵⁴⁾, 도내 ‘시범사업(지역)’을 추가 유치하여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의 대표 프로그램이 되도록 추진
- ‘농식품바우처 사업’(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하여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생계급여 식품비를 포함한 사용가능 식품비 차액을 지원, 먹거리 돌봄 강화

54) '20년 4개 지자체, '21년 10개 지자체, '22년 15개 지자체, 전라북도는 김제시('21년~)와 정읍시('22년)가 시행 중

☐ 사업내용

- 사업내용 :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지역으로 지정을 추진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 지침에 의거하여 지역내 취약계층에게 신선한 식재료 공급
- 사업대상 : 중위소득 50%이하 비중 높은 군 지역 추가, 2개년 간 시범 운영(약 1천명)
- 추진방안 : 도가 '농식품바우처 사업' 시범사업 공모 대응('23년 준비, '24년 선정 추진)
- 공급품목 : 취약계층 부족 영양, 고려 품목판단(신선식품 중심), 7개월간 지원·사용, 카드충전, 가맹점포 사용
- 가맹점포 : 농협 하나로마트, 지역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단위 로컬푸드 직매장 등 (농협온라인몰 이용 가능)
- 고려사항 : '농식품바우처 사업' 본 사업화 예비타당성 추진 중이나, 재정당국 예산반영 여건이 우호적이지 못해 시범사업 지역으로 '24년 선정될 수 있도록 조속한 추진
- 담당부서 : 농생명식품과
- 실행주체 : 행정+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4-2-2	지역사회통합 먹거리 돌봄 연계	기존+개선
-------	------------------	-------

☐ 추진목적

- 고령자 먹거리 취약계층에게 양적으로 충분하고 질적으로 영양이 풍부한 식사를 제공하면서, 영양관리, 식생활 교육 및 사회적 관계형성까지도 고려한 사업을 추진
-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보건복지부 선도사업)⁵⁵⁾과 결합한 먹거리 돌봄(도시락) 서비스 제공과 공동생활 공동체 대상 주·부식 식재료 지원으로 고령자 돌봄 강화

☐ 사업내용

- 사업내용 :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에 먹거리 돌봄 서비스 제공을 추진

55) 지역사회통합돌봄은 자립적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생활을 영위하도록 보건의료·재활치료·생활지원 서비스 등을 포함한 커뮤니티 케어를 제공, 먹거리 돌봄은 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요소이나 아직 보편화되지 못한 실정.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시가 2020년부터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어 복지서비스 돌봄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사업대상 : 전주시,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 추진방안 : 복지부서+농업부서 협업 사업으로 추진, 식재료 제공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도시락 제조와 배달 등 사회복지기관 등이 담당
- 고려사항 : 기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내 먹거리 돌봄 건강 도시락 배달+영양관리 서비스가 추가되도록 사업시행 지자체의 부서 간 협업을 유도
- 정책동향 :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 협업사업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 내에 식사배달 및 영양관리 서비스를 먹거리통합지원센터·지역사회복지기관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해 오고 있음
- 특기사항 : 기존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비 내에서 충당하되, 해당 지자체의 지원체계와 최소한의 재원 마련이 필요
- 담당부서 : 농생명식품과+해당 시·군 ○ 실행주체 : 행정+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4-2-3	농촌마을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기존+개선
-------	------------------	-------

□ 추진목적

- 농촌마을은 농번기 시기에는 집안일과 농작업을 병행해야 해서 주로 식사를 준비하는 여성 농업인에게 큰 부담이 되어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은 먹거리 돌봄의 핵심임
- 여성 농업인의 영농 중단의 부담을 줄이고,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촌마을 농번기 공동급식 사업을 지속 추진

□ 사업내용

- 사업내용 : 농번기 농촌마을의 공동급식에 필요한 식재료비와 조리원 인건비 지원
- 사업대상 : 공동급식 기반시설 구비 20명 이상 급식 희망 농촌마을, 약 520개 마을
- 지원내용 : 공동급식 조리원 인건비 및 부식비 지원, 도시락 배달+지역식당 이용 전액 식비 지원(마을당 연 3.2백만원, 도시락·식당 1인당 8천원/일, 급식기간 40일 이내)

- 추진방안 : 시·군 자체 심의위원회(급식참여인원·마을영농규모 등 고려 대상마을 선정), 식재료의 구매는 시·군 로컬푸드 직매장 등을 통해 구입 안내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농업인육성팀) ○ 실행주체 : 행정+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4-2-4	먹거리 취약계층 조사·모니터링	신규
-------	------------------	----

☐ 추진목적

- 지역 내에서 경제적·사회적 이유로 먹거리가 부족하거나, 독거 및 거동이 불편한 등 이유로 먹거리 보장 취약 계층에 대한 정례적인 조사가 미비하여 정책 관심이 소홀
- 경제적·사회적 배경으로 취약한 먹거리 상황에 놓인 계층을 대상으로 정기적 먹거리 실태조사를 진행, 먹거리 돌봄·나눔 지원사업과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구축

☐ 사업내용

- 사업내용 : 먹거리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발굴, 먹거리 복지 현황조사 (23년 준비)
- 사업대상 :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전문연구기관, 주민자치센터 등
- 먹거리 취약계층 실태조사 : 국민건강영양조사 기초자료로 취약계층+식품섭취 통계 분석, 취약계층 100가구 표본선정 방문조사(식품섭취+식생활 관련 설문조사)
- 지역 먹거리 복지 현황조사 : 복지사업 내 먹거리 관련 지원사업 현황, 서비스 제공자·수혜자 만족도, 개선사항, 서비스 품질 만족도 등 세부 사항에 대한 조사·분석
- 먹거리 취약계층 발굴의 상시화 : 주민자치센터와 지역사회조직을 통해 먹거리 돌봄 필요 대상자(취약계층) 발굴 상시화
- 담당부서 : 농생명식품과(로컬푸드팀) ○ 실행주체 : 행정+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4-3-1	푸드뱅크·푸드마켓 운영 활성화 지원	기존+개선
-------	---------------------	-------

☐ 추진목적

- 먹거리 나눔 활동 거점으로 기능하는 푸드뱅크와 식재료 지원 필요 저소득층이 직접 기부된 식료품 등을 선택하는 이용자 중심의 푸드마켓 활성화를 촉진⁵⁶⁾
- 푸드뱅크·푸드마켓 사업과 운영 활성화를 통해 식품(먹거리) 기부문화 확대 및 기부활동을 장려하고, 기탁자 발굴 및 이용자 관리 및 홍보 등 사업 강화

□ 사업내용

- 사업내용 : 취약계층(저소득)에게 식품(먹거리)을 제공하는 푸드뱅크·푸드마켓을 통한 식품 돌봄을 강화하고 기부확대를 사회적으로 촉진
- 사업대상 : 광역푸드뱅크,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
- 추진방안 :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푸드뱅크의 원활한 운영을 지역사회 핵심 기업·단체의 식품(먹거리) 등 기부를 촉진하기 위한 행정 차원의 캠페인·협약 등 체결 추진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농생명식품과 ○ 실행주체 : 행정+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4-3-2	먹거리 '나눔냉장고' 확대 지원	기존+개선
-------	-------------------	-------

□ 추진목적

- '나눔냉장고'⁵⁷⁾는 주민들이 식재료·먹거리를 기부하여 어려운 이유로 음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먹거리 나눔과 돌봄을 실천하는 거점으로 그 기능에 주목
- 주민자치조직 등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나눔냉장고를 활성화하는 체계를 갖추고, 나눔냉장고를 통한 식재료·먹거리 기부·나눔을 촉진·확산시키는 캠페인을 전개

□ 사업내용

- 사업내용 : 주민자치조직 등이 기 설치·운영하고 있는 나눔냉장고 활성화 체계를 갖추

56) '푸드뱅크'는 보건복지부의 복지서비스로 소외계층의 식품지원과 식품 기탁을 담당, 지원·기부받은 먹거리를 사회복지시설 등 배분(지원품목 : 쌀, 장류, 통조림 등 식품·생필품 등), '푸드마켓'은 이용자가 월 1회 방문, 필요 물품 선택하여 무료로 수령하는 거점. 전라북도는 취약계층 및 복지 사각지대 주민들과 갑작스러운 실직 등 위기로 어려움에 빠진 주민의 결식예방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광역푸드뱅크 1개소, 26개 기초푸드뱅크·푸드마켓을 운영 중, 연 100억원의 기부식품 등을 받아 1,700여개 사회복지시설 및 3만여명의 취약계층들에게 지원('22년)

57) 전주시는 35개동 주민자치센터에 '전주사람 온(溫)마음 푸드 나눔냉장고' 운영 중, '21년 총 6,107건 후원, 기초생활수급자(12,540명)와 차상위계층(3,742명) 총 18,156명이 나눔냉장고를 이용

고, 나눔냉장고를 통한 식재료·먹거리 기부·나눔을 촉진·확산시키는 캠페인을 전개

- 사업대상 : 시·군(주민자치센터),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
- 지원내용 : 시·군 주민자치센터의 나눔냉장고 ‘기존 운영+신규 설치’ 촉진 정책협약 체결, 지역사회공헌활동 실적으로 반영하여 행정부서의 추진 동기 마련
- 고려사항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자원봉사조직이 나눔 먹거리 소분·관리 담당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농생명식품과 ○ 실행주체 : 행정+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4-3-3	나눔 먹거리 식재료 기부 촉진	신규
-------	------------------	----

□ 추진목적

- 먹거리 나눔 실천 핵심거점과 연계하여 사회적 먹거리 나눔의 일상적 여건과 역량을 바탕으로 공공영역에서의 관리와 지원을 늘려 나감
- 푸드뱅크·푸드마켓·나눔냉장고 등에 나눔 식료품을 채우는 지역사회 식당·가게·단체·개인 후원의 ‘채움가게’ 모집·운영과 규격외+여유 농산물 식재료 기부를 촉진

□ 사업내용

- 사업내용 : 나눔냉장고 연계 ‘채움가게’ 모집·운영과 푸드뱅크·단체급식소 연계 ‘끼니 나눔’ 식품기부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사업대상 : 시·군(주민자치센터), 푸드뱅크, 산지유통전문조직,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 채움가게 : ‘나눔냉장고’에 나눔 식재료·식료품을 채우기 위해 지역사회의 식당·가게·단체·개인 등으로부터 후원을 받는 ‘채움가게’를 모집하여 운영, 채움가게 인증(표시)
- 끼니나눔 : 산지유통주체 규격 외 농산물+당일 미 유통 여유 농산물을 푸드뱅크·단체급식소 연계 식재료 기부 프로그램 촉진 지원
- 담당부서 : 농생명식품과(로컬푸드팀) ○ 실행주체 : 행정+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5-1-1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안전성 검사) 지원	기존
-------	---------------------------	----

□ 추진목적

- 서울시와 공동의 ‘도농상생 공공급식 협력사업’⁵⁸⁾의 식재료 공급과 협력강화를 안정화 하기 위해 식재료 품질관리, 안전성 검사, 교류 프로그램 등 사업주체 지원
- 서울시 공공급식에 공급하는 농산물(친환경·일반) 출하 전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여, 도 내 산 농산물의 신뢰도 제고 및 지속가능한 공공급식 조달체계 마련

□ 사업내용

- 사업내용 : 서울시 공공급식에 로컬푸드 식재료 공급 시 안전성 검사비 지원(타 시·군 농산물 공급 시)
- 사업대상 : 서울시 도농상생 업무협약 체결 4개 시·군(전주시·군산시·남원시·완주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 지원내용 : 도 차원의 산지 식재료 안전성 확보 방안 요청으로 도농상생 공공급식 안전성 검사비 지원(급식 식재료 공급 최소 5일전, 농산물 안전성 분석항목 320성분)
- 담당부서 : 농생명식품과(로컬푸드팀) ○ 실행주체 : 행정+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5-1-2	1시·군-1대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추진	신규
-------	------------------------	----

□ 추진목적

- 수도권 및 광역 대도시 공공급식·단체급식소에 지역 먹거리 식재료를 공급하는 식재료 공급·지원 프로그램 개발하여 도농상생 먹거리 협력기반을 확대
- 대도시와 전라북도 간 도농상생 먹거리 협력기반을 정책적·사회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지자체(도+시·군)와 관련기관(먹거리센터+농협) 등이 참여하는 먹거리 정책협약 추진

58) 전라북도+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16.11.), 전국 최초 도농상생 산지 지자체 지정(완주군, ‘17.5.), 도농상생 산지 지자체 추가 선정-‘17년(완주군+강동구), ‘18년(전주시+서대문구, 군산시+은평구), ‘19년(남원시+동대문구), 익산시 매칭예정

□ 사업내용

- 사업내용 : 1시·군-1대도시 상생의 공공급식 업무협약 추진을 도 차원에서 지원
- 사업대상 : 시·군, 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 지원내용 : 수도권+충청권+영남권 지역의 광역 대도시(자치구) 및 100만 이상 대도시와 '지역 먹거리 상생협약'을 통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업무협약, 홍보 마케팅 등 지원
- 추진방안 : 광역자치단체+대도시 간 통합 지역상생 업무협약 체결 추진 → 도농상생 공공급식 방안 협의·반영 → 도 차원 도농교류 프로그램(시·군 참여) → 공공급식 공급
- 담당부서 : 농생명식품과(로컬푸드팀) ○ 실행주체 : 행정+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5-2-1	지역 먹거리 제휴푸드 정책협약	신규
-------	------------------	----

□ 추진목적

- 소비자 밥상 수요에 부응하여 시·군 기획생산 체계를 지켜나가되, 공공 먹거리(직매장+공공급식 등) 연계 체계를 안정화
-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이 로컬푸드 공공조직(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과 지역 먹거리 협력 '제휴푸드⁵⁹⁾ 협약'을 체결, 시·군간 지역 먹거리 연계·협업 제도화

□ 사업내용

- 사업내용 : 1시·군-1대도시 상생의 공공급식 업무협약 추진을 도 차원에서 지원
- 사업대상 : 전라북도, 시·군, 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 지원내용 : 전라북도가 인증하는 14개 시·군 로컬푸드 먹거리(축산물+임산물+수산물+농산물+가공품 등) 연계방안 협약체결, 제휴·공급 지원을 위한 운영 경비
- 추진방안 : 도+시·군 간 지역 먹거리 제휴푸드 정책협약 체결(기준·인정·방안 등) → 전북+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컬푸드)협동조합 간 제휴푸드 연계·교류 지원

59) 제휴푸드(提携food) :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요에 비하여 공급량이 부족한 농식품에 한해 시·군의 공공형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간 교류를 통해 신뢰할 수준으로 조달하는 로컬푸드 농산물·식재료

- 담당부서 : 농생명식품과(로컬푸드팀)
- 실행주체 : 행정+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5-2-2	시·군 먹거리 제휴푸드 교류 확대	기존+개선
-------	--------------------	-------

☐ 추진목적

- 시·군 푸드플랜과 기획생산 조직화로 건강한 농산물·식재료의 생산을 확대해 나감에도, 시·군의 소비구조+농업구조 여건 상 필요한 식재료 공급은 여전히 한계가 큼
- 소비자 밥상에 필요하지만, 지역별로 구조적·일시적 생산이 어려운 품목(수산물+축산물+임산물, 시기적 신선농산물, 가공품)을 중심으로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교류 확대

☐ 사업내용

- 사업내용 : 도+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간 먹거리 교류를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 사업대상 : 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 지원내용 : 도+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간 ‘제휴푸드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 제휴품목 : 구조적·일시적 생산이 어려운 품목(수산물+축산물+임산물, 시기적 신선농산물, 가공품)을 중심
- 연계기준 : 전라북도 로컬푸드 먹거리의 인증 기준 적용+시·군 자체인증 기준 부합
- 고려사항 : 시·군별 공공형 조직(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컬푸드(협) 등)이 건강·안전 기준 인증 먹거리를 공급하고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수 등이 필수
- 담당부서 : 농생명식품과(로컬푸드팀)
- 실행주체 : 행정+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5-2-3	도농교류 먹거리 체험 확대(직매장 생산·소비교류활동 지원)	기존+개선
-------	----------------------------------	-------

☐ 추진목적

- 농촌-도시, 생산자-소비자가 만나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관계형 먹거리 도농교류 정책사업(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지역 먹거리 소비촉진 및 문화 확산에 기여

- 로컬푸드 직매장 생산농가와 소비자의 관계 형성 및 신뢰 강화를 통해 전라북도 지역 먹거리 및 로컬푸드 인증 직매장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

□ 사업내용

- 사업내용 :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가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체험·교육 프로그램 지원
- 사업대상 : 전라북도 인증 로컬푸드 직매장(15개소) 대상 공모·평가·선정
- 지원내용 : 직매장 출하 생산자-소비자를 연결하는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마케팅 비용 지원
- 지원기준 : 개소 당 사업비 차등 지원, 1~2순위(2개소) 60백만원, 3~5순위(3개소) 40백만원, 6~8순위(3개소) 36백만원, 9~10순위(2개소) : 26백만원
- 고려사항 : 우수농촌 식생활 체험 공간(29개소) 활용 먹거리 체험 프로그램 운영 추진
- 담당부서 : 농생명식품과(로컬푸드팀) ○ 실행주체 : 행정+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5-3-1	지역사회 도시농업 시민텃밭 확대(반려식물 공간조성+도시텃밭)	기존+개선
-------	-----------------------------------	-------

□ 추진목적

- 도민들의 다양한 도시농업 실천활동 욕구 실현을 위해 다양한 활동공간을 조성·보급하고, 식생활 교육과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도시농업 교육을 지원
- 도민들의 다양한 도시농업(생활농업) 실천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공간을 조성·보급하고, 식생활 교육과 연계 체계적·전문적 교육 지원 체계 마련

□ 사업내용

- 사업내용 : 도시농업 활동공간 조성 및 보급,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 아카데미 운영
- 사업대상 : 시·군(농업기술센터 또는 도시농업지원센터), 시·군 도시농업공동체
- 지원내용 : 도시농업 활동공간(도시텃밭) 조성과 도시농업 아카데미 운영비 지원
- 도시농업 활동공간 조성·보급 : 사회적 배려시설(건물) 반려식물 정원(실내), 쌈지텃밭

- (짜투리), 옥상텃밭(건물), 주말농장·교육농장·체험농장, 주머니·상자텃밭(주거공간) 등
- 도시농업 아카데미 운영 : 농사기술 보급 및 전문 교육 프로그램 운영(농림축산식품부 지정 도시농업전문인력양성기관, 민간단체 등 전담기관 지정)
 - 담당부서 : 농생명식품과(농자재종자팀)+농업기술원 ○ 실행주체 : 행정 직접 시행

5-3-2	도시농업 공동체 육성과 활성화 지원	기존+개선
-------	---------------------	-------

□ 추진목적

- 도시농업 교육과정을 매개로 도시농업 실천자를 도시농업공동체로 활동하도록 도시농업공동체⁶⁰⁾ 등록 및 체험농장 운영, 도시농업 홍보행사 등 활동을 지원

□ 사업내용

- 사업내용 : 도시농업공동체 지정 및 활동 프로그램 지원
- 사업대상 : 시·군(농업기술센터 또는 도시농업지원센터), 시·군 도시농업공동체
- 지원내용 : 도시농업 아카데미 교육과정 이수 후 도시농업공동체 등록 안내·지원, 도시농업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지원
- 추진방안 : 5가구 이상이 참여 텃밭·곤충사육·양봉 등을 운영하는 등록 도시농업공동체 대상의 활동 프로그램 공모·심사·선정 지원 (연 20개소, 개소 당 5백만원)
- 추진근거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라북도 도시농업 육성 지원 조례
- 담당부서 : 농생명식품과(농자재종자팀)+농업기술원 ○ 실행주체 : 행정 직접 시행

5-3-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저감 캠페인	기존+개선
-------	--------------------	-------

□ 추진목적

- 먹거리의 유통과 소비(가정·음식점·집단급식소 등) 단계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

60) 도시지역의 도시농업공동체로 전주시에는 14개 도시농업공동체가 등록을 하고 활동 중임(토닥토닥 케어팜, 물왕말CCBL공동체 등)

물 발생을 저감시켜 나가는 사회적 실천 기반을 마련

- 집단 급식소와 가정 내 발생하는 먹거리의 손실 및 폐기량 최소화를 유도하고, 도민 참여 기반의 음식폐기물 저감 우수 사례 확산 및 캠페인 등을 추진

□ 사업내용

- 사업내용 : 공공 집단급식소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축과 가정 감축 참여 실천 캠페인
- 사업대상 : 공공기관(집단급식소), 도민,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 집단 급식소 : 공공기관 중심의 집단급식소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목표 설정 협약체결(최근 3개년 배출량 평균), 성과달성 기관 평가 우수 기관 표창 / (1단계)도 소속 기관 → (2단계)시·군 소속 기관 → (3단계)기타 공공기관
- 가정내 실천 : 음식을 남기지 않는 식습관 교육·캠페인과 푸드뱅크 등과 연계한 식품 기부 운동을 전개, 방송·언론 등을 통한 홍보·캠페인+먹거리 교육 연계
-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농생명식품과 ○ 실행주체 : 행정 직접 시행

5-3-4	음식물류 폐기물 퇴비화 지원	신규
-------	-----------------	----

□ 추진목적

- 먹거리 유통(도매시장 등)과 소비(가정·음식점·집단급식소 등) 단계에서 발생하는 생쓰레기 저감 및 자원화 방안 마련
- 지역별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원화하여 리사이클(순환)하는 방안으로 퇴비화를 통해 도시농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퇴비 관련 시설 마련 및 운영 지원

□ 사업내용

- 사업내용 : 공공 집단급식소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축과 가정 감축 참여 실천 캠페인
- 사업대상 : 시·군(농업기술센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 지원내용 : 집단 급식소 중심으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생쓰레기)과 가로수 낙엽 등을 활용하여 퇴비로 자원화할 수 있는 시설(퇴비장) 조성

- 추진방안 : 퇴비화 시설은 도시농업 활동에 투입되는 수준의 소규모이므로 거주지 등과 일정하게 이격시켜 민원 발생 소지가 없도록 추진, 시범사업 후 추진
- 고려사항 : 도시농업 전략과 연계하여 학교텃밭·도시텃밭·주말농장 등에서 시민들이 친환경농업 자재로 퇴비를 재활용하는 순환체계를 마련
-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농생명식품과 ○ 실행주체 : 행정 직접 시행

6-1-1	로컬푸드 직매장 인증과 활성화 지원(로컬푸드직매장 인증지정)	기존+개선
-------	-----------------------------------	-------

☐ 추진목적

- 로컬푸드 개념을 인지하지 못한 자영업자가 소위 ‘짜통 로컬푸드 매장’을 개장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을 방지하고 로컬푸드의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인증 강화
-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 먹거리 ‘전라북도 로컬푸드’ 판매장을 도지사 인증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심사·평가하여 명패 부착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와 활성화 지원

☐ 사업내용

- 사업내용 : 도지사 인증 로컬푸드 직매장에 인증마크를 제작하여 부착(현재 15개소)⁶¹⁾
- 사업대상 :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 대상,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 추진방안 : 도지사 인증 신청자에 대해 심사 후 인증여부 결정(선정기준에 따른 평가)
- 인증기준 : 지역 농식품 취급, 신선도·안전성, 농가 조직화, 판매액 농가 환원 등
- 사후관리 : 매월 현장 모니터링, 부적격 매장 지정취소(취소매장은 1년간 재신청 제한)
- 담당부서 : 농생명식품과(로컬푸드팀) ○ 실행주체 : 행정+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6-1-2	로컬푸드 직매장 복합문화센터화 추진	신규
-------	---------------------	----

☐ 추진목적

61) 용진농협, 원주로컬푸드협동조합(효자점, 모악점, 삼천점, 둔산점, 하가점), 옥산농협, 동김제농협, 남원원예농협,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 전북삼각로컬마켓, 전주푸드(송천점, 종합경기장점), 남원농협, 정읍원예농협 등

- 농림축산식품부는 ‘로컬푸드 복합센터⁶²⁾’ 소비문화 조성을 위해 직매장을 복합문화센터화로 유도·지원하고 있어 소비자 이용 편의를 위한 다양한 편의 공간 조성에 대응
- 로컬푸드 판매 중심으로 농가레스토랑·카페·공유부엌 등을 결합한 ‘지역 먹거리 복합센터화’를 추진하고, 기존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다양한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

□ 사업내용

- 사업내용 : 직매장 이용편의를 위한 복합문화센터화 컨셉에 따른 편의공간 등 설치
- 사업대상 :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 대상,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 지원내용 : 직매장 이용 소비자가 로컬푸드 상품 구매와 연계한 교류공간(공정무역 무인카페), 알림판, 먹거리 작은 도서관(건강 먹거리 관련 도서·정보 코너) 등 설치
- 추진방안 : 건강한 식재료 구매수요 기반으로 직매장의 이용 서비스(공간+설비)를 결합한 편의공간으로 개선, 매년 3개소 공모·선정 지원(개소 당 3천만원)
- 담당부서 : 농생명식품과(로컬푸드팀) ○ 실행주체 : 행정+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6-1-3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 활성화	기존+개선
-------	-----------------	-------

□ 추진목적

- 직매장 상설 판매거점을 보완하여, 생산자~소비자가 건강한 지역 먹거리를 매개로 정기적으로 만나는 교류와 소비 촉진 홍보 장으로 ‘직거래 장터’의 중요성이 높음
-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 먹거리로 인증된 로컬푸드 농산물·가공품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우수 농특산물-마을상품과 공동으로 정기 소비확대 활성화 지원

□ 사업내용

- 사업내용 :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 운영
- 사업대상 :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 대상,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62) 로컬푸드 직매장 복합센터화의 대표 사례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을 통해 구축한 전주푸드 효천직매장이 대표 사례임

- 지원내용 : 도내 개최 다양한 거점 축제·행사의 장을 활용한 특판행사 진행비 지원
- 추진방안 :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는 대표 사업조직을 공모·심사 → 지역별 로컬푸드 먹거리 직거래 장터 개설 운영
- 고려사항 : 행사 기반 일회적 직거래 행사에 더해 생활공간 속 정기적 ‘이동장터’ 운영방안 마련·추진 필요(먹거리 분야 사회적기업 육성 결합, 연 3천만원)
- 담당부서 : 농생명식품과(로컬푸드팀) ○ 실행주체 : 행정+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6-1-4	小생활권 ‘작은 직매장’ 개설 추진	신규
-------	---------------------	----

☐ 추진목적

- 지역 먹거리의 이용 활성화와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생활권 작은 직매장을 통한 공급망을 확대가 요구
- 지역 먹거리 이용 활성화와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생활권(인구밀집) 범위 ‘작은 직매장’을 소상공인 협력으로 개설 추진

☐ 사업내용

- 사업내용 : 도시지역 인구 밀집 지역에 ‘로컬푸드 작은 직매장’ 개설을 지원하는 사업
- 사업대상 : 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컬푸드 사업조직,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 지원내용 : 기존시설 활용 소규모 직매장(신선·가공·반찬 등) 개설 지원(연 1개소, 10억원)
- 추진방안 : 거주지역 상권을 고려한 상생방안 마련 → 시·군 공모·심사 → 개설·운영, 전주권 중심으로 농촌 시·군 운영 작은 직매장으로 로컬푸드 생활화를 실천해 나감
- 고려사항 : 지역 먹거리 판매를 희망하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온라인거래, 직거래·직배송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나들가게 지역 먹거리 연계 방안)
- 담당부서 : 농생명식품과(로컬푸드팀) ○ 실행주체 : 행정+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6-2-1	지역사회 마을부엌 조성 지원	신규
-------	-----------------	----

□ 추진목적

- 식생활 개선(조리기술·식습관), 공동체 증진(관계형성·이웃돌봄), 먹거리 시민성 고양(시민의식·나눔문화)을 위한 ‘마을부엌’⁶³⁾을 먹거리 계획에 맞게 조성해 나갈 요구가 큼
- 조리시설(부엌)을 갖추고 조리과 식사나눔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과 나눔 먹거리를 실천하는 마을부엌(커뮤니티키친)을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조성 확대

□ 사업내용

- 사업내용 : 먹거리 시민사회조직이 ‘마을부엌’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경비 지원
- 사업대상 : 시·군 식생활교육·먹거리나눔 사회적경제 조직,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 지원내용 : 마을부엌 공간 및 설비 구축 비용 (연 3개소, 개소 당 5천만원)
- 추진방안 : 공모·심사 선정 → 운영평가를 통해 마을부엌 인증방안 추진
- 고려사항 : 공간·시설 구축 비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먹거리 돌봄 정책사업 활용 검토)
- 담당부서 : 농생명식품과(로컬푸드팀) ○ 실행주체 : 행정+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6-2-2	공동체 소셜다이닝 프로그램 지원	신규
-------	-------------------	----

□ 추진목적

- 마을부엌은 공동체 단위 조리시설을 갖추고 조리·식사나눔 프로그램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식사준비 능력을 늘려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어 활성화가 필요
- 생활 개선(조리기술·식습관), 공동체 증진(관계형성·이웃돌봄), 먹거리 시민성 고양(시민의식·나눔문화)을 위한 마을부엌의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을 특성 있게 지원⁶⁴⁾

63) ‘정기적으로 한 끼 또는 그 이상의 식사를 함께 준비하고 나누는데 필요한 공동체 기반 시설과 프로그램’으로 먹거리 시민 활동의 대표 공간. 서울시는 2018년~2020년 자치구 대상으로 마을부엌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하였음

64) 전주시는 ‘마을부엌 기반조성’을 위해 ‘마을부엌 활동가 양성교육, 마을부엌 시범운영’(‘21년~) 시행 중

□ 사업내용

- 사업내용 : 먹거리 시민사회조직이 ‘마을부엌’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 지원
- 사업대상 : 시·군 식생활교육·먹거리나눔 사회적경제 조직,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 지원내용 : 마을부엌 운영 프로그램 지원(예-성인병 식습관개선, 건강·환경 채식마당, 학교박청소년 식생활자립, 중년·퇴직남성 먹거리 배움) (연 10개소, 개소 당 1천만원)
- 고려사항 : 기존 마을부엌 시설을 갖추고 유사 프로그램 운영 관련 조직의 사전 파악으로 가능한 모든 조직이 마을부엌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
- 추진방안 : 공모·심사 선정, 먹거리 활동가가 스텝으로 참여하는 조직 중심으로 선정
- 담당부서 : 농생명식품과(로컬푸드팀) ○ 실행주체 : 행정+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6-3-1	지역식당 지역 식재료 이용 장려 지원	신규
-------	----------------------	----

□ 추진목적

- 전라북도농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조례’를 개정, 외식업자가 지역 농산물 이용 시 지원할 근거를 마련
- 지역식당(외식업자) 대상으로 지역 먹거리 식재료를 정해진 기준과 절차 등으로 이용할 경우 기준에 따른 방법으로 ‘장려금’ 등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확산을 도모

□ 사업내용

- 사업내용 : 지역식당이 지역 식재료 이용 시 장려금 지원으로 지역 먹거리 소비 촉진
- 사업대상 : 시·군 외식업자, 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 지원내용 : 지역 외식업자(지역식당) 지역 식재료 이용 시 경비 일부 지원(지원금 산정 기준 검토 필요)
- 추진방안 : 외식사업자 지역 농산물 식재료 이용 지원대상·기준·절차·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지침 준용, 기준·절차 이용 시 ‘로컬푸드 장려금’ 지원

- 고려사항 : 외식사업자 로컬푸드 식재료 공급은 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담당
- 담당부서 : 농생명식품과(로컬푸드팀) ○ 실행주체 : 행정+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6-3-2	로컬푸드 지역식당(레스토랑) 인증과 홍보	신규
-------	------------------------	----

□ 추진목적

- 전라북도는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조례’를 개정, 외식업자가 지역 농산물 이용할 경우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의 인증과 홍보를 추진
- 지역 식재료 이용 외식사업자를 ‘로컬푸드 지역식당’으로 인증, 인증간판 부착 및 정보를 제공하고 외식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외식사업자’ 지정도 활용하여 지원

□ 사업내용

- 사업내용 : 지역 식재료 이용 외식업자의 로컬푸드 우수식당 인증과 홍보 지원
- 사업대상 : 시·군 외식업자, 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 지원내용 : 지역 식재료 이용 지역 외식업자(지역식당) 대상 ‘로컬푸드 우수식당’(우수 외식사업자) 인증·지정과 소비 홍보 지원
- 추진방안 : 식재료 이용 협약 → 식재료 공급 → 식재료 이용 점점 → 전주푸드 지역 식당 인증 → 우수외식사업자 지정 확대
- 인증기준 : 농림축산식품부 우수외식사업자 지정 근거·기준·관리 참고, 지역식당 참여 확대에 초점을 두어 적절한 기준선 마련
- 담당부서 : 농생명식품과(로컬푸드팀) ○ 실행주체 : 행정+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7-1-1	먹거리 정책 거버넌스 기구 운영	신규
-------	-------------------	----

□ 추진목적

- 먹거리 종합계획이 작동하기 위해 먹거리 전략에 걸친 도민(시민) 참여형 정책의 심의, 결정, 평가 등의 참여형 운영 체계(거버넌스 추진체계)가 관건으로 강조됨

- 정책 전반 실행점검·개선평가 기구로 ‘먹거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을 활성화하며,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상설숙의기구’를 운영, 참여형 먹거리 거버넌스 체계 마련

□ 사업내용

- 사업내용 : ‘먹거리위원회’ 구성·운영, 시민사회 참여 ‘먹거리 상설숙의기구’를 구성·운영
- 지원내용 : 먹거리위원회 및 시민사회 참여 상설숙의기구 운영 경비
- 추진방안 : 먹거리 기본조례에 의거하여 ‘먹거리위원회’를 구성 → 상설숙의기구 구성·운영방안은 먹거리위원회에서 마련
- 먹거리위원회 : 먹거리 종합계획의 추진전략에 집중해 계획의 심의와 평가·개선 중점
- 상설숙의기구 : 먹거리 전략 전반에 대한 도민의 필요·요구 수렴·논의·정리하는 공간
- 담당부서 : 농생명식품과(로컬푸드팀) ○ 실행주체 : 행정+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7-1-2	먹거리 정책 행정협력 체계 구축	신규
-------	-------------------	----

□ 추진목적

- 먹거리 정책을 종합하여 실행하기 위해서는 행정 직제에 따른 부서 간(칸막이)행정을 넘어서 정책을 종합·연계·조정하는 실행체계 구축이 중요
- 먹거리 정책을 종합하여 실행하기 위해 행정 직제에 따른 부서 간(칸막이)행정을 넘어서 정책을 종합·연계·조정하는 먹거리정책책임관 지정과 행정협의체 운영

□ 사업내용

- 사업내용 : ‘먹거리정책책임관’ 지정과 ‘먹거리 정책 행정협의체’의 구성 운영
- 추진방안 : 먹거리 종합계획이 다루는 추진전략·중점과제를 행정 내에 총괄·조정할 행정협의체를 구성하고, 먹거리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 정책의 기획·조정 실행체계 마련
- 먹거리정책책임관 : 먹거리 기본조례에 의거하여 먹거리 정책 추진담당 국장을 지정, 주요정책 정례 보고·점검, 필요시 관련 정책 간 연계 등을 통한 시너지를 위해 부서

간 협업 방안 등 검토·마련 등

- 먹거리행정협의체 : 먹거리 관련 정책 전라북도 부서(과)장 참여 '행정협의체'로 구성, 부서 간 정책의 실효적인 조정과 연계 등을 위해 위원장은 부지사(또는 국장)가 맡음. 행정협의체의 전반적인 운영과 자료 준비 등 간사는 '식품산업과'가 맡음
- 관련부서(검토) : 농생명식품과, 농산유통과, 농업정책과, 사회복지과, 생활환경과, 교육협력추진단, 농업기술원, 출연기관(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등) 필요시 참여
- 기본조례 : 행정 내 먹거리 관련 부서 정책종합·조정 '먹거리 정책책임관' 지정 근거
- 담당부서 : 농생명식품과(로컬푸드팀) ○ 실행주체 : 행정+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7-1-3	시·군 먹거리 정책 추진체계 강화 지원	신규
-------	-----------------------	----

□ 추진목적

- 전라북도 먹거리 종합계획은 시·군 먹거리 계획을 바탕으로 현장의 실행역량을 통해 실천되므로 시·군 먹거리 정책의 추진체계에 대한 강화가 광역의 주요 역할임
- 전라북도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군 먹거리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조례 제·개정, 전담조직의 마련, 거버넌스 기구 운영 등의 추진체계 강화를 지원

□ 사업내용

- 사업내용 : 시·군 조례 제정·개정 지원, 전담조직 설치 지원, 거버넌스 기구 운영 지원
- 지원내용 : 시·군 대상으로 '먹거리 정책 추진체계 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
- 추진방안 :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한 시·군의 먹거리 정책 추진체계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한시적(1년)으로 지원
- 주요내용 : 먹거리위원회 등 역량강화 워크숍, 먹거리 거버넌스 구축방안 교육·컨설팅, 먹거리 전략 관련 자치법규 개선·마련 워크숍 등 (시·군별 1천만원)
- 담당부서 : 농생명식품과(로컬푸드팀) ○ 실행주체 : 행정+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7-2-1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신규
-------	-------------------	----

☐ 추진목적

- 전라북도 먹거리 종합계획 핵심 실행단위이자 시·군 먹거리 정책의 종합적 지원을 담당할 중간지원조직을 공공형 조직으로 설치, 공공먹거리 책임성 갖추
- 전라북도 및 시·군 먹거리 정책에 대한 현장 중심적 지원체계를 구축, 먹거리 계획의 실행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별·부문별 먹거리 관련 수요를 정책화하는 기능

☐ 사업내용

- 사업내용 : 시·군 조례 제정·개정 지원, 전담조직 설치 지원, 거버넌스 기구 운영 지원
- 지원대상 : 전라북도 출연기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내 전담기구 설치)
- 주요기능 : 학교급식·공공급식 총괄, 기획생산 지원, 지역가공 기획, 시·군계획 수립·실행 지원, 먹거리 돌봄·나눔 지원, 식생활 교육 지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온라인 플랫폼 운영, 도+시·군 거버넌스 체계 운영 지원, 먹거리 계획 평가·개선·홍보 등
- 고려사항 : 먹거리 종합계획과 관련한 핵심기관(도교육청, 도 사업부서)의 전담인력을 파견하고, 민간 전문가의 채용으로 지원센터 운용 인력 마련
- 담당부서 : 농생명식품과(로컬푸드팀) ○ 실행주체 : 행정+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7-3-1	지역 먹거리 홍보 활성화 지원	신규
-------	------------------	----

☐ 추진목적

- 지역 먹거리 홍보는 단순히 로컬푸드 식재료 소비를 촉진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역 먹거리 체계’에 근거 ‘지역순환경제’를 갖추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기대효과 인식이 중요
- 지역 먹거리의 가치·내용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홍보·광고물을 지속 노출하여, 우호적 인식과 사업·활동 참여 촉진(방송·언론·SNS 다양화, 소비의 날 행사 등)

☐ 사업내용

- 사업내용 : 도민 대상 지역 먹거리 홍보와 전라북도 로컬푸드의 날 지정 운영
- 홍보방안 : 먹거리 소비 집중 홍보전략을 먹거리 종합계획 전반 콘텐츠로 확대,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하여 노출 빈도 확대(방송·언론용 기획홍), 로컬푸드 서포터즈를 구성 지역 먹거리 실천활동 담은 참여형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 등
- 로컬푸드의 날 : ‘저탄소 식생활 실천의 날(매주 금요일 운영)’과 연계하여 ‘로컬푸드 소비의 날’을 운영, 시·군별 다양한 실천활동·사업의 홍보 및 소비촉진 프로그램 운영
- 고려사항 : 관계 공무원 등이 모범적으로 로컬푸드 장보기를 수행하여 시민참여와 지역사회 관심을 유도
- 담당부서 : 농생명식품과(로컬푸드팀) ○ 실행주체 : 행정+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7-3-2	전북 먹거리 온라인 플랫폼 운영	신규
-------	-------------------	----

☐ 추진목적

- 건강하고 안전한 전북 먹거리의 도민 참여·구매·소비 등 행동을 지원할 ‘온라인 플랫폼’을 소비자 이용편의에 맞춘 정보제공과 상품구매 등 기능을 강화해야 할 시점
- 지역 먹거리의 상품·구매정보, 활동 프로그램 정보, 먹거리 자원·홍보정보 등을 담은 통합 온라인 플랫폼, 먹거리의 이용 및 관련 활동 프로그램 참여 촉진

☐ 사업내용

- 사업내용 : 다양한 먹거리 정보(상품·활동 등) 제공 통합 플랫폼을 개설하여 운영
- 지원대상 : 전북 먹거리통합지원센터
- 추진방안 : 로컬푸드 식재료 상품 및 구매정보, 활동 프로그램 사전·사후 정보, 자원·홍보정보를 온라인 플랫폼 탑재→도민들이 모바일 단발기(앱 기반) 등으로 손쉽게 검색하고 정보를 공유→실제 온라인 구매와 오프라인 구매, 활동 프로그램 참여로 유도
- 고려사항 : 소비자의 정보욕구와 생활 속에서의 편리 등을 고려, 휴대전화 앱 기반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 검색이 실제 상품구매·참여로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

- 담당부서 : 농생명식품과(로컬푸드팀)
- 실행주체 : 행정+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7-3-3	먹거리 실태조사 및 먹거리 도민역량 평가	신규
-------	------------------------	----

☐ 추진목적

- 먹거리 종합계획이 실효적인 추진전략과 중점과제 도출하기 위해서는 도민의 먹거리 이용실태 등 근거에 기반한 정기적인 조사·진단을 통해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
- 먹거리 종합계획 정책실행을 통한 성과는 도민 모두가 먹거리에 대한 이해와 생활 속 실천 역량으로 귀결되어야 하므로 ‘시민’의 관점에서 ‘먹거리 도민역량’ 평가가 필요

☐ 사업내용

- 사업내용 : 도민의 먹거리 이용실태 및 먹거리 시민역량 조사·분석
- 지원대상 : 전북 먹거리통합지원센터
- 추진방향 : 5개년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기적(2년)인 먹거리 실태 및 현황 조사의 분석을 진행, 목표치 관리 및 개선의 근거로 활용
- 실행방안 : 도민 대상(1,000명, 시·군 인구·연령 비례 표본 할당)으로 먹거리 이용실태 및 먹거리 태도(역량)을 진단하는 조사 수행
- 담당부서 : 농생명식품과(로컬푸드팀)
- 실행주체 : 행정+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7-3-4	먹거리 보고대회 및 활동백서 발간	신규
-------	--------------------	----

☐ 추진목적

- 먹거리 종합계획이 행정의 정책성과로 그치지 않고 시·군을 포함한 다양한 도민의 참여를 통해 정기적으로 보고되고 실천과제를 다짐하는 도민 참여형 보고대회를 추진
- 먹거리 정책과 활동을 정리하는 성과 보고대회의 정례적 개최, 먹거리 거버넌스 추진 체계의 활동과 결합하여 활동결과를 담은 자료(백서)로 정리

□ 사업내용

- 사업내용 : 먹거리 정책 및 도민의 다양한 활동을 정리하는 성과보고대회 개최
- 지원대상 : 전북 먹거리통합지원센터
- 보고대회 : 먹거리 종합계획의 매년 실행계획을 중심으로 정책사업+도민활동 등 성과와 과제를 보고하는 자리, 매년 정리·평가의 장으로 활용, 시·군 참여(경진대회 검토)
- 활동백서 : 먹거리 정책 도+시·군 거버넌스 추진체계(먹거리위원회+상설숙의기구)의 활동과 결합하여 활동결과를 담은 자료로 정리·발간 (년차 보고서 성격)
- 담당부서 : 농생명식품과(로컬푸드팀) ○ 실행주체 : 행정+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7-3-5	먹거리 정책 평가·개선체계 확립	신규
-------	-------------------	----

□ 추진목적

- 일반적인 정책평가·개선의 형식화된 틀을 지양하고, 먹거리 종합계획이 목적하는 성과지표(목적·목표 등)의 적정한 관리·평가·개선 방안을 마련

□ 사업내용

- 사업내용 : 참여형 성과평가·환류체계 구축, 먹거리 종합계획 실행과정의 기록·자료에 입각한 평가, 결과의 자료화, 성과대회 개최 등의 흐름으로 추진
- 지원대상 : 전북 먹거리통합지원센터
- 추진방안 : 먹거리위원회 성과평가·환류 방안 마련 → 활동·성과자료 작성(행정+센터) → 도민참여 단위의 논의·과제도출 → 먹거리위원회 성과평가·과제 → 성과대회 보고
- 평가기준 : 먹거리 종합계획의 성과평가는 양적 목표와 질적인 목적을 동시에 고려, 평가·진단에 필요한 데이터(자료 등) 생산→정리(정책 만족도·중요도, 먹거리 시민역량 의식조사 활용)
- 고려사항 : 년초 성과평가에 수반하는 데이터·자료의 작성·생산·정리를 위한 기관 단

위(행정+센터 등)의 역할분담 확립, 년중 자료 작성 수행

- 논의구조 : 상설숙의기구-분과회의(위원회) 등에서 성과평가·개선과제 마련 프로그램 운영과 자료화, 먹거리위원회에서 평가·개선 내용 논의·결정
- 결과보고 : 성과평가·개선과제 전 과정 걸쳐 실적 등은 자료화하여 백서로 발간, 이를 중심으로 연말·연초 성과대회 개최로 공유 확산
- 담당부서 : 농생명식품과(로컬푸드팀) ○ 실행주체 : 행정+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정책연구 2022-28

전라북도 먹거리 종합계획 추진전략 연구

발 행 인 | 권 혁 남

발 행 일 | 2022년 11월 30일

발 행 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445-9 95330 (PDF)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전북연구원**

550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Tel 063. 280. 7100

Fax 063. 286. 9206

www.jthink.kr

